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through Electronic Dictionaries, and South/North Korean and Overseas Korean Literature, and Indigenous Languages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11일(금)

October 10th (Thu) ~ October 11th (Fri), 2024

주최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관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후원 | 통일부 협력 | 유네스코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 · 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through Electronic Dictionaries, and South/North Korean and Overseas Korean Literature, and Indigenous Languages



차례 Table of Contents

01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 · 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개요

일정표

개회사

환영사

축사

02 첫째 마당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기조강연 **유현경** (연세대학교 교수)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

기조강연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국어사전의 변천과 과제

발표 1 **최준호** (겨레말큰사전 편찬1부장)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토론 1 **도원영**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2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

토론 2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발표 3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전자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과
표제어 통계 분석을 통한 고유어의 발전 방안

토론 3 **정희창** (성균관대학교 교수)

03 둘째 마당 :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기조강연 **박덕규**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재외동포 문학과 모국어

발표 1 **이상숙** (가천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

토론 1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2 **이정록** (이야기발명연구소장, 시인)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

토론 2 **안도현** (시인)

발표 3 **박안토니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

토론 3 **임형모** (한성대학교 교수)

발표 4 **김호웅**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조선족문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론 4 **윤여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5 **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과 언어 의식

토론 5 **오은영** (제주대학교 교수)

01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 · 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개요

일정표

개회사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환영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개요 Overview

행사명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 · 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일 시

2024년 10월 10일(목) 10:00~16:50
2024년 10월 11일(금) 10:30~17:50

장 소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대강당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0-260)

주 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후 원

통일부

협 력

유네스코

주 제

첫째 마당 :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둘째 마당 :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일정표 Timetable

1일차 : 2024년 10월 10일(목)

시간	제목	발표자	국가
개회식 | 사회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			
10:00–10:05	개회사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한국
10:05–10:10	환영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
10:10–10:30	축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한국
10:30–10:40	장내 정리		
시간	**제목**	**발제자/토론자**	**국가**
첫째 마당: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 좌장 김경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사전학회 회장)			
10:40–11:20	기조강연 :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	**유현경**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11:20–12:00	기조강연 : 국어사전의 변천과 과제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한국
12:00–13:30	오찬		
13:30–14:10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최준호** 겨레말큰사전 편찬1부장	한국
14:10–14:20	토론	**도원영**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
14:20–15:00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한국
15:00–15:10	토론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한국
15:10–15:30	휴식		
15:30–16:10	전자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과 표제어 통계 분석을 통한 고유어의 발전 방안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한국
16:10–16:20	토론	**정희창**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
16:20–16:50	종합 질의		

2일차 : 2024년 10월 11일(금)

시간	제목	발제자/토론자	국가
둘째 마당: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 좌장 한성우 (인하대학교 교수)			
10:30–11:10	기조강연 : 재외동포 문학과 모국어	**박덕규**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11:10–11:50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	**이상숙** 가천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한국
11:50–12:00	토론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
12:00–13:30	오찬		
13:30–14:10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	**이정록** 이야기발명연구소장, 시인	한국
14:10–14:20	토론	**안도현** 시인	한국
14:20–15:0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	**박안토니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
15:00–15:10	토론	**임형모** 한성대학교 교수	한국
15:10–15:30	휴식		
15:30–16:10	중국 조선족문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김호웅**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16:10–16:20	토론	**윤여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16:20–17:00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과 언어 의식	**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한국
17:00–17:10	토론	**오은영**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
17:10–17:40	종합 질의		
17:40–17:50	폐회식		



제5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회사



민 현 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숙명여자대학교, 강릉대학교 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한국어교육학회장, 국제한국어 교육학회장

· 2019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민현식입니다.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은 사업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을 개최하기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포럼을 축하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함께 준비하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박상미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유현경 연세대학교 교수님,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님, 박덕규 단국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초청 문인과 학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와 주신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 박안토니나 교수님, 중국 연변대학교 김호웅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낭송 영상을 직접 제작해 주신 이정록 시인님, 연변의 저명한 석화 시인님, 고려인 사회의 저명한 김블라지미르 시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은 유엔이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을 선언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유네스코와 사업회는 네 차례의 국제학술포럼 행사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무사히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이 샘물이 되어 토착어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빚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착어가 빛을 발할 때 그 안에 스며 있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의 가치도 아울러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사업회는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및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토착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회의 정관에는 남북의 토착어뿐만 아니라 세계 20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50만 한민족의 겨레말도 수집·보존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남북한의 지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말, 일본 재일동포의 말로 쓰인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의 주옥같은 토착어를 어떻게 찾아서 보존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전자 겨레말큰사전》편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전자사전에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토착어를 어떻게 계승하고 보존할 것인지가 포럼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도 시인들의 시낭송 영상을 통하여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토착어로 문학하기'는 토착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 과정을 공유할 뿐 아니라 토착어 사용자의 낭독 영상을 매체로 기록해 보존한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만약 토착어 사용자가 없다면 토착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럼이 세계 곳곳에서 사라져 가는 토착어를 모두 지키고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럼의 작은 울림이, 꿈틀대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앞으로 더 큰 울림이 되고 더 우아한 몸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한데 모여 물결을 이루고 바람을 일으킨다면 세계인들이 토착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사업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종이사전 《겨레말큰사전》뿐만 아니라 《전자 겨레말큰사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겨레의 염원이기도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편찬회의를 시작하여 그동안 스물다섯 차례 남북이 만나 올림말을 선정하고 자모순서, 어문규범 등에서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를 인정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고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하여 유네스코와 함께 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5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Opening Remarks



민 현 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숙명여자대학교, 강릉대학교 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한국어교육학회장, 국제한국어 교육학회장

· 2019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Greetings. I am Min Hyunsik, President of t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The 5th UNESCO · Gyeoremal-Keunsajeo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is co-hosted by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with the support of UNESCO. I sincerely appreciate your attention and support in making this year's forum possibl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ungho, for his congratulations and unwavering support for this forum. I als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Secretary-General Han Kyungkoo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Ambassador Bak Sangmee of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for their efforts in co-organizing this forum. In addition,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Yoo Hyeong-yeong of Yonsei University, Professor Choi Kyeongbong of Wonkwang University, and Professor Park Duk-kyu of Dankook University for delivering the keynote lectures. I also extend my gratitude to the invited writers and schola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 their participation i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a wide range of topic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Professor Pak Antonina of Ushynsky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and Professor Kim Howoong of Yanbian University in China for making the long journey to participate in this forum. Additionally, I am deeply grateful to poet Lee Jeong-rok for personally creating a poetry recitation video, as well as to the renowned Korean-Chinese poet Suk-hwa from Yanbian and the esteemed poet Vladimir Kim from the Goryeo-in community.

The year 2024 marks the third year since the UN declared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 spanning from 2022 to 2032. During this time, UNESCO and t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have successfully hosted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four times, thanks to your unwavering support. We firmly believe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cannot be achieved by any one entity alone. We have no doubt that all of you here will serve as catalysts, helping indigenous languages to shine and flourish. When indigenous languages are illuminated, the sentiments and cultural values they embody will also eventually radiate brightly.

This year, at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the Joint Board will explore measures to preserve and utilize indigenous languages under the theme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through Electronic Dictionaries, and South/North Korean and Overseas Korean Literature, and Indigenous Languages.” The Joint Board’s articles of association specify that in addition to South and North Korean indigenous languages, the Joint Board is also tasked with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languages of the Korean diaspora, spoken by 7.5 million Korean people living in around 200 countries.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will serve 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discovering and preserving our valuable indigenous languages within literary works written not only in the regional dialect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n the Korean languages spoken by Korean Chinese, Goryeo-in (ethnic Koreans from Central Asia), and Zainichi Koreans in Japan. As the preparation for the publication of The Electronic Gyeoremal-keunsajeon, a comprehensive electronic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s,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last year, this forum will also focus on how to transmit and preserve indigenous languages found within literary works through this electronic dictionary. Furthermore, the pilot project “Literary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20, will continue consistently with the creation of poetry recitation videos by poets. The “Literary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initiative holds great significance, as it not only involves appreciating the literary works of indigenous language authors and sharing their creative processes, but also records and preserves recitations by indigenous language speakers in video format. These activities are crucial because without indigenous language speakers, the languages themselves cannot continue to exist.

This forum cannot preserve every single indigenous language that is disappearing around the world. However, even a small resonance, even a subtle gesture of this forum is necessary to grow into a larger resonance and a more significant action. If the will of each individual comes together to form waves and stir the wind, I believe the global community will join us in preserving and advancing indigenous languages.

The Joint Board is preparing for the publication of The Electronic Gyeoremal-keunsajeon, in addition to the paper version, The Gyeoremal-keunsajeon, which is being co-compil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 publication project of The Gyeoremal-keunsajeon, the very first unifie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presents the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serves as foundational work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Since the first meeting of the Joint

Compilation Committee at Mount Geumgang in 2005, members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held 25 meetings, where they made key decisions on selecting entry words and reached important agreements on the order of vowels, consonants, and other linguistic rules. Throughout this process, they acknowledged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worked to restore national homogeneity. Go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he work of compiling The Gyeoremal-keunsajeon, aiming to promote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preserving and developing our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together with the people of Korea. We are also collaborating with UNESCO to strengthen our ti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kindly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press my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in our forum, and I wish you peace and good health.

Thank you.

환영사



한 경 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2019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공동체로서의 회사: 일본 기업의 인류학적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세계의 한민족 : 아시아·태평양』(통일원) 등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지난 2022년 UN이 제정하여 UNESCO가 적극 추진 중인 “세계 토착어 10년”이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하였고, 이 기조에 맞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주관해온 국제학술포럼도 벌써 5회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글로벌 팬데믹과 여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본 국제학술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업회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연사와 청중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는 2021년부터 전 세계 산재한 다양한 토착어들이 다양한 위협을 이겨내면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오고 있는 사례들을 “토착어로 문학하기”라는 주제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남북 분단 고착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와의 접점 약화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수행해온 겨레말 사전 편찬 작업과 각국 토착어 자료 구축 연구 상황을 매 회 소개하여 토착어 중심의 언어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5회차 국제포럼에서는 전자사전 플랫폼 활용에 따른 과제와 국내외 한국어 사용 집단의 다양한 모국어 문학 창작 실태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기대됩니다.

토착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전통지식의 근원이며,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유·무형의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져 인류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언어는 사용인구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모두 토착어에서 시작했고, 국경을 초월하여 쓰이는 소위 공용언어도 토착어로부터 어휘를 비롯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세계관을 배우지 못했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설립 취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 이면에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소통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언어 또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특히나 외부 위협에 취약한 토착어가 오랜 시간 간직해왔고 토착어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전통, 역사, 문화와 공동체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위적인 언어의 훼손과 파괴를 막는 노력은 절실합니다.

유네스코는 토착어의 보존과 부양, 적극적 활용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네스코 본부는 지난 5월 세계 토착어 10년 계기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하고 각 국가별 토착어 활용과 지속가능발전을 연계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및 협업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첫 온라인회의를 계기로 국가별 우수 사례 공유와 다양한 토착어 발전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내년 초 우수사례집 발간을 목표로 토착어 보존, 활용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이에 오늘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국제학술포럼 개최 소식과 그 성과를 유네스코 본부와 공유하여 우리 모두의 토착어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5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전자사전을 활용한 토착어의 보존 노력과 문학의 옷을 입고 생동하는 남북한과 해외의 겨레말을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한 경 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2019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공동체로서의 회사: 일본 기업의 인류학적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세계의 한민족 : 아시아·태평양』(통일원) 등

Greetings. I am Han Kyungkoo,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launched by the UN in 2022 and actively promoted by UNESCO, has now entered its third year. In line with this initiative,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rganized by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is already in its fifth ye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for successfully hosting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s thus far, despite the global pandemic and various other challenges. I also warmly welcome all the speakers and attendees who have honored us with their presence despite their professional commitments.

Since 2021, under the theme “Literary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has explored various cases where indigenous language-speaking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have overcome numerous challenges, contributing to their revit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ir identities. In addition,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such as the prolonged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weakening ties with the overseas Korean diaspora, the Forum has continuously emphasized the promotion of indigenous language-centered linguistic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by presenting the progress of the Gyeoremal-Keunsajeon dictionary compilation and the status of efforts to build databases for indigenous languages around the world. This 5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will take an in-depth look at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electronic dictionary platform an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literary activities in Korean by domestic and overseas Korean-speaking communities. As a result, we anticipate more engaging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n ever before.

Indigenous languages are the foundations of community ident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They have contributed to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s well as cultural diversity, thereby enriching the lives of all humanity. All existing language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speakers, originated from indigenous languages. Even so-called official languages could not have developed on their own without acquiring vocabulary and a worldview that encompasses both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from indigenous languages. UNESCO's founding miss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overcoming ignorance and distrust, underlining the need for communication based on diversity. With the changing times, languages inevitably undergo the phases of life-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However, it is crucial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artificial damage and destruction of languages in order to preserve the irreplaceable traditions, histories, cultures, and collective memories that have been safeguarded through indigenous languages, which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external threats.

UNESCO has emphasized that the preservation, support, and proactive use of indigenous languages are key factors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is regard, last May, UNESCO headquarters held an online meeting for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ntroducing various governance and collaboration examples that link the use of indigenous languages in each countr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following this first online meeting, excellent examples from various countries were shared, and numerous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have been regularly discussed. At the same time, efforts are underway to collect examples of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digenous languages with the goal of publishing a collection of best practices early next year. In line with thi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ims to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for indigenous language revitalization by sharing the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the fiv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s held to date with UNESCO headquarters.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5th UNESCO Gyeoremal-Keunsajeo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efforts to preserve indigenous languages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dictionaries, as well as the vibrant expressions of Korean indigenous languag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abroad, brought to life through literature.

Thank you.

축사



김 영 호

통일부 장관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일본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전) 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제5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축사



박 상 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대사

전) 미국뉴욕시립대 퀸즈컬리지 인류학과 조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원장

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의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박상미입니다.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소도시 빌레-코트레에는 국제프랑스어박물관이 있습니다. 약 1년 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개관식에 참석해 화제가 되었던 이 박물관은 프랑스어의 역사와 특징을 관람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희귀한 사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인데,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왜 필요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태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보다 사용자가 훨씬 적은 한국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경각심이 들기도 합니다.

유네스코는 오래전부터 토착어의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공식 언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총 여섯 개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여기에 힌디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까지 포함하여 총 10개의 공식 언어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서는 주로 유엔의 공식 언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언어주의에 대한 유네스코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3년에는 '다언어 사용 증진 및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2008년 〈세계 언어의 해〉, 2019년 〈세계 토착어의 해〉 관련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유엔이 제정한 〈세계 토착어 10년〉을 맞아, 유네스코는 토착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의 다른 기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의 첫 번째 마당은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요즘의 청년세대 중에는 종이사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유네스코 또한 〈세계 토착어 10년〉 활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당인 "남북·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는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이 꾸준히 다뤄온 주제라 더욱 반갑습니다. 토착어 문학은 언어를 생동감 있게 보존하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논의와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포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멀리서나마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계승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Remarks



박 상 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대사

전) 미국뉴욕시립대 퀸즈컬리지 인류학과 조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원장

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의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Greetings. I am Ambassador Bak Sangmee of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and a warm welcome to the speakers and participants attending the 5th UNESCO · Gyeoremal-Keunsajeo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as well a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for co-hosting this forum.

In Villers-Cotterêts, a small city not far from Paris, there is an international French language museum, La Cité Internationale de la Langue Française (International City of the French Language). About a year ago, it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when President Emmanuel Macron personally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The museum is particularly impressive for its diverse exhibits and interactive features, allow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anguage in various ways. In general, museums are seen as venues for preserving and exhibiting rare objects or historical events, so one might question the need for a museum dedicated to the French language, spoken by over 300 million people. However, the commitment to cherish, preserve, and promote one's native language holds incomparable value. It also serves as a reminder that continuous effort and attention are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spoken by far fewer people than French.

UNESCO has long shown a deep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indigenous languages and has undertaken various activitie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its member states to support this cause. As you are well aware, the United Nations (UN) has designated six official languages—English, Chinese, French, Spanish, Russian, and Arabic. However, UNESCO extends this list to include four additional official languages: Hindi, Portuguese, Italian, and Indonesian. Although English and French, among the UN's official languages, are primarily used in actual operations due to various constraints, UNESCO's commitment to multilingualism remains steadfast.

In 2003, UNESCO adopte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and has since vigorously pursued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Year of Languages" in 2008 and the "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 in 2019. Furthermore, with the launch of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n 2022, UNESCO has developed a concrete action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indigenous languages and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se effort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UN agencies.

The first session of this year's UNESCO · Gyeoremal-Keunsajeo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is being held under the topic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through Electronic Dictionaries." Nowadays, there may be some in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never encountered a paper dictionary. In this sense, the topic is particularly timely, as UNESCO is also adapting to current trends by utilizing smartphone applications in its efforts for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activities.

The topic of the second session, "South/North Korean and Overseas Korean Literature, and Indigenous Languages," is particularly welcome, as it has been consistently addressed in previous UNESCO · Gyeoremal-Keunsajeo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s. Since literature in indigenous languages serves as a powerful medium for preserving languages in a vibrant way and passing their values to future generations, such discussions and efforts must continue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Although I am unable to attend the forum in person again this year, I extend my message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afar. I sincerely hope that the meaningful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t this forum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thereby benefiting not only Korea but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k you.



02

첫째 마당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

좌장 | **김경**(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사전학회 회장)

기조강연 **유현경**(연세대학교 교수)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

기조강연 **최경봉**(원광대학교 교수)
국어사전의 변천과 과제

발표 1 **최준호**(겨레말큰사전 편찬1부장)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토론 1 **도원영**(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2 **장경식**(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

토론 2 **고찬미**(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발표 3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전자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과 표제어 통계 분석을 통한 고유어의 발전 방안

토론 3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교수)

◆ 기조강연



유 현 경

연세대학교 교수

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 국어심의회 위원

전)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한국어언어학회 부회장, 한국사전학회 회장, 한글학회 연구이사 등

·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 초등국어 사전』,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어 사전』 등 참여

·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어 사전편찬학 개론』(공저), 『형태 중심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표준 문법』(공저), 『전면개정판 표준 국어문법론』(공저) 등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

유 현 경

연세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글은 국어사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7년 종이사전 및 전자사전의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2015년까지 총 25차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현재까지 공동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로 편찬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편찬 사업의 조기 완수를 위하여 그간의 남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회에서 제작한 대북 협의용 자료로 2021년 3월에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이하 '가제본')을 발간하였다. 가제본은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에 대비하여 대북 협의용 자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종이사전으로서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업회에서는 2027년 10월에 종이사전 발간을 목표로 2024년 1월부터 가제본 원고 30만 7천여 개(미합의 올림말 집필 원고 포함)의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가제본과 2027년 발간 예정인 종이사전 모두 남북한 공동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 성과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간에 앞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발간의 전제가 되는 미래형 국어사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특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려 한다.

ChatGPT와 같은 거대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전학계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주요 목표는 ≪겨레말큰사전≫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살펴볼 국어사전의 미래는 ≪겨레말큰사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편찬되는 국어대사전인데, 국가 주도로 편찬된 국어대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국어대사전과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국어사전의 미래를 살펴보고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국내의 국어대사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2027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1) ≪겨레말큰사전≫의 사업의 동기와 진행 상황, 편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서는 홍윤표(2007), 홍종선(2013), 고대영(2018), 유현경(2021) 등을 참조할 것.

2. 국어사전의 미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적 산물이다. 홍재성(2009)에서는 "사전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정보소통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선별·조직화한 내용을 담은 책의 한 종류이다. (중략) 어떠한 사전이든 간에 특별한 부류의 책인 점에서 적어도 구조화된 정보의 총체로서의 텍스트인 동시에 생산·소비의 유통 과정을 갖는 제조물로서의 양면을 지니며, 모든 사전은 본질적으로 기호적(semiotic) 대상이자 문화적(cultural) 대상이다."라고 한 바 있다. 현재 국어사전은 종이사전 시장이 거의 무의미하고 전자사전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20세기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사전이 대세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은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종이사전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용훈·이종혁(2006), 안의정(2014) 등에서는 Nesi(2000)의 "단어들의 철자, 의미,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 가능한 전자화된 형태의 자료"라는 넓은 의미의 전자사전의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판 사전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위한 용어집이나 글자를 스캔하여 번역해 주는 장치, 심지어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에 들어 있는 철자검사기(spell cheker)도 모두 전자사전에 속한다.[2)]

전자사전의 역사는 영어사전의 경우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전자사전들이 만들어졌고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디롬이나 디스크, 휴대용 기기 등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이용훈·이종혁 2006:30) 영어사전의 경우 출판용 전자사전이 발전되어 현재에도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전이 Oxford English Dictionary(OED)이다. OED는 1860년부터 시작하여 1928년까지 68년에 걸쳐 종이사전 초판본이 완간되었으며 1992년에 전자사전이 나왔고 2000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어사전의 전자사전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우리말큰사전≫이 1996년 최초의 전자 국어사전으로 발간되었고[3)] ≪연세한국어사전≫은 2000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4)] ≪표준국어대사전≫이 2001년도에 시디롬 형태로 전자사전이 발간되었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2008)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사전의[5)] 형태로도 사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1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중 실제 쓰임이 있는 주요 어휘 15만여 개를 선정하여 앱 사전을 출시하였고 현재 포털을 통하여 웹 사전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우리말샘≫이 웹 사전과 앱 사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말샘≫ 이전의 국어사전은 종이사전이 먼저 발간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사전이 만들어진 데 비하여 ≪우리말샘≫은 종이사전의 발간 없이 처음부터 전자사전으로 기획되어 출시되었다는 것이 이전의 사전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국어사전뿐 아니라 영어사전, 백과사전 등 모든 사전에서 종이사전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보면[6)] ≪우리말샘≫의 전자사전 발간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국어사전의 초기 전자사전 버전은 시디롬 형태나 휴대용 전자기기의 형태로 발간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 가능한 웹 사전이나 스마트기기에서 가능한 앱 사전이 대세인 듯하다.

국어사전의 미래에 종이사전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국어사전의 전자사전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전자사전과 종이사전의 특징과 의의는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종이사전은 분량 제한으로 인하여 거시구조 측면에서는 올림말 선별의 문제나 미시구조에서도 특히 용례를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전자사전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워 올림말이나 용례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 종이사전에서는 올림말과 용례를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질이 담보되는 부분이 있어 사용자에게 사전 정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안의정(2014)에서 전자사전은 영원한 베타 상태라고 한 바 있듯이 전자사전은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든지 사전 콘텐츠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자사전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사전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 대상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사전은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자사전보다 종이사전의 형태가 더 선호된다.

국어사전의 전자화 추세는 십수 년 전부터 남길임(2005), 유현경(2010), 정철(2016), 배연경(2016) 등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데 '전자화'라기보다 '온라인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종이사전의 발간이 상업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자텍스트가 어떤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상술할 국어사전의 전망의 여러 가지 특징은 전자화보다는 매체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사전 콘텐츠의 전자화는 웹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전자기기로도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 오프라인 전자기기 사용은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전자사전은 개인용 컴퓨터 웹 사전과 스마트폰 모바일 사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전의 미래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전자사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 편찬자의 전환이다. 종이사전의 경우에는 사전 사용자가 사전 정보를 이용할 뿐 사전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하기 어렵다. 전자사전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개인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검색하는 초기의 버전에서는 검색 방법이 다를 뿐 종이사전과 마찬가지로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일반 언중들이 언어의 소비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능동적 참여는 신어 산출 등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달리 사전의 사용자들의 생산자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설성수(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사전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혹은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3장에서 살펴볼 ≪우리말샘≫은 국내 최초의 사용자 참여 국어사전인데 이와 같은 사용자 참여 사전의 경우는 사전의 발간이 사전 편찬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과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사전 편찬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과 사전 편찬 도구(tool)의 개발, 오픈형 온라인 사전 발간 등 사전 편찬의 영역이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열려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신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용자 참여 사전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김경(2018)에서는 사전 독자가 직접 사전 표제항을 집필하도록 하는 방식인 이용자 참여형 사전 편찬(user-participated lexicography)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협업식 사전 편찬(collaborative lexicography) 또는 상향식 사전 편찬(bottom-up lexicography)이라고도 불리며 이전의 전문가에 의한 사전 편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사전 편찬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포털 중 네이버가 2018년에 온라인으로 사전을 편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립형 사전 편찬 도구인 '네이버 오픈사전 PRO'의 베타 버전을 공개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협업을 통하여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오픈사전 PRO는 2018년 출시된 1차 버전과 2021년 업그레이드된 2차 버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차 버전이 '사전 제작 플랫폼'을 강조했다면 2차 버전은 제작과 사전 제작에 중점을 둔 '사전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Kim 2023) 네이버를 통하여 공개된 사전의 수는 2024년 현재 6,128개이며 총 올림말 수는 5,655,481개에 달한다(2024년 7월 기준). Kim(2023)에서는 네이버 사전의 대표적인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사전 플랫폼인 '오픈사전 PRO'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특징으로 첫째, 사전 편찬과 콘텐츠 소비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 사전 플랫폼이라는 점, 둘째, 일반 사용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데모틱 플랫폼이라는 점, 셋째,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점, 넷째, 사전 구조를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사전을 편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

2) 전자사전의 정의나 하위 유형 등에 대해서는 이용훈·이종혁(2006), 안의정(2014) 등을 참고할 것.

3) 이용훈·이종혁(2006)에 따르면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3판)(1994), ≪금성국어대사전≫(2판)(1996) 등이 출판용 전자사전으로 발간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국어사전의 전자화는 웹 사전이나 앱 사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개인이 소장하는 전자기기형도 아직도 시판되고 있는데 전자기기형 전자사전에는 영어사전을 중심으로 중국어사전, 일본어사전 등 외국어 사전뿐 아니라 민중서림의 ≪엣센스 국어사전≫(5판), 두산동아 ≪새국어사전≫ 등 국어사전의 전자판도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기기형 사전은 수첩형태의 전자사전뿐 아니라 휴대용 스캔 번역기인 펜형 전자기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연세한국어사전≫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드림위즈'와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되었으나 최근 드림위즈 사이트와 브리태니커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중단되었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홈페이지(https://ilis.yonsei.ac.kr/ysdic/)를 통한 검색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이다.

5) 앱 사전은 스마트기기에서 실행되는 앱 형태의 사전을 말한다.(황용운 2014:266) 이는 실행되는 기기 자체의 휴대성이라는 특징에 좀 더 초점을 둔 폭넓은 정의이다. 황용운(2014)에 의하면 모바일 사전은 휴대성을 갖춘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전자사전을 통칭하는데 이에는 시스템 사전, 앱화 사전, 앱 사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황용운(2014)를 참고할 것.

6)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1928년 총 12권 분량으로 41만 4천8백25 개의 올림말을 담은 OED 초판본을 발간하고 1989년 60만 개 올림말의 2판 개정판이 출간한 이후 종이사전의 수요 감소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판에 집중하고 제3판 출간은 수요가 충분하다면 인쇄본도 고려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OED와 같이 영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의 경우에도 영국 국왕이 옥스퍼드 출판부에 『흠정역(欽定譯) 성서(聖書)』의 독점 출판권을 부여하여 그 판매 수익으로 OED를 펴낸 것을 볼 때 사전 발간의 경제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그러나 전자사전이라고 해서 정보의 양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사전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사전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한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사전에서도 종이사전만큼은 아니지만 거시구조나 미시구조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배연경(2016)에서는 이같이 사전 편찬 주체의 경계가 스러지는 현상에 대하여 '자동화'와 '대중화'라는 두 핵심어로 요약한 바 있다. 대중화는 사전 편찬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대중의 역동적인 참여로 이행하고 있는 현상을,[8] 자동화는 사전 편찬 과정이 사람에서 컴퓨터로 이행하는 현상을 일컫는다.[9] 배연경(2016)에 의하면 사전의 제작에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66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기에 컴퓨터는 교차 참조 항목을 확인하고 조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최근까지 사전 편찬 과정에서 사전 편찬 도구를 개발하고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전 편찬의 주된 주체는 여전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다. 배연경(201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시작하였던 사전 편찬의 전산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전 편찬의 영역을 확장하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 사전 편찬의 영역은 사람과 기계의 협업식 작업이 아니라 기계가 주도적으로 사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여 사전 편찬의 전 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었다.

세 번째 국어사전의 미래의 키워드는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국어사전의 중요성이다. 서두에서 사전이 문화적 자산이라고 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사전은 언어 자원으로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자산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대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언어 자원이다. 앞으로의 국어사전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콘텐츠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언어 자원이나 참고 자료 등을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올림말과 용례이다. 올림말에 용례만 있어도 사전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전의 사전 편찬 작업에서는 올림말의 용법이 곧 의미이기 때문에 용례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은 사전 편찬의 기초적 작업이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올림말과 용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전은 이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휘 데이터베이스가 사전을 위한 원재료인 것이 아니라 사전이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부수적 파생물이 되는 셈이다.(배연경 2016) 즉 최종 결과물로서의 국어사전뿐 아니라 사전을 편찬할 때 활용되는 대규모 말뭉치(혹은 빅데이터)나 사전 편찬을 하거나 가공하는 전산 도구 등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전자사전 발간 이후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파일 등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향후 사전 편찬의 과정과 활용 과정 전체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undell(2023)에서는 지난 10년간 말뭉치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사전 제작의 자동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2년 11월에 등장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과 특히 OpenAI에서 출시한 ChatGPT 제품군이 사전 편찬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Rundell(2023)은 ChatGPT가 사전 편찬의 자동화에 활용될 가능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ChatGPT가 생성한 사전 콘텐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결과의 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ChatGPT가 '사전학의 종말'을 예고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8) 사전 편찬 전문가와 민간이 협업하여 사전을 만드는 전통은 OED(Oxford English Dictionary)를 편찬하면서 당시 영국 전역에서 20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내 온 500만여 개의 인용구가 사용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OED의 편찬 과정에 관해서는 김혜리(2003), 박영배(2004)를 참고할 것.

9) 배연경(2016:44)을 확인하면 '사전 편찬 주체의 경계가 스러지는 현상은 크게 '자동화'와 '대중화'라는 두 가지 핵심어로 요약이 가능할 듯하다. 전자는 사전 편찬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대중의 역동적인 참여로 이행하고 있는 현상을, 후자는 사전 편찬 과정이 사람에서 컴퓨터로 이행하는 현상을 일컫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해당 논문의 다른 부분의 기술을 볼 때, 전자와 후자가 바뀐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문과 같이 인용하였다.

3.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앞에서 국어사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국어사전의 미래와 관련하여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본격적인 전망을 하기 전에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유현경(2021)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동포들의 한국어를 포함함으로써 언어 통합 사전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과정형 사전'이라는 것이다. 유현경(2021)에서 과정형 사전은 첫째, 편찬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전, 둘째,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열려 있는 사전, 셋째, 그 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콘텐츠에도 의미를 두는 사전이라고 하였다. 언어 통합 사전과 과정형 사전이라는 특징은 ≪겨레말큰사전≫이 다른 사전과 변별되는 면모라 할 수 있으며 유현경(2021)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전문용어와 지역어에 초점을 맞추어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 한다. 국어사전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자원으로서 의의를 상술한 바 있는데 ≪겨레말큰사전≫이 가지는 특징 중 지역어가 풍부하게 실려 있는 부분은 문화적 자산에 대한 것이고 전문용어에 대한 것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겨레말큰사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에 실린 전문용어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지역어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의 국어사전이라는 측면에서 ≪겨레말큰사전≫을 바라보면 전문용어가 가장 중요한 올림말의 부류이다. 전문용어란 특정한 분야에서 정확하게 규정된 과학적 개념과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권재일 2006:234) 남북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의 변화나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질적인 면보다 동질적인 면에 더 주목해야 하며 언어 차이는 주로 어휘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분적이라고 한다.(남기심 2002, 권재일 2015 등) 그러나 남북한의 일상적인 생활 어휘에서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지만 전문용어의 경우는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남북한 용어 대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최효정 2022:550) 권재일(2006:232-233)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교류 없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관으로 인하여, 전문용어는 꽤 다른 모습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면서 통일 이전에는 남북 간의 원활한 학술 교류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는 효과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전문용어와 이의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는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전은 거시구조의 구성이나 뜻풀이의 성격 등에 따라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사전은 단어들에 대한 참고서(reference book)로서 언어에 대한 책인 반면 백과사전은 언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물, 사람, 장소, 관념(ideas) 등 실제 세계에 대한 책이다.(Jackson 2002:21) 언어사전은 단어 및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며 백과사전은 단어들이 가리키는 대상, 현상, 과정들을 설명한다. 단어 등 언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사전을 사용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백과사전을 찾게 된다.(유현경 2012) 김현권(2013)에서는 언어사전은 의미(개념) 지식을 표상하고 백과사전은 세계지식을 표상하며 전문용어사전은 개념 및 세계지식을 표상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남북한의 주요 대사전에서 전문용어의 비율을 보인 것이다.

〈표 1〉 남북한 사전의 전문용어 비율 비교

사전	전체 올림말	전문영역	전문용어[10]	비율(%)
겨레말큰사전	307,813	42	49.612(52,009)	16.12
표준국어대사전(1999)	509,076	53	225,779(229,129)	44.35
조선말대사전(1992)	352,850	46	36,215(36,270)	10.26

10) 괄호 안의 숫자는 뜻갈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1〉을 보면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전문용어 비율은 전체 올림말의 44.35퍼센트로, 〈조선말대사전〉(1992)에 비하여 거의 4.4배에 이른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의 비율은 〈표준국어대사전〉보다는 적고 〈조선말대사전〉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분야는 42개 영역이며 올림말 기준으로는 49,612개, 뜻갈래 기준으로는 52,009개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작업 요강' 및 남북 올림말 분과 합의 주요 사항에서 전문용어 선정 기준을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올림말 선정 기준

①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② 현 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정한다.
③ 좁은 범위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 및 인명, 지명, 사건명 등의 고유명사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계열어휘 측면에서 전문용어를 선정하되 누락된 전문용어는 추가하여 선정한다.
⑤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 정보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전문용어와 그 순화어, 좁은 분야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그 순화어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겨레말큰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용어와 ≪조선말대사전≫의 전문용어 중에서 선별 기준에 따라 올림말을 선정하였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하는 전문용어는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한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어와 마찬가지로 전문용어 선정에도 계열관계와 출현 빈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의학 분야, 철도·도로·토목 등의 건설 분야, 스포츠 분야 등 남북 교류 현장에서 남북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문용어, 남북의 편찬 인력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 분야 전문용어에 한해서는 전문용어 올림말 선정 기준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면이 반영되었다. 또한 한자어 올림말 선정 시 "궁벽진 한자어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듯이 전문용어 올림말 선정에도 "좁은 분야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그 순화어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들 들어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11], 강도솔상(降兜率相)[12], 결맞음[13], 광화학당량의법칙(光化學當量-法則)[14], 동백나무조개버섯(冬柏-)[15], 마행석감탕(麻杏石甘湯)[16], 배전압정류접속(倍電壓整流接續)[17], 코히런트(coherent)[18], 씌우개형전기로(---形電氣爐)[19], 짜개토시카프링(----coupling)[20]' 등의 전문용어는 올림말에서 제외하였다. 이 두 사전에 없는 올림말이라 하더라도 계열어휘를 고려하여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 올림말을 추가하였다.[21]

---

11) 리조때에, 도관을 쓰고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은 신선이 거북을 타고있는 모양이 그려진 의장기의 하나. ≪조선말대사전≫
12) 『불교』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염부제로 내려올 때의 모습. 큰 광명을 비추어 땅을 진동하게 하고, 마군의 궁전들은 나타나지 못하며, 해 · 달 · 별은 그 빛을 잃고, 천룡(天龍) 따위는 모두 놀라서 떨었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13) 『물리』 =코히런트. ≪표준국어대사전≫
14) 『화학』 광화학 반응에서 하나의 광자(光子)를 흡수하여 활성화한 분자나 원자는 모두 화학 변화를 일으키며, 그에 따라 흡수된 광양자의 수와 광화학적으로 활성화한 분자나 원자의 수가 같다는 법칙. 광화학 제2법칙 또는 슈타르크 ˙ 아인슈타인 법칙이라고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15) 구멍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의 한가지. 갓은 반둥근형, 조가비형이고 아래로 붙어나며 착색의 털로 덮여있다. 후에 검은 밤색, 검붉은색의 매끈한 고리대가 생긴다. 빗살모양의 주름이 있고 흰색, 재빛흰색이다. 우리 나라 각지의 동백나무에 생기는 흰색썩음버섯이다.≪조선말대사전≫
16) 『한의학』 마황, 석고, 살구씨, 감초 따위를 넣어서 달여 만드는 탕약.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하는 데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조선말대사전≫
17) 『전기』 변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원 전압의 약 두 배의 직류 출력이 얻어지는 정류기 회로. ≪표준국어대사전≫
18) 『물리』 복수의 파도가 일정한 위상(位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간섭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일. 또는 그런 성질. ≒ 결맞음. ≪표준국어대사전≫
19) 《전기》 발열체가 설치된 하나의 씌우개에 여러개의 설치대를 가진 로. 이 로에서는 씌우개가 한 설치대에서 가열하는 동안에 다른 설치대에서는 식히고 또 한 설치대에서는 해체, 장입을 한다. 씌우개는 련속작업하고 설치대는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반련속식로이므로 큰 제품의 가열에서 전력소비를 현저히 낮춘다. ≪조선말대사전≫
20) 《기계》 토시를 세로방향으로 짜개고 두 축에 맞춘 다음 짜갠 토시들을 볼트로 조이는 카프링. 속도가 높지 않은데서 쓴다. ≪조선말대사전≫
21) ≪조선말대사전≫(1992, 2007)에는 '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은 올림말로 있으나 '상행결장, 에스상결장'은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은 올림말로 올라 있으나 '에스상결장, 오름잘록창자, 내림잘록창자, 가로잘록창자, 구불잘록창자'는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볼 때 '상행결장, 에스상결장'과 남한의 '잘록창자, 오름잘록창자, 내림잘록창자, 가로잘록창자, 구불잘록창자'가 추가되고,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볼 때 '오름잘록창자, 내림잘록창자, 가로잘록창자, 구불잘록창자'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올림말 간의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올림말을 선정하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의 뜻풀이 원칙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뜻풀이 원칙

①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기준으로 삼되 남과 북의 전문어사전에 기술된 내용도 아울러 검토하여 쉽고 간결하게 풀이하도록 한다.
② 전문어의 세부 분야나 올림말의 제한된 분야를 나타낼 때에는 〈[특정 분야]에서〉라는 제한표현을 쓴다.
③ 남북 간 차이가 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합의한 용어를 사용한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뜻풀이 원칙 중 ③은 다른 사전에서 볼 수 없는 원칙이다.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가 서로 다를 때 남북이 합의하여 어느 하나를 기본 올림말로 정하고 나머지 올림말은 기본 올림말의 같은말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남에서는《국악》으로 표현하고, 북에서《조선민족음악》으로 표현한 것은《전통음악》으로 합의하여 이를 기본 올림말로 정하고 나머지 올림말은 같은말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올림말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3)처럼 어느 한쪽의 올림말을 기본 올림말로 합의하고 나머지 올림말을 같은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3)

(가) **사칙**[1] [사:칙] (四則) [명]《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네가지 셈법, 또는 그 셈법을 리용한#이용한 셈. | 우리 마을 얌전이는 글도 좔좔 읽고 복잡한 {사칙}문제도 척척 푸는 식자가 있는 처녀인데 자네 같은 까막눈을 서방으로 받아들이자고 하겠는지 모르겠네. (《딸에게서 온 편지》) / 요즘은 한글은 물론이요 {사칙}계산과 기본 생활영어 정도는 다들 배우고 입학한다던데.《전아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말] **넉셈. 사칙산법. 사칙연산.** [참고] **가감승제.**
(나) **넉셈** [넉:쎔] [명] 《수학》
=**사칙**[1]**(四則)**. ‖ {넉셈} 계산. {넉셈으로} 된 문제를 풀다. | {넉셈에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게 됐으니까 더하기를 먼저 하구 곱하자면 괄호를 쳐야지!(《함께 사는 사람들》)
[넉+세-+-ㅁ]

(3)을 보면 '사칙'과 '넉셈' 중 남과 북은 '사칙'으로 합의하여 뜻풀이는 기본 올림말인 '사칙'에서 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넉셈'은 같은말로 처리하였고 '넉셈'에서는 뜻풀이 없이 '=사칙1(四則)'이라는 정보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 전문용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논의한 선행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 어휘를 대조하여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며 남북에서 쓰이는 서로 다른 전문용어들을 어떤 원칙으로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는 남한과 북한 사전의 올림말을 대상으로 하나의 용어로 합의하여 이를 사전에 올림말로 수록했다는 점에서 실제 전문 분야의 용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분야의 기술은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겨레말큰사전≫의 토박이말(지역어)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올림말로 실었을 뿐 아니라 남북의 합의를 통하여 전문용어를 정제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올림말 범주는 토박이말 즉, 지역어이다. 다음의 〈표 2〉는 남북한의 주요 국어대사전에서 지역어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22)]

22) 이준환(2022)에 의하면 주요 국어대사전에 실린 방언 어휘의 개수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수정증보)≫(1940)에 6,200여 개,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에 13,006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20,623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 23,473개≪우리말샘≫ 109,963개(2022년 6월 23일 현재)가 실려 있다고 한다.

〈표 2〉 남북한 사전의 지역어 비율 비교

사전	전체 올림말	지역어	비율(%)
겨레말큰사전	307,813	61,289	19.91
표준국어대사전(1999)	509,076	23,729	4.66
조선말대사전(1992)	352,850	8,378	2.37

〈표 2〉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에 비하여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약 4.7배, ≪조선말대사전≫과 비교하면 8.4배에 이른다.[23] 이를 보면 ≪겨레말큰사전≫이 특징이 지역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기존의 국어사전에 없는 새로운 어휘를 발굴하여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길재(2008)에 의하면 ≪겨레말큰사전≫의 새 어휘 조사 목적은 우리 민족이 생활 환경에서 쓰고 있거나 썼던 말 가운데 민족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를 조사하여 뜻풀이와 함께 용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조사의 방향은 (1)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토속방언을 조사하여 채록하는 것, (2)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이나 생활 환경, 제례 의식, 민간 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를 조사하여 채록하는 것이다. 문헌어 조사는 파일 수 9,284개, 총 78,388,584어절의 문학 관련 말뭉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이길재 2008)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올림말 선정 지침'에 따르면 현재 널리 쓰이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의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표 2〉에서 확인된 지역어의 양적인 부분이나 올림말 선정 지침을 보면 ≪겨레말큰사전≫이 지역어 조사와 올림말 선정에 중점을 두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지역별로 비교해 본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겨레말큰사전≫의 지역별 지역어 분포

지역	올림말 수(단위: 개)
강원	7,020
경남	6,361
경북	7,913
경상	2,281
경기	2,066
전남	8,077
전북	3,008
전라	1,808
제주	9,003
충남	2,298
충북	1,359
충청	801
량강	769
자강	734
평남	589
평북	3,456
평안	1,482
함남	2,502
함북	2,263
함경	1,550
황해	677
로씨야(카자흐스탄)	1,093
일본[24]	4
중국	2,006
계	67,114[25]

〈표 3〉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는 남한과 북한 등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 산재해 있는 우리말 어휘를 조사하여 채록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이면 다음의 (4), (5)와 같다.

(4)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올림말 예시

▶갱갈할매숟가락(키조개, 충남)
▶고투락(아궁이, 충북)
▶꾀복쟁이친구(아랫도리를 벗고 같이 놀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나이일 때 만난 친구, 전북)
▶다신어메젓줄개(민들레, 경북)
▶떡쉬움이(이스트, 로씨야(카자흐스탄))[26]
▶두루바리(호랑이, 평안)
▶손잡이뜨락또르(경운기, 중국)
▶쇠꼽새(비행기, 강원)
▶싸구쟁이(미치광이, 함북)
▶여들하다(똘똘하다, 황해, 평북)
▶올랫길(거리에서 대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 이 올랫길에는 정낭목이 설치되어 있다., 제주)
▶쪼로로기(지퍼, 중국)
▶툴렁이(감자, 평북)
▶톰발리(빨리, 황해)
▶해개먹음이(일식, 로씨야(카자흐스탄))
▶달개먹음이(월식, 로씨야(카자흐스탄)) 등

(5) ≪겨레말큰사전≫ 지역어 사전 예시

(가) **갱갈할매숟가락** [갱갈할매숟까락] [명] 키조개. (충남) | {갱갈할매숟가락은} 한 개만 먹어두 배가 불러유.
[갱+가-+-ㄹ+할매+숟+가락]
[붙임] 〈갱갈할매숟가락〉은 갯것을 하러 간 할머니가 키조개의 껍데기를 숟가락 대신 사용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한다.
(나) **다신어매젓줄개** [다신어매젇쭐깨] [명] 민들레. (경북) | {다신어매젓줄개} 그거이 삶아가 무체노무 맛있니더.
[다신+어매+젓(〈젖)+주-+-ㄹ+-개]
(다) **손잡이뜨락또르** (---[로]трактор/traktor) [명] 경운기(耕耘機). (중국) | 이 아름다운 명상을 자아내게 하는 조화로운 음향을 심술궂게 흐트러놓으며 추운 겨울에도 바람막을 운전실 하나 없는 기름투성이 {손잡이뜨락또르} 하나가 퉁탕퉁탕 소요스럽게 달려왔다.《리원길: 춘정》(연) / 찌프차가 량식창고와 멀지 않은 공사 대문 앞까지 갔을 때 앞에서 {손잡이뜨락또르가} 마주 오는 것이 보였다.《김경련: 숨박곡질》(연) [같은말] [지] 논간차. 정운기.
[손+잡-+-이+뜨락또르]

---

23) 2016년 개통된 ≪우리말샘≫에는 2022년 6월 기준 109,963개의 방언이 실려 있다고 한다.(이준환 2022) 이는 ≪우리말샘≫ 올림말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한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보다 2배 이상 비율이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겨레말큰사전≫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준환(2022)에서는 ≪우리말샘≫의 방언 수록 현황을 분석하면서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중앙아시아와 같이 해외 거주 동포들의 방언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방언과 북한어가 한데 묶여 있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4) 조총련계는 주로 북한의 문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조총련계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 재일동포 사용 언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 재일동포 사용 언어 조사 과정에서 조총련계와의 접촉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용이하지 않았던 관계로 재일동포 사용 언어 조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25) 실제 올림말 수는 61,289개이며, 67,114개는 지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로 보인다.
26) 카자흐스탄에서 '떡'은 '빵'을 의미한다.

(라) **해개먹음이** [명]
일식[5](日食, 日蝕). (로씨야) | 낼으 {해개먹음이럴} 볼 수 있간둥? [같은말] [지] 해개. 해개먹음. [참고] [지] 달개. 달개먹음. 달개먹음이.
[해+개+먹-+-음+-이]
[붙임] 까막나라의 불개가 왕의 명을 받아 해를 물어오려고 입으로 덥석 물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도로 뱉었다는 함경도 지방의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위의 예시만 보아도 ≪겨레말큰사전≫이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우리말 언어 자원의 보고임을 알 수 있다. 지역어 올림말 61,289개 중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말은 약 4만여 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와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새 어휘는[27] 지역어 4만여 개를 포함하여 7만 3천여 개이다.

≪겨레말큰사전≫에 실린 지역어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문화적 자산을 보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어휘들은 향후 한국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묶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2장, 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

이 장에서는 2027년 발간을 앞두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미래형 국어사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겨레말큰사전≫이 나아갈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 자원이 투입된 장기적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등과는 차별되는 성격을 지닌 국어사전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에 관한 논의는 상술한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표준국어대사전≫과 2016년 개통된 ≪우리말샘≫의 비교를 통하여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1999년 종이사전으로 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2008년 개정되어 웹 사전 형태로 공개되었고 사전 콘텐츠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전자판 ≪표준국어대사전≫은 2016년 전자사전인 ≪우리말샘≫의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옛말, 방언, 북한어 등이 ≪우리말샘≫으로 이동되고 종이사전판에서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시하지 못했던 발음 정보, 활용 정보, 원어 정보, 뜻풀이 등이 보완됨으로써 온라인 사전으로서의 장점을 구현하고 규범성이 강화되면서 현대 국어대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28]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온라인 사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의 언어를 아우르는 언어 통합 사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 따르는 남한의 어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어문 규범은 사전에 적용하고 미합의된 규범의 경우는 남과 북의 표기를 병기하는 사전이므로 사전 발간 이후에라도 합의 결과에 따라 사전에 반영될 수 있다. 유현경(2021)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으로 '언어 통합 사전', '과정형 사전'이라는 두 가지를 들었다.

≪겨레말큰사전≫이 지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사용자에 대한 고려이다. 국어사전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분석은 정철(2016), 위진(2018), 김종환(2018), 국립국어원(2019), 정희창(2023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19)에 따르면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목적은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2.3%,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겨레말큰사전≫은 남한의 어문 규범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나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은 아닌 것이다. 정희창(2023나)에서 특정한 목적과 사용자를 전제로 편찬되는 사전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라고 하면서 사전 사용자에 대한 고려는 사전의 편찬 목적과 가치, 역할을 점검하고 소통성을 제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27) 새 어휘는 지역어와 문헌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문헌어이면서 지역어인 것은 없다.
28)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2021), 국립국어원(2022), 김지혜(2022가, 2022나, 2024)를 참고할 것.

이 시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이 누구를 위한 사전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희창(2023나:109)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사용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남한의 언어 규범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중 북한을 제외한 구성원을 사용자로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을 포함할 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용자보다 더 범위가 넓다. 즉, 동일한 언어 규범을 사용하는 남한의 사용자뿐 아니라 북한과 해외의 동포들의 언어생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2019)에 의하면 국어사전별로 사용자의 이용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독서나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59.6%), '대화 중 낯선 단어를 들었을 때'(42.5%) 주로 이용하고 ≪우리말샘≫은 '신조어의 의미 확인'(66.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겨레말큰사전≫도 주된 사전 사용자가 어떤 집단인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이 아니라 ≪겨레말큰사전≫을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종이사전이나 전자사전의 발간 방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어문 규범의 부재는 ≪겨레말큰사전≫이 ≪표준국어대사전≫과 변별되는 지점이기는 하나, 사전이 발간된 후 이러한 특징을 사전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사전 사용자들이 다음 (6)의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뜻풀이나 참고 등의 정보에서 남과 북의 미합의된 표기가 병기된 것에 대하여 혼란을 느낄 수 있다.[29)]

(6)

(가) **망**[6] [망ː] (望) [명] 《천문》
음력 15일경에 나타나는, 원모양의 달의 형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달의 반구 전체가 해빛을#햇빛을 반사하여 달이 완전히 둥그렇게 보인다. 가끔 월식 현상이 일어나며, 상현과 하현 사이에 나타난다.
[참고] 합삭. 초승. 그믐

(나) **그믐** [명]
① 음력으로 한달의 마지막 날. | {그믐이} 가까워서 아직 달은 없고 별만 총총했지만 가을바람이 좋았다.《지오: 꿈속에서 깨여나면 또 꿈》(연) / 삼월도 {그믐이} 넘었건만 제비는 들어오지 않았다.《계용묵: 제비를 그리는 마음》 / 시월 {그믐이였는데} 이 북변 설한 땅에는 벌써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축복》) / 오월 {그믐이} 되어 모선제로부터 산삼을 캐러 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억두는 석문에게 아뢰었다.《하용준: 북비》
② 《천문》 음력 27일경에 나타나는, 둥근 눈썹모양의 달의 형태. 하현과 합삭 사이에 나타난다. | 창밖을 내다보니 달은 초생도 {그믐도} 아닌 둥근 만월이다.《강규: 적멸보궁에 가겠다면》
[참고] **초승. 상현. 망**[6](望).
[〈그믐{훈몽} ∞그뭄{신류#신유}]

(6)의 뜻풀이나 참고 등의 정보에서 남과 북의 미합의된 표기가 병기된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제시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이사전은 사전의 앞부분에 일러두기도 있고 검색한 올림말뿐 아니라 올림말이 실려 있는 쪽 전체가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전자사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전자사전의 경우는 검색한 올림말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지만 지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병기 표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매번 달아줌으로써[30)] 사전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 본문 (6)의 사전 예시는 현재 편집본 버전이므로 종이사전이나 전자사전 발간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
30) 이러한 부가 정보는 평소에는 노출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해당 부분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두 번째 지향점은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이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국어사전은 종이사전이 아니라 전자사전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말큰사전≫을 비롯하여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종이사전이 완성되고 나서 전자화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전체 올림말 307,813개 중 합의된 것은 125,000개이고 미합의 원고가 182,813개로 합의 비율이 40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림말 30만여 개를 종이사전으로 발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겨레말큰사전≫의 가장 큰 의의는 남과 북이 사전에 관해서 합의를 해왔다는 것에 있는데, 미합의 원고까지 종이사전으로 발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의 원고와 미합의 원고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완성으로 볼 수 있는 미합의 원고가 종이사전에 실릴 경우 앞으로 남과 북의 공동 사전 편찬의 길이 닫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사전의 경우는 양적으로도 열려 있지만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미합의 원고까지 포함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종이사전판에 미합의 원고까지 실릴 경우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비될 수 있다.

≪우리말샘≫의 경우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전자사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올림말의 추가나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말샘≫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어깨번호이다. 다음의 〈그림 1〉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검색어 '아버지'의 사전 기술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그림 1〉 ≪표준국어대사전≫(웹버전)과 ≪우리말샘≫(웹버전)의 '아버지' 일부

≪우리말샘≫의 '아버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아버지'와 달리 뜻풀이 갈래별로 올림말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종이사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사전이고 ≪우리말샘≫은 종이사전 없이 전자사전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선철 외(2019:4)에서는 ≪우리말샘≫의 변화 중 하나로 관리와 유통을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서 기본 단위 항목에 절대 주소를 도입함으로써 가변적이어서 준거 기능을 하기 힘들었던 사전의 동형어 번호 대신 세부 의미(sense) 단위로 절대 주소를 도입하고 이를 등재의 기본 단위로 삼아 세부 의미 단위로 표제 항목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 바 있다. ≪우리말샘≫의 이러한 동형어 처리는 거시구조 아래에 미시구조가 종속되어 있는 기존 사전의 한계를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샘≫과 같은 거시구조는 뜻풀이 갈래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요소로 분리함으로써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종이사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렬되어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단일 텍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이나 정보의 추가가 어렵다. 전자사전은 기존의 종이사전과 달리 개별 올림말이 독립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연경(2016)에서는 사전이 그동안 속박되어 왔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상의 경직성을 깨고 자모순 배열과 의미별 배열을 넘나들면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데이터의 구조가 기호 중심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사전의 경우도 사전을 여러 주제로 재가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자사전의 경우는 사전의 재가공이 매우 용이한 구조이므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사전을 재가공하거나 특정 주제로 특수 사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사전 안에서 올림말의 범주에 따라 사전을 재가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전의 콘텐츠와 연동하여 새로운 언어 자원을 생성하기도 한다. 강민하·최운호(2024)에서는 ≪우리말큰사전≫과 ≪우리말샘≫의 올림말 연결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 간 연동은 다음 세대의 국어사전의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은 독립적인 국어사전이지만 사전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사전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관계를 보면 사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검색어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종이사전 편찬 과정에서도 먼저 나온 사전들이 가장 좋은 참고 자료였지만 전자사전의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사전의 콘텐츠들이 연동하여 거대한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사전은 사전 내부의 연결뿐 아니라 사전 간의 연결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형어와 다의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이러한 구조는 사전 간의 연결을 보다 자유롭게 해 줄 수 있고 사전의 개별 항목 간의 통합도 용이한 면이 있다. ≪우리말샘≫이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전자사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들도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러 사전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단일한 출처에서 오는 제한된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들이 여러 출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전의 외연과 정보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겨레말큰사전≫도 전자사전판은 다른 사전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겨레말큰사전≫의 세 번째 지향점은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염두에 둔 사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샘≫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사전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라는 지향점이 말해 주듯 사전 사용자가 편찬자가 될 수 있고 편찬자가 다시 사용자가 되어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전이다.[31] 그 결과 2016년 출간 이후 7만여 개 정도의 어휘가 증가하였으며[32] 일반 사용자들이 올림말을 기술하는 속도를 전문가 집단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33] ≪겨레말큰사전≫이야말로 편찬 목적이나 올림말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의 사전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올림말이나 정보를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적화된 사전으로 보인다. 배연경(2016:47-48)에서는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전통적인 사전 편찬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사

31) 김선철(2016)에서는 ≪우리말샘≫이 세계 최초로 사용자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언어 사전이며 수록 항목 규모로도 현재 세계 최대인 사전이라고 하였다.

32) ≪우리말샘≫의 올림말 수는 2016년 10월 개통할 당시 1,097,693개였던 것이 2024년 7월 현재 1,163,560개(구 포함)이다. 지난 8년간 71,867개 정도의 상당한 수의 올림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안진산 외(2023)에 의하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우리말샘≫에 등록된 올림말은 제안 항목이 31,320개이고 이 중 감수된 항목이 2,009개이라고 한다.

전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협업적 사전 편찬 현상을 사전 제작 주체의 '대중화'라고 하면서 협업적 사전 편찬은 신어 및 속어, 전문용어, 소수 언어와 위기 언어, 방언 및 지역어의 수집과 기술에서 잠재력이 크며 협업적 사전 편찬은 다국어 사전 편찬에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고 하였다. ≪겨레말큰사전≫과 같이 지역어나 전문용어 올림말이 양적·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전의 경우 협업적 사전 편찬은 사전 발간 이후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과 북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한국어를 수집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앞으로의 국어사전은 사전 편찬자나 사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에서 나아가 편찬자와 사용자가 인간뿐 아니라 기계가 참여하는 세상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도 기계가독형 사전도 있었고 사전의 제작 과정에 컴퓨터가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주도권을 갖는 것에서 기계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겨레말큰사전≫은 지난 20년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왔다. 본고는 2027년 발간을 앞두고 ≪겨레말큰사전≫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국어사전의 미래를 짚어 보고 이와 관련하여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른 국어사전들과 비교하여 볼 때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와 지역어는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국어대사전들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를 그대로 싣거나 대응쌍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만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는 전체 올림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나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결과를 사전에 보여줌으로써 남과 북의 전문용어의 협력이 진일보할 수 있게 하였다.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벨 계획(Initiative Babel)인데, 바벨 계획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범주인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 관련 정책 연구 사업의 수행, 문자 체계 개발 지원 사업, 인터넷상의 다언어주의 보고서 작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화유산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귀배 2007) 유네스코는 이 바벨 계획을 통해서 지식 사회를 건설하고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세계 평화라는 이념을 달성하려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한국어 내에 있는 다양한 변종들을 채집·수록하여 사전적 정보로 담아냄으로써 유네스코의 이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발간을 앞둔 ≪겨레말큰사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남과 북이 미합의한 원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겨레말큰사전≫이 발간 이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종이사전에는 합의 원고만 싣고 전자사전에는 미합의 원고까지 싣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은 과정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결과물이 국가 지원 사업의 국어대사전으로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의 특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이사전이나 전자사전의 구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겨레말큰사전≫은 사전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전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의 사전은 사전 사용자가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전의 기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간 전과 후에 이러한 부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전의 언어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이 하나의 언어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내부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기발간된 혹은 앞으로 발간 가능한 사전들과의 연계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겨레말큰사전≫의 발간을 앞두고 지난 20여 년간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겨레말큰사전≫이 시작된 목적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 개진한 겨레말큰사전 방향성과 관련된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것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된 겨레말큰사전 관련 자료의 수치들은 사전 발간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원고 작성 과정에서 겨레말큰사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겨레말큰사전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고문헌〉

강민하·최운호(2024), 사전 올림말 연결의 자동화 방안–『우리말 큰사전』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한글』 85(1), 159–179.

고대영(2018), 남북 통일 사전 편찬 사업의 방향과 전망–"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97–119.

국립국어원(2019),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21),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22),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국립국어원.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권재일(2015), 분단 70년의 남북한 언어, 『지식의 지평』 19, 대우재단, 1–17.

김경(2018), 이용자 참여형 전자사전 연구–독일어 오픈사전과 윅셔너리를 중심으로–, 『독어학』 38, 한국독어학회 77–102.

김귀배(2007), 유네스코의 문화와 언어다양성 보존 노력, 『새국어생활』 17(4), 국립국어원, 92–99.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40.

김선철(2016), 새로운 언어 사전과의 만남: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새국어생활』 26(4), 국립국어원, 9–25.

김선철·도원영·배연경·장경식·장선우·노석은·조지연(2019),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김선혜(2013),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7–31.

김종환(2018), 포털 이용자의 사전 이용 현황, 『제32차 한국사전학회발표자료집』, 한국사전학회, 3–17.

김주성(2020), 남북언어 정책 기관의 성격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검토 –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3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21–247.

김지혜(2022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71–104.

김지혜(2022나),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4, 국제어문학회, 109–136.

김지혜(2024),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와 공공성, 『한국언어문화』 83, 한국언어문화학회, 5–26.

김철수·김양범(2007), 대용량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국어 대사전의 통계 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6), 한국콘텐츠학회, 60–68.

김현권(2013),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32–71.

김혜리(2003),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83–299.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7–12.

남길임(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최근 30년간의 사전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75–98.

박영배(2004),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탄생 배경과 의의, 『한국사전학』 4, 한국사전학회, 7–29.

배연경(2016), 사전의 진화와 미래, 『새국어생활』 26(4), 국립국어원, 43–63.

변영수(2021), 《겨레말큰사전》에서 조사·채집한 해외 교민의 한국어 유형 –카자흐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6, 겨레어문학회, 5–32.

변영수(2022), ≪겨레말큰사전≫과 통일국어교육 – 『초등 국어 저학년 우리말 틀』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7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3–74.

설성수(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분야 분류,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72–103.

손지은(2024), 규범 사전과 규범 정보 – 『표준국어대사전』 '한 걸음 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8, 우리어문학회, 493–516.

안의정(2014),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사전 편찬–전자사전 편찬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6–225.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7–39.

오민석(2024),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대상으로 –, 『한말연구』 65(3), 한말연구학회, 1–28.

위진(2018),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이용양상 분석,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7–31.

유현경(2010), 한국어대사전 편찬에 대한 새로운 제안–『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220–246.

유현경(2011), 한국어사전 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186–208.

유현경(2012),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비교 연구—언어사전으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글』 295, 한글학회, 33-71.
유현경(2021), 남북 언어 통합 사전으로서의 『겨레말큰사전』, 『언어사실과 관점』 5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30.
윤소은·남지순(2020), DECO 한국어전자사전에 기반한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활용형사전 구축 방법론 연구,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92-135.
이길재(2008),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새 어휘, 『방언학』 8, 한국방언학회, 169-195.
이선웅(2005), 세종전자사전의 구성 체계, 『성심어문논집』 27, 성심어문학회, 127-158.
이성우·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어문 규범 몇 문제 - 수학 및 자연과학, 체육 부야의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41-71.
이용훈·이종혁(2006), 국내외 전자사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 : 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29-52.
이준환(2022), 국어대사전 속의 방언 기술 현황과 분석적 이해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5-47.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이홍식(2010), 전자사전의 검색 방식 비교,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247-287.
정 철(2016), 한국어 웹 사전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생각, 『새국어생활』 26(4), 국립국어원, 27-41.
정유남(2019). 남북한 이념적 어휘와 이질화 정도 -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6)을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37-76.
정유남·이길재(2019),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지역어의 몇 문제 - 『표준국어대사전』 (웹)과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7)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64-104.
정희창(2023가),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과 해석 - 국어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 41, 한국사전학회, 65-92.
정희창(2023나),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국어사전의 체계와 방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9, 국제어문학회, 107-133.
최효정(2022), 북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과 남북 비교 연구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49-590.
한승규(2023),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으로 살펴보는 21세기 '인공 지능' 어휘 고찰,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135-145,
홍윤표(2007),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23-52.
홍재성(2009), 기존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전 개발을 위하여-, 『새국어생활』 19(4), 국립국어원, 5-19.
홍종선(2013), 민족어의 통합 통일과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1-313.
황용운(2014), 앱 사전의 특징 및 검색 방식 분석,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65-307.

Kim, Jonghwan(2023), The Development of Naver Dictionary's User Participation-A case study of Open Dictionary PRO and Accentia-, Proceedings of ASIALEX 2023,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
Rundell, Michael(2023), Automating the creation of dictionaries: are we nearly there?, Proceedings of ASIALEX 2023,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
Carter, R.(1987), Vocabulary, London:Allen&Unwin.
Cowie, A. (ed.)(1987), The Dictionary and Language Learner,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Hartmann, R. R. K.(ed).(2003), Lexicography: Critical Concepts, Routledge.
Jackson, Howard(2002), Lexicography: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Landau, Sidney. I.(2001),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chael McCathy(1990), Vocabulary, 김지홍 역(2003), 『어휘』. 범문사.
Nesi,H.(2000), Electronic Dictionaries in Second Language Vocabulary Comprehension and Acquisition: the State of the Art, in U. Heid et al. (eds.), 839-847.
Sinclair, J.M.(ed).(1987), Looking up. An account of the COBUILD Project in Lexical Computing, London and Glasrow.

Svensén, B.(1993),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Zgusta, Ladislav(1971), Manual of Lexicography, The Hague, Mouton, Prague, Academia.

〈사전류〉

국립국어연구원(편)(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1996),『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글학회(편)(1992),『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 (1992),『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1995).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표준국어대사전 웹버전)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우리말샘 웹버전)

The Future of Korean Dictionaries and ≪Gyeoremalkeunsajeon≫

Yu, Hyunkyung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uture of Korean dictionaries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Gyeoremalkeunsajeon≫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2027. In the future, the trend of online Korean dictionaries based on electronic dictionaries is expected to continue. In addition,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dictionary compilation has entered an era where machines can proactively create dictionaries rather than collaborative work between people and machines. This has led to automation becoming possible in all areas of dictionary compilation. The importance of Korean dictionaries as an economic resource will increase. All the processes of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dictionaries are expected to be valuable as a language resource in the future. ≪Gyeoremalkeunsajeon≫ is an integrated dictionary of not only the language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the Korean of overseas compatriots in China, Russia, etc. Compared to other Korean dictionaries, the specialized terms and regional languages of ≪Gyeoremalkeunsajeon≫ have unique aspects. Other Korean dictionaries display the technical term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they are or show corresponding pairs but the technical terms of the 〈Gyeremal Keunsajeon〉 do not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all entries, but by showing the results of integrating the technical term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dvance, cooperation between the technical terms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advanced.

As expectations are high for the upcoming publication of the ≪Gyeoremalkeunsajeon≫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The biggest issue is how to deal with headwords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not agreed on.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include only agreed manuscripts in the paper dictionary and even not agreed headwords in the electronic dictionary so that the ≪Gyeoremalkeunsajeon≫ can faithfully fulfill its role even after publication. The ≪Gyeoremalkeunsajeon≫ is meaningful in itself as a process for its results to have significance as a national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t seems necessary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paper or electronic dictionary through comparison with the Korean dictionary currently in service.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Gyeoremalkeunsajeon≫ needs to consider dictionary users through an analysis of dictionary users. Since future dictionaries are likely to move from a passive role to active participation in dictionary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dictionary so that these aspects can be implemented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dictionaries as language resources is increasing,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organize dictionary information so that the ≪Gyeoremalkeunsajeon≫ can serve as a language database. Linkage with other Korean dictionarie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As we approach the publication of the ≪Gyeoremalkeunsajeon≫, I believe it is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20 years and go back to the beginning to reconsider the purpose for which the ≪Gyeoremalkeunsajeon≫ was started.

◆ 기조강연



최 경 봉

원광대학교 교수

현)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 한국어학회 편집위원장,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

전) 국어학회 부회장, 민족어문학 회장, 국립국어원 국어규범정비위원

· 『우리말의 탄생-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 『한글 민주주의』, 『어휘의미론-의미의 존재 양식과 실현 양상에 대한 탐구』,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 등

국어사전의 변천과 과제

최 경 봉

원광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근대 이후 편찬된 국어사전의 변천 맥락을 짚어보면서 국어사전 편찬과 관련한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어사전의 변천 맥락을 짚어보는 것은 국어사전의 편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 구조가 달라지는 국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국어사전 편찬의 목표와 방법론이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 왔고 이 과정에서 사전의 구조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처럼 국어사전의 변천 맥락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어사전 편찬의 과제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사전의 변천 맥락 안에서 현재의 사전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어사전 편찬에 제기된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국어사전 편찬 과제의 인식과 편찬 방법론의 모색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는 일부의 원고만 남겼지만, 이를 토대로 이 사전의 편찬 목적과 편찬 방법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말모이』의 편찬 맥락과 그 구조를 분석하면서, 『말모이』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국어사전 편찬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사전의 편찬 방법론을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2.1. 『말모이』 편찬 이전, 국어사전 편찬 과제의 인식

1) 한글 글쓰기의 실현을 위한 어문 규범화

주시경은 국문 옥편 즉 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어사전에서 갖춰야 할 사항으로, ‘글자(어휘)의 수집’, ‘글자(어휘)의 뜻풀이’, ‘글자(어휘)의 발음 표시’ 등을 거론한다.

(1)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야 할지라. ①옥편을 만들자면 각색 말의 글자들을 다 모으고 글자들마다 뜻들도 다 자세히 내려니와 불가불 글자들의 음을 분명하게 표하여야 할 터인데, 그 높고 낮은 음의 글자에 표를 각기 하자면 음이 높은 글자에는 점 하나를 치고 음이 낮은 글자에는 점을 치지 말고 점이 업는 것으로 표를 삼아 옥편을 꾸밀 것 같으면 누구든지 글을 짓거나 책을 보다가 무슨 말의 음이 분명치 못한 곳이 있는 때에는 옥편만 펴고 보면 환하게 알지라. (…) ②점치는 법이 아니면 놉고 나즌 말의 음을 분간 하는 것이 공평치가 못하니 불가불 옥편에는 점치는 법을 써야 하겟고 또 글자들을 모아 옥편을 꾸밀 때에 '門문'이라 할 것 같으면 도모지 한문을 못 배운 사람이 한문으로 문'문' 자는 모르나 '문'이라 하는 것은 '열면 사람들이 드나들고 닫히면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것'인 줄로는 다 아니 '문'이라 하는 것은 ③한문 글자의 음일지라도 곧 조선말이니 '문'이라고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또 '飮食 음식'이라 할 것 갓흐면 '마실음 밥식' 자인 줄을 몰으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입으로 먹는 물건들을 음식이라 하는 줄노는 다 아니 이런 말도 또한 맛당이 쓸 것이요. (주시경, 『독립신문』, 1897년09월25일)

여기에서 두드러진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글자들의 음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문제', 즉 높은 음과 낮은 음의 글자를 구별하여 표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말이 된 것은 한문 글자일지라도 사전에 한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시경의 논설을 지석영의 '국문론'(『대조선독립협회회보』1, 1896.11.30)과 관련지어 보면, 국어사전과 관련한 당대의 문제의식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하되 분명히 기록할 수 없고 국문이 있으되 전일하게 행하지 못하야 귀중한 줄을 모르니 가히 탄식하리로다.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전일하게 행치 못함이오 전일하게 행치 못함은 어음을 분명히 기록할 수 없는 연고이러라. (…) 우리나라 국문을 읽어 보면 모다 평성뿐이오 높게 쓰는 것은 없으니 높게 쓰는 것이 없기로 어음을 기록하기 분명히 못하야 東 동녘 동 자는 본래 낮은 자 즉 동하려니와 動 움직일 동 자는 높은 자연마는 동 외에는 다시 표할 것이 없고 棟 대들보 동 자는 움직일 동 자보다도 더 높건마는 동 외에ᄂᆞᆫ 또 다시 도리가 없으며 棄 버릴 기 列 버릴 열이 두 글자로 말할진데 첫 자에 표가 없으니 국문으로만 보면 列 버릴 열 자 뜻도 棄 버릴 기 자 뜻과 같으며….

'국문을 쓸 때는 높고 낮은 음을 구별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석영의 주장을 언문일치라는 과제와 관련지어 보면, 지석영은 한자를 쓰지 않고 국문만으로도 말의 의미를 구분하여 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성조에 따라 동철어들을 구분하게 되면,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의미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석영의 글을 앞에 제시한 주시경의 글과 비교해 보면, 지석영이 성조에 따라 점을 찍어 글을 써야 함을 주장했다면, 주시경은 글자마다 점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주시경이 구상한 국어사전은 순국문 글쓰기를 위한 보조도구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주시경은 '문(門)'과 '음식(飮食)'과 같은 한자어도 국문으로만 써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시경의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어사전의 용도가 단순했던 만큼 (1①)처럼 국어사전에서 다루어야 할 언어정보도 단순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1908.3.1.)을 주목해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3)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자전 일부를 편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되, 그 문자의 고저(高低)와 청탁(淸濁)은 앞서 강정(講定)한 사람이 이미 있으니 취하여 쓸 것이오, 새롭게 괴벽한 설을 만들어내어 사람의 이목만 현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노라.(국문 연구에 대한 관견(管見), 『대한매일신보』, 1908.3.1. 국한문의 현대어 역, 밑줄은 필자.)

위 논설에서는 사전 편찬을 통해 국문 쓰기, 즉 서사의 규범화를 넘어 표준어 제정을 통한 언어의 규범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어사전에 대한 대한매일신보의 인식 수준은 (1)과 (2)의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최경봉(2016, 64-65쪽)에서 이 논설을 썼을 것으로 추정한 양기탁(梁起鐸, 1871-1938)은 게일의 『한영ᄌᆞ뎐』(1897)을 감수했었고, 1897년부터 2년간 나가사키상업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1906년 지석영이 설립한 '국문연구회'에 연구위

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이때 국문연구소의 논의 방향을 비판하며 국어사전 편찬 방법론을 제안한 인물이 양기탁이었다는 점은 대역사전의 영향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어사전의 편찬 방법론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선교사들의 이중언어사전이 발간될 무렵 사전 편찬에 대한 당대의 인식 수준은 『한영ᄌᆞ뎐』(1897)의 머리말 속 게일의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또 다른 실망스러운 점은 아직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해 준비된 원어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받은 모든 한국인이 아는 한 가지는 단어를 적절히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독립적으로 취하거나 다른 용어로 정의할 때, 그 조건과 요구 사항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화자들이 사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는 문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1)]

2) 대역사전에서 일언어사전으로의 전환

> (4) 朝鮮語의 辭書라 하면 韻書 玉篇 등 漢文을 主로 하고 正音을 附註한 書類 外에는 可觀할 者이 업섯다. 近代에 至하야 西士學者에 依하야 비로소 正音의 順序에 依하야 言語를 排列하게 되니 於是乎 朝鮮語의 辭書는 新機을 發하게 되얏다. (안확, 사서(辭書)의 유(類),『계명』8, 1925.5. /권오성 외 편(1994: 17-18)에서 재인용)

안확은 근대적 사전의 핵심적인 특징을 자모순에 따른 표제어 배열로 봤다. 한글 자모순에 따른 거시구조가 근대적 사전의 주요 특징이라면, 조선어를 표제어로 삼아 자모순으로 배열한 『국한회어』(1895)는 조선인 편찬자가 근대적 사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편찬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국한회어』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불ᄌᆞ뎐』및 『한영ᄌᆞ뎐』[2)]과 달리 표제어를 전통적인 '언문 반절표(諺文反切表)'의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점이고, 둘째는 우리말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로 한자어 및 한문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첫째 사항은 『국한회어』가 내국인을 위한 용도로 기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둘째 사항은 "國文으로 語之柄을 建하며 漢文으로 語之義를 釋하"(서문)는 편찬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한회어』의 구조가 전근대 대역사전인 '유해류'의 구조와 연결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때 표제어가 한자와 한자어구가 아닌 우리말 어휘인 것은 '유해류'의 근대적 극복이지만, 한자와 한자어구를 의미 해석과 통역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유해류'의 계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표제어를 제시하면서 한자나 한문을 뜻풀이의 기준으로 삼는 『국한회어』의 체제는 『한불ᄌᆞ뎐』 및 『한영ᄌᆞ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5) 뜻풀이 방식 비교
> ㄱ. 『국한회어』의 경우 : 가 去, 往, 適, 逝 …가가호호 家家戶戶 … 가늘다 纖細, 細瑣 / 가늘섬 纖 / 가늘셰 細 / 가다 去也 / 가다듬다 勅 / 가다듬우려 厲 / 가닥 各條 …
> ㄴ.『한불ᄌᆞ뎐』의 경우: 가邊, 가歌…가업家業, 가어ᄉᆞ假御使…가느다細, 가느ᄃᆞ다傾…가져가다持去
> ㄷ. 『한영ᄌᆞ뎐』의 경우: 가邊(가-변)…가업家業(집)(업), 가어ᄉᆞ假御使(거ᄌᆞ)(모실)(ᄒᆞ여곰)…가느다細(가늘-셰)…가져가다持去(가질-지)(갈-거)

이처럼 대역사전이 '근원어'에서 '목표어'에 도달할 때 한자어를 중간언어로 설정하는 구조를 채택하면서, 대역사전의 용도는 한자자전과 국어사전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게일의 『한영ᄌᆞ뎐』에 대한 신문 광고는 당시 대역사전의 용도를 잘 보여준다.

---

1) Another discouragement is the fact that there are no natives prepared as yet for the task of lexicography. One thing all educated Koreans know is the use of a word in its proper connection, but when it comes to taking it independently, and defining it by other terms,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are entirely foreign to their mode of thought. the only way to arrive at a definition is by comparing sentences that show the possible ways in which it is used by trustworthy speakers of the Capital.

2) 『한영ᄌᆞ뎐』의 1897년 초판에서는 영문 알파벳의 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했지만, 1911년 2판에서는 가나다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했다.

(6) 미국 교샤 게일씨가 몃 해를 두고 죠션말과 영어 옥편을 문드럿ᄂᆞᆫ듸 (중략) 죠션 사ᄅᆞᆷ 누구던지 죠션말도 ᄇᆡ호고십고 영어와 한문을 ᄇᆡ호고십거던 이 칙을 사셔 첫ᄌᆡ 죠션 글ᄌᆞ들을 엇더케 쓰ᄂᆞᆫ지 ᄇᆡ호기를 바라노라. (잡보, 『독립신문』, 1897.4.24.)

그런데 이러한 배열 구조는 서구 편찬자의 관점에서 "언어횡단적 실천"이라 할 수도 있었지만, 국어사전을 기획하는 조선인 편찬자에게는 극복해야 할 전근대적 언어 위계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말모이』의 편찬은 전근대적 언어 위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7) 뜻풀이 방식의 차이
『국한회어』 가늘다 纖細, 細瑣.
『말모이』 가늘 (엇)㉠갸름한 것의 몸피가 작음. ㉡일이 작음. ㉢사람의 짓이 잘음.

『국한회어』와 달리 『말모이』의 뜻풀이가 우리말과 순국문으로 기술된 것은 의미 기술의 표준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대역사전의 체제[3]를 일언어 사전의 체제로 바꾸는 것은 근대 초 국어사전 편찬자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2.2. 『말모이』 편찬의 의미와 성과

『말모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사전 편찬 방법론의 차원에서 『말모이』의 의미와 성과를 천착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를 국어사전 편찬 방법론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1)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거시구조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특징은 그 거시구조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같은 시기에 편찬을 시작한 『조선어사전』(1920)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에서 접두사 '가(假)'가 포함된 단어(53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비교
ㄱ. 『말모이』에만 실린 말
가감역(假監役)/가관(假管)/가근(假根)/가도사(假都事)/가두(假痘/가모긔(假母器)/가ᄆᆡ장(假埋葬)/가분수(假分數)/가엽(假葉)/가장(假裝)/가정(假晶)/가죵피(假種皮)/가집힝(假執行)/가집힝션언/가차압(假差押)/가쳐분(假處分)/가출옥(假出獄)/가피층(假皮層)
ㄴ.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에 모두 실린 말
假定(가뎡)/假量(가량)/假令(가령)/假文書(가문셔)/假房(가방)/假使(가ᄉᆞ)/假御史(가어ᄉᆞ)/假引儀(가인의)/假作(가작)/假注書(가쥬셔)/假借(가챠)/假花(가화)/假樺榴(가화류)
ㄷ. 『조선어사전』에만 실린 말
假家(가가)/假監役官(가감역관)/假官(가관)/假貸(가ᄆᆡ)/假郎廳(가랑텽)/假吏(가리)/假寐(가ᄆᆡ)/假面(가면)/假冒(가모)/假山(가산)/假珊瑚(가산호)/假蘇(가소)/假承傳色(가승젼식)/假承旨(가승지)/假飾(가식)/假玉(가옥)/假葬(가장)/假主(가쥬)/假漆(가칠)/假稱(가칭)/假託(가탁)/**假啣(가함)**/假鬟(가환)

3) 『말모이』와 같은 시기에 편찬을 시작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원고본)의 조선어 뜻풀이가 "가느다(가느러/가는) 『活』 纖細한 稱."에서처럼 철저한 국한문 형식을 띠었던 것은 이 뜻풀이가 목표어인 일본어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뜻풀이용이었음을 말해준다.

(8ㄱ)의 『말모이』에만 실린 17개의 한자어를 보면, 이들은 '가감역, 가도사, 가ᄆᆡ장'을 제외하고는 식물학, 광물학, 수학, 법률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근대 전문어이다. 반면 (8ㄷ)의 『조선어사전』에만 실린 어휘들은 대부분 전근대의 제도와 관습에 대한 어휘들이거나 전통적 한자어이다. 이러한 차이는 『말모이』 편찬자들이 20세기 이후 새로 등장한 어휘를 최대한 포함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말모이』에는 (8ㄷ)의 어휘 중 '가가, 가대, 가매, 가면, 가식, 가장, 가칭' 등 당시 일반적으로 쓰였음 직한 한자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중 '가가'를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보고 그 표준형을 '가개'로 삼았다는 점과 '가장(假葬)' 대신 '가매장'을 표제어로 삼았다는 점이다. 앞의 사례는 『말모이』 편찬자들이 일반 언중의 어원 의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말해주고, 뒤의 사례는 더 일반적인 어휘로 대체할 수 있는 한자어는 표제어에서 제외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가대, 가면, 가식, 가함, 가매' 등이 『말모이』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휘들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 언중의 어원 의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일반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한 것은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거시구조적 특징은 규범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9) 『말모이』에서 규범어의 제시 방법
ㄱ. 가멸 (엇, 제)살림이 넉넉함. 또 「가아멸」
　가아멸 (엇, 제)살림이 넉넉함. 「가멸」에 보임.
　가옴열 (엇)內에 「富」를 _____라 함. 「가멸」에 보임.
ㄴ. 가자미 (제)몸둥이 길둥글고 납작한 바다고기니 …
　가재미 (제)「가자미」에 보임.
ㄷ. 가느 (엇)「가늘」에 보임.
　가늘 (엇)㉠갸름한 것의 몸피가 작음. ㉡일이 작음. ㉢사람의 짓이 잘음.
ㄹ. 갈고랑이 (제)㉠「갈고리」에 보임. ㉡사람이 맘이 펴지 못한 것.
　갈고리 (제)무엇을 걸어올리는 곱으장하고 작으만한 나무나 쇠꼬장이.
　갈고장이 (제)「갈고리」에 보임.
ㅁ. 개미 (제) 땅 속에나 썩은 나무 속에 집짓고 모아 살는 버레니 …. 또 「개아미」
　가얌이 (제) 「개미」에 보임.

위에서 '가멸, 가아멸, 가옴열' 등이나 '가자미, 가재미' 등을 표제어로 제시한 것은 당시 언어 현실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 '「가멸」에 보임'과 '「가자미」에 보임'이라는 정보는 표준적인 어휘[4]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선어사전』(1920)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제어들 중 하나에만 뜻풀이를 하지만, 『조선어사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제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하지 않고 모두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10) 『조선어사전』(1920)에서 동의어 처리 방식
ㄱ. 가느다(가느다라타, 가늘다)
ㄴ. 가자미
ㄷ. 갈고리(갈고랑이, 갈구랑이, 갈코장이, 갈코리, 갈쿠지, 갈구지).
ㄹ. 가야미(개미)

(10ㄱ, ㄹ)은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이 '널리 쓰이는 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ㄷ)은 『조선어사전』이 같은 뜻의 다양한 어형을 최대한 수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때 하나의 어휘와 동의 관계에 있는 이형어가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대부분 일상어인데, 이는 『조선어사전』 편찬자들이 일상어의 사용 양상을 자세히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뜻한다.

4) "가장 흔이 쓰이고 소리 좋은 말"

이처럼 어휘 형태를 폭넓게 제시하는 것이 『조선어사전』의 특징이라면, (9ㄴ)과 (10ㄴ)에서 '가자미'를 처리한 방식은 두드러져 보인다. 그런데 『조선어사전』이 (10ㄴ)에서처럼 '가자미'만 올리고 '가재미'를 올리지 않은 원칙은 '난장이, 호랑이, 아지랑이' 등만 올리고 '난쟁이, 호랭이, 아지랭이' 등은 올리지 않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말모이』가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적극 반영하려 했음을 말해준다. 즉, 19세기 후반에 남부 지방에서 일반화된 움라우트 현상은 20세기 초반 서울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모이』에서는 이를 비규범 어형으로나마 먼저 반영한 것이다.

(8-10)까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의 특징은 이 사전이 조선의 구관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백과사전과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을 위한 이중어사전의 편찬을 목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거시구조적 특징은 『말모이』가 현재 쓰이는 말을 중심으로 한 학습용 사전으로, 옛 제도와 관습을 나타내는 용어에 초점을 둔 『조선어사전』과 편찬 목적을 달리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국어사전의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8ㄱ)의 『말모이』에만 실린 어휘들은 이후 편찬된 국어사전에서 부분적으로 계승된 반면, (8ㄷ)의『조선어사전』(1920)에만 실린 어휘는 거의 대부분 계승되었다는 사실이다.[5)]

(11)『말모이』에만 실린 어휘의 계승 양상
ㄱ. 계승되지 않은 말: 가관(假管)/가도사(假都事)/가모긔(假母器)/가피층(假皮層)
ㄴ.『조선어사전』(1938)부터 실린 말: 가분수(假分數)/가정(假晶)/가집힝(假執行)/가집힝션언/가차압(假差押)/가쳐분(假處分)/가출옥(假出獄)
ㄷ.『큰사전』부터 실린 말: 가두(假痘)/가미장(假埋葬)/가엽(假葉)/가장(假裝)
ㄹ.『국어대사전』(1961)부터 실린 말: 가감역(假監役)/가근(假根)/가죵피(假種皮)

(11ㄱ, ㄷ, ㄹ)의 어휘는 『조선어사전』(1938)에 계승되지 않은 반면에, (8ㄷ)의 어휘들은 '假啣(가함)'을 제외하고는 『조선어사전』(1938)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는 한자어의 경우『조선어사전』(1938)이 『조선어사전』(1920)의 표제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조선어사전』(1920)의 한자어는 대부분 『큰사전』과 『국어대사전』(1961)으로 이어져 오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말모이』의 한자어 중『조선어사전』(1938)으로 계승되지 않은 어휘는 (11ㄷ, ㄹ)처럼 『큰사전』과 『국어대사전』(1961)에 계승되기도 하지만, (11ㄱ)처럼 이후 완전히 단절되기도 했다. 이는 『말모이』가 실질적으로 이후 사전편찬자들에게 참고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사전편찬자들이 『말모이』를 참조할 수 있었다면, '가승지(假承旨)'가 계승된 상황에서 (11ㄱ)의 '가도사(假都事)'를 배제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국어사전 편찬자들이 『말모이』를 참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어휘 조사를 통해 표제어를 선정했다면, (11ㄱ)의 어휘 중 '가관, 가모기, 가피층'이 단절된 것은 1930년대 이후 전문어 사용 양상의 변화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가관, 가모기, 가피층'은 1910-20년대에만 쓰이다 사라진 전문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말모이』의 미시구조

앞서『말모이』가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틀을 제시한 최초의 성과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말모이』의 특징은 국한문 뜻풀이에서 분명해진다.『말모이』의 뜻풀이에 사용된 국한문은 당시 전문서적 및 교과서의 서사 관습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2)『말모이』에서의 뜻풀이 유형
ㄱ. 가독샹쇽인[家督相續人] (제) [法]家督을 繼承하는 人이니 被相續人의 家族된 直系卑屬에 對하아 相續人되는 것은 寸數가 다른 사이에는 가깝은 者를 하고 寸數가 같은 사이에는 男을 하고 寸數가 같은 男 又는 女 사이에는 嫡子로 하고 … (하략) …
ㄴ. 강ᄉᆞ[講師](제) 學術을 講義하는 스승
ㄷ. 갈고리 (제)무엇을 걸어올리는 곱으장하고 작으만한 나무나 쇠꼬장이.

5)『조선어사전』(1920)의 표제어는 이후 사전에 많이 참조되었는데, 게일은『한영자전』(1930) 제3판 서문에서 1897년 35,000개였던 표제어가 1911년 2판에서 50,000개로 늘어나고, 1930년 제3판에서는『조선어사전』(1920)의 표제어 35,000개를 받아들이고, 2판에 있던 인명과 지명 10,000여 개를 삭제하여 75,000여개의 표제어로 증보 발간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뜻풀이 방식은 『말모이』 편찬자들이 당시의 문어 상황을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상황으로 판단했음을 말해준다. (12ㄱ)은 법률 용어 표제어의 사용 영역 및 환경을 고려하여 국한문 뜻풀이를, (12ㄴ)은 일반 한자어의 사용 영역을 고려하여 국문 문체의 국한혼용 뜻풀이를, (12ㄷ)은 고유어의 사용 영역 및 환경을 고려하여 국문 뜻풀이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말모이』의 뜻풀이 원칙은 "표제어의 사용 영역 및 환경을 고려하여 뜻풀이의 문장 양식을 선택하되, 풀이말에 한자어가 포함될 경우 이는 한자로 표기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미시구조적 특징은 용례를 제시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면, 『말모이』에 제시된 용례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편찬자가 용례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3) 『말모이』에서의 용례 제시 양상
ㄱ. 갈 (밖)박굼(옷을 —아 입) / 갈 (밖) 문대어 깎이게(칼을 —) / 갈 (밖) 쟁기 따위로 땅을 잇다라 깊게 헤침(논을 —)
ㄴ. 깜깜 (억) ㉠빛이 없는 것(그믐밤이 —) ㉡아주 모르는 것(글이 —)
ㄷ. 갈 (제)넓이(— 넓은 큰 칼)
ㄹ. 가락 (넛)갈죽하게 만들어 놓은 작은 몬의 셈 이름(술 —. 엿 —)
ㅁ. 가 (심)어느 임을 다 만임이 되게 하는 홀소리 밑에 쓰는 토. (배— 뜨)

(13ㄱ)은 동형어를 구분하는 근거로, (13ㄴ)은 다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ㄷ)은 표제어의 사용 환경을 보이기 위한 사례로, (13ㄹ, ㅁ)처럼 문법적 사용 환경을 보이기 위한 사례로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미를 구분하고 사용 환경을 보이는 데 용례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은 비슷한 시기에 편찬을 시작한 『조선어사전』(1920)에서 용례를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6]과 비교되며, 이후 편찬된 『조선어사전』(1938)에서 용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용례 수록 원칙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말모이』 편찬자들이 편찬에 참여했던 『신자전』(1915)이 지금까지 '용례'와 '출전'을 제시한 자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편찬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자전』 편찬자들은 서양의 사전을 참조하여 자전의 미시구조를 설계하면서, 뜻풀이를 상세하게 하고 용례를 제시하는 혁신을 하였는데, 『말모이』의 미시구조를 보면, 정교한 뜻풀이와 용례 제시를 중시한 『신자전』의 편찬 방식이 『말모이』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모이』 편찬자들은 학습용 실용사전에 맞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대 국어사전의 틀과 그 편찬 방법론을 확립할 수 있었다.

3. 국어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법론의 확립 양상

『조선어사전』과 『말모이』를 통해 형성된 구조는 대체로 『큰사전』으로 이어지는데, 『큰사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출판된 국어사전은 『큰사전』에서 확립한 구조와 편찬 방법론을 바탕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3.1. 거시구조의 변천

『큰사전』 편찬을 전후한 시기 국어사전의 거시구조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사전 편찬을 계획하면서 표제어의 수가 확장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표준어 선정을 위한 어휘 평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 우리말의 집대성과 국어사전의 편찬

『말모이』 이후 우리말을 집대성하는 것은 국어사전 편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일차 집대성이 『큰사전』의 편찬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대사전이 지속적으로 편찬되면서 국어사전에 실리는 어휘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희승은 국어사전의 수록 어휘를 늘리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6) 부사의 사용 환경을 보여주거나 문법형태소의 용법을 설명할 때에만 용례를 보여준다.

(14) 언어는 그 민족의 생활 전부 즉 문화 전체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고, 사전은 그러한 언어가 담겨 있는 또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 변천하는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현대 국어 생활의 양태를 충실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사(語辭)의 수집과 정리에 노력하였다. 즉 고어, 기본어는 물론 신어·외래어·유행어·신문어(新聞語), 기타 전문어 들을 (…) 신문·잡지와 일반 교양 도서 및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 과목에 걸친 교과서 등에서 새로 추려서 …. (머리말,『국어대사전』, 1961)

위에서처럼 언어를 "민족의 생활 전부 즉 문화 전체가 담겨 있는 그릇"으로 본다면, 국어사전의 수록 어휘 수는 국어사전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사전 평가에서 사전의 우수성을 수록어 규모로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15) 대저 사전이란 어휘가 많이 또한 골고루 들어있어야 하고 그 풀이가 간명한 동시에 과학적이어야 하며, 인쇄가 똑똑하고 자체가 아름다우며 또 일상 사용에 적합한 크기와 책수와 체재여야 할지며 (…) 그런데 이 사전은 이러한 모든 점을 거의 구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그 싣고 있는 어휘가 십오만인 데다 일반어를 중심으로 하여 고어, 학술전문어, 외래어를 널리 망라하였고, 영구성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신어, 시사어를 많이 실어 재래의 국어사전에서 전연 다루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였으며 …(구자균, 국어국문학회 편「국어 새 사전」,『경향신문』, 1958.4.14.)

이처럼 중사전 규모의 국어사전에서도 수록 어휘의 수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새 우리말 큰사전』(1974)처럼 1950년대 중사전으로 편찬했던 사전을 대사전 규모로 개정하기도 했다. 수록 어휘가 사전의 평가 지표로 부각되는 것은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1992) 출간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는 그간의 사전 편찬 흐름을 표제어 수의 증가로 정리하고 있다.

(16) 61년 간행된 이희승 편「국어대사전」(민중서관)은 표제어가 23만, 74년 간행 신기철 신용철의「새 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은 31만, 82년 간행 이희승 편저「국어대사전」(민중서림)은 42만을 수록했다. (…) 우리 사전의 본류라 할 한글학회「우리말큰사전」은 모두 4권에 45만 어휘를 담았고 (…) 금성출판사 간「국어대사전」은 40만 어휘를 한 권에 담았고 (…) 한편 이들 사전제작에 참여한 전문학자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북한과의 표준어 공동 제정 ▲중국·일본·미국 등 해외교포의 사용 언어 수록 ▲사전의 CD롬 제작 등을 제시했다. (45만 어휘「우리말 큰사전」완간,『경향신문』, 1992.4.29.)

위의 기사를 통해 수록 어휘의 수를 늘리는 것을 국어사전의 과제와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과의 표준어 공동 제정"이나 "해외교포의 사용 언어 수록"은 결국 표제어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어 선정을 위한 어휘 평정과 국어사전 편찬

『큰사전』 편찬을 전후한 시기 국어사전편찬자들은 언어현실의 반영과 규범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사전편찬자들은 어휘 수록 기준을 정하는 일과 표준어 선정을 위한 어휘 평정을 함께 진행했다. 이는『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나온『표준말모음』의 표준어 역시 새로운 어휘 평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희창(2018: 108)에 따르면『표준말모음』의 표준어 어휘 항목이『큰사전』에 채택된 비율은 67.88%이고 후대의 다른 사전에서도 그 비율이 66% ~ 70% 정도이다. 국어사전 편찬자들이『표준말모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과 별개로, 언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17)『표준말 모음』의 비표준어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평가 양상-『큰사전』 편찬 이전까지

	표준말 모음 (1936)	조선어사전 (1938)	국어사전 (1946)	학생 조선어사전(1947)	표준 조선말 사전 (1947)	중등조선어사전 (1948)	조선어소사전 (1956, 북)
가	**과실 ×과일 ×실과**	과실 과일 실과	과실, 과일	과실	과실 ×과일 실과	과실, 실과	과실, ×과일, ×실과
나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	맏아들	맏아들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	맏아들
다	**맞은편 ×맞은쪽**	맞은편 맞은쪽	맞은편 맞은짝 맞은쪽	맞은편	맞은편 ×맞은쪽	맞은편	맞은편
라	**갑절 ×곱절 ×곱장이**	갑절 곱 곱절 곱장이	갑절 곱	갑절 곱	갑절 곱(절) ×곱장이	갑절 곱	×갑절 곱절 ×곱쟁이
마	**눈어름 ×눈짐작**	눈어림 눈짐작 눈대중	눈어림	눈어림	눈어림	눈어림	눈짐작, 눈대중, ×눈어림
마	**가랑비 ×가는비×세우(細雨)**	가랑비 ×안개비 가는비 세우	가랑비 가는비, 이슬비, 세우,	가랑비	가랑비	가랑비	가랑비, 가는비, 안개비

『조선어사전』(1938)에서의 표준어 판단 양상을 보면,『표준말 모음』에서 비표준어로 판단한 어휘의 대부분을 표준어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해방 이후 편찬한 사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큰사전』출간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달라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표준말 모음』의 비표준어가 국어사전에서 표준어로 처리된 예-『큰사전』 편찬 이후

	큰사전 (1957)	중사전 (1958)	국어대사전 (1961)	조선말사전 (1962, 북)	새우리말큰사전 (1975)
가	과실 과일 실과	과실 과일 실과	과실 과일 실과	과물 과실 과일 실과	과실 과일 실과
나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	맏아들 큰아들
다	맞은 편 맞은 쪽	맞은편 ×맞은짝 맞은쪽	맞은 편 맞은 짝 맞은 쪽	맞은편 맞은쪽	맞은편 ×맞은짝 맞은쪽
라	갑절 곱절 곱쟁이 곱(준말)	갑절 곱절	갑절 곱절 곱쟁이 곱(준말) ×곱장이	갑절 곱절 곱쟁이(속어) 곱 배	갑절 곱절 곱쟁이(속어) 곱 곱장이
마	눈어름 ×눈짐작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눈어림 눈짐작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눈가량	눈어림 눈짐작 눈대중
마	가랑비 ×가는비 ×세우	가랑비 세우	가랑비 세우 ×가는비 ×안개비	가랑비, 세우, 가는비(방언), 안개비	가랑비 세우 ×가는비 안개비

(17)과 (18)을 비교해 보면,『큰사전』출간 이전에 발행한 학습용 사전들은 올바른 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대부분『조선어사전』(1938)보다는『표준말 모음』을 비중 있게 참고했지만,『큰사전』편찬 이후에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표준말모음』의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남북한이 같았는데,『조선어소사전』(1956)에 비해『조선말사전』(1962)에서 표준어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편찬자들이 단수 표준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표준말모음』으로는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단수표준어 원칙이 공고한 상황에서, 국어사전 편찬자들은 비슷한 말의 의미를 달리 규정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는 어휘 의미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18)에서처럼 확장된 표준어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규범으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언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표준말모음』의 표준어를 비표준어로 평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래의 예는『표준말모음』의 표준어를 국어사전에서 달리 평가한 사례들이다.

(19)『표준말모음』의 표준어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평가 양상 –『큰사전』 편찬 이전까지

	표준말 모음 (1936)	조선어사전 (1938)	국어사전 (1946)	학생 조선어사전(1947)	표준 조선말 사전 (1947)	중등조선어사전 (1948)	조선어소사전 (1956, 북)
가	**비빈밥 비빔밥**	×비빔밥 부빔밥	부빔밥	비빔ㅅ밥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나	**아지랑이 ×아즈랑이**	아지랑이 ×아즈랑이	아지랑이	아지랑이	아지랑이	아지랑이	아지랑이
다	**갈구리 ×갈고리**	갈고리 ×갈구리	갈고리, 갈고랑이	갈구리	갈구리 ×갈고리	갈구리	갈고랑이, ×갈고리
라	**돌맹이 ×돌덩이**	돌맹이 돌덩이	돌덩이, 돌멩이	돌덩이, 돌멩이	돌덩이, 돌멩이	돌덩이, 돌멩이	돌멩이
마	**깍정이**	깍정이, ×깍장이	깍정이	깍정이	깍정이, ×깍장이	깍정이	깍쟁이

『표준말 모음』의 표준어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남한의 학습용 사전들은 『표준말 모음』의 표준어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19다)의 '갈고리'는 『말모이』에서부터 일관되게 널리 쓰이는 말로 평가된 것이었지만, '갈구리'를 유지하려 한 것은 『표준말 모음』의 판단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큰사전』출간 이후에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20)『표준말모음』의 표준어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평가 양상 –『큰사전』 편찬 이후

	큰사전 (1957)	중사전 (1958)	국어대사전 (1961)	조선말사전 (1962, 북)	새우리말큰사전 (1975)
가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부빔밥	비빔밥	비빔밥 ×부빔밥
나	아지랭이 ×아즈랑이	아지랭이	아지랭이 ×아지랑이 ×아즈랑이	아지랑이	아지랭이 ×아지랑이 ×아즈랑이
다	갈고리 ×갈구리	갈고랑이 갈고리(준말) ×갈구리	갈고랑이 갈고리(준말) ×갈구리	갈고랑이, 갈고리, 갈구리(방언)	갈고랑이 갈고리(준말)×갈구리
라	돌멩이 ×돌덩이 돌덩이	돌덩이 돌멩이	돌덩이 돌멩이 ×돌맹이	돌덩이, 돌멩이	돌덩이 돌멩이 ×돌맹이
마	깍정이, 깍장이×	깍정이	깍정이, ×깍장이, ×깍쟁이	깍쟁이 ×깍정이	깍정이 ×깍장이 ×깍쟁이

위에서 보듯이 (20마)의 '깍정이'는 북한의 사전을 제외하고는 『표준말모음』의 표준어를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결국에는 1989년 표준어 규정이 바뀌면서 '깍정이'와 '깍쟁이'의 표준어 위치가 뒤바뀌게 되었다.

3) 언어정화 성과의 반영과 국어사전 편찬

언어정화 운동의 성과를 반영하여 국어사전의 거시구조를 혁신하려는 시도는 북한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남한의 언어상황을 잡탕말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규범어인 문화어의 건설의 과제를 말다듬기운동과 연계시켰다. 이에 따라 문화어를 수록하는 사전은 통제사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말사전』(1962)을 중국의 옥편 같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교시는 강력한 통제사전인 『현대조선말사전』(1968)과 『조선문화어사전』(1973)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의 경우에도 1960년대 본격화한 한글전용정책이 한자어 정화와 연동되면서 『쉬운말사전』(한글학회)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는 순화어 모음집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전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1970년대 들어 한글전용정책이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국어순화의 중심 과제가 한자어 순화에서 서구외래어와 비속어 순화로 전환되면서, 『쉬운말사전』(한글학회)이 현실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남한에서는 국어순화를 진행하되 국어순화운동은 말 그대로 캠페인의 수준에 머물렀고, 국어사전의 거시구조를 바꾸는 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3.2. 미시구조의 변천

1) 어원 정보의 기술

국어사전의 형식과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한 『말모이』에는 어휘의 최초형으로서의 어원 정보는 기술되어 있지 않고, 외래 어휘의 기원으로서의 원어 정보만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어원 정보는 『큰사전』에서부터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큰사전』 역시 '옛말'을 별도로 수록하거나 옛말 정보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에 어원 정보를 본격적으로 기술한 사전이라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큰사전』의 옛말 정보는 그 변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 최초 출현형을 사전을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21) 여우 (옛말; 여스. 여으. 여ᄋᆞ.엿) / 짐승 (옛말: 즁싱. 즘싱) / 서울 (옛말: 셔울.셔ᄇᆞᆯ)

그렇다면 『큰사전』 편찬자들이 옛말 정보를 기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사전 편찬을 담당했던 권덕규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22) 옛말이 지금 말과 사이가 아주 뚝 떨어져 상관이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얼른 말하면 말의 뿌리를 알고 말을 바로잡고 말법을 정하는 데는 옛말이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조선말에는 옛말이 없다고 주장할 만하다. 따라서 지방말 곧 방언도 없다. 방언인 줄 아는 것이 곧 옛말이며 옛말이 곧 지금말이다. 만일 글법을 바로잡으며 사전을 꾸민다 하면 그리하야 놓으면 그리하야 보면 지방말인 듯한 것이 곧 옛말이며 지금 말인 줄만 아는 것이 죄다 옛말의 그림자여서 지금말도 옛말도 지방말도 아닌 아무 구별이 없어서 그저 보통 쓰는 말이고 만다. 다만 지금 옛말 지방말로 생각되는 것은 말의 조직과 말의 계통을 모르는 까닭 곧 이 조직과 계통을 밝히어 놓은 글법과 사전이 없는 까닭밖에는 없다. (권덕규, 옛말은 내버릴 것인가, 『신생』 1, 1929.)

권덕규는 옛말을 아는 것은 말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말의 뿌리를 앎으로써 말법 즉 문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옛말은 현재의 말과 방언 속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방언과 현재의 말은 곧 옛말을 아는 단서가 됨을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사전을 편찬하고 문법을 정하는 일이 현재의 말과 옛말과 방언을 모두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사전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말 공동체의 역사적 유대를 보여주고자 했던 당시 사전편찬자들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옛말 정보를 기술한 『큰사전』의 편찬은 '국어 공동체의 역사적 유대'를 실증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어원정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과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는 옛말을 수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어원 및 어형 변화 정보로 기술하였고, 여기에서 이룬 성과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이하 『표준』)으로 이어졌다.

2) 문법 정보의 기술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1961)에서는 머리말의 상당한 분량을 문법 용어의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23) 사전 편찬에 선행하는 문제는, 문법 체계와 용어의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저자가 다년 연구, 검토한 나머지, 가장 과학적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체계(졸저 『새 고등 문법』 참조)를 따랐으며, 용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려졌으며, 또 가장 널리 보급되어 누구든지 알기에 평이한 [명사(名詞)].[동사(動詞)]식의 한자(漢字)로 된 말을 사용하였다.

『큰사전』(1957)의 편찬에 관여하였던 이희승은 『큰사전』 출간 후 『큰사전』의 문법체계와 용어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국어대사전을 편찬하였다. 특히 이희승이 이 문제를 『새 고등 문법』(1957)의 문법체계와 용어를 채택해 해결하려 한 것은 규범문법의 장에서 이루어진 문법가들 간 경쟁이 사전 편찬의 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학교문법통일안'이 채택된 이후 수정·증보된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82)은 『새 고등 문법』(1957)에 기반했던 초판의 문법체계를 버리고 '학교문법통일안'의 문법체계를 채택한다. 『새 고등 문법』의 문법체계를 "가장 과학적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의 적용을 새로운 사전 편찬의 한 명분으로 삼았던 이희승이 이 문법체계를 포기하고 '학교문법통일안'을 따른 것은 규범문법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로부터 나온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권위가 작동한 이상 규범문법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논쟁은 이희승에게 무의미했던 것이다.

'학교문법통일안' 이후 편찬했거나 증보한 국어사전들은 대부분 '학교문법통일안'의 문법체계를 따랐고, 국가 주도로 편찬된 『표준』이 출간되면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 권위가 반영된『표준』과 문법 교과서의 연계는 규범문법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규범의 실체로서 국어사전의 권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국정 문법 교과서의 문법체계와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한 어문규정을 따르지 않은 『우리말 큰사전』(1992)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의미 정보의 기술

의미 정보의 기술 방식이 확립되는 양상은 '뜻풀이의 형식화', '의미항목 구분의 정교화', '의미 항목 배열 기준의 확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뜻풀이의 형식화
ㄱ. 『말모이』의 뜻풀이 형식
개 (안) 비나 눈 따위가 오다가 걷움.
감동 [感動](제) 저절로 느끼어지는 것.

ㄴ. 『조선어사전』(1938)의 뜻풀이 형식
개다 '自' 비가 그치고 구름 안개가 흩어지다.
감동(感動) '名' 마음에 깊이 느끼는것. [-하다'他']

(24ㄱ)과 (24ㄴ)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4ㄴ)에 이르러 명사의 풀이는 명사형으로 동사의 풀이는 동사형으로 끝맺는 뜻풀이 형식이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품사별 뜻풀이의 형식화는 현대 국어사전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어사전』(1938)에서 형식화된 뜻풀이는 당시 편찬 중이던 『큰사전』의 원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의미항목 구분의 정교화는 국어사전의 변천 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이다. 의미항목 구분의 정교화는 단어의 다의성을 정교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뜻풀이 방식이 변하는 것인 만큼, 이는 뜻풀이가 다양한 용례를 검토하는 것과 병행되었음을 뜻한다.

(25) '가다'의 의미 항목 개수 변화

조선어사전 (1938)	큰사전 (1957)	국어대사전 (1961)	새우리말큰사전 (1974)	국어대사전 (1991)	연세한국어사전 (1998)
[자] 6	[제·남]2 [돕움]1	[자] 9 [타] 1 [조] 1	[자] 19 [타] 1 [조] 1	[자] 18 [타] 4 [보조] 1	**가다**[1] [Ⅰ] 12 [Ⅱ] 5 [Ⅲ] 7 [Ⅳ] 6 **가다**[2] [조동] 2

코퍼스 구축을 통해 용례 검토가 대단위로 이루어진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에서 의미항목의 구분이 대폭 늘게 된 것은 의미항목의 정교화가 용례 검토의 확대와 연관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의미 항목이 늘게 되면서부터 의미 항목의 배열 기준이 중요해지는데, "일반적인 것, 어원에 가까운 것부터"(『새 우리말 큰사전』,1974)나 "사용빈도가 높은 것, 또는 역사적으로 근원이 되는 것부터"(『국어대사전』,199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준이 일관성을 띠지는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것과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역사적 근원과 그 확장 순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 확장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추론을 배열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러한 배열 기준은 『우리말 큰사전』("기본 뜻을 앞세우고 번져 나간 차례로")에서 명확히 제시된다. 의미항목의 배열 기준을 사용 빈도로 단일화한 사전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이다. 코퍼스에 기반하여 사전을 편찬하면서 사용 빈도의 객관적 기준이 분명해진 것이다.

4) 용례 정보의 기술

『조선어사전』(1938)은 뜻풀이를 형식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표제어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표제어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용례가 뜻풀이의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미 기술을 정교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용례를 포함했던 『말모이』와 대비되는 점이다.

용례의 제시는 『큰사전』에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문장의 용례가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은 『국어대사전』(1961)부터이다. 그후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부터는 '인용례'가 제시되기 시작하는데, 한국문학 작품에서 직접 용례를 추출하였다. 모든 표제어에 대해 용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사전 편찬 방법론이 코퍼스 기반으로 전환된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4. 디지털 시대의 국어사전과 사전 편찬의 과제

『큰사전』에서 확립된 국어사전의 기술 형식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까지 나온 사전까지 이어졌지만,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변화했다. 이는 코퍼스에 기반한 사전 편찬방법론이 정착되고, 사전의 유통과 사용이 웹사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국어사전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사전 편찬의 과제를 짚어볼 것이다.

4.1. 거시구조의 변화와 사전 편찬의 과제

1) 코퍼스 기반의 국어사전 편찬과 거시구조의 변화

1986년 연세대 사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코퍼스 기반의 사전편찬 방법론이 구체화되었다. 이 결과물은 1998년 『연세』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어 사전으로서의 어휘 사전과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의 편찬을 목표로 하면서, 표제어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쓰이는 말을 수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연세』는 '연세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가 14 이상인 단어 및 문법 형태소를 표제어로 하였다.

그러나 코퍼스 기반 국어사전의 거시구조가 실제 사용언어만을 수렴한 학습사전을 지향한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코퍼스 기반의 사전편찬 방법론에 따라 편찬되었지만, 기존 사전의 표제어와 현실 언어에서 포착되는 신어를 포괄하는 거시구조를 갖추었다.

『연세』와 『고려대』는 지향하는 바가 달랐지만, 코퍼스 기반 국어사전으로서 이 두 사전의 거시구조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은 일정 정도 기술 사전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표제어가 현실 언어의 사용 양상을 기반으로 채택되면서, 규범적 판단과 상관없이 다양한 구어 표현(그니까, 그치만, 니 …)을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어문규범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웹사전의 편찬과 거시구조의 변화

웹 공간의 특성상,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웹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사전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사용자가 편찬에 참여하여 자신의 언어 자원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웹사전의 편찬은 다음과같은 거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첫째, 웹사전 편찬에서 표제어를 선정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2016년 웹사전으로 개통한 『우리말샘』의 표제어가 100만을 넘게 된 것은 표제어를 제한하는 선정 기준이 웹사전 편찬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웹사전은 단일한 텍스트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등 거시구조의 설계가 더 사전 편찬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웹사전은 단일 사전이 아닌 통합형 사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전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편집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웹사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의 미시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4.2. 미시구조의 전환과 사전 편찬의 과제

이 절에서는 코퍼스에 기반한 사전 편찬 방법론의 변화와 웹사전을 중심으로 한 사전 유통 방식의 변화가 국어사전의 미시구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시구조를 재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 편찬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1) 문형 정보의 정교화

『고려대』의 일러두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 즉 '문형 정보', '제약 정보', '사용 영역 정보', '의미역 정보' 등은 코퍼스 기반 사전에서 부각될 수 있는 미시정보를 보여준다. 이들 미시정보는 용례에서 추출되는 언어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코퍼스에 기반하여 편찬한 『연세』는 격틀과 의미 부류 정보를 사전의 미시구조로 수용한 최초의 언어사전이다.

(26) '맺다'의 문형 정보

I	II
[1]이 [2]를 맺다	[1]이 [2]와 [3]을 맺다
① [2]매듭…	① ㉠ [3]관계·인연
② [2]열매·꽃망울	㉡ [3]계약
참 '[1]에 [2]가 -- '로도 쓰임	② 참 '[1]이 [2](복수명사)를 -- '로도 쓰임
③ [1]끝·결말·이야기	

『연세』 이후 용언의 의미 항목마다 문형 정보와 그에 따른 용례를 제시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일반적 미시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서술어의 격틀과 격틀에 포함된 논항의 의미 부류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사전 편찬의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언어학적 차원에서는 '격틀'을 '프레임 망(FrameNet)'으로 대체하여 구문 구조의 가능성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방법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맞춰 프레임 구성 요소인 논항의 의미 부류를 경험 지식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어사전 편찬에서 이러한 언어학적 논의는 뜻풀이를 정교화하거나 용례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2) 의미 정보의 정교화

문장에서의 어휘 결합 시 나타나는 의미상 제약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정보를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코퍼스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의미상 제약 양상에 대한 기술은 통계적 접근법을 강화하는 경향을 띤다.

이에 따라 단어의 결합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면서 단어 결합 구성을 포괄하는 의미가 발생하는 단위, 즉 '확장된 의미단위'를 포착하게 되었다. 코퍼스 언어학에서는 '확장된 의미단위'를 '연어(collocation)', '연접(colligation)',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 등으로 유형화(Sinclair, 2004: 24-48쪽)해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국어사전에서 이러한 결합 패턴은 뜻풀이와 용례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

(27) '전혀, 절대로, 유분수'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ㄱ. 전혀 부정어와 함께 쓰여, '절대로',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ㄴ. 절대로 ①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② [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ㄷ. 유분수 [주로 '-어도 유분수이지'의 구성으로 쓰여]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가 있음.

그런데 단어 결합의 패턴에서의 선호 경향, 즉 의미적 선호 및 의미적 운율에 대한 기술은 위의 사례만큼 명확하게 기술되지는 않았다.

(28) ㄱ. 우리 마을은 올해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다.
ㄴ. 나는 집을 나온 다음 편한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다.

위의 문장은 강범모(2011)과 남길임(2012)에서 의미적 운율로서 주목한 것인데, 의미적 운율을 반영한다면, '겪다'의 논항이 '가뭄, 전쟁, 고통...'과 같은 부류를 선호한다는 점, '잠을 이루다'가 부정적 요소와 결합한다는 경향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에서 '이루다'의 의미 항목을 구분하여, "('못',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하다."와 같이, '잠을 이루다'의 결합 패턴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을 별도의 의미항목으로 기술한 것은 의미적 운율을 의식한 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앞으로 통계적 근거를 통해 어휘 결합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운율을 확인하는 작업은 의미 기술을 정교화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미기술에 의미운율을 반영하는 것은 감성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감성 분석 사전(sentiment lexicon)[7]의 구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감성 정보를 포함하여 의미 기술을 정밀화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감성 정보로서 차별과 비하를 포함하면,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은 더 확장될 것이다. 실제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권고에 따라 차별 비하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경고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표준』에서 새로 설정한 '한 걸음 더' 항목의 기술 내용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관련어 정보의 정교화

웹사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시구조를 재편할 때 부각되는 것이 관련어 정보이다. 관련어 정보는 사전의 표제어를 관련지어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사전의 어휘 체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웹사전에서 관련어 정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고, 어휘의 의미 관계 정보에 대한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 실제 『고려대』에서는 의미 관계 정보를 의미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맥락에 따른 의미 관계 정보를 구체화했고, 『우리말샘』에서는 맥락에 따른 의미 관계 정보를 제시하면서, 어휘의미망 구축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기존 사전의 관계망 정보는 계열적 관계망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

언어사전의 구조적 특성상, 어휘 관계망 정보를 정교화하는 것은 관련어를 체계화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사전의 미시구조 전반에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전의 미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7) 감성 표현과 감성 분석 사전에 대해서는 남길임·조은경,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51~58쪽 참조.

연어 정보의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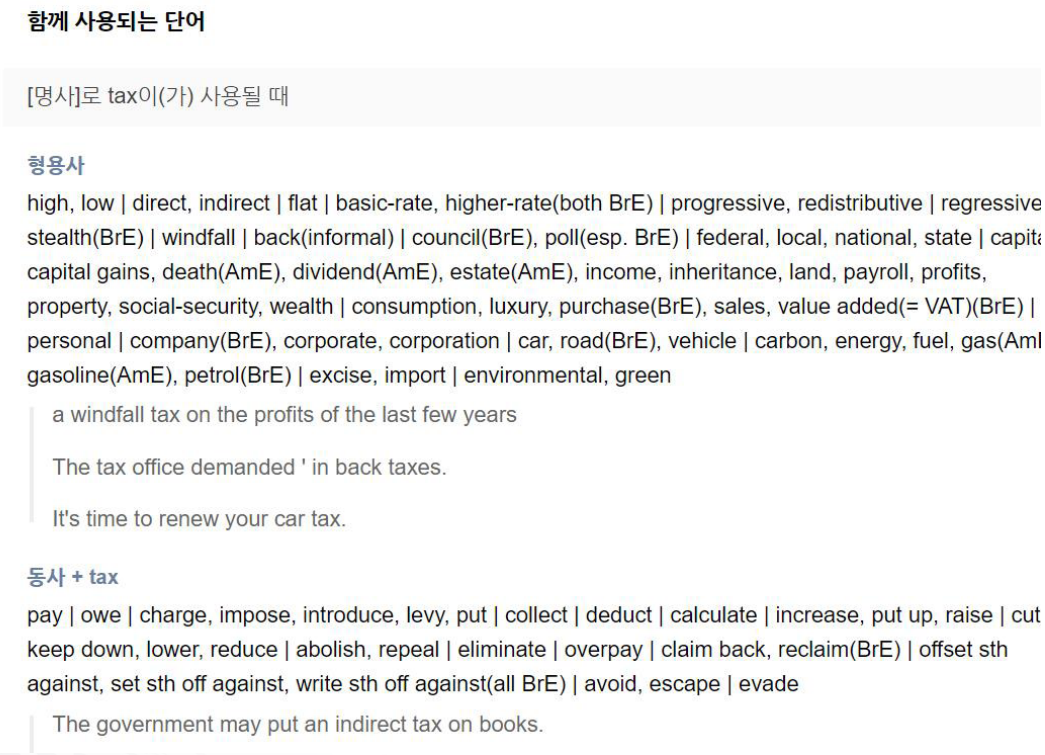
관련어 정보를 정교화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연어 정보의 관계망이다. 그간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용례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처리해 왔다.

(29) '세금' 표제어의 용례
『**표준**』 세금 계산서. / 세금 납부. / 세금 면제 혜택. / 세금 징수. / 세금을 내다. / 세금을 부과하다.
『**고려대**』 세금 포탈 / 세금 감면 / 세금을 내다 / 세금을 거두다 / 정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 내수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잘 걷히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확대한 용례가 연어 관계의 전모를 보여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세금'이 '무겁다, 가볍다'와 연어 관계에 있음은 중요한 정보임에도 국어사전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례를 확장하는 것과 별개로 연어 관계 양상을 어휘별로 정교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연어사전(*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2009*) 정보를 추가해 '학습 정보'로 제시했던 것은 웹사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0) 'tax'의 연어 관계에 대한 사전의 기술



함께 사용되는 단어

[명사]로 tax이(가) 사용될 때

형용사

high, low | direct, indirect | flat | basic-rate, higher-rate(both BrE) | progressive, redistributive | regressive
stealth(BrE) | windfall | back(informal) | council(BrE), poll(esp. BrE) | federal, local, national, state | capit
capital gains, death(AmE), dividend(AmE), estate(AmE), income, inheritance, land, payroll, profits,
property, social-security, wealth | consumption, luxury, purchase(BrE), sales, value added(= VAT)(BrE) |
personal | company(BrE), corporate, corporation | car, road(BrE), vehicle | carbon, energy, fuel, gas(AmE
gasoline(AmE), petrol(BrE) | excise, import | environmental, green

> a windfall tax on the profits of the last few years
>
> The tax office demanded ' in back taxes.
>
> It's time to renew your car tax.

동사 + tax

pay | owe | charge, impose, introduce, levy, put | collect | deduct | calculate | increase, put up, raise | cut
keep down, lower, reduce | abolish, repeal | eliminate | overpay | claim back, reclaim(BrE) | offset sth
against, set sth off against, write sth off against(all BrE) | avoid, escape | evade

> The government may put an indirect tax on books.

위의 경우 연어 관계 양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기계가독형 전자사전의 편찬 방식을 적용하면, '세금'을 연어핵으로 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선택하는 어휘함수를 설정하여 연어적 관계망을 체계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제한된 수의 함수로 의미의 보편성을 확립한다는 어휘함수 이론의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망의 유형을 정교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국어사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휘함수를 한자어와 관련지어, "納(세금)=내다, 바치다, 납부하다", "收(세금)=징수하다, 거두다, 뜯다…", "增(세금)=높다, 가혹하다, 늘다, …", "減(세금)=낮다, 줄다" 등으로 나타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의어·연상어·은유 표현의 관계망

코퍼스에 기반하여 관련어를 파악한다면, 국어사전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유의나 반의 관계 정보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휘체계를 전제로 의미 관계를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조건에 따른 의미 관계를 파악해 조직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를 단위로 관련어를 파악한다면, 관련어의 영역을 연상어나 은유 표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환(2021)에서는 코퍼스에서 단어들의 공기 정보를 추출하여 단어 사이의 문맥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문맥적 유의어를 폭넓게 발굴한 바 있다. 문맥 유사도에 근거하여 유의어의 관계망을 조직화한다면 기존의 유의어 목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한정한(2022)에서는 텍스트 내에서 응집성을 보이는 관련어의 출현 빈도가 "반복어(R) 〉 연상어(AC) 〉 포함어(I) 〉유의어(S) 〉 반의어(O)"의 순서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중 연상어는 기존 국어사전에서 관련어 정보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 내에서 어휘의 의미작용을 관찰하면, 은유 표현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관계망도 주요 관련어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원영 외(2018)에서 시도한 은유표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성과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경봉(2022)에서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 구축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든 예는 사물의 굴곡을 나타내는 말인 '밋밋하다'가 근원영역으로서 '특징이 없다'라는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양상인데, 이때 [밋밋하다=특징이 없다]는 개념도식은 [밋밋하다=재미없다], [밋밋하다=맛없다] 등의 개념도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밋밋하다'가 포함된 〈사물의 굴곡〉 의미장은 '내용', '성격', '맛' 등의 평가와 관련된 의미장과 상호작용하여 은유 표현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사물의 굴곡〉 의미장에서 이루어지는 '울퉁불퉁하다, 들쑥날쑥하다, 밋밋하다…' 등의 관계망은 '울퉁불퉁한 삶,' '울퉁불퉁한 성격', '들쑥날쑥한 맛'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 '성격', '맛' 등의 평가라는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 양상을 정리하면, 어휘의 관계망을 전제로 어휘의미를 기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밋밋하다'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① (무엇이) 생김새가 튀어나온 곳 없이 미끈하게 곧다.
② (지형이) 굴곡이나 경사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평평하며 비스듬하다.
③ (무엇이)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

『고려대』의 기술 내용에 어휘의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31③)의 의미에 제시된 '무엇'을 세분하여 하위 의미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용'의 평가에서 '밋밋하다'는 '재미없다, 따분하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등과 관계망을 형성함을 반영하고, '맛'의 평가에서 '밋밋하다'는 '맛없다, 밍밍하다, 싱겁다, 맛있다, 맛깔나다' 등과 관계망을 형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말모이』 편찬을 전후한 시기, 『큰사전』 편찬을 전후한 시기, 코퍼스 기반 국어사전 편찬을 전후한 시기로 나누어 국어사전의 변천 맥락을 짚어보면서, 국어사전의 편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 구조가 달라지는 국면을 살펴보았다.

첫째, 『말모이』 편찬이 지닌 사전편찬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서, 『말모이』 편찬이 근대 초 대역사전에까지 유지된 전근대적 언어 위계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일언어사전으로서 국어사전의 편찬 방법론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조선어사전』(1938)의 간행부터 1990년대 초 국어대사전의 간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큰사전』 편찬을 계기로 국어사전의 구조가 확립되고 이러한 구조가 1990년대 초까지의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정교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거시구조적 측면에서는 어휘의 집대성 경향과 표준어 선정을 위한 어휘 평정의 과정을, 미시구조적 측면에서는 어원 정보, 의미 정보, 용례 정보의

정교화와 문법 정보의 규범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코퍼스에 기반한 사전 편찬방법론이 정착되고, 사전의 유통과 사용이 웹사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국어사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국어사전 편찬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코퍼스 기반 사전편찬방법론의 발전과 웹사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의 미시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어휘 결합 패턴을 반영하여 의미 기술을 정교화하고, 관련어 정보를 확대하여 어휘의 관계망을 정교화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강범모(2011),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36, 1-23.

김일환(2021), 문맥적 유의어의 발굴과 의의, 『Journal of korean Culture』54, 43-70

김진해(2013), 연어 연구의 의미론적 함의-목록과 경향 사이에서-, 『국어학』68, 189-223.

김혜령·도원영(2024), 디지털 전환기 국내 온라인 환경의 차별·혐오 표현 실태와 정책 방향, 『민족문화연구』102, 11-39.

남길임(2012),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298, 135-164.

남길임·조은경(2017),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도원영 외(2018),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어의미학』61, 55-79.

옥철영(2009),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 확장』, 국립국어원.

유현경(2011), 한국어사전 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 『한국사전학』17, 186-208.

이준환(2022), 게일의 『韓英字典』의 편찬과 외국 사전 및 조선인과의 관계, 텍스트의 위상에 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47, 161-199.

정희창(2018), 표준어 어휘 항목의 수립과 전개 과정 – 국어사전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 , 『인문과학』69, 99-134.

정희창(2023),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국어사전의 체계와 방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9, 107-133.

최경봉(2022), 어휘의미망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 구성, 『동양학』86, 157-184.

최경봉(2024), 100여 년의 언어 변화와 규범 -어문규범안과 국어사전의 길항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109, 203-243.

하강진(2016), 표제어 대역 한자어의 탄생과 『한불자전』의 가치, 『코기토』80, 107-143.

한정한(2022), "국어 텍스트의 어휘적 응결성과 어휘의미망- 체계기능언어학(SFL)의 관점-", 『동양학』86, 127-155

Sinclair, J.M.(2004),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Routledge.

Trim, R.(2007), *Metaphor Networks: The Comparative Evolution of Figurative Language,* Palgrave Macmillan.

Changes and challenges in Korean dictionaries

Choi, Kyeong-bong
(Wonkwang Univ)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nging contexts of Korean dictionaries compiled since modern times and raised issues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Korean dictionaries.

Examining the changing context of Korean dictionaries means examining the changing goals and methods of compiling Korean dictionaries 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this article first attempted to materialize how the goals and methods of compiling Korean dictionaries have reflected the needs of the times and how the structure of the dictionary has changed in the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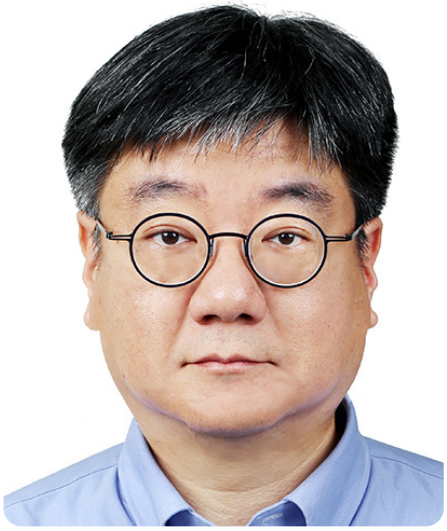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nging context of Korean dictionaries in three periods: the period around the compilation of the Malmoi, the period around the compilation of the Keun Sajeon(1957), and the period around the compilation of corpus-based Korean dictionaries, and investigated the changing goals, methods, and structures of Korean dictionaries.

Firs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ompilation of the Malmoi,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mpilation of the Malmoi was an opportunity to dismantle the pre-modern linguistic hierarchy that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early modern dictionaries, and to materialize the methodology of compiling a Korean dictionary as a monolingual dictionary.

Second, by examining the process from the publication of the Joseoneo Sajeon (1938) to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dictionaries in the early 1990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mpilation of the Keun Sajeon established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that this structure was elaborated in the process of dictionary compilation until the early 1990s. In terms of macrostructural aspects, we examined the tendency of lexical agglomeration and the process of lexical evaluation for the selection of standard words, and in terms of microstructural aspects, we examined the elaboration of etymological, semantic, and usage information and the normatization of grammatical information.

Third, we examined the changes in Korean dictionaries when the corpus-based dictionary compilation methodology was established and the dictionaries were distributed and used in the form of web dictionaries, and discussed the challenges of compiling Korean dictionaries. In this course, the need to reorganise the microstructure of dictionaries was raised in view of the development of corpus-based dictionary compilation methodology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web dictionaries. As examples of microstructure reorganisation, the task of elaborating semantic descriptions by reflecting lexical combination patterns and the task of elaborating lexical relationship networks by extending related word information were discussed.

◆ 발제 1



최 준 호

겨레말큰사전 편찬1부장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1부장

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연세대학교 국어정보학협동과정 석사

◆ 발제 1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최 준 호

겨레말큰사전 편찬1부장

서론

이 글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2027년 서비스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어떤 것인가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전자사전과 《겨레말큰사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가 어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1. 전자사전

1.1. 전자사전의 정의

전자사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사전의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만든 사전을 말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사전을 말한다. 앞으로 논의하는 전자사전은 컴퓨터를 통해 검색하는 사전을 주로 얘기할 것이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주로 어학사전, 그중에서도 국어사전을 다룰 것이다.

1.2. 전자사전의 변화와 발전

초창기의 전자사전은 CD롬 형태의 매체에 담겨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검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 나온 또 다른 형태의 전자사전은 들고 다니면서 사전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말하였다. 이러한 휴대형 전자사전은 여러 종류의 어학사전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은 백과사전도 기기에 내장하기도 하였다.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영한사전, 영영사전, 일한사전, 그리고 수십 종류의 외국어 사전까지 내장하고 있어서, 제품 선전을 위해, 얼마나 여러 종류의 사전 데이터와 얼마나 많은 표제어의 항목을 갖고 있는가를 광고하였다. 말 그대로 여러 권의 종이사전을 하나의 기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자기기였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전자사전은 모두 종이사전의 내용을 컴퓨터 또는 소형 기기에서 검색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일부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포함하기도 하였으나, CD롬이나 소형 전자기기의 용량의 한계도 있었고, 주요 기능은 아니었다.

이후 고속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사전을 검색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사전 역시 단순히 기존 사전 데이터를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읽기 쉬운 화면 구성, 하이퍼링크를 통한 단어 검색, 음성 및 동영상 데이터 추가, 방대한 용례 제공 등 점차 종이사전이 제공하지 못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터넷 전자사전은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전을 만드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 이전에는 사전편찬 전문가들이 사전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일반인들이 사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발음 정보를 위해 사용자들이 해당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녹음하여 올릴 수도 있고,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를 직접 완성하여 올릴 수도 있으며, 아예 개인이 개별 사전을 직접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넷 전자사전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영역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PC보다 화면이 작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는 적어지지만, 항상 들고 다니며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웹을 통한 전자사전과는 달리 전용 앱을 사용한 스마트폰 전자사전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추가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1.3. 북한의 전자사전

북한의 전자사전에 관한 자료는 많이 얻을 수 없지만, 몇 개의 예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예전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조선말대사전》의 2006년 증보판을 검색할 수 있었다. 단순히 종이사전을 웹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사전 원고를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 형태였다. 현재는 검색 사이트들이 없어져서 확인할 수 없으나, 기억을 더듬어보면 단어를 클릭해서 검색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도 없었던 것 같다.

어학사전은 아니지만, 2005년에 CD롬으로 제작한 《조선대백과사전》의 경우 2002년에 총 30권의 종이사전으로 발간한 《조선대백과사전》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사전을 위해 기획하고 제작한 사전은 아니며,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역시 아주 제한된 올림말에 한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울》, 《비약》, 《광명》 등의 용어사전, 대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앱을 설치해 볼 수 있는 사전은 《조선말사전》이 있다. 《조선말사전》은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는 일본인을 위해 제작한 소사전이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올림말에 대하여 일본어 대역어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인 교육용 사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특이한 점은 기본 올림말이 남과 북이 다른 경우 이를 표시를 해 놓았다.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전자사전들은 《조선말대사전》을 제외하면 모두 인터넷에 접속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 같다.

2. 《겨레말큰사전》

이번 장에서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바탕이 되는 《겨레말큰사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목표를 구현하는 그림을 미리 그려보도록 한다.

2.1. 사전 개요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국어대사전이며 2005년부터 시작하여 만들어 오고 있다. 함께 만든다는 것은 사전 제작의 모든 공정을 남북이 함께 작업하고,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등재할 올림말 선별, 사전 원고를 집필하기 위한 〈종합집필요강〉 작성, 각 측에서 작성한 원고의 검토와 최종 원고 합의, 지역어 올림말의 수집과 집필, 문헌 조사를 통한 기존 사전에 없는 새어휘 발굴 및 집필, 남과 북의 표기가 다른 올림말 합의, 사전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함께 사용할 원고 집필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1년에 4번 열리는 '남북공동편찬회의'(이하 공동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2. 사전의 제작 과정

공동회의 초반에는 올림말 선별 작업과 시범원고 집필을 통한 〈종합집필요강〉 작성을 진행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사전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1. 올림말 선별

올림말 선별은 《겨레말큰사전》에 어떤 올림말을 실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올림말 개수의 제한이 없는 사전도 아니고, 그

렇다고 기초 어휘만 싣는 소사전도 아닌 이상 적절한 올림말을 선별하는 것이 좋은 사전을 만드는 시작이다. 일반적인 사전의 올림말 선별 작업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남북 분단 이후 달라진 언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별은 기존 사전을 검토하여 그 중 필요한 올림말을 선별하는 것과, 기존 문헌어 말뭉치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올림말을 선별하는 것, 남북 지역어를 검토하여 선별하는 것, 이 세 가지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한 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각 측에서 공동회의 사이에 선별작업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올림말의 경우 공동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별한 올림말일지라도 실제 원고를 집필하고 교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올림말의 사전 등재 여부는 또다시 바뀌기도 한다.

2.2.2. 〈종합집필요강〉 작성

〈종합집필요강〉은 사전 집필을 하는 레시피라고 비유를 들 수 있겠다. 사전은 많은 사람이 원고를 집필하고 교열한다. 심지어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으로 나누어 작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뜻풀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전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종합집필요강〉에 기술해놓고 이를 모두가 공유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교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종합집필요강〉은 각 속구조별 집필 방법, 일반적인 뜻풀이 방식, 품사별 뜻풀이 방식, 각종 문장부호를 어떻게 쓰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집필요강〉 역시 시범원고를 작성하면서 그 틀을 잡았지만, 계속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교열 작업을 진행하면서 〈종합집필요강〉 역시 살을 붙이고 수정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 역시 공동회의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검토하면서 합의를 통해 수정하고 있다.

2.2.3. 원고 집필 및 교열

이렇게 올림말 목록과 〈종합집필요강〉을 완성한 이후에는 해당 올림말을 집필하고 교열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일반적인 사전의 경우 초고 작성 이후 수차례 혹은 십수 차례의 교열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일반적인 사전과 약간 공정이 다른데, 초고 작성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제일 먼저 남북은 각각 담당한 원고를 집필하여 공동회의를 통해 교환한다. 교환 원고를 각각 1차로 검토하고 수정한 원고를 다시 교환하고, 상대측에서 교열한 원고를 재검토하여 원고에 반영하는 교열 작업을 시행한다. 여기까지 작업한 원고를 공동회의에서 함께 검토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원고를 수정하여 합의원고를 완성하게 된다. 사실 이 합의 원고는 일반적인 사전 편찬 공정과 비교하면 초고와 교열 원고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는데, 추후 종이사전 편찬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면 합의 원고를 다시 교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동 교열 작업 및 나머지 합의 원고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겨레말큰사전》의 합의원고는 전체 30만 7천 개 올림말 원고 중 약 12만 5천 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만 2천 개의 원고는 각 원고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한두 차례의 검토 및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2.3.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지금까지는 《겨레말큰사전》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이 사전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아마 《겨레말큰사전》이 완성되면 보다 자세한 사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겨레말큰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사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사전과는 약간 다르다. 기존 사전의 경우 특정 올림말이 표준어인지, 지역어(방언)인지, 혹은 북한어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남측의 표준어가 북측에서는 문화어가 아닐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는 표준어와 문화어가 아닌 올림말에 한하여 그 올림말을 사용하는 지역 이름을 뜻풀이 뒤에 표시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많은 사전의 독자는 사전의 큰 역할 중 하나가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겨레말큰사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사전으로 겨레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남북 어느 한쪽에서만 규범어일 경우에 필요하다면 붙임정보라는 속구조를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되 비규범어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은 풍부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전 편찬 기관은 사전 편찬자가 단어의 뜻풀이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혹은 원고에 용례를 넣기 위하여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말뭉치를 보유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각각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남측의 경우 약 3억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중 5천만 어절은 북측에서 출판한 도서를 이용한 말뭉치인데, 전체 비율에서는 적을지 몰라도 남측에서 구축한 최대 규모의 북측 말뭉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하여 사전 원고에 풍부한 용례를 넣고 있는데, 가능하면 남측과 북측, 그리고 해외 지역의 용례를 각각 넣어주고 있다. 80년 가까이 분단이 이어지면서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진 단어라도 실제 말뭉치에서 뽑아낸 용례를 사용하여 서로의 언어생활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 겨레말큰사전》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전자사전의 특징과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거시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거시구조

처음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기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올림말의 수였다. 다시 말하면 《전자 겨레말큰사전》이 수행할 사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 위한 공동회의가 한창일 때부터도 사전을 완성한 후에 전자사전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미 남에서 사전은 종이 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넘어간 후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자사전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겨레말큰사전》을 완성하면, 그 이후에는 종이사전에 올리지 못한 올림말을 보강하고, 내용도 추가하여 전자사전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종이사전을 만드는 1차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전자사전을 만드는 일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었다. 그런데, 2015년 25차 공동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측 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추후 회의가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작업하고 있으나, 종이사전과는 별개로 전자사전 서비스를 하기로 하고 기획에 들어갔다. 여러 논의를 거친 결과 우선 종이사전의 올림말 30만 7천여 개를 바탕으로 서비스하기로 하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은 남과 북의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올림말 선별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올림말을 사전에 올리거나 삭제할 때 논의와 합의를 거쳐 목록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를 집필하고 수정하면서 관련 올림말을 추가로 집필하거나, 불필요한 올림말을 발견하면 삭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종이사전의 경우 다음 회차의 공동편찬회의에서 합의하게 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사전의 경우 북측과 논의와 합의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사전의 올림말 목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추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선별 차이 올림말을 모아서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이들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각의 사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올림말 목록에서 추가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남과 북의 표기 차이가 다른 올림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남과 북의 올림말 표기가 다른 것을 유형별로 보면 먼저 남과 북의 한쪽을 기준으로 올림말을 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남측 표기와 북측 표기를 모두 인정하는 올림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회의가 다시 열리면 논의를 더하여 결정해야 할 부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규정에 해당하는 올림말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개수는 종이사전의 올림말 개수와 차이가 나는데, 현재 《전자겨레말큰사전》 작업 대상 올림말은 약 31만 1천 개 정도이다. 이 중에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표기차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올림말은 만이천 오백여 개이며, 이는 전체 올림말의 약 4% 정도에 해당한다. 미합의 올림말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대표하는 현상이어서 종이사전의 경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웹사전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 사용자가 남측 표기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남측 표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되, 해당하는 북측 표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거시구조에서 생각할 부분은 올림말의 배열순서이다. 사실 전자사전에서 올림말의 배열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올림말의 배열은 종이사전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이므로,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바로 화면에 보여주는 전자사전의 경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인접 어휘를 가나다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사전의 경우 그러한 기능이 없다. 굳이 올림말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과 북의 사전 올림말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측 규범은 자음의 경우 'ㄱㄲㄴㄷ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모음의 경우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의 순서로 되어있고, 북측의 경우 자음은 'ㄱㄴㄷㄹㅁㅂㅅ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ㅇ', 모음은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ㅐㅒㅔㅖㅚㅟㅢㅘㅙㅞㅝ'의 순으로 남과 차이가 있다. 이에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합의를 통해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ㅐㅒㅔㅖㅘㅙㅚㅝㅞㅟㅢ'의 순서로 사전을 배열하고 있다. 사전이라는 것이 표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을 모아 풀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표준을 정하여 이것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전이 아니라 남과 북의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전 배열 역시 남과 북이 다르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전자사전에서 구현할지도 다양하게 고려 중이다.

올림말 추가의 관점에서 앞에서 전자사전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부 사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올림말을 추가하거나 집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사용자가 올림말을 추가하거나 집필하는 기능은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완성하여 서비스한 이후, 추후에 사전을 확장할 때, 단계를 거쳐 추가할 생각이다.

3.2.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는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는 올림말, 발음, 활용, 원어, 품사, 전문영역, 문법정보, 뜻풀이, 예구,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원, 순화정보, 삽화, 붙임정보 등으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살펴봐야 할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의 형식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3.2.1. 뜻풀이의 특징

거시구조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의 표기가 다른 올림말을 사전에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하여 공동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다. 어떤 올림말은 남측 표기로 사전에 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올림말은 북측 표기대로 사전에 올리는 것도 있다. 또, 양쪽 표기를 모두 인정하여 각각의 올림말로 사전에 올리는 것도 있고,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처럼 아직 최종적인 표기를 정하지 못한 것도 있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이러한 올림말들을 사용하여 뜻풀이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합의한 상태이다. 먼저, 남측 표기 혹은 북측 표기 하나로 합의한 올림말은 합의한 올림말을 뜻풀이에 사용한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이시옷이나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올림말 역시 추후에 합의하게 되면 합의한 결과를 이용하여 뜻풀이에 사용하게 된다. 남측 표기와 북측 표기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약간 복잡한데, 원고의 초고를 작성한 지역의 표기에 맞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의 원고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남과 북 양측에서 초고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교환하여 검토한다. 검토한 부분을 확인하여 원고를 수정하되, 원고 교환만으로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원고들을 공동회의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최종 합의 원고를 완성하게 된다. 《겨레말큰사전》사전 원고는 편의상 〈ㄱ, ㅁ, ㅇ, ㅈ, ㅊ〉에 해당하는 올림말은 남측에서 작성하고, 〈ㄴ, ㄷ, ㄹ, ㅂ, ㅅ,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에 해당하는 올림말은 북측에서 작성하였다. 그러니 〈ㄱ, ㅁ, ㅇ, ㅈ, ㅊ〉에 해당하는 원고는 뜻풀이에 사용하는 단어가 복수 형태 표기를 인정하는 경우 남측 표기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고, 나머지 자모에서는 북측 표기에 맞게 원고를 작성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말 그대로 남북 양측의 표기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표기를 사용해서 뜻풀이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전의 일러두기나 복수 표기 인정 올림말 목록을 유심히 보지 않은 독자라면 하나의 사전에서 어떤 올림말에서는 남측 표기대로, 어떤 올림말에서는 북측 표기대로 뜻풀이를 한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기획하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실질적으로 남측 사용자들이 대부분일 것을 감안하여 복수 표기를 인정하거나 미합의 표기 올림말을 뜻풀이에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남측 규범을 따라 사용함으로써 처음 접할 때의 낯섦을 최

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전자사전의 특성을 이용하여 복수 인정 표기 또는 미합의 표기의 경우 남/북이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뜻풀이 항목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뜻풀이 전체 혹은 특정 뜻갈래가 남에서만, 혹은 북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남/북 표지를 달기로 한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통일을 지향하는 사전으로 이러한 남북 차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전의 주 독자층이 될 남측 언중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어떠한 뜻풀이에 대하여 남과 북의 쓰임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의미 차이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 등 남북 국어사전을 참고하고, 사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말뭉치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뜻풀이 의미에 따른 남북 표지를 다는 것으로 부족한 경우, '붙임정보' 항목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3.2.2. 예문의 특징

《겨레말큰사전》의 예문은 작성례와 인용례로 구분할 수 있다. 작성례는 해당 올림말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작성한 예문을 말한다. 인용례는 《겨레말 말뭉치》에서 검색한 원전을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을 말한다. 《겨레말큰사전》 인용례는 가능하면 남측 작품, 북측 작품, 해외(주로 연변 작품) 작품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다. 이때 그 인용례의 순서는 첫 글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출전정보가 있는 인용례의 경우 남측 용례, 북측 용례, 해외 용례의 순서로 보여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전자사전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순서의 용례를 보여줌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느 지역의 용례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예문의 순서는 전자사전의 특성상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3.2.3. 붙임정보의 특징

《겨레말큰사전》에서의 붙임정보는 올림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거나 형식상 뜻풀이 문장이나 다른 속구조 항목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항목이다. 특히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상 남북의 쓰임이 다를 경우 이를 보충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종이사전과 달리 지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올림말의 어원, 남북 형태 표기 차이, 남북 의미 용법 차이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4.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의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랜 기간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 통일 이후의 언어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함께 만드는 국어대사전의 완성은 잠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는 세월을 작업해 온 결과물을 기약 없이 쌓아 두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고 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 표기에 관한 남북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완성한 전자사전을 북측 언중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자사전을 제작하는 이유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겨레말큰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남북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사전의 증보판을 10년 정도 간격으로 낸다고 보면, 사전을 출판하고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일 수도 있다. (그만큼 남북 공동 편찬사업의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너무 오래전에 작성한 원고를 살펴보고 교열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공동회의가 재개된다면, 이러한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보다 완성도 높은 사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남과 해외 동포에게 '겨레말'을 정리하고 보여줌으로써 애초에 《겨레말큰사전》의 목표 중 하나였던 통일을 준비하는 국어사전이라는 역할도 미리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써 처음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남북 공동의 큰 뜻을 이어나가려 한다.

Structure and compilation direction of《Gyeoremal Electric dictionary》

Choi, Choonho
(Gyeoremal-Keunsajeon)

This article is about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 which we are working on for the fall of 2027.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electronic dictionary, the《Gyeoremal dictionary》, and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in three parts.

We defines what an electronic dictionary is in chapter 1 to continue the story. Then We briefly look at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electronic dictionaries. We also look at North Korea's electronic dictionary.

In Chapter 2, we will discuss the《Gyeoremal dictionary》, which is the basis of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 And I describe the overall creation sequence and features of the dictionary.

Chapter 3 talks about the macro and micro structure of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 Since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is based on the《Gyeoremal dictionary》, we will focus on the differences.

Lastly, in Chapter 4, I look back at the meaning of the《Gyeoremal Electric dictionary》.

◆ 토론 1



도 원 영

고려대학교 교수

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부소장 및 연구교수

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부 부장, 국립국어원 표준정보보완심의회 위원, 한국어학회 연구 이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위원회 위원

· 『디지털 시대의 사전』(공저), 『남북감염학용어집』(공저) 등

◆ 토론 1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에 대한 토론문

도 원 영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자께서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2027년 서비스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구조적 특징과 편찬 작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사전의 정의와 최근의 활용 양상을 다룬 뒤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바탕이 되는 《겨레말큰사전》에 대해 그 목표와 제작 과정, 특징을 개괄하였습니다. 이어 《전자 겨레말큰사전》에 대해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특징, 현재 작업에서 고려되는 쟁점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들고 온 겨레가 함께 쓸 《겨레말큰사전》이 하루바삐 완성되어 그 결과물을 누리고 싶지만 공동 작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를 갈무리한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먼저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발표자와 편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포럼의 주제가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점에서 발표문에서 다룬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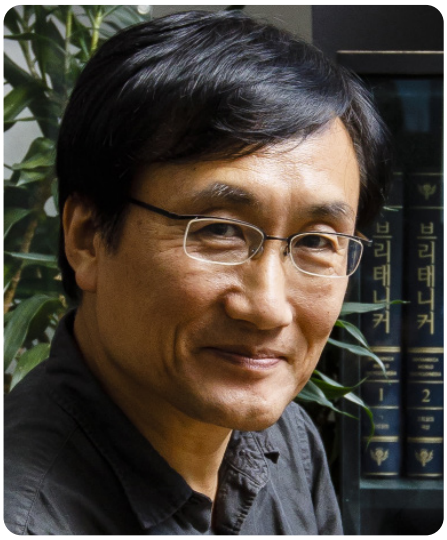
첫째,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거시 구조에서 종이사전 올림말 30만 7천여 개를 서비스하기로 하였다고 하셨고, 현재는 31만 천 개 규모라고 밝히셨는데요, 추가된 올림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겨레말〉 전자사전이니만큼 남측 이용자에게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용 사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올림말의 수는 많을수록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합의 표기형의 경우 남측 표기형, 북측 표기형 모두 올림말로서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방식이 종이사전 《겨레말큰사전》과 차이 나는 점에 대해 소상히 알려 주셨습니다. 뜻풀이 문장의 표기를 남측 이용자를 고려하여 작성한다는 점, 남북의 뜻갈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는 점 등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전자사전의 장점을 활용하여 뜻풀이문의 표기를 북측 표기형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북측과의 종이사전 공동 작업 시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준비할 때 웹 서비스 체계와 이를 고려한 데이터 편집 방향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2027년에 공개될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본격적인 전자사전이니만큼 플랫폼 서비스의 지향점, 사전 이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발표자께서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완성 및 서비스 이후에는 사전 이용자의 올림말 추가 등과 같은 참여 기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 간 미세한 의미 차이, 용법 차이에 대한 피드백, 용례의 추가, 새로운 용법에 대한 제보 등 사전 이용자와의 좀 더 폭넓은 상호 작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넷째, 북한의 전자사전에 대해 몇몇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제 북한에서의 사용 현황이나 활용 정도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발제 2



장 경 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현)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사 한국 대리인

현) 한국사전학회 이사

전) 한국브리태니커 대표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

장 경 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1. 머리말

이 글은 《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1] 편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겨레말큰사전》을 전자사전으로 편찬할 경우 고려해야 할 특성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살리기에 적절한 외국 전자사전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했다.

"명자인시이변, 지자수세이제(明者因時而變, 知者隨世而製)"라는 글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책략을 바꾸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법칙을 만든다."라는 뜻이다. 한나라 시대였던 기원전 50년 무렵 발간된 『염철론(鹽鐵論)』의 한 구절로, 『염철론』은 기원전 81년 한나라에서 있었던 소금과 철의 전매 정책에 대한 염철회의(鹽鐵會議) 기록을 문장가 환관(桓寬)이 토론 형태로 정리한 책이다. 이 구절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이 원문의 '수세이제(隨世而製)'를 '수사이제(隨事而製)'로 바꾸어, 2013년 4월 7일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鼇)에서 개최된 2013년 보아오아시아포럼 연차총회 기조연설에 인용하면서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사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도와 규칙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비록 이 연설이 기본적으로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는 했으나, '변화'와 '대응'이 2천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관통하는 인간 역사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강조하여 그 대의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소금과 철의 시대로부터 2천여 년이 지난 2023년, 미국의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서는 '2023년 올해의 단어(The Word of the Year)'로 'authentic(진짜)'을 선정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Peter Sokolowski)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발전과 함께 조회수와 검색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단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 영국의 《케임브리지사전(Cambridge English Dictionary)》에서는 'hallucinate(환각을 느끼다, 거짓 정보를 주다)', 말뭉치 기반의 사전인《콜린스코빌드 사전(Collins Cobuild Dictionary)》에서는 'AI(인공지능)'을 선정했는데,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공개한 챗지피티(ChatGPT)를 계기로 대두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

1) 주어진 발제의 주제가 '전자사전'이어서, 이 글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자사전'에 대응하는 인쇄본 사전의 호칭을 '인쇄사전'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인쇄본 사전'이라고 할 경우 대응어로는 '전자본 사전'이 적절할 것이고, '전자판 사전'이라면 '인쇄판 사전'이 적절할 것이며, '종이사전'이라고 하면 '파일사전'이, '디지털 사전'이라면 '아날로그 사전'이 적절할 텐데, 이 모두 두루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2) 2022년은 'gaslighting(가스라이팅)', 2021년은 'vaccine(백신)', 2020년은 'pandemic(팬데믹)'이었다.

수천 년을 사이에 둔 이 두 사례는 오늘 발제할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 또 하나는 '진짜와 가짜'이다. 달리 말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쇄사전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변화의 와중에서 지켜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연이 급속하게 확장된 '전자사전'의 경우, 이를 전제하지 않을 때에는 《겨레말큰사전》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전의 전자사전 편찬 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3)]

전자사전은 상당히 폭이 넓은 개념으로, 그 구체적인 구현 양상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독자/사용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었던 인쇄사전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체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전이 사회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끼치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4)], 정작 사전의 본질이나 인쇄사전이 사회 안에서 확보했던 역할을 전자사전이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듯하다. 한국의 인쇄사전에 대한 연구 역시, 문헌정보학적 의미에서 그 현황에 대한 개괄이거나[5)], 비교 평가적 연구[6)], 또는 특정 사전의 편찬사적 기록들[7)]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사전으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사전의 본질, 특히 물성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사전만이 전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이 담보하는 독특한 위상 역시 이 논의의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전의 바탕에는 반만년의 역사라는 공통점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팔십 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단절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남북은 이 사전의 편찬에 합의한 후,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라는 지상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 규범에서 나오는 차이를 극복한 공동 편찬 요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남북의 뜻풀이 차이와 같은 미시구조뿐 아니라, 올림말의 선정이나 배열순 같은 거시구조도 포함되는데, 이는 이 사전의 가치가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견인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여기에서 이 사전의 물성이 가져야 할 고유의 영역을 잘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인쇄사전에서 전자사전으로'라는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오늘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본질과 함께 《겨레말큰사전》의 특성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러 난제들을 두루 살피려다 보니, 논의의 범주를 좁히게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전자사전'을 포괄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그 범주와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전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논의에는 전통적인 사전뿐 아니라, 독자에게 사전의 용도로 이해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그 모든 전자사전의 방식과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오늘의 발제에서는 전자사전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겨레말큰사전》이 사전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전자사전 가운데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거나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이 앞의 여러 이유로 인해, 엄밀한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비평적 시론에 멈추게 될 것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

---

3) 처음 발제 주제를 접했을 때의 제목은 "외국의 전자사전 -《겨레말큰사전》 전자사전 편찬과 관련하여"였으며, 가장 주력했던 것은 디바이스형·앱형·웹형과 같은 미디어 단위부터, 폐쇄형·개방형과 같은 편찬 방식까지 외국의 다양한 전자사전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겨레말큰사전》의 특성을 깊이 살펴보고 나서, 단순히 많은 전자사전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이 글의 제목과 구조를 지금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4) 개념과 현황,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정철(2006)과 안의정(2014), 개발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용훈·이종혁(2006)과 남지순(2020). 특정 사전 데이터의 전자사전 개발에 대해서는 송길룡(2005)과 이성헌(2005), 활용에 대해서는 나승훈 외(2004)와 남희경(2014), 윤소은 외(2020) 등이 있다.

5) 정소연(1992) 등의 사례가 있다.

6) 김문영(1998), 박준식 외(1999) 등을 들 수 있다.

7) 조동일(1992), 장경식(2008), 김창일(2009) 등이 있다.

2. 사전의 본질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제시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그동안 역사의 주체가 오직 인간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품고, 기술과 인간이 모두 행위자이며, 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보았다.[8] 라투르에 의하면, 기술은 비인간 행위자의 대표적인 존재이고, 세계는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의 이합집산을 통한 집합체들의 운동에 의해 전개된다. 기술은 이러한 네트워크 전개 과정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다(김진택 2012). ANT는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 네트워크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발달이나 모바일의 보급과 같은 시스템의 변화가 사전 독자/사용자의 행동 양식에 미친 영향은 이 이론의 실현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전통적 의미의 사전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 정보'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 정보 소통의 통로가 급격하게 전환된 2000년을 전후하여, 사전과 사용자와의 관계도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ANT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사전의 변천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전의 변천 역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전을 다시 생각할 때이고, 사전의 운명을 돌이켜볼 때이며, 확장된 사전의 외연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전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환원된다. 사전을 그 안에 담긴 개별 언어와 정보의 단순한 집적물로 볼 것인가? 사전은 사회와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가? 사전이 제공하는 지식은 절대적인가? 사전의 물성은 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사전의 품질은 표제어의 숫자와 오류가 없는 문장에 있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이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과 사전의 물성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 거대한 그늘을 드리우며 우뚝 서 있는 당산나무의 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 지점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육중한 궤도가 건설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의 본질에 대한 고뇌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궤도가 지나가지 않는 다른 위치에 생사가 불투명할 옮겨심기를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의미 있는 것은 그 위치였을 뿐 당산나무 자체는 고작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과감히 둥치를 잘라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전의 위상도 이와 같았다.

그동안 우리가 '사전'이라는 저작물에 대하여 본격적인 의문을 집단적으로 품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사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저작물이 출몰했지만 역시 사전 전문가가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예컨대 미국의 기자 앰브로즈 비어스(Ambrose Gwinnett Bierce)의 《악마의 사전(The Devil's Dictionary)》이나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L'Encyclopédie du savoir relatif et Absolute)》은 사전인가 아닌가? 사전이라면 어떤 사전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사전이며, 누구에게 필요한 사전이고, 그들이 다른 사전들보다 이 사전을 보아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와 같은 비평적인 논점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항목 수는 몇 개 되지 않으면서 동시와 동화와 전설과 일기와 삽화와 퀴즈까지 넘나드는 《브리태니커 어린이 백과사전(Young Children's Encyclopedia)》은 사전인가 아닌가?

'사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렇게 다양한 인쇄사전에 더하여, 우리는 디지털 문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사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위키피디어(Wikipedia)', '나무위키', '윅셔너리(Wiktionary)'는 사전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전통적인 사전과 유사한 기능과 경험을 제공하는 포털 검색,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보 제공처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사전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

8) ANT와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주된 차이는 아마도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 '개체의 관계'에 주목하는 데 비해 ANT는 '비인간'에 주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ANT에서는 기술과 같은 비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행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ANT는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의 복합체로 보고, 이 둘 사이의 이중적인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효과를 주목한다.
브뤼노 라투르, 홍성욱 역(2010). 참조

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한 까닭은, 기술적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가져올, 본질의 붕괴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하다.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역시 원자폭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940년대 중반, 로버트 오펜하이머(Julius Robert Oppenheimer)를 포함하여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완성된 원자폭탄을 인류 최초로 도시 상공에서 폭발시켰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윤리적 죄의식에 시달렸다. 그 반대로 다행히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윤리적 인식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한 많은 선진국에서 개인 신분증에 신상과 생체 정보를 넣은 전자신분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국민 통제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 때문이다.[9] 이런 사례들은 전자사전 관련 정보기술의 발달이 제공하는 외연에 대한 기대감에만 매몰될 경우, 자칫하면 사전의 본질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타산지석과 같다.[10]

가. 사전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사전이 놓인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전의 본질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질'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11]이라고 정의하면, 인쇄사전에서 전자사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사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사전에 대한 비평적 논의는 대체로 서지학 관점에서 전통적이며 정형화된 사전에 대한 일반론에 머물렀을 뿐[12], 사전의 본질에 대한 비평적 논의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13].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었던 평가 요소가 편찬의 수준, 물리적 외형, 저작자의 권위 등을 통해 특정 사전에 대하여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보자면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악마의 사전》이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어린이 백과사전》 등은 많은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전들이 다른 사전들에 비해서 많은 독자/사용자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위해, 앞의 서지학적 논의를 포함하여, 사전의 본질에 포함되어야 할 정성적 요소를 정리해 보았다.

---

9)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1996), 김기중(1997), 장여경(2011), 김영미(2012) 등에서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와 시행 반대에 대한 개략을 살펴볼 수 있다.

10)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기 위한, 아마도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강력한 물리적 제재 수단이었겠으나, 그 결과는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극단적인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인문학적 성찰을 거치지 않은 기술 개발은, 일부에게는 이익을 주겠지만 일반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은 그 장기적 폐해를 알지 못하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파국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측하기 어렵다. 2000년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발달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정보 혁명이 과연 인간의 지혜를 깊게 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는지, 차별 철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은 나아졌으며 재화의 분배는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지, 아마존 열대 수림은 보호되었으며 기후 온난화의 추세는 줄어들었는지, 전 지구적 질병 확산은 방지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가뭄과 기근은 사라졌는지, 지난 사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진지하게 돌이켜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11)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2024. 7. 25)

12)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 요소를 분석한 박준식·김문영(1999)과 CD-ROM, 온라인 백과사전을 포함하여 평가의 범주를 넓힌 김문영(1998)에 의하면, 그때까지 여러 서지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백과사전의 주요 평가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목적과 범위 : 편찬 목적이 지식의 체계적 전달에 있는가, 단편적 정보제공에 있는가, 양자의 조합인가 등
2) 권위 : 편집진, 집필진, 출판사의 권위, 백과사전 출판의 역사와 계보, 후원기관의 명성 등
3) 접근성 : 항목 채택(대, 중, 소항목)의 적절성, 항목 형식과 배열 방법, 색인, 상호참조의 형식과 다양성 등
4) 기술 형식 : 표현의 명확성과 전체적인 일관성, 최신성의 유지와 연감과 같은 보유편의 발행 등
5) 형태적 특징 : 인쇄본, CD-ROM과 같은 다매체 여부, 책이니 단말기의 물리적 형태의 견고성, 디자인과 시각 자료의 풍부성, 삽도와 지도의 일치와 위치의 적절성 등.
6) 멀티미디어 : CD-ROM, 온라인의 경우 탑재된 멀티미디어의 수량과 품질
7) 검색 방식 : CD-ROM, 온라인의 경우 검색의 편의성과 효율성
8) 특징과 가격 : 개정의 정도, 경쟁사와의 가격 정도, 연감과 보유편의 가격 등.

13) 사전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백과사전의 독자에 대한 장경식(2019), 백과사전의 담론에 대한 장경식(2021) 등이 있다.

1) 특정 독자/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부응하는가?

사전은 분명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는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체로 발화자의 관점에서 메시지의 구성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독자, 사회 구성원은 누구이며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요청될 것이다. 또한 그 전제로, 독자와 사회 구성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맥락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흔히 참조와 학습이라고 정의되는 사전의 기본 기능을 우리는 독자/사회 구성원의 필요라고 한정하는데, 과연 사전의 필요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악마의 사전》을 참조하거나 학습하기 위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사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2) 독창적인가?

사전이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은 대단히 중요한 본질에 해당한다. 독창성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하위 분야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다. 흔히 논문의 요건으로 주제, 대상, 관점, 방법, 영역, 해석 가운데 하나라도 독창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사전 또한 이와 같다.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어디에든 독창성이 없다면, 앞에서 검토한 서지학적 평가 요소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3) 신뢰할 만한가?

사전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은 사실 비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독자가 하기 어렵다. 박준식·김문영(1999)에서 제시한 여러 요소 가운데 신뢰도를 일반 독자가 유추할 수 있는 요소는 '권위'에 불과하다. 보편적인 독자는 사전의 신뢰도에 대해서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편집진이나 출판사의 권위라는, 사실상 2차 요소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독자/사회에게 제공되는 동종의 사전/데이터/정보가 한정적이었던 시대에는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다중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상황이다. 한 검색 결과로 여러 사전의 결과물이 제시될 경우, 특정 사전 스스로는 어떻게 다른 경로로 제공되는 무수한 정보들 앞에서 스스로의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

4) 메타적인가?

사전의 근원에서 출발할 때, 사전은 분명히 메타적 관점에서 일정 분야/부문의 지식/언어 정보를 대상으로 편찬하는 2차적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메타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편찬자'의 '편찬 기준'이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일 터이다. 편찬 기준은 그 자체로 비평적 행위를 수반한다. 비평적 행위가 부족하거나 일관성을 놓치고 있다면 좋은 사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키피디어나 나무위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는 백과사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백과사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느 순간이든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뢰도를 낮추어 보는 까닭은 무엇보다 집필자의 글이 노출되는 순간에는 비평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 구조화되어 있는가?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는 대개 단위 사전 영역 안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그 구조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사회가 요구하는 대외적 구조에도 과연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유사 백과류가 자체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적절성과 유효성,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실상 기존의 사전류는 웹의 기술적 가능성과 집단 지성에 기반한 유사 백과와 유사 사전, 인공지능의 확장성에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6) 지속적으로 존재할 만한 저작물인가?

저작물로서의 사전에 대하여, 앞의 여러 가지 논점들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 가운데 서지학적 비평이 있다. 저작자가 일정한 비평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사전의 지속적 편찬과 개정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며, 또한 사회 안에서 사전 자체의 존재 이유를 검토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론비평의 관점이 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비평이 될 수도 있겠다. 때로, 대중문화론과 웹콘텐츠 전략, 서사이론과 해체이론의 관점에서 고전적 의미의 사전 존재 의의를 논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추세를 읽지 못한 채, 살아있는 화석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 사전, 담론의 구성체

이와 같은 정성적 요소를 관통하며, 여러 서지학적 요소로 드러나는 특정 사전의 본질, 즉 그 사전의 고유한 가치를 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 정보와 지식을 한곳에 모아, 여러 사람들이 그 지식을 누리게 한다는 공통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근대 이전 사전의 편찬 목적은 다양했다. 특정 인물의 사상을 분야별로 집대성한 책이기도 했고,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관료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사전들의 형태와 구성 요소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를 편찬 목적의 관점에서 달리 본다면, 사전은 그 자체로 '담론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14].

사전의 편찬은 사전마다 다른 편집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백과사전의 편집지침은 해당 사회의 주류 담론을 바탕으로 제정되기 마련이며, 편집지침에 따라 백과사전이 다루고 있는 표제어가 달라진다. 즉 백과사전의 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 하나하나는 '해당 사회의 담론, 또는 발간 주체가 강조하는 담론에 바탕을 두어 언술된 것'이다. 푸코는 어떤 사회에서 역사의 어떤 순간에 사회적 규칙을 제안하는 진술문의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담론의 실천(discursive practice)'이라고 불렀다. 담론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데, 추상적인 의미에서 담론이란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되는 언어 사용'이며,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특정한 세계관하에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구성하는 실천으로서의 담론은 페어 클라우에 따르면 특히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사회관계들, 그리고 지식과 믿음의 체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구성적이다(박해광 2007:105). 비약하자면 이렇게 생산되는 구성체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크고 상징적인 덩어리로 사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가 《백과전서(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1750)에 중세 이후 학문체계의 기본이었던 신학, 법학, 철학, 의학에 더하여 새롭게 나타났던 과학과 기술 항목들을 신학과 대등한 위상으로 다루었을 때, 이는 그 내용보다도 구조에 의하여 당대의 종교적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표상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펴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1768) 초판의 이름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또는 새롭고 완벽한 예술 과학 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 OR, A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 COMPILED UPON A NEW PLAN)'이었다는 사실은, 그 사이에 '예술(기술을 포함한)'과 '과학'이 신학, 법학, 철학, 의학보다 더 가치가 있는 '최신 담론'으로 선호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즉, 백과사전은 담론의 귀납적 결과물이면서, 또한 연역적으로 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네트워크의 한 중심이었던 것이다[15].

14) 이하 이 글 가운데 담론에 대한 내용은 장경식(2021)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한국 사회를 구성했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전통문화가 점차 붕괴하고 서구식 부부 단위 중심의 소가족제도가 태동하던 시기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롭게 밀려드는 서양 문명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발간되었던 《가정대백과사전(家庭大百科事典)》(삼중당, 1966) 같은 경우 역시 해당 시기의 담론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가정대백과사전》의 서문에서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생활 개선의 개념에서 올바른 가정문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이 책을 편찬했음을 밝혔고, 한국 전통의 잔칫상 차림 대신 서양식 파티를 구성하는 법, 양식 먹는 예법과 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교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생활 개선 담론이 6.25 전쟁 이후 중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급격하게 도입된 미국의 서구적 문화를 모델로 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편찬의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한국학중앙연구원, 1991)의 편찬 동기가 내면적으로는 1978년 북한에서 펴내기 시작한 백과사전에 대한 체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거의 공인된 사실이다. 당시 정치 지도자에 의해 강요된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담론체계가 편찬지침에 반영되어, 백과사전 표제어에 외국인이나 외국 지명이 거의 포함될 수 없었던 사정이 지금에 와서는 눈에 띄는 결락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사전의 편찬에 강력한 담론이 반영된 또 다른 사례로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辭典)》(민족문제연구소, 2009)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발간 과정에서 논란이 거듭되었는데, 이는 민감한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담론들 간에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렴되어 가는지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언어사전의 경우에도 발간 주체의 담론은 표제어의 선정 같은 거시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의 서술과 같은 미시구조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사사키 겐이치(佐々木健一)의 《새로운 단어를 찾습니다》(사사키 겐이치, 2019)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인 《산세이도 국어사전(三省堂国語辞典)》과 《신메이카이 국어사전(新明解国語辞典)》을 만든 겐보 히데토시(見坊豪紀)와 야마다 타다오(山田忠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전은 편찬자의 담론에 따라 같은 표제어의 풀이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야마다 타다오는 "사전은 문명비판"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동물원] 생태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한편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잡아 온 많은 조수·어충 등에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것을 강요하며 죽을 때까지 기르는 인간 중심의 시설."[16]과 같은 풀이를 통해 언어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사전의 비평적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사전인 《메리엄웹스터》의 첫 편찬자 노아 웹스터((Noah Webster)는 독립전쟁을 전후하여 영국과 다른 미국어를 독립시키기 위한 고유의 철자법을 제안했고, 이를 《메리엄웹스터》사전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같은 언어라도 국가 담론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언어 체계가 구조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17].

---

15) 백과사전이 어떤 집단이 가진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구체화된 담론의 덩어리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우, 특정 지명이나 사건의 표기, 항목의 기술 방향, 분량의 규모 등에 있어 백과사전의 보편적 중립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동해(East Sea)'에 대한 한국의 백과사전과 일본의 백과사전의 표기, '6.25전쟁'의 발발에 대한 한국과 북한 백과사전의 기술, 영어판에서의 미국의 어떤 도시와 한국어판에서의 같은 도시 항목의 분량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백과사전을 누가 썼는지, 어느 국가에서 발행하는지, 어떤 언어로 기술되는지, 누가 주된 독자인지에 따라, 즉 해당 집단의 주류 담론에 따라, '사실'의 기술, 원인과 결과 및 영향 관계의 분석 등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한 언어로 편찬된 백과사전이 다른 언어 또는 나라 판으로 옮겨져 만들어질 때에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떤 표제어이든, 세계 공통의 함의를 가진 것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객관적 기술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는 과학 분야의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과 관련된 관점들은 편찬 주체와 독자와 언어와 나라마다 해당 정치적 집단의 보편적 담론에 의지하게 된다. 한 사회 안에서도, 백과사전이 갖는 '담론의 표상'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백과사전 편집자에게 중립성의 훼손을 강요하는 압력이 작용하기도 한다.

16) 4판의 내용이었고, 동물원의 항의가 빗발치자, 7판에서는 "포획한 동물들에게 인공적인 환경과 규칙적인 사료를 제공하며 야생으로부터 유리시킨 후, 도시인들에게 움직이는 표본으로 소개하는 계몽을 겸한 오락시설"이라고 수정했다.

17) 한반도에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하나로 1921년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고,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조선어사전 편찬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한글맞춤법통일안〉·〈표준어사정(標準語査定)〉·〈외래어 표기〉 등을 제정했다. 조선어학회가 1942년 4월 그동안 작업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인쇄에 들어가게 되자, 일제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라고 판결하고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하여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등의 편찬자를 투옥하였다. 이를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한다. 해방 후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적의 사전 편찬이 추진되었다. 월북한 언어학자 김수경을 중심으로 조선어문연구회가 구성되었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① 한자, 횡서, 철자법 방안 책정 ② 문법 체계화 ③ 사전 편찬을 핵심사업으로 정했다.(이타가키 류타 2024:139~212) 이처럼 언어사전은 대개 근대국가 수립의 토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모든 사전은 '담론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 인쇄사전은 그 모두가 특정 분야에 대한 편찬 주체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된 담론의 구성체였으며, '종이책'이라는 물성을 통해 그 담론의 총체와 함께 정체성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편찬 주체의 담론은 올림말의 선정과 배열순서 같은 거시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의 뜻풀이말과 같은 미시구조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유재원의 《우리말 역순사전》(정음사, 1985)은 올림말의 배열순서라는 거시구조가 보여주는 가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모범일 것이다.

이처럼 담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전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편찬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담론 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을 정제하고 집약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이 창출한 담론의 다양성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깊이를 독자와 사회에 제공해 왔다. 그 결과로 각각의 사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담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3. 《겨레말큰사전》의 본질과 특성

《겨레말큰사전》은 대단히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사전이다.[18]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겨레말은 물론 해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겨레말을 한데 모으고, 남북이 사전 편찬 역량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함께 추진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19] 남북이 합의하여 정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2005. 7.)에는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 사전"임을 밝히고 있으며,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여, 이 사전의 엄밀성을 규정했다. 이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모든 과정이 남북의 공동 작업과 공동 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며 남북 언어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편찬 배경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겨레말큰사전》의 본질과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가. 통일 담론을 전제한 미래의 사전

남과 북은 이 사전의 편찬에 합의하며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라는 지상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 규범에서 나오는 차이를 극복한 공동 편찬 요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 사전의 가치가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견인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과 북의 현행 언어 규범과 다른 새로운 언어 규범을 제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언어 규범 가운데 사이시옷, 두음법칙과 같은 일부는 아직 미결인 상태로 남았지만, 한글 자모의 배열순서 등은 현행 남과 북의 배열순과 다른 새로운 규범이 채택되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한글 자모순에서는 겹자음인 'ㄲ·ㄸ·ㅃ·ㅆ·ㅉ'이 'ㅎ'의 다음에, 'ㅇ'은 가장 뒤에 배열되어 있어, 남과 북의 사전 항목 배열순서도 서로 다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바,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담론 구조에 따라 언어 규범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통일 담론을 토대로, 남과 북의 규범을 절충한 자모순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ㅇ'은 남과 같이 'ㅅ'과 'ㅈ' 사이에 오게 하되, 겹자음인 'ㄲ, ㄸ, ㅃ, ㅆ, ㅉ'은 북과 같이 'ㅎ'의 다음에 넣는 순서이다. 이 새로운 자모순을 채택한 거시구조는 아마도 《겨레말큰사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특별한 사전이 이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위상과, 이 사전이 바탕에 두고 있는 담론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전에 적용된 담론은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견인한다.

---

18) 홍종선(2012)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과제에 대한 포괄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19) 이하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개괄과 내용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https://www.gyeoremal.or.kr) 참조

1) 물성의 관점

통일 담론을 전제로 편찬되는 《겨레말큰사전》은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서 가상의 언어규범이 구현되었을 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 이런 종류의 사전은 그 자체가 물성을 가진 독립적인 실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북의 같은 올림말의 의미 차이('낙지'와 '오징어'), 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올림말('한복'과 '조선옷') 사례의 제시에 더하여, 미래의 언어 규범 가운데 하나인 낯선 배열순서까지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언중이 서로의 언어생활을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도구로서 이 사전이 지향하는 담론 구조 전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 인쇄사전은 사용자에게 통일을 전제로 한 '겨레말' 담론의 구성체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그 물성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2) 미래의 독자

수록 올림말이 30만여 개에 이르는 《겨레말큰사전》에 적용되는 규범은 남북의 현행 어문 규범을 토대로 하여 남북이 학술적 논의를 거쳐 보완 작성한 통일 지향적인 단일 언어 규범이다. 이 규범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단일 규범이지만, 단계적인 수정, 보충, 완성의 과정을 거쳐 민족어 통일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잠정적인 '통일 규범' 초안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이 규범은 남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이는 《겨레말큰사전》이 현실적으로 당대의 언중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참고할 실용적인 사전이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담론을 전제로 한 미래의 규범이 적용된 사전임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한국어 연구자, 또는 통일 담론에 관심이 있는 남과 북의 일반 언중이 이 사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전통적 언어사전의 용도인 학습용이 아니라, 한 언어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어를 참고하고자 하는 일종의 방언사전이나 이중언어사전의 개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나. 규범적 사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측 편찬위원회와 북측 편찬위원회로 구성된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외에 남북 각 측에는 사전 편찬 실무를 담당하는 사전편찬실이 있어 사전의 올림말 선정, 새 어휘 채집 · 선정, 원고 집필 및 상대측 집필 원고 교차 검토, 사전 편찬에 필요한 각종 집필 프로그램 개발, 《겨레말큰사전》에만 적용하기 위한 남북 공동 어문규정 편람 작성 등의 사전 편찬 실무를 진행하여, 여러 논점들은 남북공동회의를 통해 남북 합의안이나 공동 작업 지침 등으로 작성되어 남북의 사전편찬실에서 이에 따라 일련의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한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원고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집필하며, 집필한 원고는 남북이 서로 교환하여 검토한 뒤에 그중 재논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고는 남북의 편찬위원과 편찬원이 함께하는 남북공동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 최종 합의 원고로 만들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 사전이 남과 북의 현행 어문규범과 다른 통일 언어규범을 전제로 편찬되며, 모든 올림말과 풀이말도 남과 북의 합의와 확인을 거쳐 확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이 사전에 강력한 통일 담론이 규범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일반 언중의 개입이 편찬에 반영되기 어려움을 뜻한다.

다. 이중언어사전과 단일언어사전의 과도적 사전

《겨레말큰사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전제로, 상대방의 언어와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남과 북의 현행 언어와 함께, 해외 동포의 우리말도 포함하여 민족어 사전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일차적으로 남의 《표준국어대사전》, 북의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올림말에서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를 우선 선정하여 합의하고, 방언, 민속 어휘, 동식물 이명, 직업 어휘, 문학 작품에서 뽑은 말, 새말 등 광범한 분야의 문헌 자료와 생산 현장에서 어휘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민족 고유의 어휘 표현을 많이 올리도록 했다. 또한 현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별했다. 어느 한쪽 사전에만 올라 있는 어휘의 경우, 과학 기술 발전과 관

련한 어휘, 역사제도와 관련한 어휘, 고유어와 방언은 올림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에서 나누어 집필한 뜻풀이 내용을 서로 교차 검토하여 각 올림말별로 최종 합의안을 만들며, 뜻풀이에는 남과 북, 해외에서 쓰이는 의미와 용례를 모두 포함하되, 이념이나 정치적 가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사전에는 언어규범과 사회문화가 다른 두 언중이 사용하는 어휘와 뜻풀이, 용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이 사전은 일종의 이중언어사전에서 단일언어사전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사전의 형태와 의미를 갖고 있다.

4. 전자사전 개발에 고려해야 할《겨레말큰사전》의 특성

앞에서 논의한 사전 본질의 여러 요소들에 따르면,《겨레말큰사전》은 현재와 미래의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에게 통일되었을 때의 언어규범을 제시하고 이 규범이 적용되었을 때의 언어생활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담론의 구성체로 기능한다. 즉 이 사전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그 자체로 통일 담론의 실현에 기여하는 행위자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전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20]. 또한, 민간 차원이 아니라 남북의 정부 차원에서 통일의 미래를 지향하는 통일 담론을 반영하여, 오랫동안 구축되고 시행된, 서로 현저하게 다른 언어규범을 극복하는 모델을 고안했다는 점에서《겨레말큰사전》은 유례를 찾기 드문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의 정부 산하 기관이 발행한 대표적인 한국어사전을 토대로 올림말을 선정했다는 점과,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의 남과 북 편찬위원이 편찬 내용을 교차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전은 높은 수준의 공적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언어규범을 통합/절충한 새로운 언어규범을 고안하고 이를 모든 올림말과 뜻풀이말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비평적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롭게 규정한 배열순과 같은 거시구조와 남과 북의 용례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미시구조를 통해 편찬 의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이라는 미래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되고 통일 이후에는 공동의 언어규범으로 적용될 것을 전제로 편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전은 비평적으로 보아 독보적인 존재 가치를 갖추고 있는 사전이라고 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이 통일 담론을 전제한 미래의 사전이라는 점에서, 인쇄사전은 사용자에게 통일을 전제로 한 '겨레말' 담론의 구성체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그 물성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현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2000년 초기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전은 일반적인 도서와는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디지털 시대 초기 과도적 매체였던 시디롬이 개발되면서, 사전의 많은 정보를 쉽게 담을 수 있는 매체로 채택되었고, 인터넷 발달에 따라 사전의 '물성'은 일반 도서와는 달리 그 대중적 효용을 급격하게 잃었다. 인쇄본 사전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특성들, 특히 담론의 구성체로서 보여주던 각각의 정체성도 인터넷상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앞에서 말한《겨레말큰사전》의 여러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사전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겨레말큰사전》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질적으로 이 사전은 가장 중요한 특성인 통일 담론에 바탕을 둔 가상의 언어규범이 구현되었을 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 따라서《겨레말큰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총체적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쇄사전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전의 다양한 담론의 구성 방식, 예컨대 현행 남북의 언어규범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이 사전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모순서 등도 이 전자사전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20) 안삼환(2004), 최경은(2015)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된 동독과 서독의 경우 분단 40년, 베를린 장벽 28년 동안 동독과 서독 언어는 어휘와 단어 사용 분야 외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단 시기 동서독의 언어학자들은 그림(Grimm) 형제의《독일어사전(Deutsches Wörterbuch)》편찬(1838-1960)과 독일어 정서법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 등 국가 차원의 언어정책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했으며, 그 결과 통일 후 언어통합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이는 한반도와 같이 분단 시점에서 급격한 언어규범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격리되었던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 남과 북의 현행 어문규범과 통일을 전제로 이 사전에서 적용한 공동 어문규범의 차이를 개별 항목에서 느낄 수 있으며, 뜻풀이에서 남북의 각각의 용례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굳이 시점을 정의하자면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어원과 어의(여기에는 남과 북에서 이미 존재했던 방언형도 포함), 이후 분단 후에 서로 다르게 발전한 남과 북의 언어규범 및 언어생활에 따른 어의의 변천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올림말에 대하여, 남과 북의 용례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용례의 근거가 되는 언어규범이 제시되어 이 사전의 사용자에게 이 사전의 편찬 의의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 뿐더러, 전문연구자들에게는 학술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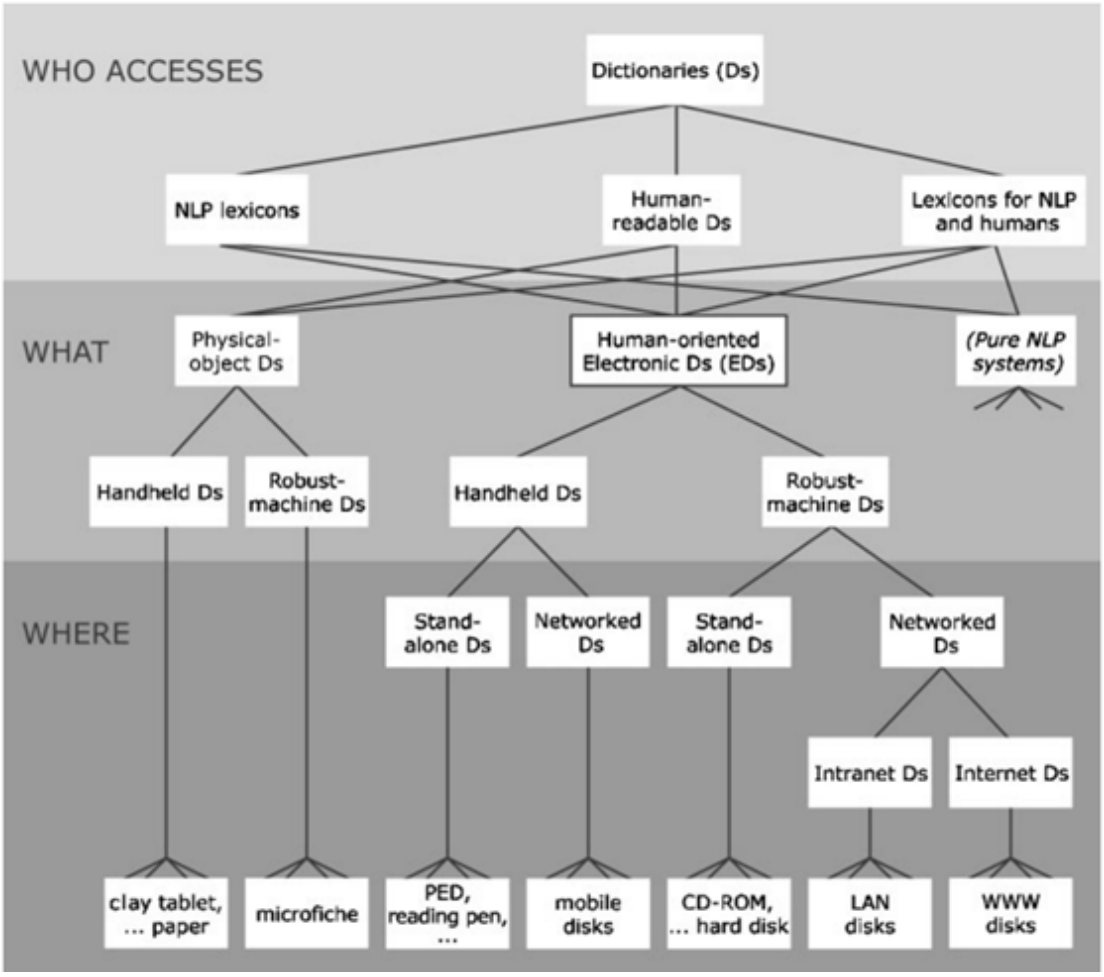
3) 이 사전은 편찬 경위에서 알 수 있듯, 남과 북의 공동 편찬 요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올림말과 풀이말도 남과 북의 합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사전의 최근 여러 동향에 따른 사용자 참여형 모델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이 사전이 앞에서 검토한 바 남과 북이 합의한 미래의 언어규범에 바탕을 둔 강력한 규범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이후 만일 남과 북이 사용자 참여 기능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그 규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1].

5. 외국의 전자사전

가. 전자사전의 정의와 유형

전자사전의 정의로 흔히 인용되는 것은 “단어의 철자, 의미 또는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형태로 저장된 모든 참고 자료”(Nesi 2000:839)이다. 힐러리 네시(Hilary Nesi)는 정의에 이어 “따라서 워드 프로세서의 교정프로그램, 인쇄된 단어를 스캔하여 번역하는 장치, 온라인 교육 자료의 용어집, 또는 전통적인 인쇄사전의 전자 버전은 모두 일종의 전자사전이며, 동일한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 내용이 아니라 검색 시스템 때문에 전자사전 사용은 인쇄사전을 참조하는 것에 비해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인쇄사전은 주로 선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는데, 이는 일련의 개별 항목을 나열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의미와 실용적 유사성, 가치 및 결합 패턴, 문자 조합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알파벳 배열순은 사실상 무의미한 순서로 올림말을 배치하기 때문에, 알파벳 배열순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단어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구문과 관용어 검색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사전의 텍스트 검색은 편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 필드의 단어 그룹에 거의 즉시 접근할 수 있다.”(Nesi 2000:839-840)라고 언급하면서 전자사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인쇄사전과 전자사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한편, 당시까지 논의되었던 전자사전의 유형을 새롭게 정리했다.

21) 드 슈리버는 사용자가 직접 편찬에 참여하는 개방형 전자사전에 대하여, 얼핏 보아 흥미롭고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품질 관리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과학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예측했다. 대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올림말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은 편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De Schryver 2003:160). 드 슈리버는 벨기에 겐트대학교의 아프리카언어학 교수로, 2002년 사전 편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TshwaneDJe HLT를 공동 설립했고, 2006년 아프리카 언어 기술 그룹을 창립했다. 반투어 코퍼스 언어학과 일반적인 사전 편찬에 관한 400여 종의 책과 논문의 저자·공동 저자로 디지털 기반 사전 편찬에 기여했으며, 아프리카사전학회(Afrilex)의 회장(2009-2013), 유럽사전학회(Euralex) 회장(2018-2021)을 역임하고, 중남미사전학회(Americalex-S) 창립을 주도했으며, 세계사전학회(Globalex) 회장(2022-2023)을 지냈다.



[그림 1] 질모리스 드 슈리버가 제시한 3단계 접근 사전 유형

질모리스 드 슈리버(Gilles-Maurice de Schryver)는 네시의 정의와 분류를 참고하되(De Schryver 2003:147),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접근하는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 분류를 제안했다(De Schryver 2003:149-150). 그는 "누가 무엇에 어디에서 접근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 유형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그림 1], 첫 번째 단계는 "누가 사전에 접근하는가?"로, 기계 또는 인간의 두 가지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에 접근하는가?"로, 사전의 물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쇄사전과 전자사전으로 구분했다. 그는 논의의 주제인 전자사전의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인간 중심의 전자사전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단말기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를 포괄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 접근하는가?"로, 사전 데이터의 저장 유형을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점토판에서 파피루스, 종이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나 이 매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촬영한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매체와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매체로 구분했다. 디지털 매체는 독립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했는데, 독립형은 CD-Rom이나 흔히 손에 들고 다녔던 전자사전 단말기들을, 네트워크형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소와, 그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뜻하며, 로컬 영역의 인트라넷 네트워크에서만 접근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했다.

오늘날까지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인용되고 있는 네시의 정의를 인용하고, 드 슈리버의 유형 분류에 최근의 동향을 보강해 본다면, 사용자 편찬형 사전인 윅셔너리(Wiktionary)나 어반 딕셔너리(Urban Dictionary)도 전자사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말뭉치 기반 인공지능 기반 언어사전인 테오 호펜버그(Theo Hoffenberg)의 리버소콘텍스트(Reverso Context) 역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호펜버그는 사전의 정의를 "사용자가 문맥에 따라 단어나 표현의 올바른 의미나 번역을 찾도록 돕는 것"[22]이라고 설명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사전의 정의를 새롭게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이나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이 사용자가 언어정보나 백과사전적 지식을 검색하여 답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사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https://slator.com/reverso-ceo-theo-hoffenberg-on-building-language-technology-used-by-millions/

나. 《겨레말큰사전》 전자사전 편찬을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전자사전

초기 전자책 형태와 단말기형 전자사전으로 출발했던 전자사전의 기능은 작금에 이르러 사용자 참여형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달했다. 사용자들은 구태여 '전자사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제공하는 '전자사전'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바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을 참고한다면, 전자사전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 이 사전에 적절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추세에 따라 인터넷 기반이 아닌 것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 참여형도 일단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여러 사전 통합 검색 서비스 등 사전의 개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전류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통일 담론이 반영되어 있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사용자에게 잘 인식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이 사전을 이용할 전문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한편, 대중적 흥미 요소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의 언어생활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 편찬 방향에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외국의 전자사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그림(Grimm) 《독일어사전(Deutsches Wörterbuch)》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은 1838년 라이프치히 바이트만(Weidmann) 출판사의 카를 라이머(Karl Reimer)가 야코프 그림(Jacob Grimm)과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에게 독일어사전의 편찬을 의뢰하면서 시작했다. 1854년 1권이 발간되었으며, 그림 형제 사후에도 여러 개인 집필자가 편찬 작업을 계승했다. 1908년 프로이센 학술원이 이 사업을 인수하여 체계적인 공정이 마련되었으며, 1930년 베를린에 상근 사전편찬실이 개설되었다.

1945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이후에는 동베를린의 동독 학술원과 서독 괴팅겐의 서독 학술원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전 작업을 지속했으며, 1960년 베를린과 괴팅겐에서 32권의 본책을 발간했고, 1971년 색인을 발간하여 완간한 후에도 지금까지 개정작업을 지속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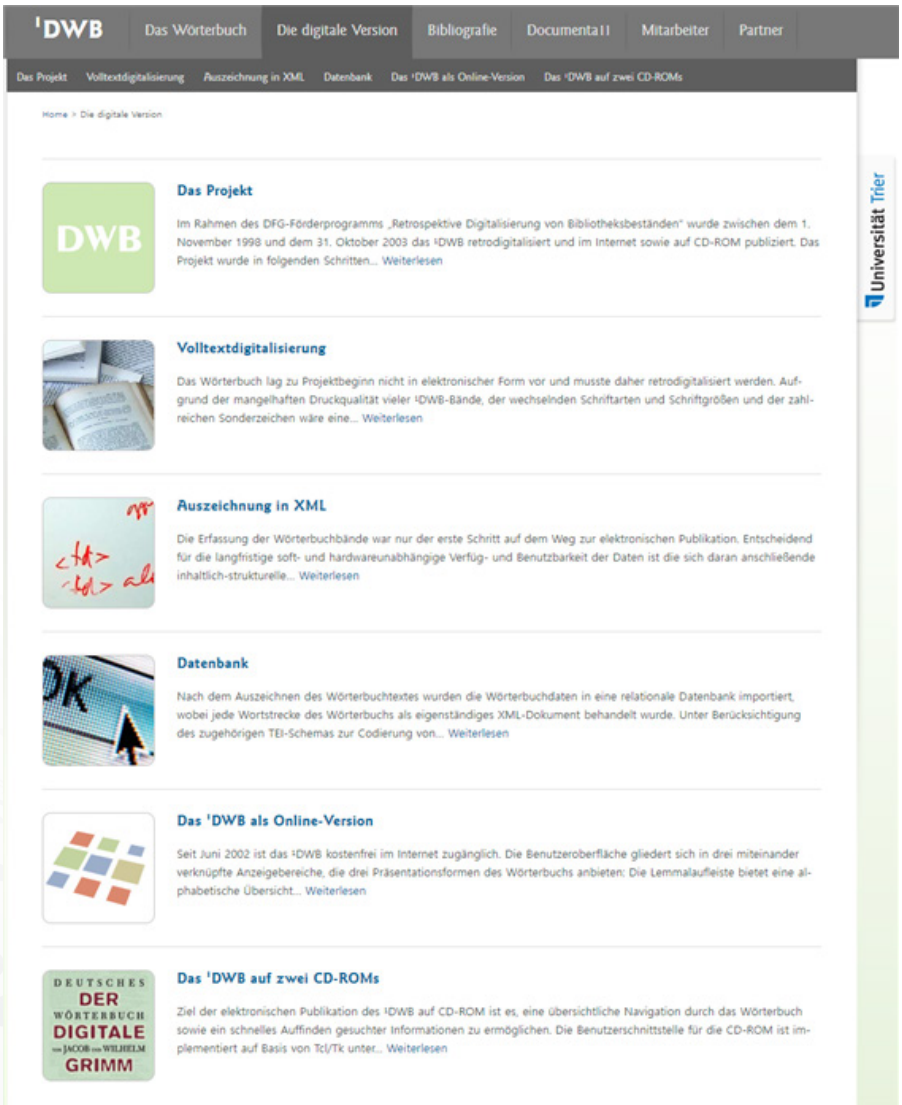
[그림 2] 그림(Grimm) 형제의 《독일어사전(Deutsches Wörterbuch)》 홈페이지

이 사전은 초기 “루터로부터 괴테에 이르기까지”의 어휘를 수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15세기 중엽부터 현대까지”의 약 30만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이 사전의 특징은 그림 형제의 형인 야코프 그림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는 이 사전에서 ‘언어의 자연사’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언어를 발생사적으로 설명하는 것, 즉, 어떤 원개념으로부터 어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단어들의 의미와 용례가 기록되어 있는 전거의 채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림 형제는 언어를 정의하기보다 발췌 용례에서 올림말의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안삼환 200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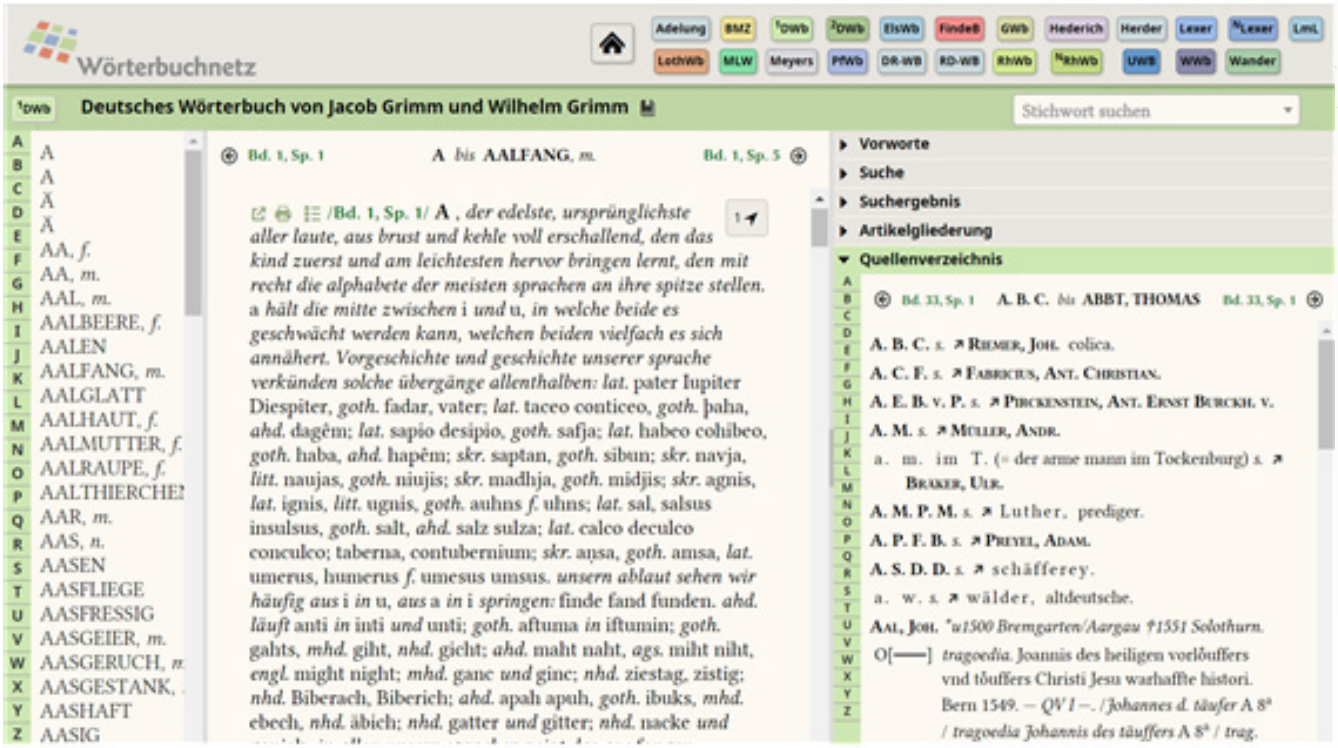
그림 형제의《독일어사전》은 독일이 분단되었던 1945년부터 통일을 이룬 1989년까지 몇 안 되는 동독과 서독 공동 협력사업의 하나로 독일 통일 후 언어 통합에 기여했다. 이 사전은 오늘날 독일인들에게 학습용 사전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지만, 어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언어학자, 겨레의 습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속학자, 헤겔 등 철학자들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자, 막스 베버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학자 등 모든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꼭 필요한 도서로 인정받고 있다(안삼환 2004:89-90) 1998년에는 독일학술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트리어대학에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인터넷과 시디롬 버전으로 공개되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이 사전은 독립된 홈페이지(http://dwb.uni-trier.de)에서 사전의 소개와 역사, 인쇄사전과 전자사전, 편찬자와 협력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그림 2]. 특히 이 홈페이지의 ‘디지털 버전’에서는 전자사전 버전 편찬의 역사와 함께 개발 공정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 또한 이곳에서 트리어대학이 운영하는 사전 네트워크(https://woerterbuchnetz.de/)로 연결되어, 이 사전 네트워크에 탑재되어 있는 약 22종의 사전과 함께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그림 4].



[그림 3] 그림《독일어사전》홈페이지의 디지털 버전 소개 페이지

사전 실행 화면의 가장 위에는 '사전 네트워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네트워크에 탑재된 사전들의 이름이 있어, 누르면 해당 사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왼쪽에는 올림말의 알파벳순과 함께,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올림말 리스트가 전시된다. 가운데에는 본문 창이 있어 선택한 올림말의 풀이말, 용례를 볼 수 있고, 오른쪽 메뉴에는 '서문', 검색, 풀이말의 개요, 출전, 사전의 시대별 출간사를 볼 수 있다. 이 사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구조를 모바일의 작은 화면을 위해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트리어대학 사전 네트워크에 탑재된 그림《독일어사전》검색 페이지

이 사전은 여러 면에서《겨레말큰사전》과 유사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전은 독일의 분단 이후에도 통일 독일의 언어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서독과 동독의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의 통일을 전제로 한《겨레말큰사전》과 유사한 통일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전의 전시에 있어, 인쇄본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하도록, 왼쪽에는 알파벳 순서를, 각 알파벳마다에는 올림말 목록을, 오른쪽에는 서문과 세부 사항들을 넣어 사전 전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제4장에서 논의했던바,《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 편찬 필요조건을 모두 구현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이 사전의 예상 사용자가 일반 학습자가 아니라 전문 연구자일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만일 사용자 참여형 구조가 필요하다면, 규범성을 강조한《표준국어대사전》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우리말샘》과 같은 형태로 구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미국 영어를 대표하는 사전인《메리엄웹스터》는 노아 웹스터(Noah Webster)에 의해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영국의 식민지에서 미국 독립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던 웹스터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이나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철자와 발음도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영국 영어와 다른 신생 독립국 미국의 정체성이 담긴 영어를 표준화할 필요를 느끼고 사전 편찬을 시작했다. 그는 1806년 첫 번째 사전인《요약판 영어사전(A Compendious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펴냈으며, 이듬해부터 어원을 밝히기 위해 26가지 언어를 공부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 편찬에 몰두하여, 1828년《메리엄웹스터》사전의 모체가 된《미국영어사전(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펴냈다. 웹스터는 영어 철자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미국 영어에서는 철자법을 간소화하거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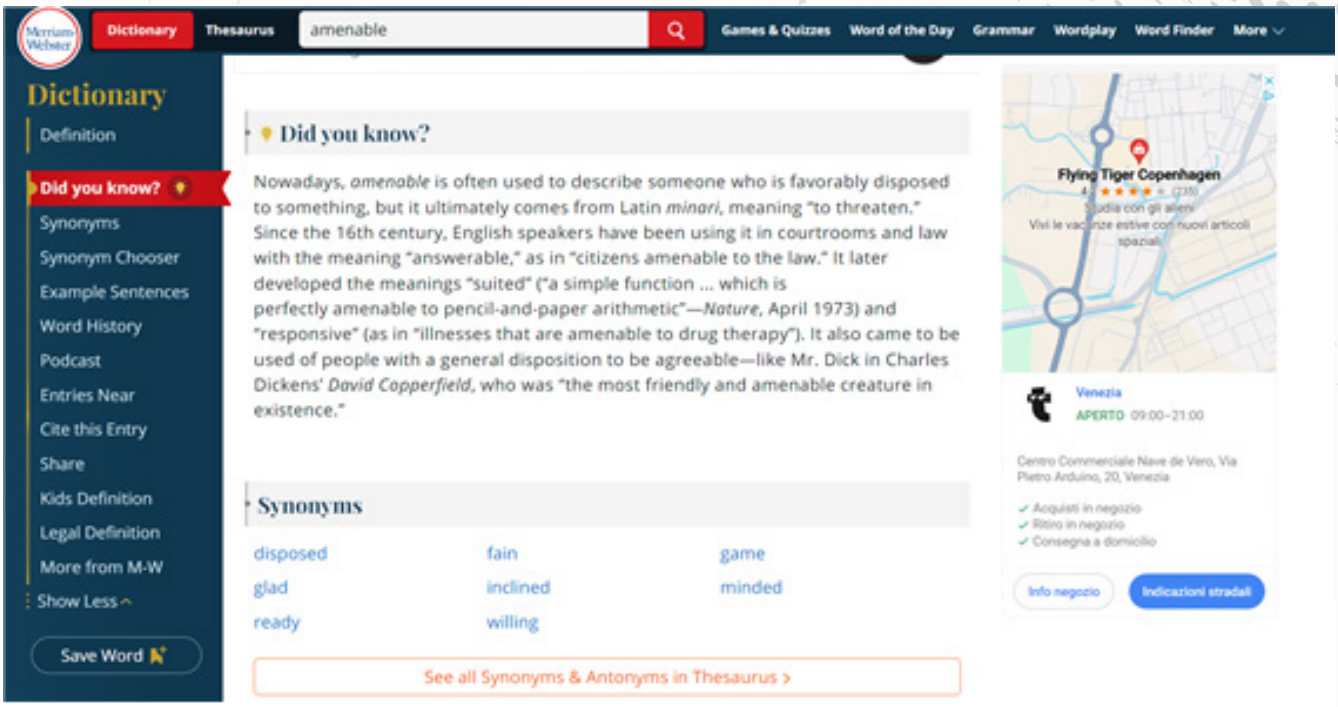
그 결과 그의 사전에는 ‘colour 〉 color’, ‘centre 〉 center’로 철자법이 바뀌었으며, 영국 영어 사전에 없던 ‘skunk’나 ‘squash’ 같은 미국 영어 단어가 추가되었다. 이 사전에는 70,000개의 올림말이 수록되었는데, 그중 약 12,000개는 이전에는 수록된 적이 없는 단어였다. 웹스터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웹스터’는 사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들어 ‘웹스터’라는 이름의 독점권을 잃게 되면서 1843년 웹스터의 판권을 인수했던 조지 메리엄(George Merriam)과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 형제의 출판사 지앤드시메리엄(G. and C. Merriam)의 이름을 붙여 《메리엄웹스터》사전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메리엄웹스터》는 1964년 엔사이클로피디어브리태니커사(Encyclopædia Britannica, Inc.)의 자회사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메리엄웹스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전의 디지털 버전 개발에 착수했고, 1996년 온라인 사전과 유의어 사전을 공개했다. 특히 《메리엄웹스터》는 각종 문헌에서 용례와 출전을 찾아 올림말을 위한 1,600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개별 올림말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메리엄웹스터》의 사전 검색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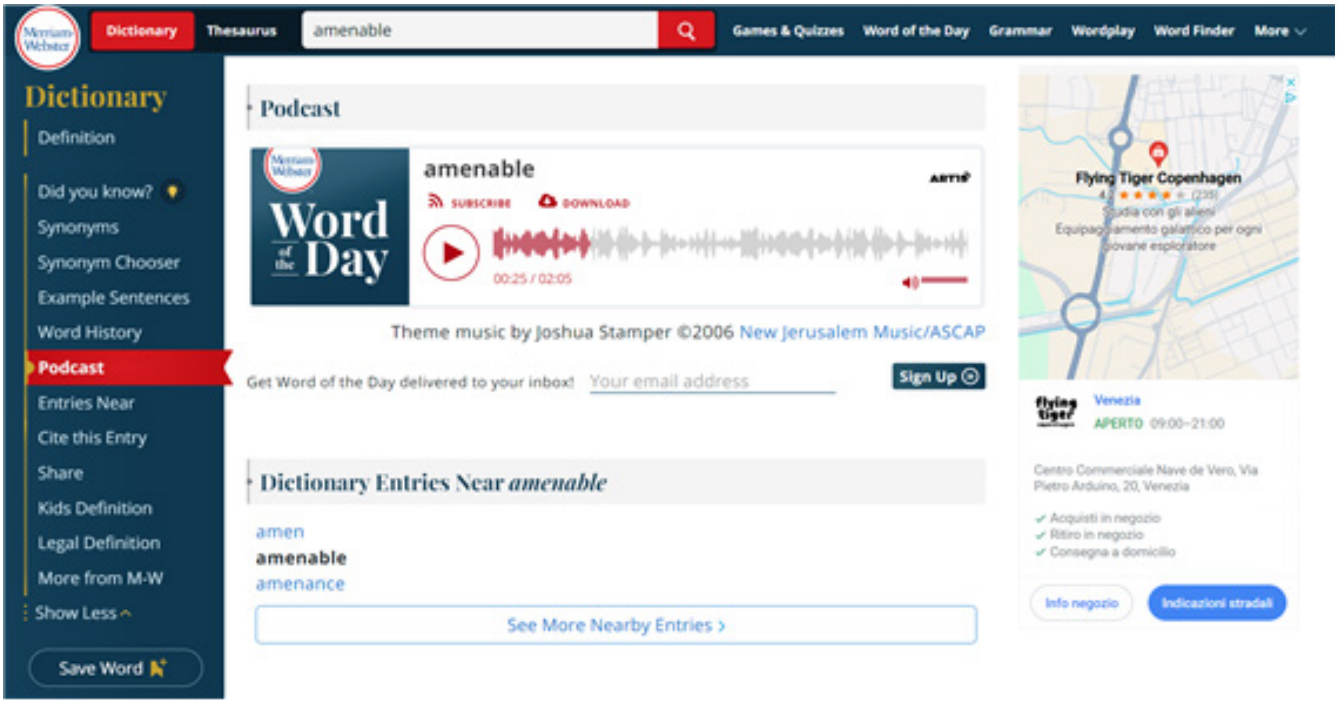
《메리엄웹스터》의 메인 홈페이지는 검색창 외에도 게임과 퍼즐, 오늘의 단어, 실시간 검색어, 문법과 용례 등 사용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집들로 구성되어 있어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는 걸맞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메리엄웹스터》에서 제공하는 전자사전의 미시구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전의 검색 페이지[그림 5] 왼쪽에는 올림말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가 있다. ‘정의(Definition)’에서는 어의, 용례, 사용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고 있어요?(Did you know?’[그림 6]에서는 해당 단어에 대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준다. ‘동의어(Synonyms)’에서는 여러 동의어를 보여준 뒤, ‘동의어 추천(Synonym Chooser)’에서 문맥에 따른 올바른 동의어 사용을 안내하며, ‘Example Sentences’에서는 출전을 밝힌 사용례를 제시한다. ‘어휘의 역사(Word History)’에서는 어원과 함께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연도와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6] 《메리엄웹스터》 사전 검색 페이지의 '알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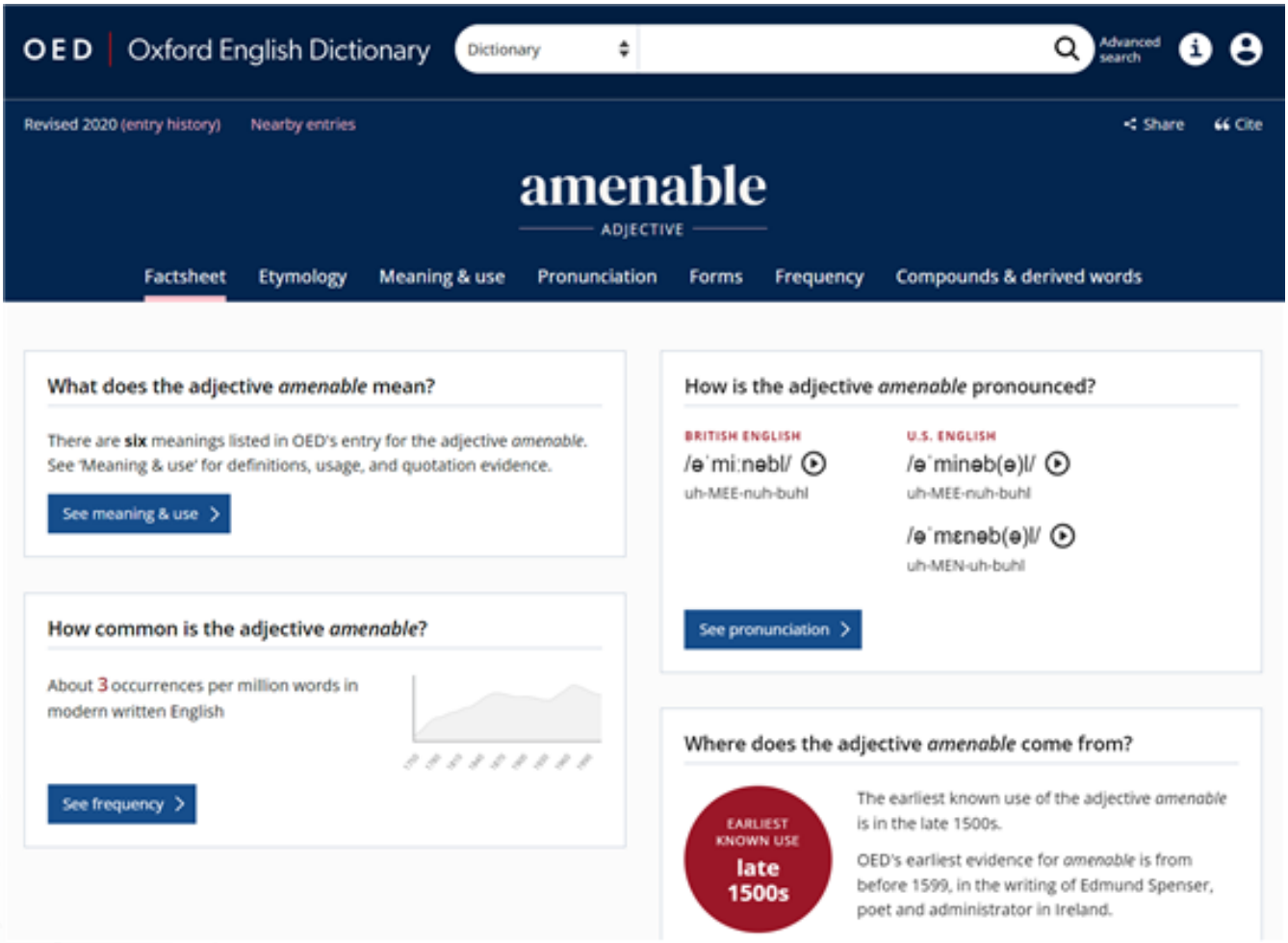
'팟캐스트(Podcast)'는 해당 어휘에 대한 스토리를 음성으로 들려주며, '인접한 올림말(Entries Near)'에서는 알파벳순으로 인접한 어휘를 보여준다. '공유(Share)'에서는 검색 결과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풀이말(Kids Definition)'에서는 이 올림말의 정의를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보여주고, '법적 개념(Legal Definition)'에서는 이 어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이 모든 내용은 스크롤바를 움직여보면 순서대로 볼 수 있으며, 왼쪽 메뉴를 통해서 한 번에 가볼 수도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메리엄웹스터》 사전 검색 페이지의 '팟캐스트'

이 사전에서 주목할 것은《겨레말큰사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관심과 실용성을 높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이다. 이미《겨레말큰사전》인쇄사전을 위한 원고에 이 메뉴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구조에서는 동의어와 사용례 등을 통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다. 어휘의 역사에서는 남과 북의 지역 차이에 따른 언어의 차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언어규범의 변천에 따른 변화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풀이말'과 '법적 개념'은 또 다른 원고의 집필과 집필된 원고의 상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향후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3)《옥스포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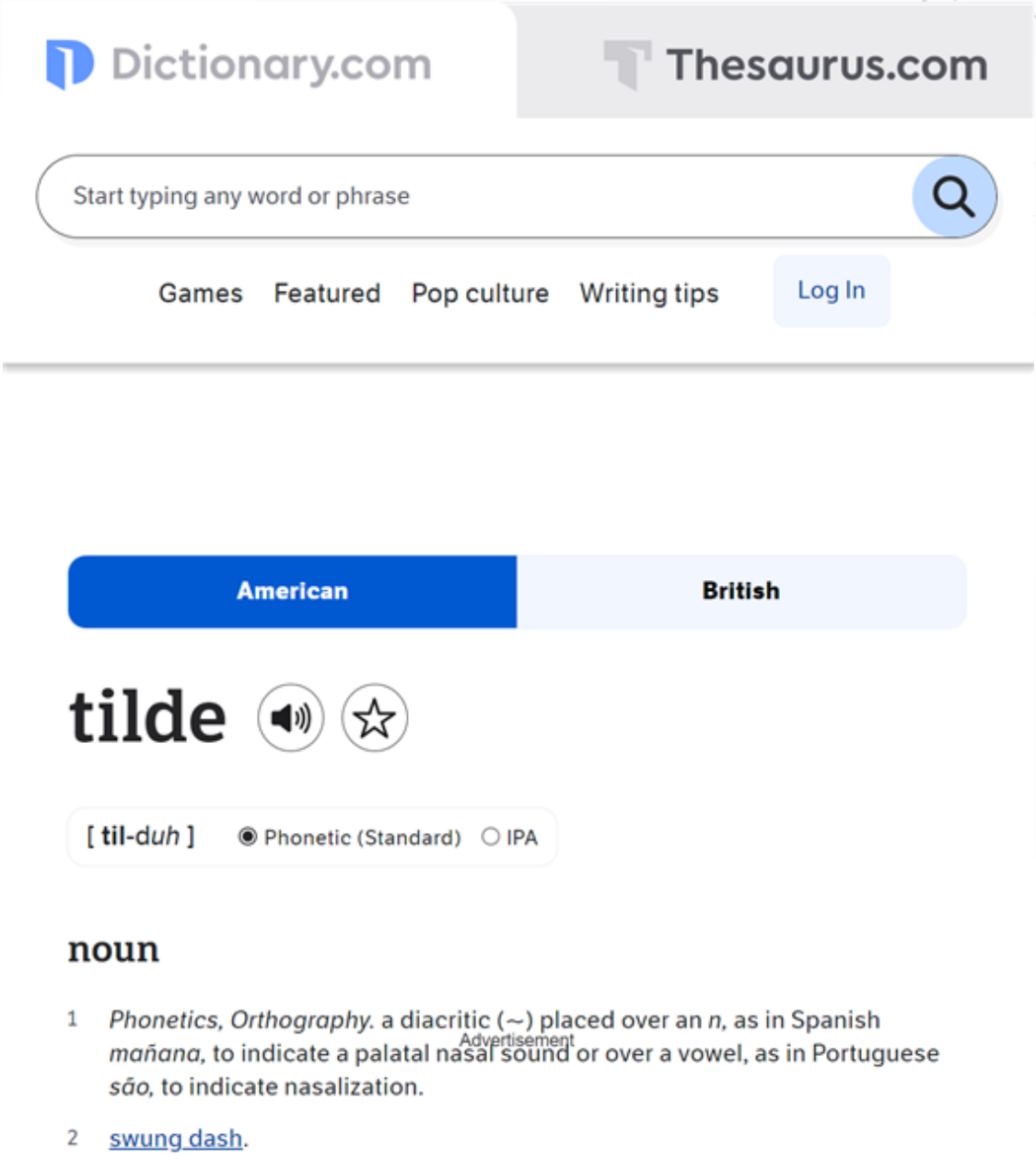
[그림 8]《옥스포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사전 검색 페이지

흔히 'OED'라고 불리는《옥스포드영어사전》은 1857년 영국 옥스포드대학 출판부에서 편찬을 시작하여 1884년에 이르러 비로소 첫 판을 펴낸 역사적인 영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영어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는 데 목표를 두고 편찬되었으며, 1928년에 이르러서야 전 10권으로 완간되었다. 이후 1933년 12권, 1989년 20권으로 증권되었으며, 1988년에 전자사전으로 출시되었고, 2000년부터 온라인 전자사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3판 편찬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쇄사전의 발행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포드영어사전》전자사전의 특징은 시각적인 효과를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어 아래 '팩트면(Factsheet)'을 열리도록 하여 상단 메뉴바에 있는 '어원, 정의와 용례, 발음, 형태, 빈도, 파생어와 합성어' 메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발음에서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각각의 발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빈도에서는 그래프를 이

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4)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



[그림 9]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 사전 검색 페이지

《딕셔너리닷컴》은 《랜덤하우스 사전(Random House Unabridged Dictionary)》 데이터를 탑재한 온라인 전자사전이다. 랜덤하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습참고서와 사전 분야에 진출한 출판사로, 주로 학습용 사전과 학습서를 출판했다. 《딕셔너리닷컴》은 1990년대 중반에 개설되었으며, 《랜덤하우스 사전》과 함께 《콜린스 영어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 《아메리카 영어사전(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등 몇몇 사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습용 사전과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사전 데이터여서 데이터 자체의 두드러진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메리엄웹스터》와 같이 다채로운 메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전 검색창에서 '미국 영어(American)'와 '영국 영어(British)'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은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노정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참고할 만한 구조라고 보인다.

4. 맺는말

전자사전은 상당히 폭이 넓은 개념으로, 그 구체적인 구현 양상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개인 전용 단말기에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언어생활을 한 그릇에 담는 《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 편찬에 앞서 외국의 전자사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겨레말큰사전》이 지켜야 할 본질과 가치를 먼저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오히려 논의가 부족했던 전통적인 사전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독자/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부응하는가, 독창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메타적인가, 구조화되어 있는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만한 저작물인가라는 정성적인 질문을 소환하고, 이를 관통하는 본질을 '담론의 구성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의 본질을 통일 담론을 전제한 미래의 사전, 규범적 사전, 이중언어사전과 단일언어사전의 과도적 사전으로 정리하고, 전자사전 유형의 검토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그 결과 전자사전 개발에 고려해야 할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으로, 통일 담론에 바탕을 둔 가상의 언어규범이 구현되었을 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총체적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전에서 적용한 공동 어문 규범의 차이를 개별 항목에서 느낄 수 있으며, 뜻풀이에서 남북의 각각의 용례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올림말과 풀이말을 포함한 이 사전의 모든 내용이 남과 북의 합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참여형 모델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사전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겨레말큰사전》의 본질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보이는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 《메리엄웹스터》, 《옥스포드영어사전》, 《딕셔너리닷컴》의 네 사례를 검토하여 그 가운데 《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 편찬에 참고할 만한 점들을 짚어보았다.

언어권별로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싶었으나 《겨레말큰사전》의 특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례가 드물다는 점, 최근의 많은 전자사전류가 사용자 참여형 등으로 전환되거나 다중사전 검색 기능으로 개별적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과문한 탓에 다른 언어권 전자사전 사례를 검색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과 질책을 받아들여 보강하는 일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았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총서류

『대백과사전』, 학원사, 1958

『가정대백과사전』, 삼중당, 1966

『대세계백과사전』, 태극출판사, 1973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김기중(1997),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 정보법학회.
김문영(1998). 우리나라의 현행 백과사전에 관한 평가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7-50.
김영미(2012), 전자주민카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소고,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177-184.
김진택(201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적용 : 공간의 복원과 재생에 대한 ANT의 해석, 인문콘텐츠 24, 9-37.
나승훈·이용훈·김미영·이종혁(2004). 세종 전자사전의 전산적 활용 가능성.한국사전학4, 131-151.
남지순(2020), 기계처리용 전자사전과 어휘의미구문 정보 - UNITEX 플랫폼과 DECO 전자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7-77.
남희경(2014). 영작문을 위한 전자사전 활용 교재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한국사전학 23, 26-65.
노상호(2014). 1910~20년대 조선어 가정용 백과사전의 출판과 그 내용. 한국학연구, 48.
다이안 맥도넬(1992,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박준식, 김문영 (1999).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 요소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2), 5-22.
박해광(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브뤼노 라투르(2010, 홍성욱 역).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송길룡(2005), 세종 전자사전 마크업 표준화의 배경적 의미와 방향, 한국사전학 6, 197-218.
안삼환(2004),《독일어사전(Deutsches W□rterbuch)》의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하여.한국사전학4,73-95.
안의정(2014),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사전 편찬 : 전자사전 편찬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24호 206 □225.
윤소은·남지순(2020), DECO 한국어전자사전에 기반한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활용형사전 구축 방법론 연구. 한국사전학 36, 92-135.
이기형(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이성헌(2005), 전자사전 구축과 의미부류 - 세종 명사 의미부류 체계의 예, 한국사전학 5, 103-138.
이영목(2012). 백과전서와 계몽주의.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용훈·이종혁(2006) 국내외 전자사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 한국사전학 8, 29-52.
이타가키 류타, 고영진·임경화 역(2024),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푸른역사, 139~212.
장경식 (2008).《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구성과 특징. 한국사전학 11, 111-131.
- (2019), 백과사전의 독자, 한국사전학회 제3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42.
- (2021), 한국 현대 백과사전의 담론적 성격에 대한 시론 - 1950~1990년대 간행 인쇄본 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한국사전학 37, 92-124.
장여경(2011),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2011 제7호.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8, 7-28.
정소연 (1992). 우리나라 백과사전 출판의 역사와 현황. 출판저널 101, 10-11.
조동일(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폭과 깊이. 한국학, 15(2).
- (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갈 방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경은(2015), 통일 독일의 언어 통합,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53-73.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1996),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자료집.
홍종선(2012),《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 295, 135-161,
황용운(2014), 앱 사전의 특징 및 검색 방식 분석 -영어 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한국사전학 24, 265-307.
De Schryver, Gilles-Maurice(2003), Lexicographers' Dreams in the Electronic-Dictionary Age Get access Arrow,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Volume 16, Issue 2, June 2003, 143–199.
Nesi, Hilary(2000), Electronic Dictionaries in Second Language Vocabulary Comprehension and Acquisition: the State of the Art, Proceedings of EURALEX 2000, 839-847.

Studies of Characteristics of the《Gyeoremalkeunsajeon》 and Foreign Electronic Dictionaries, for Compiling an Electronic Dictionary of《Gyeoremalkeunsajeon》

Jang, Kyung Sik
(The Korean Institute for The Encyclopedic Knowledge)

This article was plann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direction of compiling an electronic dictionary for the《Gyeoremalkeunsajeon》.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mpiling the《Gyeoremalkeunsajeon》as an electronic dictionary were organized and cases of foreign electronic dictionaries appropriate for utilizing those characteristics were explored.

The electronic dictionary is a very broad concept, and has changed into various specific aspects along with digital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examine foreign electronic dictionaries before compiling an electronic dictionary for the《Gyeoremalkeunsajeon》that contains the language life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 one bowl, it is necessary to first derive the essence and value that the《Gyeoremalkeunsajeon》should preserve while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times. To this end, in order to derive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value of traditional dictionaries, which have been rather lacking in discussion in a changing era, I called upon qualitative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y meet the needs of specific readers/members of society, are they original, reliable, meta, structured, and are they works that will continue to exist, and defined the essence that runs through them as a 'construct of discourse.' Based on this, I organized the essence of the《Gyeoremalkeunsajeon》into a future dictionary that presupposes a unified discourse, a normative dictionary, and a transitional dictionary between a bilingual dictionary and a monolingual dictionary.

Based on this premise, I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Gyeoremalkeunsajeon》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dictionary. First, since it is the dictionary that shows the reality when the virtual language norm based on the unification discourse is implemented, it is most significant,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users with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macro and micro structures that reflect it.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common language norms applied in this dictionary should be felt in each entry, and the respective usage cas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be compared in the definitions. Third, since all the contents of this dictionary, including the titles and definitiones, are to be determined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t is desirable to exclude the user participation model from the options. Accordingly, among the various types of electronic dictionaries, I reviewed four cases that can best embody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yeoremalkeunsajeon》: the Brothers Grimm's 《German Dictionary》, 《Merriam-Webs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Dictionary.com》, and pointed out points that can be referenced in the compilation of the electronic dictionary of the 《Gyeoremalkeunsajeon》.

Although I wanted to present more diverse cases by language area, it was not easy to select a case that could serve as a model because there are few cases with a structure that can properly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remalkeunsajeon》, many recent electronic dictionaries have switched to user participation, or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dictionaries with multi-dictionary search functions, etc. Therefore, it is stated that the task of finding more specific alternative cases remains in the future.

Keywords: essence of dictionary, structure of discourse, electronic dictionary, 《Gyeoremalkeunsajeon》, unification discourse

◆ 토론 2



고 찬 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지식공유연대 집행위원회 공동회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전) 한라일보 칼럼리스트, 지식공유연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 토론 2

“전자사전 편찬을 위한《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유례없는《겨레말큰사전》전자사전 구축 전망

고 찬 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전문위원

이제는 ‘인쇄사전’이라는 말은 도리어 생경하게 들리고 ‘전자사전’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전자사전 사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처음부터 디지털 DB나 전자사전으로 편찬,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인쇄사전을 바탕으로 전자사전을 편찬해 나가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런 변화와 편찬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런데 본 발표는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에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지켜져야 할 사전의 ‘본질’을 되짚고 남북통일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겨레말큰사전》의 독특한 위상까지 고려하여,《겨레말큰사전》의 전자사전에서 구현되고 강조되어야 할 특성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자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없이 불리는 최근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나 위키 형식 백과사전, 디지털 라이브러리, 디지털 컬렉션 등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용어·용례로 국한한 언어 기반의 전자사전 범위를 명확히 구별함으로써《겨레말큰사전》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 조사 및 분석에 곧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더군다나, 통일 담론을 전제한 이중언어와 단일언어 사전의 과도적이며 특수한 성격을 갖춘 기존 사례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림(Grimm)형제의《독일어사전》예시를 통해, 과거 동독과 서독의 공동협력 사업 노력 및 결과가 통일 후 언어 통합에 기여했음을 보여줬으며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겨레말큰사전》전자사전 구축 방향도 효과적으로 전망해 주고 있다. 전문가의 식견으로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의 전자사전 개발, 편찬에 충분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자는 향후 완성된 전자사전을 사용하고 싶은 일반 언중의 한 명으로서, 일반 사용자도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사전 서비스도 더불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통일 이후 가상의 규범 언어를 설정해야 한다는《겨레말큰사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런 이유로 사용자 참여형 모델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지만, 사용자 자체를 남북한 언어의 전문가, 학술연구자로 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자사전 특유의 높은 온라인 접근성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겨레말큰사전》은 인쇄사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유입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의 전시 방식이 수 개의 검색 기준을 통해 다양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대로, 인쇄본과 유사한 사용자(전문 연구자 위주)를 대상으로 ‘가나다’ 순서의 올림말 목록과 더불어 세부 사항을 전자사전 화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것이 과연 전자사전 구축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되고 초거대 AI 시대에 들어선 현재 시점에서 전자사전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사용자 편의성을 저마다 극대화하는 기능을 갖춘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일정한 순서에 의한 올림말 확인뿐 아니라 용례의 빈도나 비중을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 기능, 올림말 간 의미 연관어와 연결망을 보여주는 시맨틱 데이터 네트워크 구현 등 올림말 검색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기본적 기능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해, 특수한《겨레말큰사전》의 성격을 고려하여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기존 용례를 추가 형성하고 검증해 나가는 데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나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해당 사전의 전문성과 대중성 확장 가능성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토론자 또한 언어의 통합 차원에서 구축된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관련 용어·용례 전자사전의 예를《독일어사전》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유럽연합용어사전(IATE, Interactive Terminology for Europe)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전은 2007년에 오픈했고 2018년에 리뉴얼을 거치기는 했지만, 검색 방식이나 결과 전시 방식이 꽤 낙후됐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유럽 각국의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통합한 결과이다 보니 재구조화된 효율적 용어 사전의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최근의 기술을 접목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용어 전자사전의 성공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의《겨레말큰사전》이 그 효시가 되는 데 앞장을 서면 어떨까? 통일 담론을 전제로 한 전자사전이 추후 더 생길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디아스포라와 타 국가, 타 지역 이주의 삶이 보편화된 현시대에 각국의 민족 언어 통합 차원에서 용어·용례 전자사전을 계획할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인쇄사전의 성공적 편찬을 선행한 경우는《겨레말큰사전》을 제외하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근간으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자사전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발제 3



이 대 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 발제 3

전자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과 표제어 통계 분석을 통한 고유어의 발전 방안

이 대 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 들어가며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국가의 공식 문자로 인정받은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은 다시 공식 문자의 자리를 잃고 말았다. 한국어 또한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은 국어 보급 운동을 넘어선 독립운동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이 일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조선어학회'이다.

조선어학회가 가장 역점을 둔 일이 사전 편찬이었다. 사전 편찬은 1929년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등재할 말을 선별해야 하고, 그 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 규칙을 정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1933년에 '현대 서울의 중산층이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을 담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담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당시 일본 총독부가 1942년에 조선어학회 인사들을 투옥하면서 사전 편찬 사업도 중단되고 말았다. 1945년 독립 이후 다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여 1957년에 비로소 16만 4천여 개의 어휘를 수록한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큰사전》을 완간하게 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 발전은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한국어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변화된 언어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어문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1988년에 〈표준어 규정〉과 〈한글맞춤법〉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1933년의 규정이 사전 편찬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1988년의 규정은 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 교과서, 법률 등 언어생활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어문규정이 새로 제정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언어생활의 표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국어사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대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이 발간되기에 이른다.

2. 국립국어원의 전자사전

2-1.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https://stdict.korean.go.kr/)은 1992년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999년에 표제어 약 50만 개 규모의 종이 사전(3권, 부록 포함 7,308쪽)으로 발간되었다. 《표준》은 앞선 국어사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하면서 가지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발간하였음을 머리말에 밝혀 놓았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와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앞선 사전들에 비해 더욱 정밀한 뜻풀이와 문법 정보를 제시하고, 말뭉치를 활용해 용례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표제어를 찾아내어 사전에 등재하였으며, 옛말과 방언, 나아가 북한어까지 아우르는 종합 국어 사전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머리말〉

(전략)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분에서 어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었다.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반 국민이 연구원에 문의해 왔던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도 사전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용자가 평소 국어 생활 중에 궁금해하는 점을 사전에서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북한의 말도 폭넓게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략) 그동안 학계에서 기존 사전에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도 이번에 사전을 편찬하면서 최대한 보완하였다. 발음 정보, 체언과 용언의 활용 정보는 정보가 부족한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부분의 정보는 어문 규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활용 정보와 어느 정도 중복됨을 감수하면서 부록으로 용언 활용표를 따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사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용례의 부족을 덜기 위하여 이 사전에서는 각종 문학 작품,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문헌을 입력하고 이를 활용하여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중략)

사전을 편찬하면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기존 사전의 처리 태도를 존중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인 변천이나 학문적인 분석을 고려하면 잘못된 처리라 해도 기존의 사전들이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면 그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전이 앞으로 나올 다른 국어사전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므로 그동안의 성과를 무시하면 불가피하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부담이 늘게 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 현실과 지나치게 어긋나거나 처리 태도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전을 따르지 않았다. (후략)

사전 발간 2년 후인 2001년에는 《표준》 시디롬(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표준》 시디롬은 뜻풀이 검색, 다중 품사 선택 등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표제어를 검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옛글자 검색 기능, 간이 검색기를 통한 하이퍼텍스트 기능, 검색 목록 저장, 개인 연습장 및 책갈피 만들기, 워드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기 등과 같은 전자사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는 국어사전의 활용 방법이 완전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일정한 유형의 어휘 목록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다양한 어휘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됨으로써 국어 연구와 교육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바로 다음해인 2002년부터는 《표준》을 웹사전으로 서비스하게 되면서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어디서나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전에 시디롬으로 개발한 것이 비교적 빠르게 웹사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사실상 종이 사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전자사전의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종이 사전 발간 후 새롭게 발굴된 표제어 2,500여 개를 추가하고 그동안 사용자 의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거나 자체적으로 발견한 오류들을 바로잡아 웹사전 개정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웹사전 개정판은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찾기, 따로 보기, 자세히 찾기' 등 다양한 검색 방식을 제공하며, '지정 검색, 다중 검색'과 같이 정교한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단순히 단어의 뜻만 찾는 식의 단조로운 사전 검색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지식 습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에 한 차례 더 기능 개선을 거쳤다.

《표준》 웹사전은 2019년에 사전 검색 시스템과 디자인 등 서비스를 개편하여 대중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2016년에 개통한 《우리말샘》이 언어자원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은 규범사전적 특성을 강화하고자 옛말, 방언, 북한어 표제어(약 88,000개)를 《우리말샘》으로 이관함으로써 표제어 수가 약 42만여 개로 축소되었다. 2019년 개편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 하나는 인터넷으로 바뀐 환경에서 사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표준》의 저작권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사전 전체 내용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뜻풀이를 수정하고 싶거나 《표준》 밖의 어휘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자 할 때에는 《우리말샘》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연동 기능을 추가하였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의 분야별 어종 분포(2024년 7월 기준, ※단 단위 반올림*)

범주		일반어	전문어	총계
단어	고유어	60,810	14,270	75,080
	한자어	106,350	85,370	191,720
	외래어	2,520	17,980	20,500
	혼종어	53,700	20,760	74,460
	소계	**223,380**	**138,380**	**361,760(361,270)**
구	고유어	0	680	680
	한자어	0	44,400	44,400
	외래어	0	3,510	3,510
	혼종어	0	14,360	14,360
	소계	**0**	**62,950**	**62,950(62,940)**
합		**223,380**	**201,330**	**424,710(424,210)****

* 웹사전의 특성상 수시로 표제어 수 및 사전 정보가 바뀌므로 대략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음. 이하에 제시하는 표에서도 같음.
** 괄호 안의 숫자는 중복 계산된 것을 제외한 수치임. 다의어 중에는 뜻갈래별로 일반어이기도 하고 전문어이기도 한 경우가 있어 중복 계산될 수 있음.

2023년부터는 《표준》을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제어 위주로 개편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종합 국어 사전'에서 '규범 언어 사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새로운 어휘를 매년 1,000개 안팎으로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존 표제어에 대해서도 현대적 쓰임을 반영하여 용례를 보충하고, 개별 어휘들에 어문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 걸음 더'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계열을 이루는 어휘들에 대한 사전적 처리의 통일성을 높이는 작업도 수행하여 《표준》의 양적,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백과사전적 요소가 짙은 고유명 표제어와 사실상 사어가 되었거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쓰이는 전문어 표제어를 제외하여 표제어 수를 30만 개 정도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표준》에는 20만여 개의 전문어가 등재되어 있고, 이중 고유명은 3만여 개로 추산된다.

2-2. 《우리말샘》

디지털 세상으로의 변화는 언어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속도와 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기존의 사전 편찬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 사전 편찬 인력만으로는 변화된 언어를 시시각각 추적해서 용법을 파악하고 사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전 이용자가 직접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말샘》(이하 《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이다. 개통 당시 《표준》의 기존 50만 항목에 생활 용어 75,000항목, 지역어 9만 항목, 전문어 35만 항목 등을 추가한 총 100만 항목 규모였으며, 그동안 사전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어휘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어휘들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현재 116만여 항목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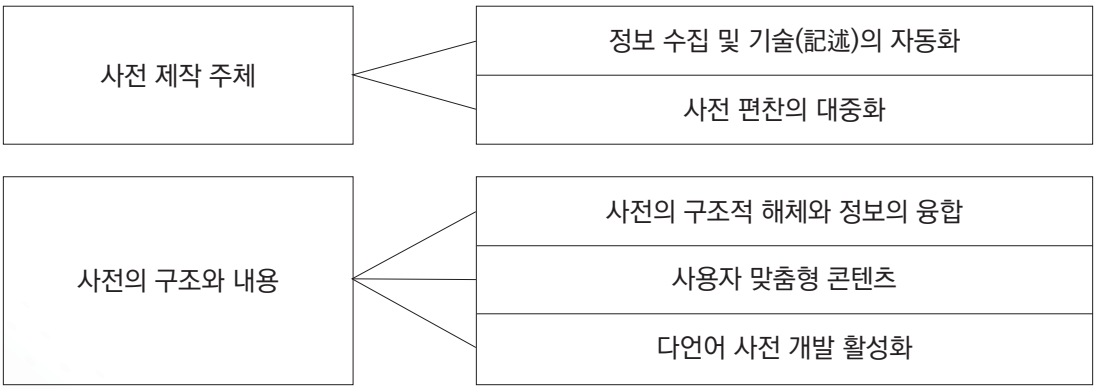
[표 2] 《우리말샘》의 규모 및 구성 내용(2024년 7월 기준)

범주	일상어					전문어	총계
	일반어	방언	옛말	북한어	소계		
표제어 수(개)	338,860	110,380	12,800	38,880	500,920	662,630	1,163,550
비율(%)	29.1	9.5	1.1	3.2	43.1	56.9	100

기타 정보 자료	어휘 역사 정보	수어 정보		발음 (음성)	멀티미디어 자료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표제어 수(개)	10,580	12,350	12,350	160,120	11,580	270

배연경(2019)에서는 디지털 사전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전은 특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사전(辭典) 대 사전(事典), 뜻풀이 사전 대 관련어 사전, 의미 기술 사전 대 어휘 결합 사전, 단일어 사전 대 다언어 사전, 일반 언어 사전 대 전문 용어 사전 등으로, 또 더러는 일반 모국어 화자용 사전 대 외국어 학습자용 사전 등으로 나뉠 수 있었다. 이러한 편의적인 분류법은 사전의 특정 기능 및 잠재적 사용자와 이에 따른 유형을 전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의 내용과 구조를 갈래지어 보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사전은 이러한 분류의 틀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정태적 구조와 기능에 입각한 이분법적 분류 기준의 붕괴는 사전의 구조와 유형 및 내용, 그리고 편찬 주체의 차원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대적인 분절화와 해체는 사전 정보가 사전을 비롯한 다른 모든 디지털 정보와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과정과 더불어, 그리고 제반 정보 기술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며 진행된 것이다. 그 흐름은 크게 사전 제작의 측면과 사전의 내용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은 사전 제작 주체 및 사전 구조와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된 새로운 사전 형식의 플랫폼이 바로 《말샘》이다. 《말샘》은 일반 사전 이용자가 사전 제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기존 사전과는 다른 구조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말샘》의 핵심은 '개방성'이다. 누구든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 비윤리적인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정보는 사전 관리자의 검토를 거친 후에 노출된다. 또한 어떤 말이든 《말샘》에 실릴 수 있다. 정제된 어휘만 골라 싣는 기존의 국어사전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신조어(심지어 문법 파괴적인 어휘까지)도 사용 빈도가 일정 기준만 넘으면 표제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차별이나 혐오, 정치적 선동 등을 조장하는 어휘는 제한하고 있다. 언어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어휘가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샘》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누구든 자유롭게 내려받아서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말샘》은 각종 정보들(어종, 분야, 품사, 지역, 뜻풀이, 용례, 참고 어휘 등등)을 각기 식별할 수 있는 표지(tag)로 관리하

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떤 표지를 조건으로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 특정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여 2차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말샘》에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실시간 어휘 수집 · 분석 시스템과 어휘 생명 주기 분석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나온 결과물은 새로운 표제어 발굴과 사전 원고 집필의 밑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말샘》에서는 단어가 아닌 의미 항목(sense)이 기본 단위이다. 기존 사전은 단어가 기본 단위가 되어, 어떤 다의어 표제어에는 수십 개의 의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이 단어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지만 개별 의미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전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의어 표제어의 의미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되면 다른 의미 항목들도 연쇄적으로 번호가 바뀌게 되어 이력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말샘》은 의미 항목을 등재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각각에 절대 주소(URL)를 부여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어휘가 의미 항목이 세 개이면 세 개의 표제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의미 항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 다만, 사전 이용자가 화면에서 볼 때는 기존 사전처럼 같은 단어는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하였다.

아래 그림은 《표준》(왼쪽)과 《말샘》(오른쪽)에서 '아버지'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보인 것이다. 《표준》은 표제어가 제일 위에 한번 나오지만, 《말샘》은 의미 단위별로 표제어가 반복해서 보이고, 이를 다시 단어별로 묶어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말샘》에는 다양한 상세 검색과 정렬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사전 통계와 어휘 지도, 역사 정보, 멀티미디어 자료(음성, 이미지, 수어 등) 등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또한 사전 이용자가 집필 제안한 내용이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뜻풀이 표절 검사 시스템도 내재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말샘》에서 '아들001'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정보를 보인 것이다. 뜻풀이와 용례 외에도 각 지역의 방언 표기, 옛말, 세기별 표기 용례, 대응하는 수어 표현, 어휘 지도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역사 정보

아ᄃᆞᆯ(15세기~19세기)>아들(17세기~현재)

설명	현대 국어 '아들'의 옛말인 '아ᄃᆞᆯ'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6세기 이후 제2음절 이하의 모음 'ㆍ'가 'ㅏ'로 변하는 'ㆍ'의 제1차 소실이 일어남에 따라 '아ᄃᆞᆯ'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 17세기에 '아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세기까지 '아ᄃᆞᆯ'과 '아들'이 공존하다가 '아들'이 고정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형태/이표기	아ᄃᆞᆯ, 아들
세기별 용례	15세기 : (아ᄃᆞᆯ) ▸ 훈 婆羅門이 **아ᄃᆞᆯ** 優陁夷라 호리 聰明ᄒᆞ며 말 잘ᄒᆞ더니 ≪1447 석상 3:18ㄴ≫ 16세기 : (아ᄃᆞᆯ) ▸ 아비는 어엿비 너교ᄃᆡ 글ᄋᆞ치며 **아ᄃᆞᆯ온** 효도호ᄃᆡ 간ᄒᆞ며 ≪1588 소언 2:74ㄴ≫ 17세기 : (아ᄃᆞᆯ, 아들) ▸ 내믈왕의 **아ᄃᆞᆯ** 말ᄉᆞ흔이 예게 볼모 되엿더니 ≪1617 동삼 충:1ㄴ≫ ▸ 그 **아들** 함과 밋 그 죵 긔산이 죽기ᄅᆞᆯ ᄃᆞ토와 ≪1617 동신속 열7:48ㄴ≫ 18세기 : (아ᄃᆞᆯ, 아들) ▸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홈이 이시며 님금과 신해 義 이시며 ≪1737 어내 1:17ㄴ≫ ▸ 후에 노인이 죽으매 그졔 그 **아들ᄅᆞᆯ** 길너 수년이 된디라 ≪1758 종덕 하:40ㄱ≫ 19세기 : (아ᄃᆞᆯ, 아들) ▸ 예수는 텬쥬의 **친아ᄃᆞᆯ이시라** ≪1865 주년 108ㄱ≫ ▸ 과독ᄒᆞᆫ 부모는 **아들** 쏠이 비록 단원ᄒᆞᆫ 즐거오미 잇스나 ≪1876 남궁 5ㄱ≫

닫기

수어 정보

수어 사전 보기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다.

관용구·속담 (4)

속담 **아들네 집 가 밥 먹고 딸네 집 가 물 마신다**
흔히 딸 살림살이를 더 아끼고 위하여 주는 부모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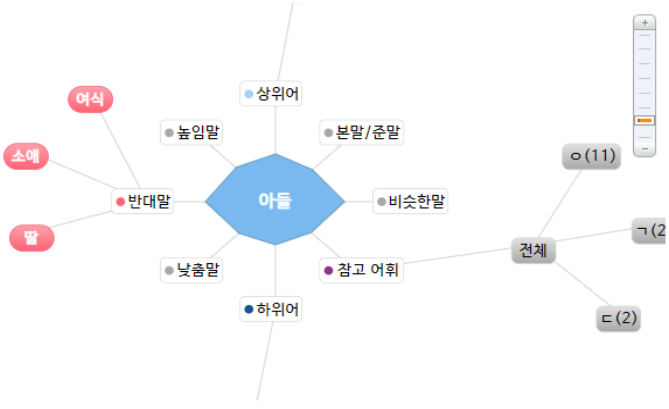
속담 **아들도 말 태워 놓으면 사촌 된다**
딸과 아들을 혼인시키고 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말. 〈동의 속담〉 '딸자식 길러 시집보내면 육촌이 된다' '아들은 말 태워 놓으면 사촌 되고 딸은 시집보내면 육촌 된다'

속담 **아들 못난 건 제집만 망하고 딸 못난 건 양 사돈이 망한다**
여자가 못되어 먹으면 친가와 시가가 모두 망하게 된다는 말.

더 보기

어휘 지도 (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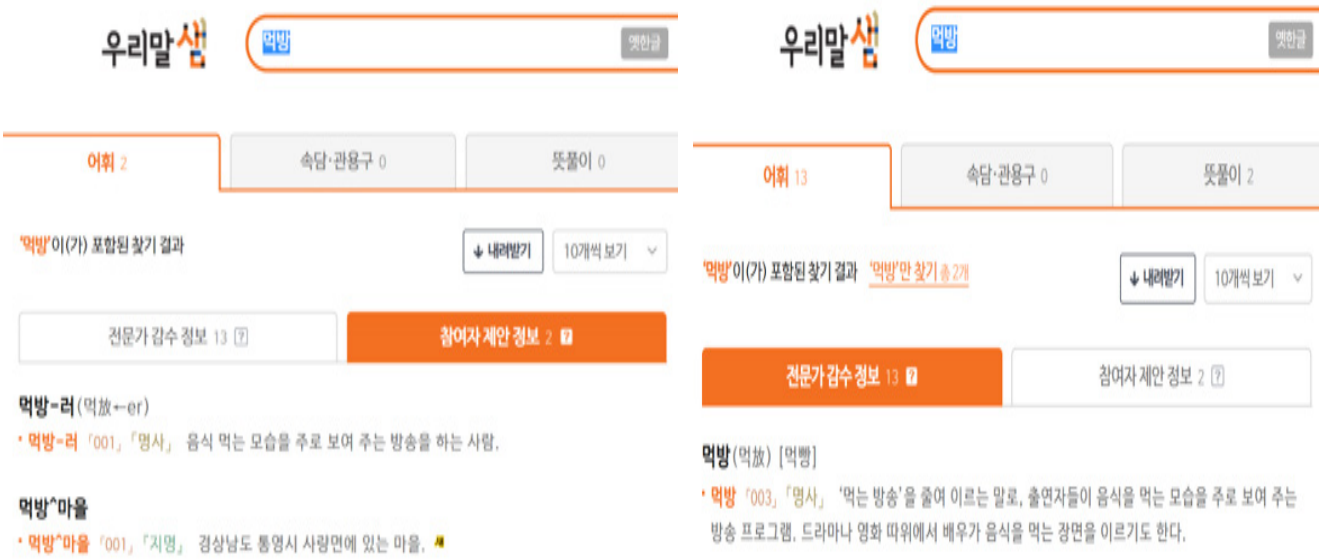
새 창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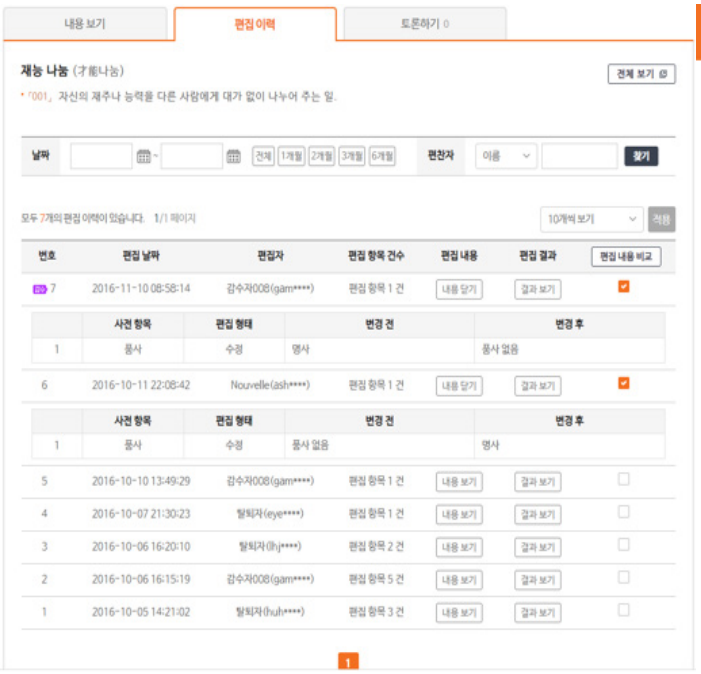
《말샘》의 사용자 참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는 '집필 참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에 대해 사전 원고를 직접 집필하거나, 집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어휘의 정보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사용자가 집필하거나 편집한 내용은 간단한 기준을 통과하면 먼저 '참여자 제안 정보'로 노출되고, 이 정보는 다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인 '전문가 감수 정보'로 바뀌어 제시된다. 가령, 검색창에서 '먹방'을 검색하면, '전문가 감수 정보'와 '참여자 제안 정보'에 각각 '먹방'이 포함된 표제어가 몇 개씩 있는지가 표시가 되고, 각 탭을 활성화하면 참여자 제안 단계에 있는 표제어와 전문가 감수를 마친 표제어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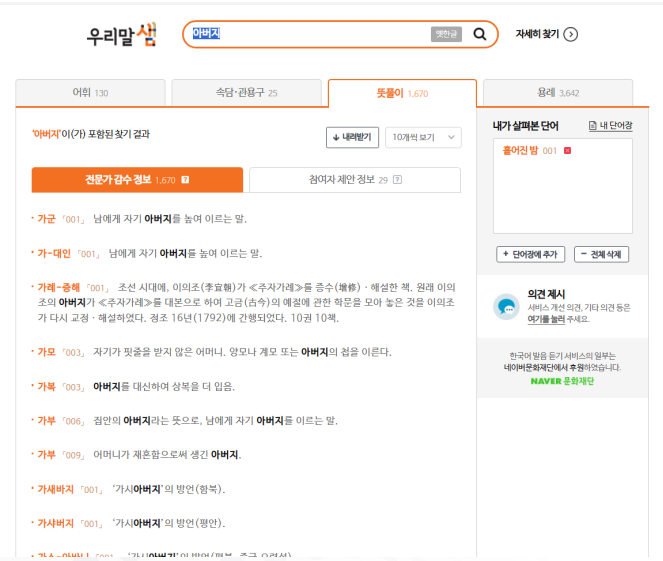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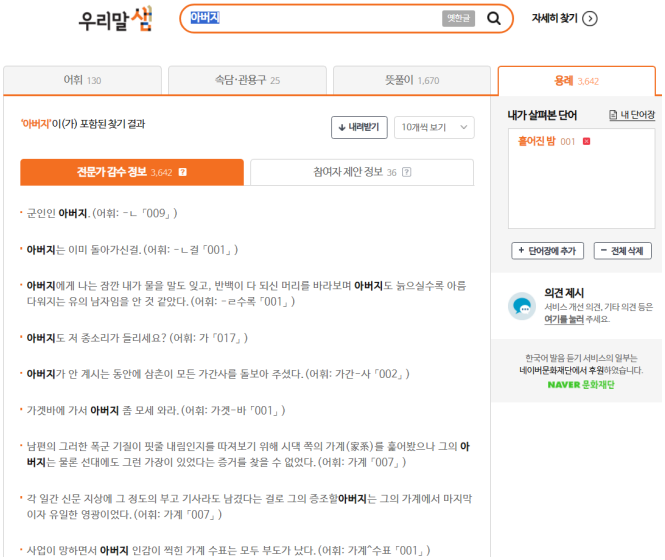
《말샘》의 모든 표제어는 편집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언제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전 편찬의 측면에서는 사전 정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개별 어휘의 의미와 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전 내려받기'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사전 전체 또는 일부분을 선택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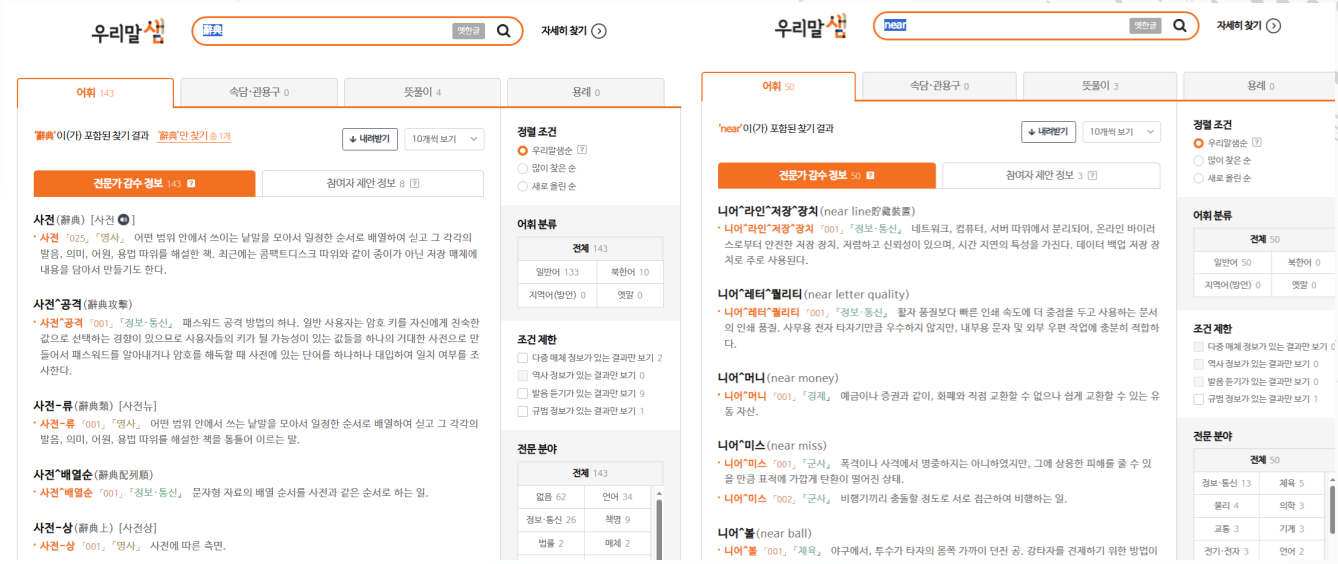


《말샘》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어휘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가 포함된 어휘도 함께 검색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색어가 포함된 속담 · 관용구도 따로 검색해 주고, 검색어가 쓰인 뜻풀이, 검색어가 쓰인 용례도 바로 검색해서 함께 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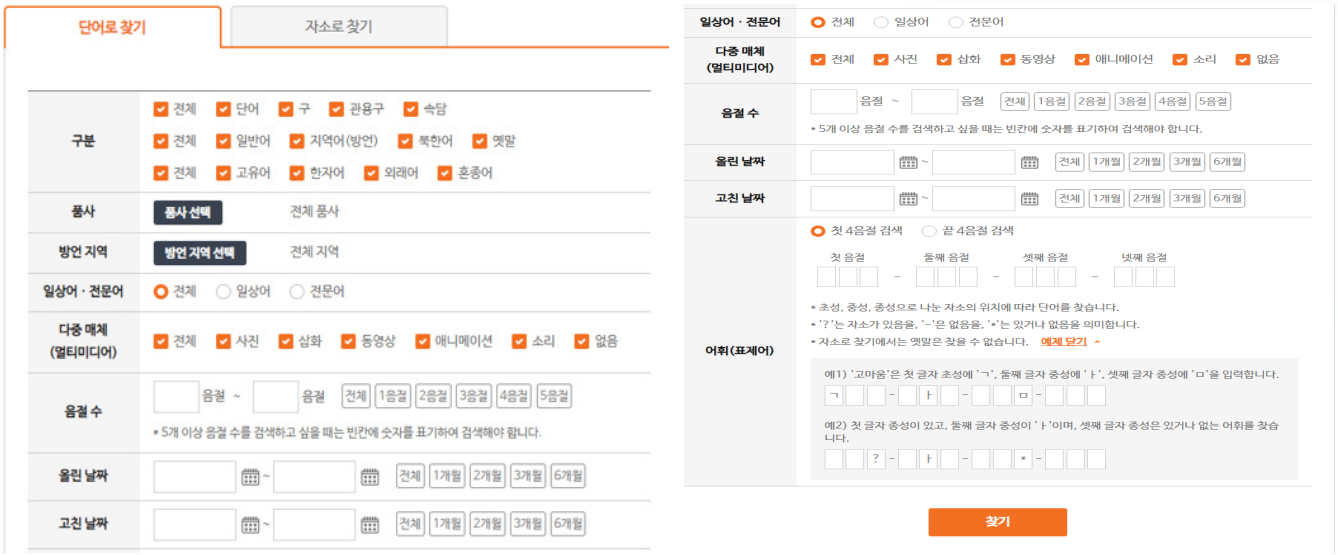




《말샘》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와 로마자도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는 검색창에서 한자와 로마자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는 검색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을 간단한 표로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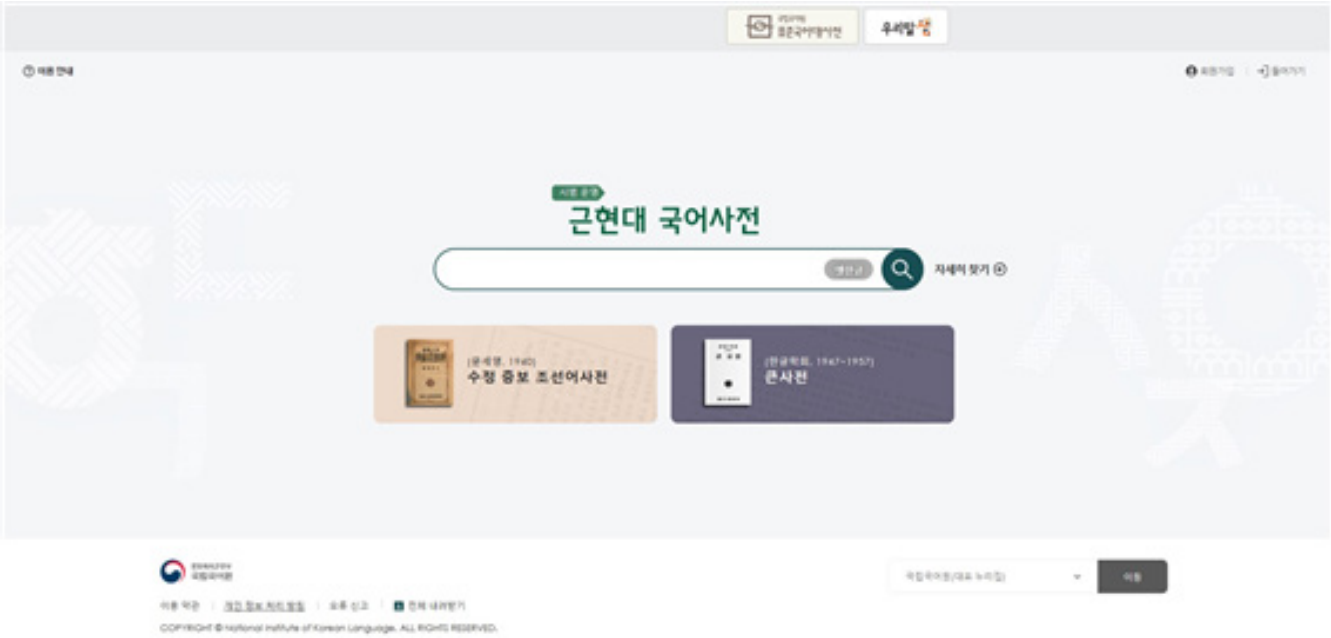


《말샘》이 제공하는 정밀 검색은 '단어로 찾기'와 '자소로 찾기'로 나뉜다. 어휘 유형, 품사, 지역, 등재 시기, 음절 수, 음절별 자소의 종류 등등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부여하여 정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개발에도 유용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나 퀴즈 풀이(예를 들어, 세 음절 단어로서 모두 ㅁ 받침이 쓰인 단어 찾기)와 같은 흥미적인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2-3.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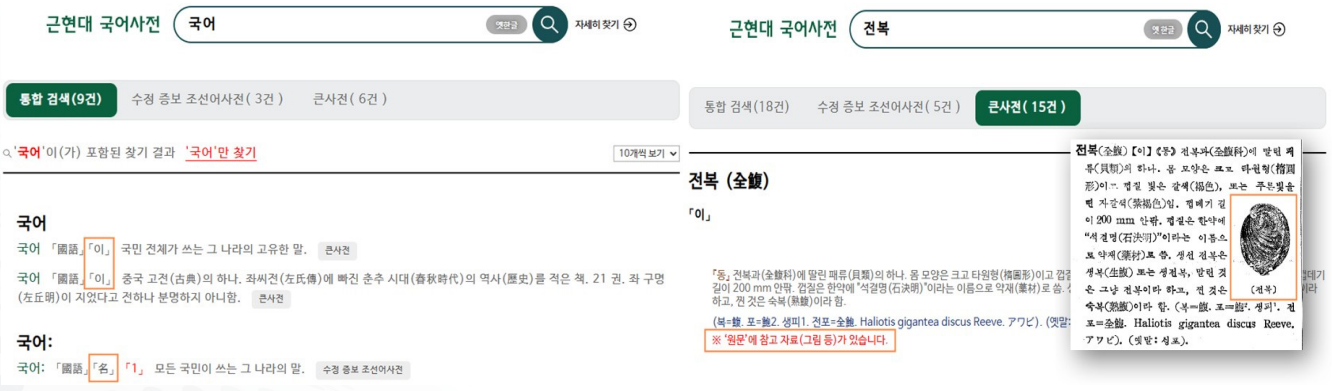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2022년부터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 약 95,000항목)》과 《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 약 142,000 항목)》을 묶어 《근현대 국어사전》 서비스를 시범 개통하였다. 새로운 사전을 편찬한 것은 아니고 20세기 초중엽에 편찬된 국어사전을 통칭하는 의미로 《근현대 국어사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사전이나 국어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래된 사전을 구비해 두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과거의 기록과 견해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의 사전 편찬실에서는 오래된 사전들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새로운 사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근현대 국어사전》은 그러한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만든 서비스이다. 일반 사전 이용자들도 큰 도서관에나 가야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국어사전들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평가되는 《조선어사전(1938)》을 깁고 더한 것으로 출간 당시 큰 호응을 얻어 널리 보급되었던 사전이다. 《큰사전》은 미완의 국어사전인 《말모이》에서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의 염원이 비로소 결실을 거둔 최초의 국어 '대사전'으로서, 이후에 간행된 모든 국어사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념비적인 사전이다.

각 사전은 편찬 당시의 말을 담고 있어서 예전의 국어사전에는 어떤 말이 표제어로 수록되었는지,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의 쓰임을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대어 살펴본다면 예전의 쓰임은 《근현대 국어사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근현대 시기 우리말과 국어사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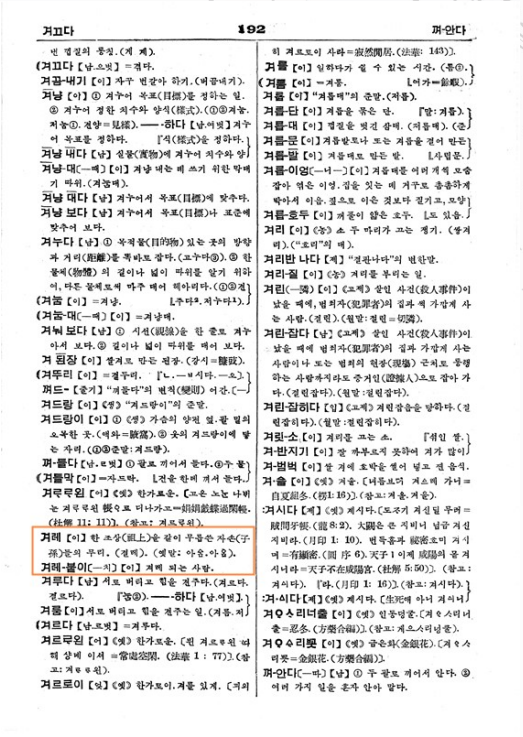
《근현대 국어사전》 서비스는 종이 사전을 웹사전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가 전혀 다른 각각의 사전이 하나의 사전처럼 오해되어서도 안 되고 '편찬자의 의도'를, '원본 그대로' 충실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개별 사전에서 채택한 품사 체계, 명칭 등을 서로 다른 것대로 보여 주기로 하였고, 쪽별로 스캔한 '원문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여 원본 자료의 모습과 정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이용자로서는 옛날 사전에 어떤 표제어가 있을지 감을 잡기도 어렵고 지금 사전에 비하면 수록되지 않은 표제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표기법도 지금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일치 검색'만 제공하면 원하는 표제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근현대 국어사전》 서비스에서는 종이 사전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검색어의 주변 단어들까지 볼 수 있는 '포함 검색'을 검색 서비스의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전체 사전 정보를 문서(엑셀) 형식으로 제공하여 전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근현대 국어사전》 서비스 이용자는 두 사전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원문 이미지도 내려받거

나 살펴볼 수 있어서 일반 사전 이용자나 연구자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4. 《한국어 기초 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 사전》

《한국어 기초 사전》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학습용 웹사전이자,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되는 '한국어-외국어 학습 사전'의 기반이 되는 사전이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 《우리말샘》과 함께 개통할 당시에는 표제어 5만 개 규모의 《한국어 기초 사전》과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된 《한국어-외국어 학습 사전》으로 출발하였고, 2020년에 중국어를 추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어 기초 사전》은 한국어 교수 ·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어휘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뜻풀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 및 문법 표현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어휘별로 다중 매체 정보(삽화, 사진, 동영상, 발음 등)와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외국어 학습 사전》은 《한국어 기초 사전》을 단순하게 번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학습자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3.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표제어 분석을 통해 본 고유어(토착어)

[표 3] 《표준국어대사전》의 분야별 어종 분포(2024년 7월 기준, [표 1]과 같음)

범주		일반어	전문어	총계
단어	고유어	60,810	14,270	75,080
	한자어	106,350	85,370	191,720
	외래어	2,520	17,980	20,500
	혼종어	53,700	20,760	74,460
	소계	**223,380**	**138,380**	**361,760**
구	고유어	0	680	680
	한자어	0	44,400	44,400
	외래어	0	3,510	3,510
	혼종어	0	14,360	14,360
	소계	**0**	**62,950**	**62,950**
합		**223,380**	**201,330**	**424,710**

2024년 7월 현재 《표준》의 표제어 개수는 약 424,000개이다. 크게 단어와 구(句)로 나뉘는데, 단어가 약 361,000개이고, 구가 약 63,000개이다. 구 표제어는 모두 전문어인데,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전문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표제어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 표제어 중에서 고유어의 비중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자어가 70.5%에 이르고, 많은 혼종어가 한자어 중심(예: 價格 優先의 原則, 價格의 一元化 등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 표제어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85%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전문어도 고유어보다 다섯 배 이상 많다. 단어 차원에서도 양상이 비슷하다. 단어 전문어 가운데 고유어는 10%를 차지하여 구 전문어에서보다는 비중이 높지만, 한자어(62%), 혼종어(15%), 외래어(13%) 등 다른 어종들보다는 비중이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고유어를 활용한 전문 용어 발굴과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어 고유어는 6만 개 이상이 등재되어 있고, 일반어 내의 비중도 27%에 이르러 전문어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반대로 일반어 한자어는 10만여 개가 등재되어 있고 그 비중은 47%에 머물러 전문어의 경우보다는 그 양과 비중이 모두 적다.[1] 이로 보건대,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고유어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전문 분야에서의 고유어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 여기서도 사실상 한자어인 혼종어(예: 발전하다, 발전되다, 건강히 따위)를 더하면 그 비중이 좀 더 늘긴 하지만 추이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참고로, 일반어 혼종어(53,700개) 가운데 '-하다'로 끝나는 말이 약 34,000개, '-되다'로 끝나는 말이 약 3,800개, '-히'로 끝나는 말이 약 1,600개로 도합 약 4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자어+하다/되다/히' 구성이다.

[표 4] 국어 기초 어휘의 등급별 어종 분포(국립국어원, 2023)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고유어	2,973	758	2,023	2,704	3,714	12,172
한자어	1,248	1,123	2,130	4,860	9,424	18,785
외래어	172	157	255	370	725	1,679
혼종어	607	462	1,092	2,066	3,137	7,364
합	5,000	2,500	5,500	10,000	17,000	40,000

[표 4]에서 일반어가 많은 1등급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50%를 넘는 데 비해 전문어가 많은 5등급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기초 어휘 내의 어종별 분포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와 일반어 내에서의 어종별 분포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려 준다.

한편, 《표준》에서 외래어 일반어는 2,5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외래어 전문어는 약 21,500개에 이른다. 전문어가 일반어의 아홉 배에 육박한다. 새로운 말이 많이 반영되는 《말샘》에서는 외래어 일반어가 약 7,500개이고, 외래어 전문어는 약 87,000개여서 그 편차는 더욱 크다. 이는 다른 어종들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인데,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외래어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외래어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 《표준국어대사전》 단어 단위 표제어의 품사별, 분야별 어종 분포

	명사		용언		부사		감탄사		기타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고유어	22,670	13,720	24,140	540	9,370	2	540	40	4,840	1
한자어	101,140	85,380	0	0	540	7	20	20	6,130	140
외래어	2,530	17,990	0	0	0	0	10	10	0	0
혼종어	12,390	14,670	39,080	6,090	2,400	4	10	20	50	4
합	138,730	131,760	63,220	6,630	12,310	13	580	90	11,020	145

고유어가 전문어, 또는 학술 용어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품사별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에서 전문어의 대부분은 명사이다. 구를 제외한 단어 단위의 전문어는 약 138,000개인데, 이 가운데 명사가 약 132,000개, 즉 95%가 넘는다. 품사의 측면에서 보면 명사의 수가 많아야 전문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고유어(약 75,000개)에서 명사는 약 36,400개(48%)에 불과하고, 일반어 고유어(약 60,000개)로 한정하면 그 비중이 약 22,670개(38%)로 줄어든다. 대부분 명사에 집중되어 있는 한자어나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는 용언(약 24,700개), 감탄사(약 580개), 부사(약 9,370개) 등 여러 품사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유어의 이런 특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어휘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지만, 전문어나 학술 용어로 그 사용역을 넓히는 데에는 약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우리말샘》 단어 단위 표제어의 어종별, 분야별 분포

범주	고유어				비고유어	총계
	표준어	방언	북한어	소계		
일반어	91,660	104,130	22,970	218,760	251,749	470,509
전문어	17,420	0	5,830	23,250	253,720	276,970
합	109,080	104,130	28,800	242,010	505,469	747,479

고유어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조어, 방언, 북한어 등 표준어의 바깥에 있는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신조어가 많이 반영된 《말샘》의 경우([표 6]), 구를 제외한 단어로서 고유어가 109,000여 개에 이르는데, 여기에 고유어 방언 약 10만 개와 고유어 북한어 약 29,000개를 더하면 총 240,000개 이상의 고유어가 확보된다[2]. 고유어 표준어 75,000개의 세 배가 넘는 고유어가 표준어 바깥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언어생활에 활용해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말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준》에서 전문어는 67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에 역사 전문어가 약 21,720개로 가장 많고 인명(약 10,390개), 불교(약 10,050개), 식물(약 8,890개), 의학(약 8,520개) 전문어가 뒤를 잇고 있다. 표제어 수 기준 상위 10개 분야가 전체 전문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개(전체 전문어 대비 약 1%)가 넘는 분야는 모두 32개[3]이고 전체 전문어의 약 87%를 차지한다. 반면 표제어 수가 가장 적은 전문어는 인문 일반 전문어로 35개에 불과하다. 산업 일반(90개), 재료(100개) 전문어를 비롯해 200개(전체 전문어 대비 약 0.1%)가 채 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10개이고, 이를 다 합쳐도 전체 전문어의 0.6%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제어 수 하위 분야를 20개[4]까지 늘리더라도 약 3%에 머문다. 이들 분야는 앞으로 《표준》의 전문어를 정비하게 된다면 다른 분야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표준》에 등재된 전문어(약 201,320개) 가운데 고유어는 7%(약 15,000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한자어는 65%(약 130,000개), 외래어는 11%(약 21,500개), 혼종어는 17%(약 35,100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 분야별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고유어 전문어의 비중이 높은 분야(상위 10개) 〈*고유명 및 합 200개 미만 분야 제외(이하 같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동물	38.2%(3,193개)	29.0%(2,423개)	4.5%(380개)	28.2%(2,356개)	8,352개
식물	35.3%(3,137개)	35.9%(3,189개)	4.3%(380개)	24.6%(2,185개)	8,888개
농업	27.0%(802개)	52.1%(1,544개)	1.5%(44개)	19.4%(575개)	2,965개
민속	26.6%(1,407개)	50.5%(2,675개)	0.2%(10개)	22.7%(1,204개)	5,296개
수산업	24.7%(106개)	54.2%(233개)	3.0%(13개)	18.1%(78개)	430개
건설	23.4%(1,145개)	42.0%(2,052개)	5.3%(257개)	29.3%(1,430개)	4,884개
공예	23.0%(377개)	54.9%(899개)	4.9%(81개)	17.1%(280개)	1,637개
언어	17.8%(624개)	58.3%(2,043개)	2.5%(88개)	21.4%(751개)	3,506개
무용	13.4%(88개)	65.3%(430개)	10.9%(72개)	10.5%(69개)	659개
체육	13.3%(568개)	32.7%(1,397개)	36.7%(1,565개)	17.3%(740개)	4,270개

[표 7]에서 고유어 전문어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 '전통', '1차 산업'과 같은 말로 묶어 볼 수 있다. 동물, 식물 전문어에는 각종 동식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동식물의 이름은 고유어가 우세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며, 농업이나 수산업, 건설, 민속, 공예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분야 역시 고유어 전문어가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말샘》에는 방언 중에 비고유어(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는 총 5,840개가 실려 있고, 북한어 중에 비고유어는 37,370개가 실려 있다.

3) 역사, 인명, 불교, 식물, 의학, 화학, 동물, 법률, 지명, 경제, 음악, 물리, 민속, 건설, 한의, 생명, 군사, 체육, 수학, 문학, 지구, 언어, 전기·전자, 농업, 철학, 공업, 광업, 정보·통신, 교통, 천문, 기계, 책명(표제어 수 내림차순)

4) 인문 일반, 산업 일반, 재료, 식품, 환경, 공학 일반, 자연 일반, 천연자원, 서비스업, 복지, 임업, 보건 일반, 연기, 고유명 일반, 수산업, 수의, 무용, 복식, 해양, 예체능 일반(표제어 수 오름차순)

[표 8] 고유어 전문어의 비중이 낮은 분야(하위 10개)[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행정	0%(0개)	92.9%(1,222개)	1.3%(17개)	5.8%(76개)	1,315개
정치	0%(0개)	77.5%(1,424개)	7.1%(131개)	15.4%(282개)	1,837개
약학	0%(0개)	50.4%(547개)	33.9%(368개)	15.7%(171개)	1,086개
법률	0.04%(3개)	88.9%(7,138개)	0.3%(26개)	10.7%(862개)	8,029개
가톨릭	0.07%(1개)	75.2%(1,086개)	3.6%(52개)	21.2%(306개)	1,445개
사회 일반	0.11%(2개)	80.3%(1,442개)	10.4%(166개)	9.2%(166개)	1,796개
심리	0.13%(2개)	83.7%(1,281개)	5.6%(85개)	10.6%(162개)	1,530개
철학	0.19%(5개)	84.3%(2,237개)	5.2%(137개)	10.3%(274개)	2,653개
경영	0.32%(4개)	83.5%(1,050개)	7.3%(92개)	8.9%(112개)	1,258개
경제	0.39%(27개)	80.6%(5,609개)	6.7%(463개)	12.3%(858개)	6,957개

반대로 [표 8]을 보면, 근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거나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분야들은 비율이 0에 수렴될 만큼 고유어의 비중이 미미하다. 이는 우리 언어 사회가 새로운 분야에서 고유어를 전문어로 활용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매우 부족했으며, 현대 사회에서 고유어가 학문하는 언어로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표 9] 외래어 전문어의 비중이 높은 분야(상위 10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체육	13.3%(568개)	32.7%(1,397개)	52.4%(5,449개)	2.5%(262개)	10,393개
영상	7.3%(7개)	44.2%(422개)	34.4%(197개)	20.6%(197개)	954개
약학	0%(0개)	50.4%(547개)	33.9%(368개)	22.3%(504개)	1,086개
정보·통신	0.8%(19개)	49.2%(1,113개)	27.6%(624개)	22.3%(504개)	2260개
예체능 일반	9.9%(93개)	48.3%(453개)	23.2%(162개)	16.8%(157개)	937개
복식	12.4%(87개)	51.5%(360개)	20.3%(433개)	12.9%(90개)	699개
기계	2.0%(43개)	51.6%(1,101개)	20.3%(433개)	26.0%(555개)	2,132개
음악	11.4%(687개)	55.2%(3,327개)	17.9%(1,078개)	15.5%(934개)	6,026개
연기	1.5%(6개)	67.1%(271개)	17.8%(72개)	13.6%(55개)	404개
화학	0.5%(40개)	43.6%(3,685개)	17.7%(1,501개)	38.2%(3,231개)	8,457개

5) 합 200개 미만 분야 중 재료, 복지, 인문 일반, 산업 일반, 천연자원 분야에서도 고유어의 개수가 0이다.

[표 10] 외래어 전문어의 비중이 낮은 분야(하위 10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민속	26.6%(1,407개)	50.5%(2,675개)	0.19%(10개)	22.7%(1,204개)	5,296개
한의	2.2%(106개)	90.7%(4,387개)	0.25%(12개)	6.8%(331개)	4,836개
법률	0.04%(3개)	88.9%(7,138개)	0.32%(26개)	10.7%(862개)	8,029개
불교	0.9%(95개)	89.4%(8,979개)	0.41%(41개)	9.3%(934개)	10,049개
임업	9.4%(21개)	82.6%(185개)	0.45%(1개)	7.6%(17개)	224개
행정	0%(0개)	92.9%(1,222개)	1.29%(17개)	5.8%(76개)	1,315개
농업	27.0%(802개)	52.1%(1,544개)	1.48%(44개)	19.4%(575개)	2,965개
역사	1.7%(374개)	82.4%(17,894개)	1.57%(340개)	13.3%(3,116개)	21,724개
의학	5.7%(487개)	69.6%(5,931개)	1.99%(170개)	22.7%(1,936개)	8,524개
수학	5.1%(182개)	72.2%(2,589개)	2.23%(80개)	20.5%(733개)	3,584개

[표 9]를 보면, 외래어 전문어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 근대 이후에 유입되었거나 체계화된 분야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서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외래어 전문어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10]을 보면, 외래어 전문어의 비중이 낮은 분야는 우리나라 또는 한자 문화권의 전통과 관련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긴 한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외래어 전문어 비중과 고유어 전문어 비중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즉, 외래어 비중이 높은 분야 중에 고유어 비중이 평균(7%)보다 높은 분야가 체육, 영상, 예체능 일반, 복식, 음악 등 다섯이고, 평균보다 낮은 분야도 약학, 정보 · 통신, 기계, 연기, 화학 등 다섯이어서 일정한 경향성을 띠지 않는다. 외래어 비중이 낮은 분야 중에서도 고유어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분야가 셋이긴 하지만 의학, 수학의 경우 평균에 가까워 이 경우도 경향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한자어 간에는 어느 정도 경향성이 확인된다. 즉, 고유어나 외래어 비중이 높은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낮고, 고유어나 외래어 비중이 낮은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

[표 11] 한자어 전문어의 비중이 높은 분야(상위 10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행정	0%(0개)	92.9%(1,222개)	1.3%(17개)	5.8%(76개)	1,315개
한의	2.2%(106개)	90.7%(4,387개)	0.3%(12개)	6.8%(331개)	4,836개
교육	0.5%(7개)	90.4%(1,246개)	4.1%(56개)	5.0%(69개)	1,378개
불교	0.9%(95개)	89.4%(8,979개)	0.4%(41개)	9.3%(934개)	10,049개
법률	0.04%(3개)	88.9%(7,138개)	0.3%(26개)	10.7%(862개)	8,029개
지리	2.3%(23개)	84.9%(853개)	5.0%(50개)	7.9%(79개)	1,005개
철학	0.2%(5개)	84.3%(2,237개)	5.2%(137개)	10.3%(274개)	2,653개
심리	0.1%(2개)	83.7%(1,281개)	5.6%(85개)	10.6%(162개)	1,530개
경영	0.3%(4개)	83.5%(1,050개)	7.3%(92개)	8.9%(112개)	1,258개
군사	1.0%(46개)	83.2%(3,758개)	5.0%(228개)	10.7%(483개)	4,515개

[표 12] 한자어 전문어의 비중이 낮은 분야(하위 10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
동물	38.2%(3,193개)	29.0%(2,423개)	4.5%(380개)	28.2%(2,356개)	8,352개
체육	13.3%(568개)	32.7%(1,397개)	36.7%(1,565개)	17.3%(740개)	4,270개
식물	35.3%(3,137개)	35.9%(3,189개)	4.3%(380개)	24.6%(2,185개)	8,888개
건설	23.4%(1,145개)	42.0%(2,052개)	5.3%(257개)	29.3%(1,430개)	4,884개
화학	0.5%(40개)	43.6%(3,685개)	17.7%(1,501개)	38.2%(3,231개)	8,457개
영상	7.3%(7개)	44.2%(422개)	34.4%(197개)	20.6%(197개)	954개
예체능 일반	9.9%(93개)	48.3%(453개)	25.0%(234개)	16.8%(157개)	937개
정보·통신	0.8%(19개)	49.2%(1,113개)	27.6%(624개)	22.3%(504개)	2260개
약학	0%(0개)	50.4%(547개)	33.9%(368개)	15.7%(171개)	1,086개
민속	26.6%(1,407개)	50.5%(2,675개)	0.2%(10개)	22.7%(1,204개)	5,296개

[표 11]에서 한자어 비중이 높은 10개 분야 모두 고유어와 외래어는 평균 이하를 차지한다. [표 8]에서 고유어 비중이 낮은 10개 분야 중 9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평균(6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행정, 법률, 심리, 철학, 경영 등 다섯 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높은 10개 분야에 속한다. [표 10]에서 외래어 비중이 낮은 10개 분야 중 8개 분야가 한자어 비중이 평균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한의, 법률, 불교, 행정 등 네 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높은 10개 분야에 속한다.

[표 12]에서 한자어 비중이 낮은 10개 분야 중 7개 분야는 고유어 비중이 평균 이상을 차지하며, 6개 분야는 외래어 비중이 평균 이상을 차지한다. [표 7]에서 고유어 비중이 높은 10개 분야 중 9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동물, 식물, 민속, 체육, 건설 등 다섯 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낮은 10개 분야에 속한다. [표 9]에서 외래어 비중이 높은 10개 분야 중 9개 분야가 한자어 비중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체육, 영상, 약학, 정보 · 통신, 예체능 일반, 화학 등 여섯 개 분야는 한자어 비중이 낮은 10개 분야에 속한다.

사전 표제어의 어종별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고유어가 학문하는 언어로서 지분을 넓히려면 한자어 중심의 전문어 체계를 재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최신 분야를 중심으로 지분을 넓히고 있는 외래어는 우리말에 고착되기 전에 발 빠르게 고유어로 대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유어 사용 비중이 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고유어 전문어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전자사전의 발전 방향

전자사전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표제어 수에 제약이 없다. 사전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어휘라면 제한 없이 등재할 수 있다. 용례나 참고 정보, 사진이나 삽화, 나아가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어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전자사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 나아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도 넓혀 나갈 수 있다. 또한 언어 변화가 포착되면 종이 사전처럼 개정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고, 수많은 사전 이용자의 참여로 오류나 보완할 점을 찾아내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려면 지금의 단선적인 사전 구조를 확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 운영 중인 전자사전은 검색의 측면에서 크게 편리해지긴 했지만 사전의 구조나 제공되는 정보의 측면에서 종이 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제어–뜻풀이–용례–관련어 등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구조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표제어를 중심으로 앞, 뒤, 옆으로 뻗어 나가는 확장적 구조로 나아가야 말 그대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사전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국어사전 시스템이 아니라, '국어 지식 통합 플랫폼'으로 개념을 전환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이 보유하고 있는 언어 자원과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전자사전의 모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개인적인 의견이며,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새로운 전자 사전 모델) 표제어를 중심으로 앞·뒤·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적 구조

* 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 정보를 시간축, 공간축, 개념축, 활용축 등으로 입체화함으로써 어휘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방식

〈기본 정보〉 [표제어] – [원어·발음·활용형·품사] – [뜻풀이] – [용례]

〈확장 정보〉

≪개념축≫ 〈계열어〉 의미적·형태적 계열어, 상위어–동위어–하위어, 동의어–유의어–반의어
〈삽화·사진·동영상〉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원 등 시스템 연결
〈전문 분야〉(표준 용어, 세부 분야, 분야별 용례 등) ← 공공용어 관리 시스템 연결
〈다른 사전 보기〉 ← 우리말샘, 한국어 기초·학습사전,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서비스 연결

≪시간축≫ 〈어원〉(세기별 용례, 유래 등) ← 국어어원사전 시스템 연결
〈시대별 말뭉치 검색 결과〉(용례 및 빈도) ← 모두의 말뭉치 프로그램 연결

≪공간축≫ 〈방언〉(지역별 표기, 용례) ← 지역어종합정보시스템, 지역방언사전 데이터 연결
〈번역어〉 ← 영·중·일 등 공공용어 번역 서비스 연결
〈로마자 표기〉 ← 로마자 표기 용례 서비스 연결
〈북한어〉 ← 겨레말큰사전/우리말샘 서비스 연결

≪활용축≫ 〈한 걸음 더〉(표기 원리, 뜻이나 표기가 헷갈리는 어휘, 삼가야 할 말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다듬은 말〉(순화어, 권장 표현) ← 말다듬기 서비스 연결
〈어휘 등급〉 ← 국어 기초 어휘 데이터 연결
〈수어〉 ← 한국수어사전 시스템 연결
〈점자〉 ← 점자 변환 프로그램 연결

… …

5. 나오며

사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은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사전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링크만 제공한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전 정보는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단어의 뜻이 궁금하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이 아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를 찾는다. 이로써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전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누구도 사전 검색에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한국에서 사전 편찬은 그 자체로는 투자 가치가 매우 낮은 일이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국어사전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는 없다. 오래전에 냈던 사전을 조금씩 바꾸어서 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전은 사실상 《표준》밖에 없다.

사전과 사전학이 발전하는 데에 지금의 상황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초래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대규모 사전 편찬과 언어 자원 구축은 국가가 주도하면서 전문가와의 협업,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 지능과 자동 번역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는 언어 자료가 학계와 산업계에 제공되어, 언어학과 언어 산업 발전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강현화 외(2017), 『한글과 사전의 현황과 전망 분석』, 국립한글박물관

김선철(2019), 「인터넷 시대의 사전 편찬과 서비스」,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김하수(2022), 「사전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적 역할 분담」, 『국가사전과 언어민주주의』, 한겨레신문사

국립국어원(2009), 「개방형 한국어 짓기 대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21), 『국립국어원 30년사』, 국립국어원

도원영(2019),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박용찬 외(2021),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배연경(2019), 「해외 디지털 사전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이대성(2022), 「국립국어원 사전 편찬 현황과 계획」, 『국가사전과 언어민주주의』, 한겨레신문사

정희창 외(2008), 『2008년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국립국어원

정희창 외(2022),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국립국어원

정희창 외(2023),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국립국어원

조남호(2022), 「국어사전 편찬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전학』

조은(2024), 「디지털 시대, 〈근현대 국어사전〉 시범 개통의 의미」, 『겨레말』(통권 24호

Characteristics of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Urimalsaem*〉 as an electronic dictionary, an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native language

Lee Dae-seon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199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published 〈Standard Korean Dictionary(SKD)〉 with 500,000 headings. Using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nd informatization technology, 〈SKD〉 presented more precise meaning solving and grammar information than previous dictionaries, provided abundant use cases using corpus, added new headings, and advocated a comprehensive Korean dictionary that encompasses old words, dialects, and even North Korean. It was also produced as a CD-ROM in 2001, and web dictionary service began in 2002. With this, the era of paper dictionaries has come to an end and the era of electronic dictionaries has enter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web dictionary,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earch function, enabling knowledge acquisition to a higher level beyond the monotonous dictionary search of simply finding the meaning of a word. From 2023, 〈SKD〉 is being reorganized to focus on headline words that are widely used on a daily basis, and by adding information for correct language use, it is seeking to shift from the existing 'comprehensive language dictionary' to the 'normative language dictionary'.

〈*Urimalsaem*〉 opened in 2016 with a scale of 1 million items. Until now, vocabulary directly registered by dictionary users and vocabulary discovered by themselves have been added, and now it has 1.16 million items. The core of 〈*Urimalsaem*〉 is 'openness'. Anyone can participate in the compilation and any words can be published. However, vocabulary that promotes discrimination, hatred, and political agitation is limited. In addition, anyone can freely download the contents of 〈*Urimalsaem*〉. In addition, 〈*Urimalsaem*〉 is characterized by making the meaning item as the basic unit of registration and assigning a URL to each so that it can be managed permanently.

Among the titles of the 〈SKD〉, there are 360,000 words and 63,000 phrases. All of the old subtitles are technical terms. The proportion of native languages among them is only 1.1%, indicating that Korean is generally very passive in discovering and using specialized terms using them. More than 60,000 native languages are registered in everyday languages, and the proportion reaches 27%, which is a big difference from the case of technical terms. It can be said that native languages are still firmly established in everyday life,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means

that the utilization of native languages in each specialized field is reduced by that much.

In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terms by language type, there is a certain tendency between native and Chinese characters, foreign and Chinese characters. In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native or foreign languages, the proportion of Chinese characters is low, while in areas with a low proportion of native or foreign languages, the proportion of Chinese characters is high. Reorganizing the professional language system centered on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a priority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language in which native languages are studied,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place foreign languages that are expanding their areas centering on the latest fields with native languages before they are fixed to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and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native language specialized languages should be accelerated,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 proportion of native language use is extremely low.

Electronic dictionary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faster and more accurately. To maximize these strengths, the current single-line dictionary structure must be extensively changed. There is a limit to providing more information in the single-line structure that leads to title, meaning solving, usage, and related words. It can be an electronic dictionary that provides 'more', 'faster',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if it goes to an expansive structure that extends forward, backward, and sideways around the title. This is not a simple Korean dictionary system, but a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to a 'Korean language knowledge integration platform'.

◆ 토론 3



정 희 창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전자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과 표제어 통계 분석을 통한 고유어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 희 창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의 언어생활에서 국어사전이 언어 사용의 준거로 차지하는 역할은 작지 않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출간 이후 언론에서 “《표준》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사전은 언어 사용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표준》은 국가가 편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 외에도 사전의 출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규모의 규범 정비가 이루어지고 어휘 목록을 구체화함으로써 규범을 보완하고 개편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표준》의 편찬이 복수 표준어 정책과 《우리말샘》 편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표준》은 공식적인 언어생활의 준거가 되는 사전이고 《우리말샘》은 공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언어생활까지 포함하는 사전이다. 그렇다면 향후의 사전 운영은 두 사전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말샘》에 등록된 어휘는 공식적인 언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표준》에 등재되는 일종의 ‘관찰 목록(watch list)’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표준》에서는 언어 공동체에서 필요한 언어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언어에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전을 통한 언어 정책(특히 규범 정책)의 반영은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뿐 아니라 언어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거라’가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의 ‘-거라’ 항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전을 중심으로 한 언어 정책의 운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언어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 수단과 방향은 이러한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수단의 획기적 전환은 국어사전이 전자사전으로 전환되고 지식 검색의 중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AI 시대를 맞아 전자사전은 한층 더 정교해지고 풍부한 내용과 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 정책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사전의 발전 방향과는 별도로 고유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한자어, 외래어의 비중이 높은 전문 분야에서 고유어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학술 용어로서 고유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고유어’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학술 분야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면 전문 분야에서 고유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사전의 전환과 사전 편찬 환경의 변화,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어’를 고려할 때 일상어로서 고유어가 지닌 소통성의 관점에서 고유어 발전 방향을 찾을 가능성과 같은,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03

둘째 마당
남북 · 해외 겨레말 문학과 토착어

좌장 | **한성우**(인하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박덕규**(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재외동포 문학과 모국어

발표 1 **이상숙**(가천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

토론 1 **오창은**(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2 **이정록**(이야기발명연구소장, 시인)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

토론 2 **안도현**(시인)

발표 3 **박안토니나**(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

토론 3 **임형모**(한성대학교 교수)

발표 4 **김호웅**(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조선족문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론 4 **윤여탁**(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5 **하상일**(동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과 언어 의식

토론 5 **오은영**(제주대학교 교수)

◆ 기조강연



박 덕 규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현)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명예교수

현)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편찬위원

· 1980년 『시운동』으로 시,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평론, 1994년 『상상』으로 소설 등단

· 시집 『아름다운 사냥』, 『골목을 나는 나비』, 『날 두고 가라』

· 소설집 『날아라 거북이!』, 『포구에서 온 편지』,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 평론집 『문학과 탐색의 정신』 등

재외동포 문학과 모국어

박 덕 규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모국어 현장

재외동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과 그 직계자손을 말하는데 2024년 현재 그 수는 708만(현지 국적 461만, 재외국인 247만) 정도다. 거주 국가별로는 미국 260만, 중국 200만, 일본 80만, 캐나다 25만 정도를 비롯해서 베트남·우즈베키스탄·호주·러시아·카자흐스탄 그리고 유럽권, 동남아권, 중남미권 등 각 10~20만, 기타 뉴질랜드 등 태평양권, 인도 등 남아시아, 키르기즈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각 1~5만 명 선이다. 700만이 넘는 이들 재외동포 중 모국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이민 역사와 시기, 지역 분포, 국적 상황, 혼혈 정도를 감안하면 50% 아래일 거라 추산한다. 모국어문학은 이들이 모국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레 나타났을 터인데, 실제 규모와 수준이 어떤지 알려면 좀 촘촘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문학은 당연히 '한글로 표기한 문학'을 말한다. 한글은, 15세기 중반 창제한 훈민정음을 대중이 수 세기에 걸쳐 사용해 오다가 19세기 말 '국문'으로 공식 채택했고, 1910년대부터 이를 한글이라 불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한인들의 해외 이주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재외에서 집단을 이룬 이들은 한국어로 소통하고 특히 한글을 공용문자로 해서 정체성을 유지했다. 한글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도 냈고 여기에 문학이라 일컬을 만한 글을 실었다. 재외동포 모국어문학의 가장 이른 양상도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후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성과 변화 또는 융성과 쇠퇴의 과정을 겪었다. 이들 문학은 문학 자체나 민족적 관점에서도 좋은 자산이지만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모국어 사용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실증으로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1)]

2. 러시아·중국·일본 재외동포 모국어문학의 전개와 현황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지속된 쇄국정책 기조, 언어소통의 한계, 국제사회에 만연된 이민족 차별현상 등은 한국인의 해외진출을 막는 요인이었다. 대항해시대 이후 이른바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로 이어지는 국제정세에 한국도 문호를 열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1) 이 글은 2020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발행한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전 4권 : 『미주 한인문학』, 『재일 한인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고려인문학』)을 토대로 했다.

기회가 잦아지고 이로부터 해외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누적된 체제 모순과 자연재해 등으로 절대 빈곤이 만연되고 내란과 외침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것도 나라 밖으로 나가는 명분이었다. 이 시기 한인 해외 이민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러시아 제국의 연해주, 중국의 만주 일대, 미국 하와이, 일본의 간사이나 간토 지방의 대도시 등이다.

연해주는 1860년대부터 한인 유랑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해서 한때 그 인구가 30만에 이를 정도였다. 1937년 이들 중 20만 가까운 '카레이스키(아래 '고려인')'가 강제로 열차 거리 최소 6,5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크즐오르다 등 여러 지역으로 옮겨졌다. 1990년대 소련 해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1세대 고려인 중 수만 명이 연해주로 돌아갔다. 현재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로서의 고려인은 50만으로 길게는 5대손 이상까지 대를 잇고 있다.

고려인은 연해주 시절에는 『선봉』(1923~1937), 강제이주 후 중앙아시아 시절에는 이를 뒤이은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모국어문학을 전개했다.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서 모국어문단을 이끄는 핵심 작가로 활동하다가 강제이주 시행 전 '인민의 적'으로 몰려 총살당했지만 이주 이후의 고려인 문단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중앙아시아에서 터전을 잡은 고려인들은 1960~1980년대 소련의 자국민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키워갔고, 학교·극장·신문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활동도 되살렸다. 고려인 모국어문학이 양과 다양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 이 시기였다. 스탈린 시기에 은폐한 강제이주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거주지에 따른 국가 구획, 혈통이나 소통언어의 혼재 등으로 민족적 결속력을 다지기 어려워졌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남은 고려인들 중에 모국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국어문학을 발표할 지면도 미미하다.

중국 만주 지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친연성이 깊다. 청 체제의 봉금령(封禁令)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1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인들은 여러 지역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정착의 터전을 마련했다. 원주민과 충돌해 위해를 입기도 했고, 한족 지주의 소작농이 된 이민자도 많았다. 이들이 가꾼 터전은 곧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1920년대 이들 수는 50만에 달했다. 『간도시보(間島時報)』(1919)·『민성보(民聲報)』(1926) 등 한글매체는 이들 집단에서 정보소통과 민족의식 고취 등의 기능을 발휘했다. 이후 친일 성격을 띤 한글신문 『간도일보(間島日報)』(1924)·『만몽일보(滿蒙日報)』(1933)의 창간에 이어 이 둘을 통합한 『만선일보(滿鮮日報)』(1937)가 생겼다. 이런 움직임은 1940년대 전후부터 국내 모국어 매체가 거의 절멸하는 상황에서 모국어문학의 명맥을 잇는 발표장이 되기도 했다. 최서해·강경애·안수길 작가들과 작품집 『북향』·『싹트는 대지』(1941) 등이 보인 이민체험 소설, 『만주시인집』·『재만조선시인집』 등의 창작시들, 그 밖에 항일의 현장에서 창작한 항일가요와 무대극 극본 등은 이 시기 모국어문학의 성과다. 그 외 이광수·김동인·염상섭·이태준·이효석·유치환·백석·윤동주·심연수 등도 이 지역에 머문 경험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광복 후 이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으로 주로 동북 3성을 거점으로 살면서 대체로 인구 200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린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는 인구와 행정의 중심이 되었고, 연변대학교는 모국어문화를 실현하는 배후가 되었다. 반면 이들은 중국 체제의 이념과 사회적 변동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처지로도 살아냈다. 이들의 모국어문학 역시 한글 표현을 축으로 이민과 항일 체험을 비롯해서 중국 내전, 6·25전쟁과 한반도 분단,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과 관련한 시련과 갈등을 담았다. 『연변일보』(1949) 등의 신문, 『연변문예』(1951)에서 시작해 『연변문학』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모국어문예지,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잡지 『문학과 예술』(1980) 등은 이들 모국어문학의 이론과 실제로 기능한 중요한 매체였다. 그중 소설가 김학철·김창걸·리근전, 시인 리욱 등 많은 작가들이 드러낸 서사적 체험은 한국 현대문학에 보기 드문 영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1978)과 한중수교(1992) 이후 현재 경제규모 세계 2위국으로 부상했고, 교역량에서 미국과 EU권 전체에 이어 한국과 그다음 가는 순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사회는 강력한 변화에 맞닥뜨렸다. 현재 조선족 인구 중 많게는 반 정도가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족 사회는 전에 없는 경제적 풍요를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민집단의 모국어문화로서의 결집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줄고 모국과 연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그 문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남다른 각성이 필요한 단계다.

일본 이민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던 시기부터 점차 늘어나 광복 무렵에는 220만에 달했다. 1910년 강제병탄 전후로 사무역, 구직, 비법월경 등으로 해협을 건넌 이민자들, 새로운 문물과 학문을 접하려는 유학생, 정치적 위기에 몰린 망명자 등이 각자의 신분과 목적에 따라 간사이의 오사카·교토·고베, 간토의 도쿄·요코하마 등 큰 도시의 건설장, 군수공장, 하역시설이나 대학가의 빈민가에 흩어져 살았다.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부터 이들 중 노무자 신분의 상당수가 광산으로 투입되었고, 1931년 만주사변 뒤에는 강제징용으로 동원한 노동자들이 대거 험악한 지형의 광산에 배치돼 노예와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며 광복에 이르렀다.

재일동포의 모국어문학은 이민사 초기 도쿄 유학생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부터 모양을 드러냈다.[2] 1913년 유학생 소규모 모임 7개 단체가 연합해 일본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를 조직했고 이듬해 기관지로서 한글잡지 『학지광(學之光)』(1914~1930)을 발행했다. 이 잡지는 당시 유학생들이 일본을 통해 선진 문물에 눈을 뜨면서 조선사회를 개선하려고 애쓴 다양한 글을 실었다. 논문·수필·기사·기행문 등 사실을 전하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글도 많았지만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도 상당한 분량을 점유했다. 근대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創造)』(1919~1921), 서양문학 전공자들의 『해외문학(海外文學)』(1927) 등도 이어 나왔다. 이런 매체를 중심으로 이광수·김억·민태원·김동인·주요한·변영로·김기진·김진섭·이하윤 등 문인들이 활동했다.

20세기 초 일본으로 건너간 이민자의 대다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극한의 육체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조선인노동동맹회(1922)·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1925) 같은 단체를 결성해 연대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출범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도쿄지부를 결성한 것(1926)도 이 무렵의 일이다. 이 중 이북만 등 맹원 일부는 일본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NAPF)에 가담해 '민족해방은 곧 계급해방'이라는 가치관을 드높이기도 했다. 임화 등이 도일해 지부활동을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임화) 등의 작품도 남겼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모국어문학의 전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당시 일본에서 문학활동을 주도한 이들은 머지않아 귀국할 유학생의 처지였고 실제로 대부분 귀국해서 국내 문사로 활동했다.

이런 점에서 재일동포 문학은 이미 광복 이전부터 모국어문학으로 전통을 쌓을 수 없었다. 대신 재일동포라는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더 치중했다. 광복을 맞은 조국을 두고 '종전'을 당한 일본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거듭했다. 『민단신문(民團新聞)』(최초 『조선신문』, 1946~현재), 『민주조선(民主新聞)』(1946~1950), 『진달래』(1953~1958) 등으로 재일동포 사회를 소통하고 결집하는 지면을 열었고, 1960년대 이후 『한양』(1963~1964), 『마당』(1973~1975), 『삼천리』(1975~1987), 『민도』(1987~1990), 『청구』(1989~1996) 등 다양한 매체로 명맥을 이었다. 이 매체들은 대개 재일동포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조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실었고, 또 적지 않은 문학작품도 포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기는 일본어였다.

광복 이후 재일동포 문학사는 세 과정을 이어 전개되었다고 평가한다. 첫째는 강점기를 체험하고 나서 일본에 남은 세대들의 '조국 지향' 단계, 둘째는 그 이후 세대를 살면서 1970~1980년대 일본에서 뿌리내린 삶의 갈등을 드러낸 '정주 지향' 단계, 셋째는 기본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계에서 '재일'의 처지를 살피는 '세계 지향' 단계 등이다.[3] 이 과정에서 강점기 시대 김사량으로부터 20세기 중후반 김달수·김석범·이회성·김시종·양석일·손연자·이양지·김길호 등을 거쳐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현월·유미리·사기가와 메구무·가네시로 가즈키·최실 등의 작가들이 연이어 활동했다. 최근 재일동포 작가들은 이미 언어표기 면에서 모국어의 자리를 떠나 일본어로써 세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이나 한일관계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표 나게 드러내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4]

---

2) 재일 유학생 집단의 최초 잡지는 1896년 일본동경유학생친목회의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로 알려졌다. 이후 1910년까지 여러 유학생 동아리들이 전문잡지를 냈는데 그중 대한유학생회에서 1907년 3~5월 사이 3호까지 발간한 『대한유학생회학보』(발행인 최남선)에는 한글표기 소설류 1편을 비롯해 국한문 혼용으로 쓴 창작서사류 여러 편이 실려 있다. 조상우,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연재한 서사문연구」(『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5) 참조.

3) 앞의 책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중 『재일 한인문학』(150쪽)에는 '조국 지향', '재일 정주 지향', '세계시민 지향'의 각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4) 광복 이후 재일동포가 '재일 사회'의 탄압 아래 모국어 문학 활동을 전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계자의 「남·북·일이 교차하는 재일 우리말 문예지」(너머 제9호, 2024년 9월 한국문학번역원 웹진)를 참조할 것.

3. 재외동포 모국어문학의 역사적·지역적 확산의 의미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는 러·중·일 등 한반도에서 가까운 지역과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 이민사의 확연한 첫 자리에는 1903년 1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내려 일한 한인 102명이 놓인다. 이로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한인 노동자가 하와이 여러 섬에 나뉘어 살았다. 국제 관계 탓에 이후 계약 노동자는 추가되지 않은 대신 소위 '사진신부' 1,000명 정도가 와서 함께 살았다. 이들 한인의 다수는 미국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미통상수호조약(1882)의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유길준으로부터 시작해 안창호·이승만 등으로 이어진 유학생과 망명객들도 초기 미국 이민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후 취업, 망명, 유학, 외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 단위 한인들의 이주가 지속되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서로 연계를 맺으며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국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때 모국어는 하와이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워싱턴 등 여러 도시에 한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매개가 되었다.[5)]

재미동포의 첫 모국어 매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간한 『신조신문(新朝新聞)』으로 알려져 있다.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 1913년 이승만의 주도로 하와이 교민들이 낸 『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등의 창간도 이어졌다. 이 시기의 발표작인 「이민선 타던 전날」(이홍기, 1905), 「망향」(최용운, 1907) 등은 재미동포 모국어문학의 가장 이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 모국어잡지는 대개 동포들의 홍보나 계몽, 국권회복 의지의 결집 등을 목적으로 발간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시나 소설류 등 문학작품에도 작지 않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신한민보』는 시·창가·민요·시조·한시·한문산문·개화가사 등과 전기소설·번안소설·신소설 등 다양한 문학장르를 담아냈다. 또, 유학생 집단 '북미학생총회'가 1925년 창간한 잡지 『우라키(The Rocky)』도 기억할 만하다. 연간 잡지로 1933년 총 7호로 종간한 이 잡지는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내용으로 하면서 여기에 적지 않은 수의 문학작품을 보탰다.[6)]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1970~1980년대 연간 평균 2만 명을 넘는 정도가 됐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 인구 밀집 지역도 생겨났다. 한글신문 『미주한국일보』(1969)·『미주중앙일보』(1974) 등은 모국어를 통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고 '문예공모전'을 열어 모국어문학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 기성작가로 활동하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들이 생겨나 모국어문단이 크게 활성화됐다. 이 과정에서 재미동포 모국어문단에서 전문적인 의미의 첫 문학매체라 할 수 있는 『지평선』(1973.12)이 창간돼 4호까지 이어갔고, 또한 『지평선』 동인들이 참여한 『재미시인선집』(1975)도 발간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1982년 북미 전 지역 재미동포 문단을 포괄하는 '미주한국문인협회'를 창립했다. 그해 12월 그 기관지로 창간한 『미주문학』은 연간지로 출범해 2002년 제19호부터 계간지로 전환하면서 더욱 견고한 지면을 확보했다. 이후 2010년 통권 제50호, 2022년 가을호로 제100호를 넘겨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재미동포 사회 모국어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결집력과 대표성을 보여주는 잡지로 기능했다. 이는 단순히 양적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주문학』은 국내 한국문학의 내적 외적 영역을 미주 지역으로 확대해 온 현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미동포 모국어문학 매체의 발간 상황은 다음과 같다.[7)]

1980년대

종합문예지 창간 **:** 『미주크리스찬문학』(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1983), 『객지문학』(1986), 『외지(外地)』(재미시인협회, 1987), 『문학세계』(1988) 등

동인지 창간 **:** 미동부뉴욕문학동인회의 『신대륙』(1985), 시카고 거점의 『백양목』(1985) 등

---

5) 재미동포에 관한 내용은 앞의 책 중『재미 한인문학』과 박덕규의 「재미 한인 모국어 문학잡지의 새로운 정체성 수립을 위해」(『너머』 제8호, 2024년 9월, 한국문학번역원 웹진)을 함께 참조했다.

6) 총 7호를 낸 『우라키』에는 시 29편, 수필 37편, 소설 6편, 평론 12편 등과 설명 58편, 논설·연설 69편, 번역을 포함한 기타 63편 등의 문학류를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의 책 중 『재미 한인문학』, 42~46쪽.

7) 재미동포 모국어문학 매체는 주로 이형권의 「미주문학의 발전과 한글 문예지의 역할」(『너머』 제4호, 한국문학번역원 웹진, 2023년 9월)을 참조해 재정리했다.

1990년대

지역적 확산 : 미동부한국문인협회(1989)의 『뉴욕문학』(뉴욕, 1991), 워싱턴문인협회의 『워싱턴문학』(워싱턴, 1991), 한돌문학회의 『한돌문학』(애틀란타, 1991), 오렌지문학회(오렌지글사랑)의 『오렌지문학』(오렌지카운티, 1995), 샌프란시스코문인협회의 『샌프란시스코문학』(샌프란시스코, 1995), 시카고문학회의 『시카고문학』(시카고, 1995) 등 창간

기타 창간 : 1997년 해외문학회의 『해외문학』, 1999년 재미수필가협회의 『재미수필』, 기타 『해외한국시』(1993), 『미주기독교문학』(1996), 『한뿌리』(1997), 『四海』(1999) 등

2000년대

지역적 확산 : 오레곤문인협회의 『오레곤문학』(오레곤, 2002), 시카고예지문학회의 『예지문학』(시카고, 2004), 달라스한인문학회의 『달라스문학』(달라스, 2005), 애틀랜타문학회의 『애틀랜타시문학』(『한돌문학』의 후신, 애틀랜타, 2006), 시애틀문학회의 『시애틀문학』(시애틀, 2007), 버클리문학협회의 『버클리문학』(버클리, 2013), 댈러스한솔문학회의 『한솔문학』(달라스, 2019) 등

장르별 확산 : 『미주아동문학』(미주한국아동문학가협회, 2002), 『미주시학』(미주시인협회, 2005), 『미주한국소설』(미주한국소설가협회, 2018), 『미주시조』(미주시조시인협회, 2022) 등

기타 창간 : 『미주동백』(시사랑동백회, 2000), 『미주가톨릭문학』(미주가톨릭문학협회, 2016), 『K-Writer』((재)나무달, 2022) 등

재미동포 모국어문학은 1960대 이전은 대개 동포사회를 결집하는 매체의 주요 도구의 하나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국권 상실 시대에는 그 회복을 염원하는 의지를 드러냈고, 차별과 소외를 겪는 디아스포라의 정서를 표출했다. 1970년대 이후는 여기에 문학적 전문성이라는 의식과 실제를 드러낸 현장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국내 문학사가 놓치고 있는 지역적·민족적 영역을 제시하면서 그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형상화하는 문학으로 성장했다. 특히 수필 장르는 양과 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북미권 캐나다의 1977년 캐나다한인문인협회가 동인지 『새울』에서 시작해 『캐나다문학』으로 발전한 것 등도 따로 부기한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세계 이주는 멀리 중남미 지역, 서유럽 등에 가닿았다. 중남미는 하와이에 이어진 노동자 파견이주, 서유럽은 외교 관련 파견이나 망명·유학과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적인 유입이 아니었고 국가별 지역별 분산, 열악한 현지 환경 등으로 모국어집단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그중에 남미권 두 사례 즉, 브라질의 『열대문화』(열대문화동인회, 1986), 아르헨티나의 『로스안데스문학』(재아한인문인협회, 1996) 등은 반드시 기록할 만하다.

유럽 지역에서 모국어문학을 결집한 곳으로 독일을 꼽을 수 있다. 1940년대 중후반 독일에서 의사 출신 이미륵(본명 이의경, 독일명 Mirok Li, 1899~1950)은 장편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ßt)』(1946) 등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독일어로 발표한 이 작품을 비롯해 유럽 화제작을 번역해 한국에 알린 유학파 문사 전혜린(1934~1965)의 감성적인 에세이도 1960년대 한국 문단에 신선한 바람을 안기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독일에서의 모국어문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소박한 동아리 활동으로 성장했다. 1960년대 초중반부터 약 10년간의 파견사업으로 현지에 가서 일하면서 정착한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 주축이었다. 1994년 처음 결성한 베를린문향회은 2001년 『Berlin문향』을 창간했고, 2005년 제2호, 2018년 창단 25년 기념호(제3호)로 이어가면서 독일 내에서 모국어문학을 결집하는 촉매가 되었다.

1999년부터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재단(현재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문학상 입상자 출신 7인을 주축으로 결성한 재독한국문인회(2004)는 2007년 『재독한국문학』을 창간하고 이후 2022년까지 총 14호를 발간했다. 2017년에는 독일·영국·폴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마케도니아 등에 거주하는 15인 문사가 종합문예지 『유럽한인문학』을 창간하기도 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간호사 출신을 주축으로 출범한 오스트리아한인여성문우회가 2013년부터 내고 있는 『도나우 담소』도 주목할 수 있다.

이민의 역사가 깊지 않은 나라로서 모국어문학 전통을 의미 있게 쌓아온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가 그렇다. 호주는 동양인의 이민을 막아온 소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정책을 중단한 1973년 이후부터 한국인의 이민이 본격화된 나라다. 특히 시드니는 한인 인구 최대 10만 명이 사는 지역이다. 늦게 시작한 이민사이지만 정보소통이나 국내 또는 세계와 문화교류가 손쉬운 시기라는

이점도 있다. 여기에 작가 이효정, 윤필립 등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이르게 『시드니 수필』(1983), 『호주한인문학』(1987) 등이 전문 문학매체가 창간됐다. 『호주동아일보』(1990)가 1993년 '재호문인회'(1989년 결성)와 함께 '동포문예 공모'를 실시한 것도 모국어문학의 마당을 그만큼 넓히는 데 공헌했다. 이 신문을 계승한 『한호일보』도 2017년 '신년문예'로 문예 공모전을 이어갔다. 그 전후로 호주한인문인협회·글무늬문학사랑회·동그라미문학회·문학동인캥거루·퀸즐랜드문학회 등의 모국어문학 동아리가 생겨났다. 2021년에는 이들 중 여러 장르를 대표하는 등단 문인이 결집해 시드니한국문학작가회를 창립하고 연간지 『문학과 시드니』를 내기 시작했다. 『문학과 시드니』는 2023년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미주 권역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 교류 행사'(미국 LA 한국문화원)의 '디아스포라 문예지 워크숍'에서 '새빛상'을 수상하기도 했다.[8)]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한인문인협회가 내는 『인도네시아 문학』(2013년 동인지 『사람의 문학』으로 창간)은 해마다 적도문학상을 개최하는 등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모국어문학을 발굴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재외동포 모국어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모국어문학은 모국어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성장한다. 시기에 따라, 형성 지역이나 규모·성격에 따라 그 결과물의 의미나 수준도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모국어문학의 전개 양상에서 유의미한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해주나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주문학으로서의 모국어문학을 형성했다. 이는 첫째 한인 인구의 지속적 유입, 둘째 공동체를 결집하는 가치관 확립, 셋째 전문작가의 참여 등이 그 기본 동력이었다. 또 이들 집단을 이끈 선각자들도 기억해야 한다. 연해주에서는 최재형 등이 정신적 리더, 조명희 등이 문학적 리더 구실을 했다면 만주에서는 항일투사, 기독교지도자, 망명 지식인 등이 매체 등을 이끌고 최서해 등이 전문작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연해주에 제2의 태를 둔 채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집단농장이라는 생활 조건에서 모국어문화로 응집했고 문학을 그 견인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속 국가가 달라지고 다음 자손으로 대를 이어감에 따라 문화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고유의 매체는 명맥이 끊어진 상황에서 간간이 '향유자 없는 한글문학'만 내고 있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일제강점기 절멸의 위기감에 휩싸인 한국문학을 지켜낸 문학현장이라는 의의를 부여받고 있는 재만 모국어문학은 광복 이후 중국 조선족문학으로 전통을 이으며 모국어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역사와 체제 이념에 침윤된 경력 위에 한국의 현실을 동시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태가 쌓이면서 한민족 이민자로서의 각별한 의식을 위협받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20세기 초반까지 모국어문화 활동을 유지하면서 한국문학사에서도 기록하는 주요 매체를 창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그 성장은 지난했다. 광복 후에도 일본의 역사기만과 차별정책, 남북한 대립 양상이 빚은 극단적 소외 등으로 모국어문화가 성장할 수 없었다. 동포들이 결집한 주요 매체를 통해 '재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집요하게 지속했지만 그것은 모두 일본어를 통한 것이었다. 반면 재일동포 작가들의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문학사를 경험적인 것뿐 아니라 인식적으로 새롭게 확장했다는 의미를 부여받기에 충분하다.

재외동포 모국어문학은 지난 세기 동안 대체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학적 전문성을 더해 온 가치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은 쇠락 단계에, 만주 지역은 급격한 가치 혼란으로 아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재일동포 사회는 모국어라는 소통 매개 없이 깊이 성찰해 온 '재일'의 의식을 '세계'라는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단계다.

재미동포 사회는 모국어문학의 성장과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를 일구었다. 그러나 이제 모국과 지역적 거리감을 상쇄할 만큼 원활하게 소통하는 현실에서 한국문학사에 포함하지 못한 어떤 모국어문학을 창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 점은 주로 20세기 종반부터 주요 모국어문화 집결지로 성장한 호주 시드니나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 청도, 베트남 등의 한인사회에도 과제로 던져둔다.

8) 유럽과 호주의 모국어문학에 관해서는 박덕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자각을 기대하며 - 유럽 및 호주의 한글 문학」(『너머』 창간호, 2022년 11월, 한국문학번역원 웹진) 참조.

Literature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he Mother Tongue

Park Duk Kyu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the culture of the mother tongue contributes to uniting the group with a sense of ethnic identity. Literary activities based on the mother tongue, in particular, enrich their emotions and imagination while instilling a sense of national pride. Korean literature among overseas Koreans is a cultural asset create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homeland, and it serves as a significant demonstration of the continued use of the mother tongue.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Korean literature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explores its significance.

Korean emigration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spreading to regions such as Russia's Primorsky Krai, Manchuria in China, Hawaii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Koreans in Primorsky Krai formed voluntary mother tongue communities, and after their forced relocation to Central Asia, they continued to preserve and develop Korean literature. Koreans in Manchuria filled the gap in Korean literary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fter Korea's liberation, they nurtured Korean literature as a minority culture of the Korean Chinese, adapting to China's ideological system. With increasing exchanges with Korea, they are now at a point where they must redefine the identity of Korean literature. In Japan, early Korean expatriates initially developed mother tongue literature centered around students, but later transitioned to writing primarily in Japanese. They grappled with the theme of being "Zainichi" (resident in Japan), and their expressions were in Japanese.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egan in 1903 when 102 Koreans moved to work on sugar plantations in Hawaii.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Shinjo Shinmun, publications like Taepyeongyang Magazine and Shinhan Minbo became central to the information and literary activiti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1965 Immigration Act reform, Korean immigration surged, leading to a proliferation of Korean-language newspapers and literary magazines. In 1982, the Korean American Writers' Association was founded, becoming a key institution in the Korean American literary scene. Miju Munhak, a prominent literary magazin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Korean literature in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saw a substantial expansion in regional and genre-specific literature, with dozens of periodicals and collections being published.

Additionally, specialized Korean literary media emerged in places like Berlin, Germany; Sydney, Australia; and Jakarta, Indonesia. These publications are now faced with the challenge of exploring how Korean literature can present new facets in a globalized world.

◆ 발제 1



이 상 숙

가천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현)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

· 세계일보 신촌문예 평론 부분 당선

·『북한 문학 속의 백석 – 가난한 그대의 빛나는 마음』,『통일시대 남북의 시』,『북한의 시학 연구 1~6』 등

◆ 발제 1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

이 상 숙

가천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1. 지역어인가? 토착어인가?

평북 정주 출생 시인 백석이 1930년대 경성 시단에 발표한 시집 『사슴』에는 시인의 나고 자란 지역의 토박이말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담겨 있다. 백석은 '귀해하고'[1], '날기'[2], '노큰마니'[3], '마가리'[4]같은 평북 방언을 시에 그대로 사용했다. 시집 『사슴』 출간 당시에 평론가 박용철은 "해득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가 있다면서도 백석 시의 '방언', '해득 어려운 어휘'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오히려 '모어(母語)의 위대한 힘을' 알게 된다고 했다.[5] 시어 풀이를 통해 정확히 그 평북 방언이 가리키는 사물이 무엇인지 행동이나 모양,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독자들은 백석의 시를 읽으며 시인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배우고 들은 모어(母語)로만 재현될 수 있는 그때의 느낌, 정서, 분위기, 내면을 더 잘 느끼고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 1930년대 백석 시에 쓰인 말은 그 지역 토박이말이고 모국어와는 다른 의미로 모어(母語)이다. 또 정주 지방의 방언이고 지역어이기도 하다. 백석 시에 나타난 정주 지역어의 음운현상을 고찰한 연구를 보면 백석이 방언의 시적 효과와 활용을 염두에 두고 평북 방언을 고수하거나 활용하는 시 창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6] 이렇게 시인 백석은 방언의 시적 효과를 잘 알고 의도적으로 활용한 탁월한 시인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느낌, 정서,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백석의 모어(母語), 평북 방언이 유일하고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토박이말, 모어, 방언, 지역어의 힘이다.

---

1) 귀여워하고(「힌 바람 벽이 있어」)
2) 낱알(「고야」)
3) 증조할머니(「국수」 등)
4) 오막살이(「나와 나타샤와 당나귀」)
5) 박용철, 「백석 시집 '사슴' 평」, 『조광』, 1936. 4.
6) 송미영, 「백석의 작품을 통해 본 정주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126호, 한국언어문학회, 2024. 31-65면. 송미영은 백석 시에 나타나는 두음법칙,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고모음화, 모음조화 등을 분석하여 백석이 교육, 국어 규범, 기타 방언권의 영향을 받았음과 시의 율격 형성을 위해 음운 법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백석 시에 나타난 평북 방언은 토박이말, 모어, 방언, 지역어인데 이 글의 주제인 '북한어'는 토박이말, 모어, 방언, 지역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스럽다. 1945년 광복 이후 남북의 분단이 80년간 이어진 지금 북한은 표준어인 서울말이 쓰이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 북한에서 쓰는 말은 모두 방언이고 북한 지역어인가? 북한에서 쓰이는 언어를 일컫는 '북한의 말'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운 것이다. 백석 시의 언어는 한국어, 평북 방언, 평북 지역어이며 북한어는 한국어(Korean)이지만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이나 지역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문제는 '북한의 말'을 북한이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쓰이는 말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다. '북한'의 함의가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 지역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인 토착어(indigenous language/ Vernacular)'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한국어(Korean)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종(異種)의 언어에 의한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배자 혹은 침략자 같은 외부에게서 유입되거나 이식된 언어 즉 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에 의해 억압되어 소수의 사용자만이 남은 경우는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언어'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매우 지배적이고 강력하며 언어 정책적으로 '사투리'와 같은 '토박이말'을 배척하고 있다. 북한이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문화어'는 의미상의 표준어 이상의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력한 규제와 우위의 언어이다.

방언, 지역어 문제는 어떠한가? 이는 더 복잡하고 민감하다. 지역어, 방언이 표준어와 상대격으로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도가 경성이던 시절 평북의 말은 방언이고 지역어였고 북한 지역의 언어가 각 지역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80년간의 극한의 남북대치는 '표준어'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념이며 정치적 국가적 이슈이다. 그리고 북한이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그들의 표준어 '문화어'를 천명한 상황에서 하나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 방언, 지역어를 정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서울말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의 말은 모두 방언이고 지역어일 수 있지만 '문화어'를 '북한의 언어', 북한의 '표준어'로 본다면 방언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말', '북한어'를 '북한 지역의 말'로 볼 것인지 '문화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남북의 분단이 지역적 분리나 격절 이상의 이념적, 정치적 단절과 대치이고 북한의 언어가 역사적, 이념적 상황에서 생성되고 변화하고 정리되고 정책적으로 통제되었기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7)]

언어학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문화어'가 아닌 북한 지방, 지역에 남아 있는 지역어를 찾고 기록하겠지만 문학작품에서 그것을 구별하여 문화어인지 평양말인지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쓰는 방언인지 토착어인지를 정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와 숙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2. 문학의 역할과 언어 정책

북한에서 언어는 정치성과 민족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산물이다. 노동과 사회생활의 반영으로써 북한의 언어는 민족 공통의 도구이며, 개인의 감정 표현, 의사전달, 소통의 기능보다 혁명과 투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북한에서 모든 출판보도물은 선전선동의 매체적 특성과 인민교양의 기능을 가진 중요한 사업의 도구이다. 문학 작품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교양을 위해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여지는 기풍'이라는 인민성의 원칙 아래 쓰여야 한다. 이때의 '기풍'은 '문풍'으로 이해되는데 '인민성'이란 대중들이 알기 쉬운 대중 친화적이란 뜻이다. 대중들이 알기 어려운 한문 투의 문장, 군더더기가 많고 복잡하고 긴 문장, 외래어나 외래어로 만들어진 단어 등을 쓰지 않는 것, 쉬운 표현을 쓰고, 에둘러 말하지 않고,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8)] '문풍(文風)'은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와는 다른 것이다.

'문화어'는 1960년대 '여러 외래어로 타락한 표준어 서울말'을 비판하며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후 내세운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표준어이다. '문화어'는 표준어이자 규범어로 '민족적 특성을 지닌 말'이면서 '혁명적 대중의 언어'이며 언어정책이 정한 공식적인 언어이다. 문풍이란 "당적이며 인민적인 립장에 서서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을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알맞

7) 한성우, 「《겨레말큰사전》의 남북 및 해외 지역어 수집과 활용에 대한 토론」,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토착어 자료 구축 활용 자료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사업회, 2023. 226-227면. 참조.

8) 전영선, 김지니, 「북한의 언어 정책과 대중매체 활용」, 『북한학보』 44권 1호, 북한연구소, 2020. 126-139면.

게 규범적이고도 표현적인 언어 수단들로 전달하는 작풍”으로 “문법, 어음론과는 달리 조선어를 항상 조선 혁명 수행의 중요한 무기로 보면서 조선어를 어떻게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9]을 이른다. 문풍은 ‘수령의 문풍’[10]처럼 대중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혁명의 도구로써 사용된 김일성 같은 최고 권력자에게만 붙는 수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풍 운동’은 문화어가 지정되기 전인 1960년대 초반부터 언어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고 표기와 어휘 단위의 규범화에서 문장과 텍스트 단위로 확장하는 관점을 보이기도 했다.[11]

1960년대 북한 ‘문풍 운동’을 언어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경봉은 문풍에 대한 북한의 언어학자 김수경의 의견에 주목한다. 김수경이 말한 “문체와 그 분류 및 매개 문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문제”,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의 내용과 이를 파괴하는 요인 및 이 특질들을 보장하기 위한 언어 수단들의 문제”, “글에서의 단락과 완결된 편장(篇章)의 구성에 대한 문제”가 문풍 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최경봉은, 북한의 ‘문풍 운동’이 “1966년 이후 문풍 운동이 말다듬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어 운동에 흡수되면서, 언어정책의 중심 대상은 어휘 단위로 축소되었고 ‘문풍’은 언어정책이 아닌 언어생활에 대한 태도의 개념으로 축소”[12]되었지만 문풍이 이후 문화어 운동 등의 언어정책에서도 일관되게 부각되는 인민적 글쓰기의 원칙인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이 제시되어 있었고 표기, 단어, 어휘 차원의 규범인 문화어보다는 문장, 텍스트 단위에서 규범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언어정책으로 주목해볼 만하다고 했다.

문장, 텍스트 단위에서 규범을 제시한 것은 문학 작품 단위에서의 규범을 논의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조선문학』에 실린 작품과 『민주청년』에 실린 글에서 뽑은 문장을 들어 “총알이 피용피용 귀’가를 스친다”, “쿵쿵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어색한 표현이고 인민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비판한 부분이 그 예이다.[13] 최경봉의 지적대로 문풍이 문화어 운동에 흡수되어 언어정책의 대상이 어휘 단위가 되고 문풍이 언어생활의 태도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문학 작품이나 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언어정책적 규범의 예를 찾기 어려워졌지만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어’의 특징을 논할 때 ‘문화어’뿐 아니라 ‘문풍’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하는 시사점이 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물론 ‘문화어’이든 ‘문풍’이든 민족적 특성을 지닌 혁명적 대중의 언어로서 인민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대중 교양의 언어로서 북한의 문학어 역시 그에 따라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문학에 쓰인 언어의 지역성, 토착성을 주제로 한 이 글은 북한 문학에 쓰인 언어의 ‘문풍’, ‘인민성’을 살피고 단어, 어휘, 표현, 문학적 수사나 묘사 등의 서술상의 사상적, 지역적 특성을 살피는 것으로 아직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북한 문학과 지역어’의 논의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언어정책의 강한 통제를 받는 북한문학에는 ‘인민성’에 반할 수 있는 요소들, 즉 사투리들과 거친 말, 길게 묘사하고 수식하는 간결하지 못한 문체, 독자의 경험과 상상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 명료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서술, 한문 투, 외래어, 언어유희 등이 드러난 작품이 없는 것인지 만약 그러한 작품이 쓰였다면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을 평가하는 평론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며 인민성은 수령형상, 주체사상, 노동계급성, 당성,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형상성과 함께 중요한 잣대로 적용된다. 이는 검열과 통제를 거쳐 공개된 문학 작품에 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되겠지만 지역어, 방언, 토착어의 관점에서 북한문학에 나타난 언어를 살펴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언어정책의 통제에서 벗어난 문학 작품에서 찾는 것은 어떨까?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에 의해 쓰였지만 북한 문예당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문학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14] 이 글에서는 반디의 소설 「고발」을 예로 들어 북한의 문학에 담겨있는 지역어/방언로서의 언어 토착어, 모어(母語)로서의 북쪽의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북한의 최고의 문예지 『조선문학』 2022년 10월호에 실린 소설을 함께 살펴본다.[15]

---

9) 김수경,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하여」, 『조선어학』 3호,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1963. 11 - 12면.
10)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 설득의 전략』, 책세상, 2021.
11) 최경봉, 「1960년대 북한 ‘문풍 운동’의 언어정책적 함의 - 문화어 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국어학』 102, 국어학회, 2022. 3-35면.
12) 최경봉 위의 글.
13) 박홍준, 「글을 잘 쓰려면?」, 『말과 글』 6, 평양 : 과학원 출판사, 1959. 8-9면. 위의 글, 13면에서 재인용.

문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인민적 립장에 튼튼히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 필요 없이 말이 길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을 가져다주는 표현들이 때때로 출판물들에 나타난다. ≪총알이 피용피용 귀’가를 스친다.≫(≪조선 문학≫1959년 4월 호), ≪쿵쿵 쏟아지는 폭포 소리≫(≪민주 청년≫1959년 5월 16일) 등에서 총알이 ≪피용피용≫ 날고 폭포가 ≪쿵쿵≫ 쏟아진다는 말은 누구의 귀에나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3. 반디의 소설 「탈북기」와 「서른한 해」, 「작별」

『고발』은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 '반디'가 몰래 쓴 소설 7편을 묶은 소설집이다.[16] '반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작가는 탈북하는 지인에게 시와 소설 원고를 맡겼고 그 원고가 2014년 남한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27개국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었다. 작가가 북한을 탈출한 후 쓴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에 거주하면서 작품만 내놓았고 극도로 통제된 사회 북한에서 검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통렬하면서도 진실한 목소리가 담긴 작품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설집 『고발』은 미국의 아스펜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2017년에는 Deborah Smith[17]가 번역한 영어판 The Accusation: Forbidden Stories From Inside North Korea가 영국 PEN 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반디가 구소련의 솔제니친처럼 반체제 작가이고 그의 소설이 폐쇄적인 북한에서 새어나온 개인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기도 하지만 소설집 『고발』에 담긴 7편의 소설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주제 의식의 깊이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쓴 작품이라는 진정성 면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훌륭한 작품이다. 북한의 공식 서사가 그려내는 수령형상이 북한 디스토피아의 유령과 같은 환상일 뿐이라는 자각, 그 허위와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절망과 참된 삶과 인간성에 대한 존엄한 열망이 담겨 있는 수작이다. [18]오태호는 이 소설이 북한 내부의 모순을 파열하는 위반의 글쓰기로서 비판적 리얼리즘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19], 오창은은 반디의 소설이 "북한에서 보내온 문학적 탄원서"이며 "북한 정권이 수령형상문학으로 그려내는 공식서사의 이면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의 세계관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고 했다.[20]

작가 반디는 『고발』과 함께 반출되어 출간된 시집 『붉은 세월』[21]에서 자신이 '작가로서 북한 당국의 대변자로 말하는 기계'로 살았고 자유 없이 '멍에 쓴 인간'으로 살았다며 '이제 그 멍에를 벗고 자신의 말로 작품을 써내면서, 작가적 재능이 아닌 의분과 피눈물에 뼈로 적듯 썼'다고 했다. 대변자,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의분과 피눈물을 가진 인간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디는 1950년생으로, 북한 최고 작가들의 모임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이라고 한다. 낮에는 당 정책을 선도하고 홍보하는 문학작품 생산자였던 반디는 밤에는 집에서 몰래 북한 사회와 주민의 생활을 담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담은 소설을 썼다. 반디의 신상이 감추어져 있으나 탈북작가들은 반디가 '북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북한 문학작품 창작론인 '종자론'을 따르고 있어 그를 북한 내부 작가로 판단했다고 한다.[22] '북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북한어'의 일면일 것이다. 그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곳에서만 쓰이고 있어 눈에 뜨이는 것이 특징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회고와 회상이 담긴 액자 구성을 자주 사용하는 북한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편 모두 다른 주제의식을 보여주며 인물 형상과 상황과 배경 묘사 또한 유려한 이 소설들에는 속담, 기층어, 북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일상어 또한 풍부하다. 찬양 일변도의 '수령 형상'이나 당에 충성하는 '사회주의 모범' 인물이 아닌 고민하고 각성하며 살아있는 인물 형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그들의 말과 주변인들의 살아있는 입말과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

---

14) 탈북인들이 쓴 문학 작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탈북문학을 북한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15) 022년 10월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팬데믹으로 북한출판물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0월호가 공식적으로 국립도서관에 입고되어 열람 가능한 최근호이기 때문이다.
16) 반디, 『고발』, 다신북스, 2017.
17) Deborah Smith는 대한민국 소설가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한강과 공동으로 수상한 번역가이다.
18) 이상숙, 「사회주의 유령과 존엄한 선택 -반디의 『고발』 분석-」, 『우리어문연구』 62호, 우리어문학회, 2018, 141-173면 ; Lee Sangsook, Hidden Writer and Keen Observer, North Korean Review, no. 15, McFarland, USA, 2019.3. pp. 18-122.
19) 오태호, 「북한 문학의 새로움, 억압적 체제와 통제된 현실에 대한 비판- 반디의 고발론」, 『민족화해』, 2017년, 11~12월호. 2017, 55~57면.
20) 오창은, 「북에서 온 탄원서 - 북한 소설 고발을 읽고」, 『녹색평론』, 2017년 11~12월호. 143-153면.
21) 반디, 『붉은 세월』, 조갑제닷컴, 2018
22) Choe Sang-Hun, "A Dissident Book Smuggled From North Korea Finds a Global Audience", The New York Times, March 19, 2017., 2018년 7월 25일 검색. (A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in print on March 20, 2017, on Page C5 of the New York edition with the headlin e: Tales of North Korea)

속담이나 기층어는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으로 드러내는 '민족적 특성'의 내용이자 도구이다. 특히 속담은 문학의 '인민성'을 드러내는 주된 방법이었는데 반디의 소설에서도 일상의 감정을 표현하고 실제적 언어생활을 담는 '주민들의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었다.[23] 검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반디의 소설은 통제되지 않은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으며 정치의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언어정책에서 자유로운 작가의 언어, 문학의 언어를 보여줄 수 있다. '문화어', '문풍', '혁명의 언어',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으로 가려진 북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쓰는 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고발』에 담긴 7편의 단편 중 첫 번째 단편 「탈북기」를 대상으로 북한의 말과 문학의 언어를 살펴볼 것이다.

「탈북기」는 천재발명가 소리를 들었지만 출신 성분이 나빠 일개 기사로만 살아가야 하는 일철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각성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이야기이다. 일철 일가는 과거에 지주였던 아버지가 랭상모를 잘 키워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당혁명종파분자가 되어 강제로 이주당한 원산이주민이다. 이런 출신성분으로 조카 민혁은 학교에서도 반장을 빼앗기고 아내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일철이 알게 된다. 일철은 인간답게 살 희망이 없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친구인 '상기'에게 자신의 결심을 담은 편지를 써 보낸다. 친구에게 보내는 서간체 형식,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하는 모티브, 현실의 불합리를 깨달은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위한 탈출을 감행하는 등 여러 면에서 최서해의 소설 「탈출기」를 연상시킨다.[24] 작가 반디는 소설 말미에 1989년 12월 12일을 탈고일로 밝히고 있는데 연좌제에 의한 출신성분을 극복할 수 없어 1987년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탈북한 김만철 일가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탈북기」와 비교하여 살펴볼 소설은 「서른한 해」[25], 「작별」[26]이다. 「서른한 해」는 동해 담연호의 풍경을 그리러 온 화가가 만난 노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노인은 50년 전인 1967년에 만난 김정일이 서른한 해가 지나서도 자신을 기억하고 만나러 온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가는 노인과 아이들의 태양을 향해 환호하는 것을 바다의 으뜸가는 경관임을 알게 되고 김정일, 김정은의 정이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처럼 영원히 흐를 것이라며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수령형상문학이다.

「작별」은 작업반에서 늘 대립하면서도 노동을 위한 노력과 열정은 다를 바 없는 오빠와 최인준을 지켜보는 라순정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라순정은 두 노동 영웅을 보며 자신도 농촌 진흥을 위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다. 농촌 작업반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 농촌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자의 일상어를 볼 수 있다.

(1) 북한 사회주의 제도와 직급 체제 등에 의한 새로 만들어지고 쓰이는 사회적 단어

세 소설에 나타난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반영하는 조직, 직급, 직장 등 사회 시스템에서 생겨나고 정해진 단들을 정리해 보았다. 직장명, 직급, 호칭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3) 이상숙, 북한문학의 민족적 특성론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63~174면.

24) 이상숙, 「사회주의 유령과 존엄한 선택 -반디의 『고발』 분석-」, 『우리어문연구』 62호, 우리어문학회, 2018. 165면.

> 소설 「탈북기」는 최서해의 「탈출기」에 나오는 서간체 형식을 차용했다. 북한문학사는 최서해의 「탈출기」를, "간도의 이상촌을 찾아 살아보려던 박 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그 원류를 쳐부수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소설로 신경향파 대표작"으로 평가한다. 일철이 탈출하고 싶어 하는 북한은 60여 년 전 「탈출기」 속의 박 군이 아내와 노모를 외면하면서까지 선택한 '사회주의'이다. 반디는 「탈출기」의 박 군이 추구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탈북기」의 구조로 차용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모순을 보여준다. 또 이 소설은 1987년 1월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탈출한 김만철 일가 연상시키는데 김만철 역시 러시아 유학 시절 김일성을 비방한 죄로 총살당한 막냇동생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차별을 당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25) 김해룡, 「서른한 해 - 한 화가의 수기 중에서」, 『조선문학』 900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10. 9-18면.

26) 오광철, 「작별」, 『조선문학』 900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10. 45-60면.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원산 이주민	어로공	작업반세포비서
밤일감	세소어업반	리당
한 파장의 랭상모[27]	위장상태	제대군인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밤작업	인민체력검정표
개마령을 넘어온 가족	식당근무성원	기계화반
내각 결정 149호	인민반회	작업반
부문 당비서	제대군관	인민배우
입당	영예군인	비판무대
기술혁신 작업반	혁명사적관 관장사업	농촌혁명강령
돌발작업		
세대주[28]		
사도탁[29]		
당세포		
시행정위원회 지도원		
배급소		
쌀표를 떼어놓고		
우리집 배급번호		
시당		
공장기술지도원 아버님		
인민반장		

'야간작업'을 뜻하는 '밤일감', '밤 작업'과 같이 한자어를 풀어쓴 단어나 책상을 가리키는 '사도탁'과 같은 단어는 남한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이나 사물이지만 '인민반장', '내각 결정 149호', '농촌혁명강령' 등은 오직 북한만의 체제와 조직에서 나온 명칭이다. 쌀 배급을 위한 쌀표, 배급 번호 등은 배급제 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2) 일상어

다음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 표현 중 우리와 다른 쓰임을 보이는 말을 정리한 것이다. 아내와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탈북기」와 농촌작업반 처녀의 눈을 통해 본 농촌 노동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작별」에서 다양한 북한의 일상어를 통해 남한과는 다른 쓰임을 보이는 여러 일상어를 찾을 수 있었다.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나의 아내가 그 애를 진정 눈물겨운 사랑으로 살뜰히 애무해주었던 거기에 있었네.	나이지숙한 어로공이	왜서인지
낙엽을 굴리는 마가을[30] 바람	매생이를 타고 바다로	어린시절은 이곳에서 흘러갔다.
당반이며	구체적으로 료해	애로조건
내 말을 밀막는[31]	밸풀이	우렷이 떠올랐었다.
밥상에 덮어놓은 신문장을 벗겨놓던 일	닭알	쓰겁고도
뜨적뜨적 내 수저가 가닿는 음식 그릇마다	로인은 숨길이 막힌듯 기침을 세게 깊으며	군사복무
번념	지심을 두드리는 파도의 옹글진 여음, 폐장에 스며드는	회답
두벌밥	바다기슭	버그러져가는듯한 참담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갈마들었다.

27) 냉상 모판에서 자란 모
28) 가장(家長), 남편
29) 제도사나 설계사가 작성한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책상
30) 늦가을
31) 못하게 하거나 말리다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권척[32]을 둬두고 갔댔구만”	곽밥	퍼그나 많은 시간이
개머거리(개죽)	제딴의 갸륵한 계획이	황겁하고도 열띤 소동이
아랫입술을 꽉 감쳐무는데	세소어업반 비슷한 것을 뭇고	나가누워버렸다
두 눈 가득 눈물이 시글거리는 것이었네	미련둥이	관개공사
국수조리[33]를 결어 팔아 모자라는 배급식량을 보탬해나가고 있었네.	얼굴색이 철색인 동문데 ~ 해풍에 더 까매졌댔다고	양수장이 일떠서고
돌따서[34]층계를 오르는 나의 몸뚱이에서는 피가 거꾸로 뛰기 시작했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이 시기에	마음은 비구름을 품은 하늘만큼이나 어수선해났다.
아내가 무릎꿇이로 일어나 앉으며 눈물주머니가 된 얼굴로		손세를 써가며 말장단을 펴군 했다.
들장을 내고야[35]*말았네		백메터달리기
공장구내 유축진[36]곳에 떨어진		불을 달겠어
시집켠에서는		자기들을 잃구 싸우기는 처음
나는 기껏 힘써주겠다는 문영희의 대답을 듣고		서슴어졌으나 마음을 다잡았다
발걸음이 허정거렸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이 들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해났다.
각근히 굴어주는		분명 일없었을텐데
민혁이아지미 / 민혁 삼촌		농장에 탄원해온 첫날
민혁이보담 깔때긴데		자존심이 강하구 자기에 대한 요구성도 높은
이런 생각이 갈마드는 순간		나른하고 실심한 기운이
끌끌한 사람들		손전지
		보매 오빠도
		웨치는 소리
		강태관아바이
		사기를 저락시키구
		우리 주위에는 농사에 뼈심을 바치지
		의미심장한 기운이 페부에 미쳐오는것
		온몸이 부만해진 형님이
		설분하듯 떠뜸떠뜸 하는 말
		진거름
		겨울상처란 통세나기 십상이야.
		휴식일
		우둘렁거리기는
		무춤 멎어섰다.
		엇드레질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를 부르는 명칭이 조카의 이름을 따 ‘민혁 삼촌’, ‘민혁 아지미’ 로 하는 것은 북한의 가족 내 호칭이 여보/당신, 남편/아내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기반하기보다 아이 이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혈족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적 가족 호칭이기보다는 혈연 중심의 대가족 관계에 기반한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다. ‘신문장’, ‘닭알’, ‘애로조건’ 등은 남한의 ‘신문지’, ‘달걀’,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말이며 ‘마가을’, ‘갈마들다’, ‘~해났다’, ‘왜서인지’, ‘일떠서다’, ‘뭇다’ 등은 평안도 방언이라 할 수 있다. ‘로인’, ‘웨치다’, ‘페부’는 표기법과 음운법칙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이며 ‘애무’, ‘기껏’은 남한과는 사뭇 다른 쓰임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주로 이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짐의 뜻을 가진 ‘애무’가 북한에서는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는 뜻

32) 卷尺. 줄자
33) 면을 삶아내어 건져내는 도구
34) 가던 길을 돌아서
35) 어떤 일의 끝장을 보다
36) 외따로 구석지다

으로 어린아이나 가족, 친구 등에게도 쓰이고 있었다. '정도나 힘이 미치는 한껏'의 의미를 가진 '기껏'이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힘을 다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예는 특정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단어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른한 해」, 「작별」과 같은 호에 실린 「류경의 눈」[37]에서도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의사인 아내에게 남편은 더러워진 의사복을 빨아주겠고 한다. 이때 "의사복이 벌써 덟었구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덟었다'는 '더러워지다. 물들다'의 뜻을 가진 옛말 '덟다'의 원형을 살려서 쓴 예이다.

두 소설과는 다른 수령형상문학인 「서른한 해」는 특별히 짧은 소설이 아님에도 일상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수령형상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나온 것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관용 표현과 문학적 표현

다음은 문학작품에 쓰인 문학적 표현과 서술에서 보이는 관용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문학적 묘사는 작가의 취향, 창작방법상의 특징, 주제와 많은 관련이 있다.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그 애 말이라면 그저 죽는 판이었네	뒤짐을 지고 거닐다가 되돌아설 때 보니 끝이 휘여 올리뻗은 장지눈섭과 가로 길게 치째진 눈, 한일자로 꾹 다물린 입	너보다 두살이나 아래인 우리 손녀두 떡돌같은 아들을 업었을라니…
암만 궁리해보아야 직통배기로 물어보아서는 감춰두고 먹는 약의 내막을 아내가 쉽사리 대줄 것 같지 않았네	나의 존재는 물론 주위세계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있었다.	한겻이라도 말주머니를 풀
막상 아내와 마주서자 달려오며 입안에 폭탄처럼 재웠던 말이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의 세계가 있었고	얼굴색이 거밋하게 질려버린채 말을 못하고
완장을 보기[38] 시작했단 말일세.	이 나라의 바다가 얼마나 거룩한가.	건달군의 꾀병까지 안고치를 가슴이 없어.
아내가 재티가 날려나오는 듯한 한숨을 조용히 내쉬더니	모닥불이 탁탁 불찌를 날리며	귀를 강구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불우할 자식들의 장래가 북방의 얼음꼬치처럼 염통에 맺혀와	굵고 갈린 목소리와는 달리 로인은 무척 다심하였다.	또다시 고양이를 꽝튀기한것같다
아파트 생활에서 근거없는 말은 조만[39]에 나지 않는다	고기비늘이 여기저기 게발리고 밑바닥엔 물까지 질벅히 괴여있는 매생이에	한봄 흙밑에 푸른 빛갈의 바위서덜이 험상하게 깔려있어
손꼽히는 옥돌이면서도 막돌 취급을 당하며	아낙네들과 옴니암니 경우나 따질 우스운 사람같아보이오?	하나는 우걱뿔이 검정소구 하나는 곧은뿔이 황소
어성語聲이 나돌아치는		마치 이발이라도 쏘는듯한 표정
정호의 곁드는 소리가 내 가슴을 쿡 찌르고 들었다.		퍼그나 사치해보이는 라이터
애어린 가슴에 너무도 일찍이 들씌워지기 시작한 찬서리		우쭉 일어서서
지나가는 말처럼 엮어댔다		씨엉씨엉 걸어갔다
코허리가 불로 지지는 듯하기		억이 막히는듯한 심정으로
		물에 빠졌다난듯한 모습
		소스라쳐지는듯한 심정이였다.
		눈뿌리가 콕 쏘는듯한 느낌이 갈마들었다.
		질린듯한 심정으로 까딱없이 서있었다.
		강요하고싶은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다.
		온 농장이 도리머리를 젓는 말썽꾸러기청년이
		격하고 뻐근한것이 명치끝을 아프게 올리치미는듯했다.
		내장을 토해내련듯이 고개를 길게 빼들며
		범이라도 본듯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밀고당기며 싱갱이질을

농촌작업반을 배경으로 다른 두 편의 소설보다 등장인물이 많고 그들의 대화가 많은 소설「작별」에는 풍부한 관용적 표현과 다양한 심리묘사 표현이 드러난다. “손녀두 떡돌같은 아들을 업었을라니”, “건달군의 꾀병까지 안고치를 가슴이 없어”, “고양이를 꽝튀기한것같다”, “하나는 우걱뿔이 검정소구 하나는 곧은뿔이 황소”와 같이 농촌에 사는 다양한 인물들의 입말에서 보이는 관용적 표현들은 한국어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우쭉 일어서서”, “씨엉씨엉 걸어갔다”, “눈뿌리가 콕 쏘는듯한 느낌”, “온 농장이 도리머리를 젓는 말썽꾸러기청년”, “내장을 토해내련 듯이”, “범이라도 본 듯 거리”, “서로를 밀고당기며 싱갱이질”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들은 사회주의 언어, 혁명의 언어, 간단명료한 정확의 언어와는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의 언어로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4) 속담

다음은 세 소설에 나타난 속담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속담 표현이 많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백로가 까마귀와 한 둥지에 든다구 한 쌍이 된대?	성쌓고 남은 돌이 되였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더구만.	아무리 급해두 바늘허리에 실 매서 쓰는 법은 없는데
이복자식이 장독 깬 격		옛날부터 아이는 얼리구 늙은이는 대접하랬네.
		늙은 말이 길을 안다구

북한에서 속담의 사용은 언어의 ‘인민성’과 관계가 있다. 당국의 정책을 반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행동을 제시할 때 비유적으로 속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조선문학』900호에서도 김정은이 사용한 속담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친히 쓰신 성구속담’으로 속담을 소개하고 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도 있는것처럼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본주의쉬가 쓸게 되 고 나중에는 상상밖의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인민군대의 명령지휘체계는 유일적으로 되여야 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잘될수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속담을 잘 사용하는 것은 대중 교양의 도구인 문학작품에서 요청되는 ‘인민성’의 조건이다.

(5)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표현

다음은 세 소설에 나타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표현을 정리해 보았다. 아래에서 보듯 반디의「탈북기」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작별」에서는 한 번 정도 나왔다. 수령형상문학인「서른한 해」는 동해바다 그림을 그리러 담연호로 간 화가가 만

37) 김영철,「류경의 눈」,『조선문학』900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10. 61-76면.
38) ‘완장’은 ‘딴 목적을 가지고 남들과 달리 행동하는 것 또는 몰래 따로 벌이는 장’. 관용구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치정 관계를 가지다’
39) 早晚. 이름과 늦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나 김정일을 만나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므로 김정일에 대한 묘사는 노인의 대화로 드러난다. 노인은 김정일을 '그이', '그분', '그이께서', '어버이 장군님'으로 호칭하고 '하시였다', '장군님이시다' 등으로 존대 서술을 하고 있으며 '무엄', '영생', '예지', '후광' 등의 단어로 수령을 묘사한다. 존칭, 존대 서술형, 추앙과 칭송의 표현은 작중 인물의 대화가 아닌 서술자의 서술에서도 드러나는 북한 수령형상문학의 특징이다.

「탈북기」	「서른한 해」	「작별」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는 얼없이 그쪽을 바라보고 서있었다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활달한 걸음으로 다가오시는것	
	우리 해안포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네	
	바다로 나가시련다고	
	그 미소로 내 주위가 따스한 아침해볕속에 잠긴것만 같았으니	
	그때는 그이의 손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지만 온 나라 인민이 우리의 김정일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경모하여 우러르는 그이께서	
	온 중대가 급식하는 한가마속의 국을 드린다는것자체가 무엄한짓	
	되뇌이시며 확확 삼복의 열을 뿜어올리는 모래불에 사색의 자욱을 남기시였다오.	
	이윽토록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안광에 예지의 불을 번쩍이시며 한손으로 단호히 허공을 그으시였네.	
	허나 그이께서는 전혀 타내는 빛이 없이 배앞머리에 무랍없이 앉으시는것 아니겠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오.	
	그이의 그 특유의 해볕같은 미소가 그대로 나의 생활과 인생의 후광으로 된것이였지.	
	오, 어버이장군님은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그이의 정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래일도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흐르는것이다.	

수령형상문학의 특징은 호칭, 서술형, 단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적 묘사 자체에도 나타난다. 다음은 「서른한 해」에 나타난 수령형상 관련 문장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표현 말고도 그와 관계된 인물이나 그들을 회고하는 인물, 그들을 연상시키는 '태양', '햇빛', '광채', '무지개', '운무', '심장', '위대한', '거룩한', '기품', '위엄','신성', '세계', '우러르다', '환호하다' 등은 수령 형상 주제에 맞추어 활용되는 표현들이다.

해솟는 바다여 장엄하다 네 모습노을은 불타고 금물결 설레네
로인의 두눈에서 나는 놀라울 정도의 눈부신 광채를 발견하였다.
그 두 눈의 광채에는 깊은 심연속 회억의 세계가 비껴있었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타는 갈망이 빛나는 물기를 머금고있었다.
로인에게는 분명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의 세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기품과 위엄이 도도히
바다속 깊은 곳의 진주처럼 소중한 사연은 사람들의 이 심장속에 고이 간직되여있는 법이라네.
우리 바다에 희귀한 자연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태양이 금방 떠오르며 그 주위의 아침노을을 신비의 극치에 이르게 하는 순간으로서 바로 그때 찬란한 선홍빛운무가 온 바다와 하늘을 부드럽게 물들인다오. 그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온 세상이 선홍색으로 물들어있지. 하지만 그런 황홀경은 조만간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네. 바다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볼수 있는게 아니란 말일세.… 하지만 나는 보았지. 그걸 말하자면 50여년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거네.…
사람이 산다는것이 무엇이겠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있다는 그런 마음을 못가진 생이 무슨 사람의 생이겠는가 말일세. 또 그렇게 살아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말이요.
꿈속에서도 장군님께서 타고오시는 배의 고동소리가 울리군 하여 벌떡 일어나앉군 했지.
아, 나는 그 순간 선홍빛운무를 볼수 있었소. 아침의 태양같은 그이의 영상으로 온 누리가 물들여지는 열광의 그 순간을 말이요.
그이께서는 기슭에 서있는 나를 발견하시자 안광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채 잠간 서시였다가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셨소.
오직 온 누리를 꽉 채운 선홍색운무속에 눈부시게 빛나는 그이의 거룩한 영상만이 눈앞이 그득하게 안겨올뿐이요. 위대한 태양에 매혹되여 온넋이 통채로 끌린것이지.
두조의 진밤빛낚시대와 낚시줄감개통을 받아안은 나는 그 낚시대에 얼굴을 부비며 난생처음으로 소리내여 울음을 터쳤소.
우리 인민이 그 처절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어떻게 이겨낼수 있었겠소. 바로 우리 장군님의 그 정에 끌려서였소.
금방 불덩이같은 태양이 수평선우에 솟아올랐다. 로인은 환희에 잠겨 태양을 우러르며 의미심장하게 뇌였다.
로인과 아이들이 파도우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쁨에 넘쳐 환호한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선홍빛운무를 보았다. 이 강산을 위대한 정으로 아름답게 채색하는 그 선홍색운무를…
아침해의 따스한 빛을 그려 그 위대한 정을 선홍빛으로 채색하였다. 그 선홍색운무가 영원히 비껴있기에 이 나라는 그지없이 따스하고 아름다울것이다.

수령형상 문학이 북한 문학의 가장 유력한 주제이자 과업이므로 수많은 북한 문학에서 이러한 양상은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문학 작품을 채우고 있는 이런 단어, 표현 등의 언어는 북한 문학의 양식성, 문식성으로 고정되고 있으며 그것은 문학의 언어가 작가의 독창성과 상상력으로 확장되고 깊어지는 기회를 없애는 장애물이며 통제기제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UN은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로 지정하고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을 선언하여 유네스코가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 왔다. 토착어는 각 지역의 토착민이 사용하는 자연발생적인 언어를 뜻하며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일상어는 물론 남북의 방언과 중국,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를 적극 수집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문학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이 글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강력한 언어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된 언어인 북한의 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뜸 북한의 소설 세 편에 나타난 단어, 표현, 서술의 특징을 주제 의식과 연결하여 살펴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아직은 설익은 방향으로 전개된 논의이지만 좀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북한의 언어와 북한 문학의 현황과 현주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를 기대한다.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he North Korean Regional Language

Lee Sangsook

The UN designated 2019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 and declared the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 2022-2032," which UNESCO is currently implementing. In response, the 〈Gyeoremal-keunsajeon Project〉 has been hosting international forum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Indigenous languages refer to the naturally occurring languages used by indigenous peoples in various regions. The 〈Gyeoremal-keunsajeon Project〉 actively collects and includes not only the everyday language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the dialects of both Koreas, as well as regional languages on the brink of extinction in places like China and Kazakhstan in Central Asia. However, there has not been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literary language of North Korea during this process, making it challenging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is article. There remains unresolved contemplation on how to view the North Korean language, which is controlled and regulated by strong language policies. Amid these uncertainties, I attemp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words, expressions, and narratives found in three North Korean novels, linking them to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se work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novel "The Accusation" by writer Bandi, and "Thirty-One Years" and "Farewell," which were published in Chosun Munhak in October 2022. The study explored the words, idiomatic expressions, literary expressions, proverbs, an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ve expressions in Suryong-Hyungsang literature that arise from North Korea's social system and structure, which differ from those used in South Korea.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compilation amidst ongoing discussions and reflections o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he North Korean language as a regional language. I hope that through further contemplation and debate, a new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and status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ill be gained.

◆ 토론 1



오 창 은

중앙대학교 교수

현) 중앙대학교 교수

전)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회장,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장, 이문구 문학연구회 회장, 문체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

·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당선, 중앙대 중앙우수논문제 인문학상 수상

· 『포스트휴먼과 파노라마(공저), 『나눔의 그늘에 스며들다』, 『자치와 상상력 – 문학 속 연대의 감수성』(공저),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공저) 등

· 「미학적 우스꽝스러움과 기대 규범의 위반 – 손창섭의 문학세계」, 「민중성 발견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의 힘 : 이문구의 〈관촌수필〉」, 「`원자력의 광기`를 넘는 `깊은 민주주의`의 희망으로:녹색생태사상가 김종철 선생 1주기를 맞이하며」 등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에 대한 토론문

중심의 지배언어와 지역의 자율언어

오 창 은

중앙대학교 교수

「북한 문학과 북한 지역어」는 백석이 “나고 자란 (정주)지역의 토박이말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시를 썼다는 언급에서 출발합니다. 이상숙 선생님께서는 백석이 “방언의 시적 효과와 활용을 염두에 두고 평북 방언”을 고수했고, 더 나아가 “느낌, 정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모어(母語), 평북 방언이 유일하고 필연적”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석 시인이 시를 통해 도달하려고 한 언어 표현의 절실성이 ‘몸과 밀착한 말’에 가닿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백석의 시를 ‘언어와 몸’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를 알아나갑니다. 언어는 몸을 통해 인지한 세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 과정에서 언어의 체계를 육화하여 언어공동체에 편입됩니다. 세계의 규칙, 생태 환경적 조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몸으로 받아들인 언어로 ‘인식의 틀’을 형성합니다. 백석 시인이 “느낌, 정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평북 방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육화된 언어 표현의 절실성’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와 몸’은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관계 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몸과 밀착한 말’의 존재 방식이 토박이말, 지역어입니다. 지배의 언어, 주류의 언어로서는 표준어(권력의 언어)가 있지만, 주변의 언어, 비주류의 언어로서 토박이말(민중의 언어)도 면면히 이어져 옵니다.

분단 상황에서 토박이말, 방언, 지역어는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드리려 합니다. 이상숙 선생님께서는 ‘한국어’와 ‘북한어’의 구분이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말’과 ‘평양말’은 지역적 구분이지만, 한국어와 북한어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구별과 연결됩니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이념적 문제가 언어와도 연결되고, ‘한국 말’과 ‘북조선 말’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단의 역사성과 체제의 대립 문제가 엄존하지만, 남과 북 민중들의 ‘몸과 언어’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화된 언어 표현’이 토박이말, 방언, 지역어라고 한다면, 검열을 통과한, 혹은 표준 어문 규정에 입각한 국가의 공식 언어와는 다른 ‘자율의 언어’, ‘비국가 비체제적 언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중의 언어로서의 토착어, 토박이말은 활자화되지 않더라도, 국가 통치 바깥의 언어 양식으로 존재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다음으로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에 관해 질의드리려 합니다. 이상숙 선생님께서는 반디의 「탈북기」, 김해룡의 「서른하나」, 오광철의 「작별」에 대한 흥미로운 대비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직급체계에 따른 사회적 언어, 일상어, 관용표현과 문학적 표현, 속담 등이 드러나는 양상을 예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문학의 언어를 통해 토착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문자언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자언어는 공적 체계 속에서 제도적 장치(어문규정 표준화, 매체, 검열 등)를 필요로

합니다. 음성언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억양, 리듬, 발화방식의 차이 등을 내장한 음성언어는 제도적 장치 바깥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음성언어는 특정, 지역 공동체에서 '일종의 공통 감각'으로 일체감으로 형성하며 면면히 이어져 오는 연속성이 가능합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작가의 서술 부분과 등장인물의 '입말'이 다릅니다. 반디의 『고발』 속 작품에서 '입말'적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숙 선생님께서도 이미 밝히셨듯이, '표준어와 문화어', 분단 현실과 토착어 등 학문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태입니다. '북한 지역어'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표준어와 지역어의 관계, 그리고 토박이말의 민중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 2



이 정 록

시인, 이야기발명연구소장

현) 이야기발명연구소장, 시인

· 김수영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박재삼문학상, 한성기문학상, 풀꽃문학상, 천상병동심문학상 등 수상

· 시집 『의자』, 『정말』, 『어머니학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동심언어사전』,『그럴 때가 있다』, 『까짓것』,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 『콧구멍만 바쁘다』 등

· 산문집 『시인의 서랍』, 『시가 안 써지면 나는 시내버스를 탄다』 등

◆ 발제 2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

이 정 록

시인, 이야기발명연구소장

방언의 정의는 첫째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와, 둘째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뜻한다. (학술적 관점에서는 방언의 범위 안에 사투리뿐만 아니라 표준어도 포함한다.)

방언은 지역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언어문화다. 같은 방언을 쓰는 문화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응축되어 있다. 지역이란 말에는 수평적 의식이 있고, 지방이란 말에는 서울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지역을 낮잡아보거나 열등하게 인식하는 수직적 감정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어와 방언은 문장 속 쓰임에 따라 결을 달리한다. 표준어의 상대적 개념으로는 방언이란 표현이 맞지만,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의 특징을 말할 때에는 표준어도 서울 경기 지역의 말이다.

현재 방언은 공교육 보급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외적 변화를 개략(槪略)하면 1910~1930년대는 전국 면 단위 소학교와 광역 단위 고등보통학교와 전국단위 대학이 개교했다. 1920~1940년대에는 철도교통망이 개설되고 도로망 확장과 인공도시가 개발됐다. 1940~195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과 해방과 한국전쟁과 표준어 교육이 시작됐다. 1968~1990년대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의무교육과 표준어 교육이 확대되고, 1986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되고, 교통통신망이 혁신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국 방언이 표준어화가 되었다. 방송과 영화의 영향이 커져서 이제는 모두 표준어를 쓰고 많은 사람이 지역어를 알아듣는다. 하지만 창작자는 의사소통과 의미전달을 넘어서 지역어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살아 숨 쉬는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충청도 지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배려'와 '비유'다. 배려는 상대를 함부로 낮잡아보거나 무작정 높이지 않는다. 배려는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한 호흡 기다려주는 헤아림이 있다. 듣는 이의 문해력과 경제적 형편과 심리적 사정을 감싸주면서 말한다. 대화의 균형추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에둘러 말한다. 그렇기에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다. 반대로 듣는 이가 성에 차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의표를 찌른다. 그렇기에 충청도 지역어에는 유머와 풍자가 풍부하다.

언어학자 한성우는 "충청도의 화법은 '느린 화법'이 아니라 '접는 화법'이다. 분노에 가득 차 말해야 할 것이 종이 한 장 분량이라면 반을 접는다. 상대에 대한 칭찬이라면 반의 반을 접는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또 반을 접는다. 이렇게 감추어지는 분

량이 많아질수록 말은 느려진다. 느린 말 사이사이에 나머지 반의 분량을 읽어내면 된다. 이렇게 접히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긴 세월이 필요하다. 긴 세월 동안 차곡차곡 펴나가면서 한 장 이상의 분량을 읽어나가면 된다. '접는 화법'을 통해 더 깊고 넓고 길게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화법일 수 있다."라고 『방언정담』(어크로스, 2013)에서 말하고 있다.

"그 양반, 떼이불 덮어줘야 겄유."
이 말은 개갈 안 나는 윗사람에게 건네는 충청도 말이다. '떼'는 충청도말로 '잔디'다.
"요즘 워치기 지내신대유?"(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즐이 가차워지니께, 떼이불 덮는 연십 혀."(겨울이 가까워오니까, 잔디이불 덮는 연습 중이야.)
짐짓 에둘러 말하는 습관이 비유를 낳는다. 비유는 유머를 등에 업고 해학을 가슴에 품는다. 유머와 해학은 우회적 화법이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한다. 서로 생각한 뒤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여유와 배려가 있기에 충청도 말은 느리다. 비유로 접힌 언어는 짧지만 풀어서 쓰면 긴 문장이 된다.

짐

– 어머니 학교 6

이정록

기사 양반,
이걸 어쩐댜?
정거장에 짐 보따릴 놓고 탔네.

걱정 마유. 보기엔 노각 같아도
이 버스가 후진 전문이유.
담부턴 지발, 짐부터 실으셔유.

그러니께 나부터 타는 겨.
나만 한 짐짝이
어디 또 있간디?

그나저나,
의자를 몽땅
경로석으로 바꿔야겄슈.

영구차 끌듯이
고분고분하게 몰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분이니께.

『어머니 학교』 (열림원, 2012)

오일장이나 마을회관 앞마당에 가면 삶의 말씀이 수북하다. 경우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게, 말이여? 막걸리여? 어허. 고것이 말이여? 방귀여?”라는 농담이 예외 없이 바람벽을 친다. 여기에서 ‘말’은 사리에 적합한 것이고, ‘막걸리’와 ‘방귀’는 이치를 모르는 철없는 언행을 비꼬는 표현이다. 삶의 지혜가 충만한 이들은 막걸리와 방귀를 즐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우스개와 해학과 풍자를 뒤섞어서 고단한 삶을 웃음바다로 버무린다. 엿듣는 이는 웃음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은 표정 하나 흩뜨리지 않고 진지하다. 대화 상대가 더 이상 대꾸를 달 수 없을 때, 드디어 패자가 웃음보를 터뜨린다.

시골 버스 기사의 말솜씨가 고수다. 버스를 노각에 비유하는 문학적 수사와 후진 전문이라는 너스레가 일품이다. 짐짝과 경로석으로 말 펀치를 날리던 둘의 대화는 고분에서 막을 내린다. 여기에서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다. 말의 속내가 두껍게 뿌리내리고 삶의 철학이 하늘에 닿아버렸기 때문이다.

사내 가슴

– 아버지학교 1

이정록

아들아, 저 백만 평 예당저수지 얼음판 좀 봐라. 참 판판하지? 근데 저 용갈이* 얼음장을 쩍 갈라서 뒤집어보면, 술지게미에 취한 황소가 삐뚤빼뚤 갈아엎은 비탈밭처럼 우둘투둘하니 곡절이 많다. 그게 사내 가슴이란 거다. 울뚝불뚝한 게 나쁜 것이 아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그 틈새로 시원한 공기가 출렁대니까 숨 쉬기 수월하고 물결가락 좋고, 겨우내 얼마나 든든하겄냐? 아비가 부르르 성질부리는 거, 그게 다 엄니나 니들 숨 쉬라고 그러는 겨. 장작불도 불길 한번 솟구칠 때마다 몸이 터지지. 쩌렁쩌렁 소리 한번 질러봐라. 너도 백만 평 사내 아니냐?

*용갈이: 용이 밭을 간 것과 같다는 뜻으로 두꺼운 얼음판이 갈라져 생긴 금.

『아버지학교』 (열림원, 2013)

중학교 삼학년 때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누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공고에 갈까? 상업고등학교에 갈까? 진학 걱정에 밤잠을 설칠 즈음, 미술 선생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다. 나는 집으로 오는 이십 리 길을 단숨에 날아왔다.

“아버지, 시내 인문계 사립고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뽑아준대유.”

“왜, 십 등도 넘는 너를 장학생으로 뽑는다냐?”

“미술대학 진학하는 조건이래유. 미술장학생!”

아버지가 지붕 너머로 눈길을 돌리신 채, 헛기침을 하셨다.

“홍성 읍내 동보극장! 간판장이 아직 젊더라!”

돌아가실 때까지 다음 문장을 잇대지 않으셨다. 비유의 언어는 짧지만 풀어서 쓰면 길다.

(미술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네 동생이 주렁주렁 셋이나 있다. 누나는 너 때문에 여고 진학도 포기했다. 장남인 너 하나 9급 공무원을 시키는 게 아비 꿈인데, 미술대학에 가서 환쟁이를 하겠다고? 어찌어찌해서 네가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다고 하자. 아비랑 농사지으면서 밥벌이할 직업이라고는, 읍내 영화관 홍보 간판을 그리는 자리 하나가 있지. 그런데 말이다. 홍성 읍내 동보극장! 간판장이 아직 젊더라! 그러니까 너도 굶어 죽고, 식구들도 다 굶어 죽는단 말이다. 동생들 공부는 어쩌고? 누나는 또 마음이 얼마나 헌신짝 같겠냐? 네가 얻어오는 공짜 극장표가 자랑스러울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쇠꼴이나 베어와라.)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는 시인을 '부족방언의 예술사'라고 말했다. 시인이란 모어(부족방언)를 최대한 예술로 승화시켜서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만큼 시인은 부족방언을 발굴하고 자신의 예술적 성취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근대 국가의 언어 정책은 표준어와 맞춤법 제정을 통해 언어의 효율성과 통합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그럴수록 토착화된 모어의 감동을 예술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토착어'는 각 지역에서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를 뜻한다. 토착어란 지역어나 방언의 의미와 함께 살아 있는 언어의 원형을 뜻하기도 한다. 토착어는 모어(母語)다. 토착어의 예술적 표현은 지방의 감정과 생활이 중앙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그건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어떤 언어 하나가 지구촌 곳곳의 문화와 독창성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녔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똬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의자』 (문학과지성사, 2006)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젤 좋은 의자가 바로 땅바닥이여. 몸 성할 때는 길바닥이 의자이고 원앙금침인 줄 몰러. 아파봐라. 가시철조망도 등받이 의자고 고슴도치 등짝도 솜 방석이여. 아파야 눈이 떠지고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겨."

어머니는 자석 요대를 차고 다니신다. 저 자석 벨트는 할머니가 브래지어로 쓰던 거다. 어디 아프셔서 두른 게 아니라, 남세스럽다며 한여름에만 차고 다니시던 할머니의 젖 가리개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롱 구석에 처박아뒀던 것인데, 어느새 어머니가 허리춤에 둘둘 말고 다니신다.

"엄니도 자석 브래지어 차요?"

"아녀. 허리에다 찬 건데, 이게 젖가슴부터 둘러야 흘러내리질 않어. 니들이 다 빨아먹고 쭈그렁이가 됐는데도 둔덕이 남았나 벼."

「의자」란 시에는 어머니의 말투와 마음 씀씀이를 흉내 낸 나의 거짓부렁이 있다. 독자들은 어머니의 감동은 뽑아 읽고, 작가의 거짓은 짐짓 눈감아준다. 바닥과 가까운 어머니의 그늘 자리와 안식(安息)을 독자가 먼저 안다.

삶이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의자의 삶이란 지친 이의 등받이가 돼 주고 아픈 이의 방석이 되어주는 일이다. 배려와 쉼이다. 숨 쉬게 하는 일이다. 끝끝내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다.

다니엘 네틀, 수잔 로메인의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이제이북스, 2003)에 따르면, 지난 5백 년 동안 세계의 언어 중 절반가량이 사라졌다고 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전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인식의 창이다. 한 집단은 언어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다르게 말하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각각의 집단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가 생긴 이래 인류가 쌓아온 세상에 관한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된 무언가가 단순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충청언어는 눌변처럼 보인다. 눌변(訥辯)은 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를 말한다.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하며 감정표현이 서툴다. 게다가 경우와 체면을 중시하는 꼬장꼬장한 말본새를 중시한다. 그래서 충청도 양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닌다. 화자나 청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비유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말수가 적고 짐짓 딴 데를 보며 퉁명하게 말하는 게 점잖게 보이기 때문이다. 가부가 불분명하게 인식되며 언어 외적인 표정과 가락과 호흡을 중시한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언어를 쓰는 분들이 뒤늦게 알아차릴 때가 많아 의뭉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팔순

이정록

기사 양반, 잘 지내셨남?
무릎 수술한 사이에
버스가 많이 컸네.
북망산보다 높구먼.

한참 만이유.
올해 연세가 어찌 되셨대유?
여드름이 거뭇거뭇 잘 익은 걸 보니께
서른은 넘었쥬?

운전대 놓고 점집 차려야겠네.
민증은 집에 두고 왔는디
골다공증이라도 보여줄까?

안 봐도 다 알유.
눈감아드릴 테니께
오늘은 그냥 경로석에 앉어유.
성장판 수술했다면서유.

등 뒤에 바짝
젊은 여자 앉히려는 수작이
꾼 중에서도 웃질이구먼.
오빠 후딱 달려.

인생 뭐 있슈?
다 짝 찾는 일이쥬.
달리다보면 금방 종점이유.

근디 내 나이 서른에
그짝이 지나치게 연상 아녀?
사타구니에 숨긴 민증 좀 까봐.
거시기 골다공증인가 보게.

『그럴 때가 있다』 (창비, 2020)

같은 충청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속내를 다 까발려서 마구 언성을 높이는 언어를 낮잡아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충청언어를 쓰며 자란 사람 중에 시인과 개그맨이 많다고 한다. 시와 만담에는 어눌한 듯한데 느닷없이 의표(意表)를 찌르는 날카로움과 비유로 말하는 은근함과, 경우 빠지는 일을 삼가는 기개와, 듣는 이를 일순간에 추켜세우거나 깔아뭉개는 의뭉함과, 감정이입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냉정함과,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뜸을 들이는 언어의 브레이크가 있다. 게다가 여유로운 가락은 덤이다.

씨앗 파는 女子

이정록

두어 평 남짓한 아리랑종묘사
푸짐한 그가 맞춤으로 앉아 있다

(쭉정이는 한 톨도 읎어유)
몸집으로 가을을 보여준다

신문지 조각에 씨앗을 접는,
저 두꺼비 손을 거쳐 열무가 되고
육쪽마늘이 터지며 김치가 버무려진다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있나유
그래두 그놈들 죄다 새끼 낳구
낭중엔 눈물이 뭔지도 알더래니께유)

그의 품을 지나
들판이 열리고 겨울이 풀림을
근방 비둘기며 꿩이 다 안다

(가찹게 가만 들여다보면
때깔이며 모냥이 같은 게 읎지유
그러구 흠 읎는 씨앗 읎구유

그런디 이놈들, 씨앗 틔우고
한 가지 맴으로 골똘해지면
원하는 색깔루다 기차게 남실거리지유

말 더 안 혀두, 알지유)

『풋사과의 주름살』(문학과지성사, 1996)

이 시를 쓰려고 홍성 전통시장에 자주 갔었다. 씨앗처럼 터지는 생명 언어를 시에 담고 싶었다. 요즘엔 저자 사인을 할 때면 '꽃은 까지려고 핀다!'란 말을 올려드린다. 책을 받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분은 '까진다'란 말이 갖는 도발적인 느낌 때문일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글도 삶도 자신을 다 내보일 때 씨앗으로 가는 감동이 있다는 작가의 속마음을 읽으신 것이리라. 씨앗은 제가 떨어진 땅을 좋아한다. 모든 씨앗은 토착어의 마침표이다. 이 시에는 우주를 맞이하는 생명의 순환 고리가 있다. 표준어에 기대고 난 뒤부터 멋진 시어만을 골라 쓰려다가 삶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흙빛 언어를 만나면 마른 몸에서 뿌리가 벋는다. 토착어라는 씨앗에서 쉼표가 돋는다.

시
– 어머니 학교 6

이정록

시란 거 말이다
내가 볼 때, 그거
업은 애기 삼 년 찾기다.
업은 애기를 왜 삼 년이나 찾는지
아냐? 세 살은 돼야 엄마를 똑바로 찾거든.
농사도 삼 년은 부쳐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며
이 빠진 옥수수 잠꼬대 소리가 들리지.
시 깜냥이 어깨너머에 납작하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너를 엄마! 하고 부를 때까지
그냥 모르쇠하며 같이 사는 겨.
세쌍둥이 네쌍둥이 한꺼번에 둘러업고
젖 준 놈 또 주고 굶긴 놈 또 굶기지 말고.

시답잖았던 녀석이 엄마! 잇몸 내보이며
웃을 때까지.

『어머니 학교』(열림원, 2012)

어찌 충청언어만이 시와 더 가깝겠는가.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가부가 분명하고 호방한 경상언어, 은근하고 우회적이며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전라언어, 태도가 분명하고 발음이 선명하며 감정표현이 세련되고 지적인 경기언어, 순수하고 소박하며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나긋나긋하며 포용적인 강원언어, 바람 속에서도 의사를 놓치지 않는 선명한 양성모음과 단어와 문장을 짧게 전달하고는 오래 바라보는 너그러움과 중세국어의 고고한 흔적과 다른 지역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결속력이 강한 제주언어 등, 모두 저마다의 특성으로 삶의 구체성과 생동감을 맘껏 발현하는 지역언어는 시를 더욱 삶에 밀착시키고 일상의 낱낱을 심장 가까이 각인시킨다.

여전히 숙제가 남는다.

작가가 지역어로 창작할 때,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표준어와 지역어의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간과 어근도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는가?

지역어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도농 간, 산어촌 간, 계층 간, 분화한다. 어느 계층의 언어를 지역어의 본으로 삼을 것인가?

지역어로 쓴 시를 표준어로 바꾸어 놓았을 때 예술적 성취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엿보인다. 시의 깊이와 품격을 담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국어사전 속 속담과 관용구는 거의 농경사회에서 축적된 표현들이다. 현대 농어촌과 산간에서 소통되는 새로운 관용구는 어떻게 현대어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세대에게 지역어는 존재하는가? 오랜 세월 축적된 농경사회의 지역어와 표준어를 연계하고 확장해 나갈 방안은 무얼까?



안 도 현

단국대학교 교수, 시인

현)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전) 전북 이리중학교 국어교사,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강사

·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수문학상, 윤동주상, 백석문학상 등 수상

· 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바닷가 우체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등

· 동시집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 『냠냠』, 『기러기는 차갑다』

· 동화 『물고기 똥을 눈 아이』, 『고양이의 복수』, 『눈썰매 타는 임금님』

◆ 토론 2

“충청도 지역어로 쓴 시”에 대한 토론문

독자적이지만 때로 불편한 방언

안 도 현

단국대학교 교수, 시인

저는 40년을 전라북도 지역에 살다가 5년 전에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귀향 첫해 봄에 중국음식점에 갔다가 옆자리 노인 두 분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걸금 져내느라 하루를 다 보냈네.” 그분의 입 밖으로 나온 ‘걸금’이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꿈에서조차 들리지 않던 말, 표준어로 바꾸면 ‘거름’이 되는 경상도 방언 ‘걸금’. 그 두 글자 때문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어떤 안도감으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발제문은 시인의 시만큼이나 재미가 있습니다. 충청도 방언을 일찍부터 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시어로 활용한 시인의 혜안 덕분에 해학과 유머가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사하는 방언은 충청도 서부 지역, 즉 시인의 고향인 충남 홍성 지역의 입말로 추정됩니다. “지역어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도농 간, 산어촌 간, 계층 간, 분화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충청도라는 동일 지역 안에서 그 분화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무말랭이에 대한 표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동, 예천 등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곤짠지’라고 하거나 ‘골짠지’라고 합니다. 상주지역에서는 ‘골금짠지’로 한 글자 더 늘어나고, 군위나 칠곡지역에서는 ‘오그락지’라고 합니다. 이 모두 밋밋한 표준어 ‘무말랭이’가 따라붙을 수 없는 위력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사용 지역과 사용 집단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독자성은 뚜렷하지만 불편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방언은 배타적인 감정을 만들고 급기야 지역 카르텔, 혹은 권력 카르텔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방언에 주목하고 방언을 사용하는 일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언어의 다양성이 언어 사용자의 상상력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시인들이 지역 방언을 시어로 활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어에 대한 밀착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알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찍이 충청도 방언을 소설의 언어로 만개시킨 분으로 이문구 선생이 계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시의 경우 근래 충청도 방언을 시어로 활용하는 시인이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점점 과학기술이 만든 AI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파급력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언어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우스개 삼아 말해 보자면, 이정록 시인보다 더 능숙하게 충청도 방언을 구사하는 AI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시인은 그 로봇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대하게 될까요? “가끔 같이 술이나 한잔 혀.” 하면서 친하게 지내실 의향은 있는지요?

◆ 발제 3



박안토니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현)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한국어교육센터장

전) 타슈켄트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 『한국어: 초급 수준(Корейська мова: початковий рівень)』(공저)
- 「Implementation of visual mind mapping strategy to improve students' language competence」, 「The use of multi media technologies i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in Ukrainian higher education in stitutions under martial law」,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in Building Foreign Language Competencies of Future Specialists」 등

◆ 발제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

박안토니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Ⅰ. 서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한글 신문 『선봉』이 창간되어 '문예 페이지'를 통해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한 1923년 무렵부터 소련 정권 당시 『레닌기치』를 이어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1] 한우 수교 이후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되었던 '한국'이라는 '역사적 조국'과의 만남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장벽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인들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2] 하나는 '누가' 썼느냐 하는 '창작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지 문인들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썼느냐 하는 '언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문학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Ⅱ.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

2.1. 〈고려신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문학사적 흐름은 1991년 (구)소련 해체 전후로 나눌 수 있다. (구)소련 해체 전에 한글신문 『선봉』·『레닌기치』가 고려인 문인들의 문학 활동의 무대였다. 한글 신문 『선봉』·『레닌 기치』에 소개된 고려인 문인들의 문학 작품은 레닌과 시월

---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선봉』(1923.3.2.~1937.9.12.), 『레닌기치』(1938.5.15.~1990.12.31)를 통해 고려인 문학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레닌기치』는 카자흐스탄에서 1938년 5월 15일에 창간되어 1990년 12월 31일로 폐간되었다.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에 의해 한글로 발간되었으며, 처음에는 구역신문으로 출발하였으나 1955년에 공화국 신문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1961년부터는 공화국 간 공동 신문으로 격상되었다. 『고려신문』(1997.1.1.~)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화협회와 고려인 언론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9월 20일에 창간하였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87(검색일 2024.05.20.)

2)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김필영은 '형성기(1937~1953)', '발전기(1954~1969)', '성숙기(1970~1984)', '쇠퇴기(1985~1991)'로 구분해 조명한 바 있다. 김필영,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61-898쪽.
이명재는 '재소 고려인 소비에트 건설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암흑기', '재소 고려인 문학 부흥기', '재소 고려인 문학의 위기와 재정립기'로 구분했다. 이명재. 오창은, 『억압과 망명, 그리고 디아스포라: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5-40쪽.
강진구는 "고려인 문학을 역사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면서 '제1기 태동기', '제2기 암흑기', '제3기 성장기', '제4기 황금기', '제5기 쇠퇴기'로 구분해 조명한 바 있다. 강진구,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8, 216-247쪽.

혁명, 소련공산당,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나선 고려인 노동자들의 열의 및 그 속에서 꽃피는 사랑 등에 대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1985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레닌 기치』가 축소되어 우즈베키스탄도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도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서도 소련 정권의 규제와 탄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예의 경향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 고려인 문학 활동도 이와 함께 변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이 시기는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해방기이자 동시에 쇠퇴기이기도 하다. 해방기라는 뜻은 문학작품에 민족 문제나 강제 이주와 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소비에트 전체주의' 시대에 표명할 수 없었던 고려인들의 고향·민족의식, '역사적 조국'에 대한 기억·그리움을 소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어 창작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1-2세대 고려인 문인들의 경우 노화와 별세로 인해 그 인구가 격감해 버렸다. 거기다가 한글 작품 독자층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제 새롭게 고려인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이주 3-4세대 문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독자성과 상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한우 수교 이후 고려인이 맞이한 이러한 혼란과 현실 대응 노력을 충실히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고려인 문학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 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 초까지로 한정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우 수교 이후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고려인 문학은 우즈베키스탄 새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문예 정책에 따라 재정비되고, 그 때문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고려인 문학과도 또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3-5세대 고려인 문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고려인 문단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그 결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주최로 고려인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에 『고려신문』이 창간되었다. 『고려신문』의 발행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월간 신문으로 발간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고려신문』 편집국은 매년 자신의 문학세계를 발랄하게 펼쳐보려는 고려인 신인 작가를 공모하고 있다. 고려인 문인들은 러시아어로 창작한 시, 수필, 소설, 평론 등을 『고려신문』에 간간이 소개해 왔다. 『고려신문』을 이어 2019년 11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의 주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고려인 사회의 각종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점을 담아낸 기록물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고려신문』과 달리 적지 않은 지면을 한국의 고전·전래동화, 현대 문학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확실히 고려인 사회의 문화·문학 지형이 소련 해체 이후에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한국과의 교류 협력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기(민족)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역사적 조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한글 지면도 생긴 만큼 한민족의 공동체 정신을 유지·계승하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인 문단은 새로운 신인들의 등장, 잡지 신문 등의 활동 무대 확대, 출판사를 통한 작품 보급의 증대 등을 이루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한다. 2007년에 고려인 문인서클 '아리랑 1937'이 결성되었고 『고려신문』 편집국의 노력으로 2008년에 첫 문예집 『아리랑 1937』이 창간되었다.[4] 그리고 2017년에 『아리랑 1937』 2집이 발간된다.[5] 이런 결과는 고려인 문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작품에서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고려인 문인들은 한민족에 혈연적 뿌리를 두고 한민족 정체성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디아스포라적 성격의 이중성을 보인다.

3)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87 (검색일: 2024.05.20.)
4) 「아리랑 1937」 1집, Sanyat 출판사, 2008.
5) 「아리랑 1937」 2집, Baktria Press, 2017.

2.2. 문예집『아리랑 1937』1집, 문예집『아리랑 1937』2집

먼저『아리랑 1937』1집의 문학작품을 영역별로 구분해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작품	리뱌체슬라브 장편서사시(1편)「강제이주」, 김마르따「무제」, 김게나지「무제」, 김릴리아「장례식」,「양파밭」등, 김안드레이「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만남」등, 옥바딤「무제」, 주쁠라톤「가을날의 살구」,「집으로」등, 김빠벨「무제」등 신인 작가들의 작품으로는 정미하일「고려인의 마음」,「가을 부하라」등, 공알료나「사랑」등, 최에카쩨리나「별의 먼지」등, 김잔나「140년」등, 고류드밀라「내 사랑아 나를 구해줘」등, 김막심「입학식」등, 김알렉산드르「37-38」등, 임갈리나「가을 생각」등, 주뱌체슬라브「배우의 죽음」등 있다.
소설작품	김블라지미르「김씨들」등, 김브루트「나리안 마르의 네페르티티」,「그리움」등, 김아브로르「남의 집 모퉁이」,「감사」등, 이블라지미르「희망의 기슭」등, 서빅토르「성채」등

문예집『아리랑 1937』2집에 소개된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다.

시작품	류드밀라 지니나 최「나 자신이 되기 위한 시간」,「헌신」, 등, 안타찌아나「마음」,「이별」등, 정미하일「불안한 마음」,「슬픔의 깊이」등, 김알렉산드르「카인과 아벨 : 38선」,「뿌리」등, 리뱌체슬라브「마음과 기억」등, 김마르따「나의 세계는 나와 함께」등 신이스크라「나의 고독 속으로 돌아가다」등, 박릴리아「도이라」,「학」등, 김브루트「어린 시절의 양파 전설」,「아리랑 2009」등
소설작품	김블라지미르「김씨들」일부 등, 마알라「오빠를 얻게 된 사연」, 이엘레나「인어 공주 하기 싫어요」등

문예집『아리랑 1937』1집과 2집의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문인이 작품을 소개한 것은 고려인 문단의 소생을 뜻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한국어와 한글을 구사할 줄 모르는 문인 대부분이 고려인 문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고려인 사회의 문화 예술 등 여러 영역의 성과를 재평가함으로써 고려인의 문학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아리랑 1937』1집과 2집에 신인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고려인 문단은 우즈베키스탄 잡지, 신문 등의 활동 무대를 확대하고 출판사를 통한 작품 보급의 증대 등을 이루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셋째, 문예집『아리랑 1937』1집과 2집에 소개된 문학작품은 (구)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강화된 민족주의 정책(민족어·전통)에 따른 고려인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특히『선봉』·『레닌기치』시대와 달리 문학적 주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에서 언론의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자, 러시아어로 창작한 고려인 작가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개인과 집단의 자기(민족) 정체성 회복 형태로 서사화된다. 특히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개인·집단의 자아·주체성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돋보이기 시작된다.[6)]

Ⅲ.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주제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한 고려인 1-2세대 문인들은 민족의 수난사를 작품화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적,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소련화된 측면도 많다.[7)] 반면에 러시아어로 창작하고 있는 고려인 3-4세대 문인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갈등하면서 그것을 작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현재 놓여 있는 삶의 조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작품화하고 있으면서, 가족이나 고려인 공동체의 갈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려인 문인들의 시적 경향은, 정치 이념만을 고집했던 1세대의 작가들의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감정을 개성 있게 드러내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들의 시적인 경향을 시적 대상과 그 소재 영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감정과 일상적인 생활 감정의

6) 김환기,「구소련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제82집, 2020, 75쪽.

7) 두 가지 문화가 접촉하면서 생성되는 문화 접변은 문화의 융합과 동화라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당시 이미 형성된 언어, 문자, 생활습관, 사고방식 등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고려인이 소유했던 민족어와 민족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소련 문화와 충돌, 거부, 융합의 과정을 겪었다. 이런 융합은 간단히 '소련 문화 + 한반도 문화'라는 명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고려인에게 소련 문화의 부분과 한반도 문화의 부분을 억지로 갈라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국 문화와 소련 중앙아시아의 문화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고려인 문화'를 창출하였다. 이런 고려인 특유의 문화는 모국 문화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소련 중앙아시아 문화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는 모국 문화가 거주국 문화의 동화된 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주국 문화와 융합의 과정을 거친 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일반적인 특징은 이들의 문학에서도 나타난다. 박안토니나,「중앙아시아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79쪽, 참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꾸밈없는 느낌도 깃들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 경향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의 고려인 문학에서도 여전히 고려인의 강제 이주와 민족의 아픈 역사, 민족 정체성과 정체성의 혼란 등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3.1.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이주사 복원

역사 복원을 자유롭게 작품에 형상화하지 못한 원로 시인들과 달리 2-4세 시인들은 고려인들의 수난 및 이주사의 복원을 통한 한 민족으로서의 민족 동질성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블라지미르(1956 ~)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근교에서 태어났다. 우즈베키스탄 국립 언어대학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강사로 재직하며 러시아문학을 가르쳤다. 2011년 정년 퇴임을 한 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 FM 라디오 '행복 문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광주 교외의 과수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들과 달리 '역사적 조국'인 한국에서 여러 권(번역본)의 시집을 펴냈다.

이미 가버린 이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열차는 정확히 80년 전에 강제이주를 당한... 무엇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주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네 숲속의 풀, 자작나무, 포플러... 나는 부모님의 탄식 소리를 듣네 그분들은 내 영혼과 심장에 영원히 살아계시네 우리 조상들은 낯선 곳으로 가슴 아프게 그냥 내던져졌다네. 왜? 무슨 이유로? 오, 근면과 의지의 우리 민족이여! 우리는 이것으로 명예와 존경을 얻었다네. 우즈베키스탄 민족은 우리를 받아주었네, 지성과 근면과 명예와 선량함으로. 그들은 형제처럼 우정의 손을 내밀었네. 우린 그들의 의리와 선함을 잊을 수가 없다네.	나는 알고 있네, 부모님의 꾸셨던 꿈을, 그것은 단 한번이라도 조국 땅을 보는 것. 당신들은 더 이상의 행복은 바라지도 않았네. 단 한번만이라도 고향에 가보는 것 외에는. 우리 민족은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네. 그 일은 잊어서도 되풀이되어서도 아니 되리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이 진실을 명심하세나. 민족은 하나요, 분열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우리는 당신 세대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편히 잠드소서! 당신들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열차는 기억의 열차, 존경의 열차! 잊지 않으리라! 당신들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리라! 「회상 열차 안에서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를 따라서」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민족'의 개념을 새롭게 고민하고 민족의식을 보여주고 민족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회상 열차 안에서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를 따라서」는 김블라지미르의 「회상 열차 안에서」에 실린 작품이다. 저자는 2017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고려인 강제 이주 기념 회상 열차를 타고 고려인 강제이주 경로를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 최초 강제 이주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하는 경험을 한다. 필자와 작가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는 '2017년에 열차를 타면서 만감이 교차했고 펜을 잡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했다. 화자는 '강제이주'는 '무엇 때문에?' 당해야 했으며, '조상들은 낯선 곳'에 '왜? 무슨 이유로?'로 가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김블라지미르 개인의 잘못도, 그의 조상 잘못도, '역사적 조국'의 잘못도 아니다.

'역사적 조국'과 단절된 거주지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조국에 대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역사적 조국'에 대한 깊은 향수, 즉 집 찾기 욕망에 빠지게 된다. 이 '역사적 조국'의 대체물은 '낯선 곳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 속에 각인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땅에 황무지를 개척해 조국 마을을 닮은 고려인 마을(콜호스)과 집을 지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명예와 존경을 얻었'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은 형제 민족이 되었다. '지성과 근면과 명예와 선량함'을 가진 어버이 세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조국 땅을 보는 것'에 대한 그리움은 잊히지 않았다. 그 '그리움'은 어버이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기억이며, 무의식에서 용출되는 감성의 결과이다.

3.2. 이상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조국'과 민족 정체성

(구)소련 해체 이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단은 정치이데올로기와 동거했던 고려인 사회의 가치관·세계관을 주제화했다. 하지만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단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문단에서도 민족주의 정책(고유어·전통)이 펼치면서 고려인 작가들은 자신들의 삶·가치를 근원적으로 재고하기에 이른다. 문학 작품에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구심력으로 표상되는 고향 의식(조국)을 주제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리뱌체슬라브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리뱌체슬라브(1944 ~)는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1972년 모스크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와 『동방소년신문』 기자를 지냈다. 1978년~2000년까지 알마티의 『고려일보』 타슈켄트 특파원으로 일했다. 2001년에 『시절의 꽃잎』이라는 시집을 발표했다.

리뱌체슬라브의 「강제 이주」 등은 장편 서사시의 형식을 지닌 방대한 규모의 작품이다. 『고려신문』과 문예집 『아리랑 1937』 1집에도 소개된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서정시가 보여주는 새로운 경향과는 달리, 고려인 전체의 운명적인 삶을 역사의 현장에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문학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조국'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누구에겐 에뎀, 그 누구에겐 엘라다 하나 내겐 한없이 그리운 땅 언젠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안개 자욱한 신선한 공기의 땅 간난신고의 풍파를 겪은 선조들의 피땀에 무젖은 땅 진달래의 나뭇김에 박자 맞춰 출렁이는 파도소리 그곳에선 매미들이 맴맴 세기의 역사를 속삭인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산악의 절경을 삼키지 못해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숨이 막할 정도로다 새벽별이 반작일 때까지 뜬눈으로 새로운 밤	누구에겐 에뎀, 그 누구에겐 엘라다 하나 내겐 한없이 그리운 땅 언젠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안개 자욱한 신선한 공기의 땅 간난신고의 풍파를 겪은 선조들의 피땀에 무젖은 땅 진달래의 나뭇김에 박자 맞춰 출렁이는 파도 소리 그곳에선 매미들이 맴맴 세기의 역사를 속삭인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산악의 절경을 삼키지 못해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숨이 막힐 정도로다 새벽별이 반작일 때까지 뜬눈으로 새로운 밤 「고향 땅에 대한 추억」 전문[8]

위의 시에서 그리고 있는 고향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선조들의 피땀에 무젖은 땅' 그리운 고향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선조의 고향 땅'을 '요람의 땅'이라 칭하고 있다. 자신의 근원지가 한국 땅이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의 공간은 고향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이 시를 창작한 당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땅,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애틋한 대상이 되었다. 「고향 땅에 대한 추억」은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망향의 한과 아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자는 한우 수교 이후, 고향 방문 이후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이 된 이전에는 '간난신고의 풍파를 겪은 선조들의 피땀에 무젖은 땅'에 대해서는 '역사적 조국'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진달래의 나뭇김에 박자 맞춰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버지를 생각한다.

리뱌체슬라브와 같은 고려인 2세대들이 '역사적 조국'에서 직접 살았던 경험은 없었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상 속의 고향'에 대한 동일화된 '그리움'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고려인 시문학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젊은 세대 작가들은 민족의 뿌리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모국어'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8) 김종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244~245쪽.

'모국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가 중에 김안드레이를 들 수 있다. 김안드레이(1965년 ~)는 타슈켄트에서 태어났고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조선어(한국)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일찍이 한국(서원대학교) 유학길에 오르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김안드레이는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인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의 외손자다. 『동아일보』 김명기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보다시피 저는 포석 조명희 선생의 외손자로서 아주 강한 애국자이며 (중략) 전 세계 한민족의 생존력 강화 전략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문화와 국어가 급속히 파멸해지는 과정 및 해외 한 사회가 죽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9] '포석 조명희 선생의 외손자'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포석 조명희 선생의 외손자답게 '한국 전통문화와 국어가 급속히 파멸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울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작가는 그런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구)소련이 해체 이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기 이전이다. 그의 작품 「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19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

이 시간에(時) 말을(言)배우자! 보다 훌륭한 조화로운 인물이 되자 절이(寺) 있었던 곳에 이제 재만(灰) 있다. 머나먼 안개속에 강물소리* 들리냐? 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 이 날에(日) 말을(言)배우자! 스탈린 망치로 치인 우리 민족이 추위의 초원에 굶어 죽는다. 쓰러져 눈 속에 얼은 조상들 기억하느냐? 이 날에(日) 말을(言)배우자!	이 해에(年) 말을(言)배우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위해 아니라 망각의 고통을 극복할 자손들 위해 무서운 강가에 그 승리를 위해 이 해에(年) 말을(言) 배우자! 이 일생에 말을(言) 배우자! 우리 세상을 백 배 더 아름답게 만들자. 젊은 마음속에 불이 끊기지 않으리 우리의 짧은 일생, 엄격한 일생, 이 일생에 말을(言)배우자! 「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

이 작품은 『고려신문』에서도 발표된 작품이지만 문예집 『아리랑 1937』 1집에도 발표되었다. 화자가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인 작가 1세대는 '스탈린 망치로 치인 우리 민족이' (스탈린 정권하에서) 자신을 고려인이라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에 속했다. 화자는 '쓰러져 눈 속에 얼은 조상들', '망각의 고통을 극복할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손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 고려인 소설이 나아갈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블라지미르의 「멀리 떠나온 사람들」[11]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민족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데도 심지어 민족을 넘어서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말은 필요하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은 보통 자기민족의 장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중략)
> 다른 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받아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점만 얻는 것은 아니다.
>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소비에트 독일인과
> 유태인들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모른다는
>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가? 단지 이는 자신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사실일 뿐이다.
>
> 「멀리 떠나온 사람들」 부분

작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데 민족어가 필수적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족어의 갱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고려인의 경우 한국어의 갱생이다.

---

9)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665 (검색일: 2024.06.18.)
10) 강회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문학들, 2010, 152쪽.
11) 김블라지미르 저, 최선하 옮김, 『멀리 떠나온 사람들』, 인터북스, 2010.

3.2. 현실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조국'에 대한 환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고려인 문학을 펼쳐보면 이들의 작품이 무엇을 시적 대상으로 하든 한결같이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한민족이란 민족 정체성 의식에 귀결시킨다. 뿌리 찾기 작업이라 하겠다. 민족의 뿌리를 찾고, 민족의 혼을 부활시키고 민족정신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고려인 문인들의 민족 정체성 의식이 이들 작품 전반에 관통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한국과의 교류가 재개된 이후, 고려인 시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이 '고국'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의 추억을 환기하는 것이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흰쌀밥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구수한 자장가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 조국에서 기억하여 부르는 소리 이보다 더 반가운 것이 있는가	삿갓을 쓰고 슬몃 장난스러운 시선 업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 웃음소리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고향 생각 전문」 전문[12]

위 시는 유년의 추억과 회상을 소재로 화자가 향토적 정서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기억하는 고향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흰쌀밥',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구수한 자장가'는 잊지 못하는,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다. 시인은 한국에 생활한 적이 없지만 2002년 '대구 세계문학인 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한국과의 교류가 재개된 이후, 고려인 시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의 추억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 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흰쌀밥'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우 수교 이후, 고향 방문 이후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리바체슬라브는 한국을 잠깐 방문하고 직접 살았던 경험은 없었지만 김블라지미르의 경우는 한국으로 귀환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역사적 조국'에 대한 감격에 대해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가 '귀환의 감격'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자신이 귀환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적 소회이다. 둘째가 '그리움' 그 자체이다. 그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다. 전자가 귀환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그리움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귀환의 감격'과 '그리움'은 한국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옛이야기 같은 영원함」을 살펴보면,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봄은 옛이야기처럼 영원하여라! 목련과 벚꽃이 활짝 필 때면 마치 새색시들이 새하얀 혼례복을 입은 듯 내게 안겨준다네, 천상의 아름다움을 연분홍 진달래, 앵두꽃, 개나리 오묘한 아름다움으로 빌나는 연꽃 또 산에는 배꽃과 살구꽃 가득히 피는데 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못 볼 동백꽃아	등나무는 어여쁘고 향기로워라 공원 따라 향냄새 새록새록 피어나와 난 봄을 사랑한다네, 청정한 봄공기를 좋아한다네 한국의 꽃들은 옛이야기 같은 옷차림이어라. 「옛이야기 같은 영원함」

이 작품은 '꽃'을 소재로 하고 그려내고 있다. 봄에 피는 '목련과 벚꽃'은 생명을 알리는 대상이며 '천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대상이다. '역사적 조국'에서 피는 '진달래, 앵두꽃, 개나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꽃과 살구꽃'도 조화롭게 피면서 시적 화자는 생명의 세계와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나무는 어여쁘고 향기로워라'와 '공원 따라 향냄새 새록새록 피어나와'를 통해 시적 화자가 자연과 소통하고 '역사적 조국'의 한국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노래한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는 생명에 대한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자아와 생명 사이에 분열과 간극 없는 평정의 상태를 갈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한국)와 더 적극적으로 교감하고자 한다.

12) 김종회, 앞의 책, 241쪽.

Ⅳ. 결론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한민족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상호 간의 문학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문학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단 내지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려인 작가들의 언어 문제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 역시 주요하게는 작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이 살아남자면 고려인 독자들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침투되어 한국 독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어에 능한 작가들이 배출되어 고려인 문학을 우즈베키스탄 문단에 침투시키고 영향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리뱌체슬라브, 김마르따 선생 등의 작품들이 우즈베키스탄 문단에 소개되고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수한 작품들을 보다 많이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문단에 침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자면 우선 우리의 작품이 질적으로 그들 작품과 경쟁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다. 인공 지능, 정보화 시대에 우즈베키스탄 내지 세계적인 경쟁에서 문학적 위치를 확립하려면 고려인 작가들은 끊임없이 지식 구조를 갱신하는 것은 물론 작가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아리랑 1937』 1집, Sanyat 출판사, 2008.

『아리랑 1937』 2집, Baktria Press, 2017.

강회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문학들, 2010.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8,

김블라지미르 저, 최선하 옮김, 『멀리 떠나온 사람들』, 인터북스, 2010.

김종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김필영,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김환기, 「구소련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2집, 2020.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韓民族語文學』, 제63집, 2013.

박안토니나, 「중앙아시아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명재. 오창은, 『억압과 망명,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atterns of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Pak Antonina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atterns of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The analysis covers key periods and events that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is literary tradition. The study of the national literature of Korean diaspor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rough the lens of the Korean diaspora has allowed for the examination of key aspects.

The article is dedicated to 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print media of Uzbek Korean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the 1990s. The focus is on the history of the newspaper “Koryo Sinmun,” which began publication in Uzbekistan in 1997. The author argues that this publication became an important tool in the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Key Words : Korean diaspora, Uzbek Koreans, national literature, Koryo Sinmun, Uzbekistan, 1990s, cultural development, literary analysis, ethnic identity

◆ 토론 3



임 형 모

한성대학교 교수

현) 한성대학교 교수

전)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군산대학교 강의교수

· 『조선사람·소비에트 고려인·고려사람 그리고 "고향": 아마추어리즘에서 문예미학적 글쓰기까지』(신아출판사) 등

· 「채만식의 〈過渡期〉에 투영된 뚜르게녜브(Тургенев)의 〈전날밤〉」 등

◆ 토론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변화와 전개 양상”에 대한 토론문

임 형 모

한성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시문학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 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문인들의 현재를 짚어볼 수 있는 글이어서 한편으로는 새로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지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보통 고려인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고려인들이 수행하는 문학 활동 전체를 일컬어 왔습니다만, 해당 논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만으로 공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얻을 수 있는 변별점이 있는지요? 카자흐스탄과의 대비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개는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카자흐스탄)’로 변화했다고 기술됩니다만 ‘『선봉』-『레닌기치』-『고려신문』(우즈베키스탄)’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공간을 분리한 분명한 연구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토론자 또한 공간을 분리하고 문학적 의미를 비교해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 더불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의 현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 등을 필두로 어느 정도의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구체적인 이름이나 작품 수, 작품 경향 등을 정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문인들과의 대비를 포함하는 문학지도를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또한 문예집 『아리랑 1937』에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소설은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 또한 궁금한 지점입니다. 현재는 작가나 작품 내용, 작품 경향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3. 작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향 땅에 대한 추억〉(리뱌체슬라브)이라는 시에서 여러 번 읽어 봐도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시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겐 에뎀, 그 누구에겐 엘라다’라는 구절에서 ‘에뎀’과 ‘엘라다’의 뜻이 바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고려인들이 쓴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쓴 작품이든 아니면 러시아어 등으로 수행한 작업 가운데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작가와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또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 4



김 호 웅

연변대학교 교수

현) 연변대학교 교수

전) 조선언어문학학부 학부장, 조선-한국학연구센터 소장,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연변대학교 문과학술위원회 주석, 한중인문학회 부회장

전)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 연변대학교 와룡학술상, 길림성정부 장백산문예상,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 한국 동서문화상 등 수상.

·『재만조선인문학연구』,『김학철평전』,『림민호평전』,『정판룡평전』,『중일한문화산책』,『디아스포라의 시학』,『경계의 미학과 창조력』,『중국조선족문학통사』,『조선족문학과 아이덴티티』 등

◆ 발제 4

중국 조선족문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김 호 웅

연변대학교 교수

1. 서론

중국 조선족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서, 주로 중국 동북삼성과 산동성을 비롯한 많은 성과 북경, 청도, 상해 등 대도시들에 분포되어 있다. 조선족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 하지만 1988년 코리안 드림 이후, 특히 2007년 한국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 법률안〉을 출범시키고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비자도입(F-4) 및 불법체류자사면 등을 통해 진일보 문호를 개방한 후 현재 재한조선족(귀화한 사람 포함)은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림잡아 조선족의 인구의 40%가 한국에 나가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조선족사회는 가정의 해체, 농촌공동체의 공동화, 민족교육의 쇠퇴 등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조선족사회는 이러저러한 사회변화로 더욱 큰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문단은 정부의 지지를 적극 유치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문학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력사적 비평, 전기적 비평, 디아스포라의 시학과 언어학적 관점으로 조선족이민사, 조선족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토착어의 사용 및 그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족 이민사와 문학

14세기 중엽 원나라 지순년간(至顺年间, 1330—1332)에 요동(辽东) 일대에 수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조선인들의 이민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19년 명말청초의 사얼후전역(萨尔浒战役)[1], 1627년의 정묘지란(丁卯之乱)[2], 1636년의 병자지란(丙子之乱)[3]과 같은 청나라와 조선조의 전쟁에서 요동에 잡혀온 조선인 포로는 수십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원나라 때나 명말청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 건너온 조선인들은 지금의 요녕성과 하북성에 있는 몇 개의 박씨촌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만족이나 한족으로 동화되었다.

---

1) 사얼후전역에서 조선군의 5도 도원수(五道都元帅) 강홍립(姜弘立)은 5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후금 군에 투항했다.
2) 정묘지란 때 후금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온 조선인포로의 수는 명확한 통계는 없으나 평안도 여섯 개 읍에서만 해도 4,986명이나 되었다.
3) 병자지란 때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온 조선인포로가 60만 명에 달한다는 조선 측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청나라는 건륭년간(1736—1795)에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대해 봉금(封禁)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선 북부지대의 조선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봉금령을 어기고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 건너와 조경모귀(朝耕暮歸), 춘경추귀(春耕秋歸)[4]식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사냥을 하거나 산삼을 캐기도 했는데,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는 1869년[5]부터 1874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조선의 북부지대에 흉년이 든 것이 계기로 되었다. 이 시기 이주민의 대다수는 가난한 농민들이기에 '농민이민의 시대'라 할 수 있고 문학의 경우에는 구비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민들 외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 대거 이주함에 따라 정치이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정치이민의 시기'라 한다. 이 시기에 용정의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시작으로 대성중학, 동흥중학, 은진중학 등 사립학교들이 설립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선인 이민들의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자들이 이끌었던 항일독립운동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된 반일투쟁과 공산주의운동으로 바뀌면서 많은 항일연극, 항일가요들이 창작되어 조선인 이민들 속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1920년대를 전후로 조선인 이주민의 학교와 신문잡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식자인구(識字人口)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는 문학인들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서 '8.15'광복까지는 '개척이민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도 조선반도로부터 적지 않은 문화인들이 동북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지역에 들어옴에 따라 문단이 형성되고 수준 높은 작가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40년대 초 조선 국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되고 암흑기에 접어들고 조선어에 의한 창작이 어렵게 되자 많은 작가, 시인들이 북간도와 신경에 모여들었다. 오무라 마스오의 말을 빌린다면 "그래도 만주는 조선보다는 얼마간 자유가 남아있는 땅"이였기 때문이다.[6]

농민 이민 시기, 정치 이민 시기, 개척 이민 시기 이 세 단계를 아울러 조선족문학의 배태기 또는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 이민공동체에 합류하지 않고 중국 남방에서 활동했던 김택영, 신정, 신채호의 문학을 조선족문학사에 포함하는 문제, 그리고 '8.15' 이전의 조선족 호칭에 대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한다.[7] 하지만 이들은 간접적으로 재중 조선인문학의 형성과정에 동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김택영, 신정, 신채호의 문학을 배태기 또는 형성기의 문학에서 다룰 수 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중국 동북에 일구어낸 조선인이민공동체는 그 문화적 속성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을 비롯한 기타 민족과 이웃해 살게 됨으로써 조선인이민공동체의 문화적 속성에는 중국적 요소가 날로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북지역과 산해관 이남의 조선인 이민들은 중국인민과 어깨 겯고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전쟁과 국민당의 통치를 뒤엎는 해방전쟁 가운데서 서로 어깨 겯고 싸웠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과 더불어 중국 조선족으로의 역사적 전환과정을 완수하였다.

---

4) 아침에 강을 건너가 씨앗을 심은 후 저녁에 돌아오거나 봄에 강을 건너가 산속에 숨어 일 년간 농사를 짓다가 가을에 돌아옴을 말한다.

5) 1869년은 기사년(己巳年)인데 기민들이 풀뿌리로 연명했으므로 '기사년 계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6) 오무라 마스오 편역, 『시키코복만이-중국조선족단편소설선』, 일본 고려서림, 1989, 397쪽.오무라 마스오, 『윤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396쪽."한반도의 경우 1910년 '한일병합'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후 일본어에 의한 문학작품 창작이 강요되었지만, 애초부터 다민족국가를 표방한 만주의 경우는 30년이 지나서도 그것은 불가능했음이 틀림이 없다."

7) 윤윤진, 「중국조선인문학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문학과 예술』, 1993년 제6호를 참조하라. 윤윤진은 "광복 전의 문학을 조선족문학이라고 호칭하기보다 조선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접된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3. 해방 후 조선족문학의 역사적 흐름-소설을 중심으로

해방 후 조선족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특점과 중국사회 문화형태의 변화, 발전의 특점 및 조선족문학발전의 구체적 상황을 두루 감안한다면 조선족문학을 다음과 같은 몇 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945-1949년의 조선족문학

1945년 8월 항일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조선인들은 드디어 일제 식민통치의 기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 집거구들에서는 일련의 사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인문학도 새롭게 회복,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문예단체들이 우후죽순마냥 나타났다. 연변에서 동라(銅羅)문인동맹이 나왔고 목단강지구에서 동북신흥예술가협회가 나왔다. 이러한 문인단체들에서는 선후로 『불꽃』(연길), 『건설』(목단강) 등 간행물들을 펴내 문인들의 작품을 실었다. 그리고 연길의 『동북조선인민보』, 목단강의 『인민신보』, 하르빈의 『민주일보』, 통화의 『단결일보』 등 신문들도 문학작품을 실었다.

이 시기 시단에서 활약한 시인으로는 광복 전부터 작품 활동을 한 바 있는 리욱, 천청송, 윤해영, 채택룡, 김례삼, 설인(본명 리성휘) 등과 광복 후 시단에 데뷔한 신활, 김태휘, 임효원, 김순기, 장만련 등이다. 1947년 15명 시인들의 시작품을 수록한 종합시집 『태풍』과 리욱의 시집 『북두성』이 출판되었다. 1949년 리욱은 두 번째 시집 『북륙의 서정』을 펴냈다. 이러한 시집들은 광복 후의 격동적인 현실과 광복을 맞은 조선인들의 기쁨과 열정을 노래하였다.

산문과 소설 창작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지 못했으나 일본감옥에서 풀려나와 잠시 서울, 평양에서 활동한 적 있는 김학철이 단편소설 「담배국」(1946), 「야맹증」(1946), 「적구」(1948)와 같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김학철의 초기 단편소설들은 조선의용군의 생활과 그들의 성격을 생생하게 기록, 묘사해 해학과 유머가 넘친다.

2) 1949-1966년의 조선족문학

1949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17년 동안에 조선족문학은 새로운 사회, 역사적 환경 속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극좌노선의 교란과 연속부절한 정치운동의 물결에 부대끼면서 곡절적인 길을 걸어왔다.

작가들은 문단을 정비하고 새로운 민족문학을 건설하기 위해 연길에 모여들었다. 목단강, 하르빈 지역에서 김례삼, 김태희, 임효원, 최수봉, 리홍규, 최현숙, 황봉룡 등 작가와 시인들이 1949년 10월 공화국창건 전야에 선참으로 연길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통화지구에서 문학창작을 하던 최정연, 백남표와 태항산 등 산해관 이남에서 항일문학운동을 하던 김학철, 정길운 등이 연변에 왔다. 그들은 연변에서 문학창작을 하던 리욱, 김창걸, 채택룡, 설인, 김창석, 홍성도 등 문인들과 합류하였다.

조선족문인들은 1950년 1월 연길에서 연변문예연구회를 출범시켰고 4월에는 새로운 정세에 비추어 연변문예연구회를 해산하고 연변문학예술일꾼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53년 7월에 제1차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예술일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그 기관지로 『연변문예』를 간행했다. 1956년 8월에는 중국작가협회의 소속단체로 되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를 설립하고 문학월간지 『아리랑』을 간행했다.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성립은 조선족문단이 진일보 정비되고 작가대오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문학에서 가장 큰 성과를 떠올린 분야는 시문학이다. 건국 전부터 시 창작에 나섰던 리욱, 채택룡, 김례삼, 설인, 주선우, 김태희, 임효원, 김창석, 그리고 새롭게 시단에 데뷔한 서헌, 김철, 김성휘, 조룡남, 윤광주, 김태갑, 김응준, 김경석, 리상각, 송정환, 리삼월 등이 시단의 중견으로 활약했다. 이들 시인들은 사회주의 시문학의 길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시대의 고수(鼓手), 인민의 가야금수로 되어 시대의 진군소리와 조선족 인민의 뜨거운 숨결과 감정세계를 소리높이 구가했다. 이 시기에 종합시집 『해란강』(1954), 『창작선집』(1956), 『청춘의 노래』(1959), 『아침은 찬란하여라』(1961), 『푸른 잎』(1962), 『변강의 아침』(1964), 『연변시집』(1964) 등과 리욱의 『고향사람들』(1957), 『연변의 노래』(1957), 『장백산하』(1959), 주선우의 『잊을 수 없는 녀인들』(1957), 김철의 『변강의 마음』(1957), 『동풍만리』(1958), 임효원의 『진달래』(1957), 리민창의 『김옥희와 팔거북』(1957) 등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 독자들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리욱의 서정시 「어머니와 애기」(1956), 김철의 「지경돌」(1956), 설인의 「피보다 진한 눈물이」(1959), 윤광주의 「쓰지 못한 사연」(1955), 조룡남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1956), 김성휘의 「고동하시초」

(1958), 리상각의 「숭선시초」(1958), 김태갑의 「옥중의 노래」(1962), 주선우의 「첫사랑」(1956), 임효원의 「아, 산딸기는 익어가건만」(1956), 서헌의 서정서사시 「청송 두 그루」(1955), 리욱의 「고향사람들」(1957), 김철의 「산촌의 어머니」(1956) 등을 들 수 있다. 상술한 시편들에서는 들끓는 현실 생활에서 일어난 심각한 사회변혁, 중국공산당에 대한 다함없는 찬미의 감정을 읊조린 송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력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영웅적 모습과 그들의 고상한 품성을 노래한 작품들과 조선민족이 걸어온 피눈물 나는 역사를 회고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빛나는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찬미한 시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백화만발, 백가쟁명'의 방침 아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와 폐단 등 암흑면을 고발, 풍자한 시편들과 애정, 윤리 등 소재를 재치 있게 다룬 시편들도 이 시기 시문학에 이채를 더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시문학과 함께 소설문학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의 탄생과 새로운 사회생활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와 인물을 제공했고 소설 창작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 시기 소설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가들로는 김창걸, 김학철, 렴호렬, 백호연, 김동구, 백남표, 마상욱, 리홍규, 리근전, 박태하, 최현숙, 현룡순, 허해룡, 김병기, 윤금철, 차룡순, 안창욱 등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단편소설로 해방이 된 농민들의 희열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묘사한 김창걸의 단편소설 「새로운 마을」(1950), 렴호렬의 「소골령」(1950), 새로운 생활에 대한 찬가로 엮어진 김학철의 「새집 드는 날」(1953), 「뿌리박은 터」(1953)와 현실비판을 꾀한 「고민」(1956), 신형농민의 형상 창조에 모를 박은 리근전의 「과일꽃 필 무렵」(1954), 인민교사의 미더운 풍모를 찬미한 백호연의 「꽃은 새 사랑 속에서」(1950), 애정과 윤리의 소재를 감명 깊게 다룬 최현숙의 「나의 사랑」(1955)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조선족전사의 혁명적 영웅주의를 노래한 박태하의 「사막에서의 조난」(1959), 농촌건설에서 나타난 인민대중의 충천하는 열의를 찬미한 김병기의 「쇠돌골의 변화」(1958)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설가들의 생활체험이 깊어지고 역사와 현실을 거시적으로 폭넓게 예술화하려고 노력한 데서 중 · 장편소설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1954), 중편소설 「번영」(1955), 김동구의 중편소설 「꽃삼지」(1957), 리근전의 중편소설 「호랑이」(1960), 장편소설 「범바위」(1962) 등이 창작, 출판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조선족의 빛나는 역사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작품들로서 이 시기 작가들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선족문학

1966년 5월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문화대혁명'에서 문학단체는 강제 해산되고 문학잡지도 폐간되었으며 김학철, 최정연, 김철, 김례삼, 서헌 등 많은 작가들이 '현행반혁명분자', '반동적 학술권위', '잡귀신', '간첩'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판투쟁을 받거나 옥살이를 하였다.

'문화대혁명'은 이른바 '문예계의 검은 선'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혈통론'을 조작해가지고 조선족문화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4인무리'가 통치하던 시기에 조선족문단은 산산조각이 났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요컨대 '문화대혁명' 10년은 조선족문단이 모진 어려움을 겪은 수난기였으며 전반 문학창작이 침체와 퇴보를 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조선족작가들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침묵, 절필 등 다양한 형태로 '4인무리'와 투쟁하면서 문학의 봄을 고대하고 있었다. '문화대혁명' 직전에 비밀리에 집필한 김학철의 장편소설 「20세기의 신화」는 잠재창작의 전범으로 된다. 이 작품은 '문화대혁명 초기 일본어로 번역하던 중 가택수색을 당해 몰수되었고 김학철은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4) 개혁개방전기의 조선족문학

1976년 10월 '4인무리'가 분쇄되자 조선족문학은 소생과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민족적 사명감을 가진 작가들은 다시 일떠나 '4인무리'의 죄행을 폭로, 비판하고 그들이 날조한 일련의 극좌 관념을 비판한 기초 위에서 시비를 가르고 억울한 사건과 그릇되게 처리된 사건들을 시정했다. 따라서 김학철, 김순기, 최정연, 김철, 리홍규, 김용식, 조룡남 등 작가와 시인들이 복권되었으며 '대독초'로 몰려 출판금지를 당했던 많은 작품들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1978년 10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회복되고 1980년대에 연변 외의 조선족 집거지역, 이를테면 길림, 통화, 하르빈, 심양, 북경 등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학단체들이 발족했고 문학지도 대폭 늘어났다.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기관지 『연변문예』를 복간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평론지 『문학과 예술』과 문학지 『아

리랑』, 『장백산』, 『도라지』, 『송화강』을 새롭게 창간했다. 그리고 동북삼성의 신문과 출판사 및 종합지들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문학작품을 실었다.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회원도 1985년에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역사시기 조선족문학은 개혁과 개방 속에 있는 조선족인민들의 들끓는 생활과 앙양된 정서를 표현하는 한편 애가문학(哀歌文學), 상흔문학, 반성문학, 개혁문학, 뿌리찾기문학, 신사실주의문학 등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집 50여 부, 단편소설집 30여 부, 중 · 장편소설 50여 부 출판되었다.

새로운 역사시기에 재생의 기쁨을 안은 노시인들과 새로 시단에 데뷔한 신인들이 합세하자 시단은 금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4인무리'를 규탄하고 노일대의 혁명가들을 구가하는 행정에서 새로운 개인숭배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 갔던 시인들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상해방운동의 도움 밑에 1980년부터 개인숭배의 여독을 청산하고 많은 '금지구역'을 허물어버리고 시의 예술적 공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대미신'과 밀착된 '송가'풍의 영향과 시문학을 단지 '폭탄과 기치'로만 간주하던 단일한 공리주의적 가치관의 속박에서 벗어나 심미적 가치를 비롯한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조선족 시문학을 진정으로 '미의 왕국'에 들어서게 하고 인간의 '내우주(內宇宙)'를 다각적으로 읊조리는 예술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였다.

이 시기 사상,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훌륭한 서정시들이 많이 창작, 발표되어 조선족 시단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그 대표적인 서정시들로는 송정환의 「원혼이 된 시인에게」(1979), 한춘의 「그때 우리는 어찌하여」(1979), 임효원의 「북녘의 서정」(1980), 김성휘의 「벗들에게」(1980), 리상각의 「압록강 물결 따라」(1980), 김학의 「땀의 노래」(1980), 리욱의 「아침」(1980), 김철의 「북방의 성격」(1982), 조룡남의 「해빙기의 강변에서」(1983), 정몽호의 「아버지의 발자국」(1983), 리삼월의 「농민들은 땅을 떠난다」(1984), 박화의 「태양이 웃는 거리」(1984), 김응준의 「사랑의 애가」(1985), 석화의 「나는 나입니다」(1985), 남영전의 「할머니」(1986)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정시들에서는 '4인무리'가 저지른 죄악을 폭로, 비판하고 흘러간 역사와 '대동란'의 년대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개혁의 물결 속에 뛰어든 개혁자들의 격정과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현존하는 봉건의식과 각종 부패현상을 고발, 타매하고 애정윤리와 아름다운 경물을 찬미하면서 시대의 주선율을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서정시 창작이 공전(空前)의 성황을 이룸에 따라 시집들이 쏟아져 나왔다. 종합시집으로 『시선집』(1979), 『변강의 무지개』(1979), 『봄바람』(1981), 『진달래의 노래』(1981), 『서정시집』(1982년), 『칠색무지개』(1984) 등이 출판되고 여러 시인들의 자선시집으로 김철의 『산향길』(1979), 『내 고향의 금물결』(1979), 『태양에로 가는 길』(1983), 『인간세상』(1985), 김성휘의 『나리꽃 피였네』(1978), 『들국화』(1982), 『금잔디』(1985), 임효원의 『어머니 품이여』(1979), 『마음의 지평선』(1982), 리욱의 『리욱시선집』(1980), 리상각의 『샘물은 흐른다』(1980), 『사랑의 꽃바구니』(1985), 김경석의 『파란 손수건』(1981), 리삼월의 『황금가을』(1981), 김태갑의 『고향길』(1982), 박화의 『봇나무』(1982), 설인의 『봄은 어디에』(1983), 김창석의 『꽃수레』(1986), 『흰돛』(1986) 등이 출판되었다.

1980년 좌우로부터 시적 수련을 거쳐 자신심을 가진 시인들이 장편서사시와 서정서사시를 창작, 발표하기 시작해 시창작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철의 장편서사시 「동틀무렵」(1979), 「새별전」(1980), 김성휘의 「장백산아 이야기하라」(1979), 리상각의 「만무과원 설레인다」(1980), 리욱의 「풍운기」(1982)와 김성휘의 서정서사시 「떡갈나무아래에서」(1979), 김동진의 「거리의 울음소리」(1980), 김성휘의 「소나무 한그루」(1982), 리삼월의 「아, 전설길」(1984), 김응준의 「개척자의 노래」(1985), 조룡남의 「아, 청산골」(1985) 등을 들 수 있다. 상술한 작품들 가운데서 봉건사회말기의 농민봉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새별과 장수의 곡절 많은 사랑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빌어 백의동포의 고상한 정신적 풍모와 투쟁정신을 열정적으로 구가한 김철의 장편서사시 「새별전」과 1930년대 조.한 두 민족 인민들로 조직된 유격대가 장백산을 근거지로 삼고 일본침략군을 족치던 항일무장투쟁을 폭넓게 반영하고 그 속에서 주인공 청송이와 영란이가 간난신고를 겪어가며 굳센 항일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격조 높이 노래한 김성휘의 장편서사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는 이 시기 시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흘러간 역사와 불꽃 튀는 현실을 거시적으로 예술화하려는 조선족 시인들의 피 나는 탐구과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소설문학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동란시기에 붓을 꺾었던 원로작가들과 새로 진출한 신진작가들이 소설 창작에 정진해 많은 작품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고발한 상흔문학의 계보에 속하는 작품들, 이를테면 박천수의 「원혼이 된 나」(1979), 정세봉의 「하고 싶던 말」(1980), 흘러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극좌 경향에 의

해 흔들렸던 지난날을 신랄하게 고발한 리원길의 「배움의 길」(1980), 류원무의 「비단이불」(1982), 김학철의 「밀고제도」(1987), 우광훈의 「메리의 죽음」(1987), 개혁과 개방 시대의 새로운 인간과 의식을 보여준 홍천룡의 「구촌조카」(1981), 지난날 금지구역에 속했던 애정, 윤리 등 문제를 둘러싸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각양각색 인간들의 심리와 잠재의식을 파헤치고 고루한 봉건의식을 타매한 김학철의 「짓밟힌 정조」(1985), 림원춘의 「도라지꽃」(1978)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또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보다 폭넓게 다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에 의해 예술 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중 · 장편소설들이 창작, 발표되었다. 이를테면 김용식의 「규중비사」(1980), 류원무의 「숲속의 우등불」(1980), 「잊을 수 없는 사람」(1981), 김경련의 「흉수는 누구」(1982), 김순기의 「꿈에 본 얼굴」(1984), 김근총의 「별무리」(1984), 정세봉의 「볼쉐위크의 이미지」(1985), 리원길의 「한 당원의 자살」(1985), 김훈의 「청춘략전」(1985), 고신일의 「유정세월」(1985), 박창묵의 「대문산비곡」(1985), 김양금의 「언덕길」(1986), 우광훈의 「시골의 여운」(1986), 최홍일의 「생활의 음향」(1985), 「도시의 곤혹」(1989), 「그녀와 B현 소재지」(1987), 김재국의 「해당화야, 해당화야」(198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적잖은 작가들이 장편소설을 펴냈는데 그 대표적 작품으로 최택청의 「도강전야」(1981), 윤일산의 「어둠을 뚫고」(1981),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상하, 1982), 김송죽의 「번개치는 아침」(1983), 김용식의 「설랑자」(1984), 김학철의 「격정시대」(상하, 1986), 윤일산의 「표효하는 목단강」(1986), 김운룡의 「새벽의 메아리」(1986), 류원무의 「봄물」(1987), 리원길의 「설야」(1989) 등이다.

상술한 중 · 장편소설 가운데서 봉건시대의 애정비극을 흥미롭게 다룬 김용식의 「규중비사」, 개혁과 개방 초기의 사회적 변화와 각양각색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류원무의 「봄물」과 리원길의 「설야」, 그리고 조선족의 100년사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와 김학철의 「격정시대」를 대표적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중 · 장편소설들은 조선족역사의 예술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술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주의에 토대하면서도 의식의 흐름, 상징주의, 부조리소설 등 다양한 수법들을 대담하게 수용함과 아울러 인물의 신분과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구사하고 있다.

5) 개혁개방후기의 문학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는 개혁과 개방의 새로운 형세와 더불어 다방면으로 전개된 국내외 문학교류의 영향하에 조선족작가들의 사상관념이 진일보 갱신, 제고되고 보다 성숙되었다. 작가대오는 날로 늘어났고 문학창작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중국 경내에 500여 명의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선족문학의 태두(泰斗) 김학철을 위시하여 많은 중견작가들이 문학의 화원을 가꾸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시 창작에 나선 김철을 비롯한 리상각, 조룡남, 리삼월, 박화, 남영전, 김응준, 한춘, 김동진, 최룡관, 석화, 리성비, 김학송, 리임원 등 시인들, 산문과 소설 분야의 림원춘, 류원무, 리원길, 정세봉, 고신일, 박선석, 최홍일, 김훈, 류연산, 김영금, 우광훈, 최국철, 김혁, 리동렬 등 소설가들, 희곡창작에서 남다른 기여를 한 리태수, 한원국, 리광수 등 희곡가들, 1990년 이후 평단을 선도해간 정판룡, 조성일, 최삼룡, 전국권, 김봉웅, 장정일, 전성호, 김관웅, 김병민, 김호웅, 김성호, 김경훈, 우상렬, 리광일 등 평론가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리선희, 리혜선, 허련순, 박향숙, 박옥남, 김금희 등 여성작가들의 눈부신 활약이다.

시문학의 경우, 리삼월, 남영전, 김학송 등 시인들이 민족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적잖은 수작들을 펴냈는데, 이러한 작업을 보다 집약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한 시인은 석화(1958-)이다. 그의 연작시 「연변」은 중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연변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이른 봄이면 진달래가/ 천지꽃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여나는 곳이다// 사래 긴 밭을 갈면 가끔씩/ 오랜 옛말이 기와조각에 묻어나오고/ 용드레우물가에/ 키 높은 버드나무가 늘 푸르다// 할아버지는 마을 뒤산에/ 낮은 언덕으로 누워계시고/ 해살이 유리창에 반짝이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가 한창이다// 장백산 이마가 높고/ 두만강 천리를 흘러/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여기가 연변이다
>
> -「천지꽃과 장백산」 전문

이 작품은 석화의 연작시 「연변」의 머리시로서, 진달래를 '천지꽃'이라 부른다는 제1연에서는 연변의 독자성 또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고 제2연의 "오랜 옛말이 기와조각에 묻어나오고"는 이주민의 기나긴 역사를 암시한다. "용드레우물가"는 용정의 상징이고 이주민의 연변정착을 의미한다. "키 높은 버드나무가 늘 푸르다"는 표현은 아직도 조선족이 건재함을 말한다. 제3연에서는 뒷산에 누워계신 할아버지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대조적으로 그림으로써 연변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함축시키면서 민족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연변적인 특징을 가장 잘 노래한 시는 「기적소리와 바람 - 연변 2」이다.

> 기차도 여기 와서는/ 조선말로 붕— 한족말로 우(嗚) —/ 기적 울고/ 지나가는 바람도/ 한족바람은 퍼-엉(風) 불고/ 조선족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분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을 나는 새새끼들조차/ 중국노래 한국노래/ 다 같이 잘 부르고/ 납골당에 밤이 깊으면/ 조선족귀신 한족귀신들이/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저들끼리만 가만가만 속삭인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월의 거리에 넘쳐나는/ 붉고 푸른 옷자락처럼/ 온갖 빛깔이 한데 어울려/ 파도를 치며 앞으로 흘러간다//[8)]

이 시는 상이한 것들이 갈등이 없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혼종성, 쉽게 말하자면 조선족과 한족이 연변 땅에서 공존, 공생해야 하는 숙명 내지 필연성을 유머러스하게 이미지화하고 있다. 제1연에서는 기차와 바람을 의인화하면서 '붕—'과 '우(嗚)—', '바람'과 '퍼-엉(風)'의 대조를 통해 조선족과 한족의 언어적 상이성을 확인한다. 그렇지만 제2연에서는 미물인 새들도, 납골당의 귀신들도 서로 상대방의 소리와 언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두 문화 형태 간의 대화와 친화적인 관계를 하늘을 날며 즐겁게 우짖는 새와 납골당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귀신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함으로써 몽환적인 색채를 십분 살리고 있다. 제3연은 이 시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내적 구조에서 보면 '전'과 '결'에 속하는 부분인데 연변의 풍물시라고 할 수 있는 '6.1' 아동절 날, "붉고 푸른 옷자락처럼/ 온갖 빛깔이 한데 어울려/ 파도를 치며 앞으로 흘러간다"라고 색채적 이미지를 구사함으로써 다원공존, 다원공생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매듭짓고 있다.

이 시기 소설문학은 림원춘, 리원길, 박선석, 정세봉, 허련순, 리혜선, 최홍일, 류업무, 리태수, 고신일, 리만호, 김근총, 윤림호, 우광훈, 김훈, 강효근, 장혜영, 구용기, 김재국 등 1980년대 주력들이 계속 중진역할을 했고 최국철, 김혁, 리동렬, 김남현, 김동규, 박향숙, 권선자, 조성희, 김영자, 권중철, 박옥남, 조광명, 박초란, 구호준, 리진화 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 많은 작가들의 창작기량이 보편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단편, 중편소설뿐만 아니라 장편소설도 많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장편소설로 리원길의 「춘정」(1993)과 「역관집 두 형제」(2021),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1993)과 「룡정별곡」(2013), 허련순의 「바람꽃」(1996), 「뻐꾸기는 울어도」(1999)와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2004), 박선석의 「쓴웃음」(1997)과 「재해」(2004), 리혜선의 「빨간 그림자」(1998), 최국철의 「간도전설」(1999)과 「광복의 후예들」(2010), 김혁의 「국자가에 서있는 그대를 보았네」(2004)와 「마마꽃 응달에 피다」(2005) 등 60여 부 나왔다.

조성일은 조선족문학은 한국, 조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세계 조선어문화권에서 한국문학, 조선문학과 더불어 3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족문학의 위상을 이렇게 정립하는 것은 문단, 작가 군체, 문학단체, 문학지, 문학작품생산, 출판사, 문학 활동 등 여러 분야의 상황과 그 성과로 놓고 볼 때 모국문학을 제외하고는 조선족문학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9)]

그리고 조선족 장편소설 역시 기본상 조선어로 창작, 발표되었는데, 토착어 또는 사투리의 의식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김학철의 「격정시대」, 리원길의 「설야」와 「역관집 두 형제」, 박옥남의 단편소설집 「장손」(2008),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과 「룡정별곡」, 최국철의 「간도전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8) 석화 시집,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6.

9) 조성일, 「세계조선어문학권에서의 중국조선족문학의 위상」, 『조선족문학개관』(1), 연변교육출판사, 2003, 141-148쪽.

4. 조선족소설과 방언

미하일 바흐친(1895-1975)은 언어는 공식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를 사회 · 이념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공식 언어란 한 민족과 시대의 지배적 · 공식적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언어로서 공용어, 표준어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비공식 언어란 이러한 자기 시대의 공식 언어를 패러디하면서 그에 대해 날카롭게 논쟁적으로 적대시하는 언어로서 지배적 · 공식적 담론에 대항하는 주변부의 언어이며 다양성과 대화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10] 비공식적 언어는 지배적 차원 · 공식적 차원과는 대항적 관계에 있는 비공식적 차원 · 저급적 차원에서 주로 하층민들에게 사용되는 민중의 언어이다. 도시 및 농어촌의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비공식적인 측면에는 세계를 보는 특수한 관점, 특수한 현실 선택, 공식적 측면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언어의 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어떠한 승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언어 속에는 공식적인 측면의 언어 및 문학에 대립되는 독특한 모형체계가 존재한다. 이는 소설에서 민중적 열정의 투박한 솔직성, 광장에서 하는 말에 부여된 방종의 특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중적 언어의 효용성을 알고 자기의 작품에서 적극 이를 사용한 조선족 작가로 김학철, 리원길, 박옥남, 최홍일, 최국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김학철의 경우

김학철은 「아름다운 우리 말」이라는 글에서 자기 남편을 '동무'라고 부르는 여자를 보면 얼른 귀를 틀어막고 오금에서 비파소리가 나게 도망쳐 버린다고 했다. 특히 자기 아내를 '동무'라고 부르는 남자를 보면 대번에 귀싸대기를 한 대 갈겨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부인을 '안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부인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가는 중이라고 했다. 시집을 갓 왔을 당시에는 고운 서울 말씨로 댕갈댕갈 지껄여서 내 귀에 음악적인 희열을 갖다 주던 것이 이제 와서 아주 글러먹었다고 했다. 또한 그 전에는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진지는요?" 하고 부지런히 일어나 행주치마를 두르군 하였는데, 근년에 와서는 그 아름다운 말씨-- '진지'를 도태시키고 시금털털한 말씨로 "식사…", 특히 '식사' 밑에 있어야 할 '는요' 는 생략하고 그 무거운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이고 물어보기 일쑤라고 했다. '식사'는 일본말의 "쇼꾸지(食事)"를 직역한 것으로서 우리의 고유어인 '진지'에 비하면 맛이나 기품이 떨어지는데, 억하심정으로 제 좋은 비단옷을 마다하고 남의 나라에서 들여온 마대옷을 걸치는지? 하고 개탄했다.

문학작품의 경우도 그렇다고 했다. 홍명희의 「림꺽정」은 그 언어가 일품이지만 전라도 기생 계향이, 평안도 기생 초향이, 서울 기생 소홍이 모두 서울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리기영은 그 작품에서 서울말과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놀라울 만큼 능숙하게 구분하여 구사한다고 하였다. 김학철은 또 이런 말을 했다. 지난번에 어느 소설에서 "저는 이미 마음속에 정한 사람이 있에요." 하고 썼더니 편집자는 친절하게도 '있에요'를 '있어요'로 고쳐 놓았다. '있에요'에는 아름다운 여자의 '맛'이 들어있으나 '있어요'에는 그런 맛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우리말은 작자만 배워야 할 게 아니라 편집자나 역자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으로 남이 써놓은 아름다운 말을 깎거나 고쳐서 밉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연변에서 번역한 일본영화 《오신》을 보면 며느리를 '마님'이라 번역하고 시어머니를 '큰마님'이라 번역하였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며느리는 '아씨'라 하고 시어머니는 '마님'이라 해야 한다.[11]

리해영은, 김학철의 경우에는 그가 감수성이 가장 강했던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을 서울에서 자란 사정과 관계되지만, 연변인민의 반제반봉건 투쟁의 형상화인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는 서울말, 표준어로 일관되어 있음은 작가의 결정적인 실책[12]이라 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남아있다. 김학철은 「해란강아 말하라」, 「20세기의 신화」에서 「격정시대」에 이르기까지 함경도방언이나 '연변말'을 기본상 쓰지 않고 의식적으로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방언이 혼재하고 문학어가 촌스러운 연변문단의 상황을 감안해서 부드럽고 풍부한 서울말로 당면한 언어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학철은 서울말에 기초한 탁월한 비유와 상징, 해학과 유머 등 수사학적 수법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기할 수 있었고 조선족문학의 품위를 높일 수 있었다.[13]

---

10)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64-190쪽 참조.
11) 김학철, 「아름다운 우리말」, 『태항산록』, 연변인민출판사, 1998. 350-351쪽.
12) 동상서, 241쪽.
13) 김호웅, 「조선의용군항일투쟁의 예술적 기념비」, 『아리랑』 제36호, 1990.4.
신경림, 「넉넉하고 포근한 글들」, 김학철연구회 편, 『조선의용군의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연변인민출판사, 2002년, 529-531쪽.

2) 리원길의 경우

방언을 작품 속에 의식적으로 사용한 작가로 리원길과 박옥남을 들 수 있다.

리원길은 대학에서 문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중국의 고전을 우리말로 번역해온 작가인데, 그는 얼마 전 필자에게 문학창작에서의 사투리의 효용성 등에 대해 상세히 적어 보낸 바 있다. 그대로 옮긴다.

전 민족의 통용어인 표준어와 달리 사투리는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습관적으로 쓰이는 언어로써 다른 지역의 언어들과 구별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폐단이 있다. 사투리의 그런 의사소통의 불통성은 발음, 억양, 어조 등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어나 토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1) 발음:

평북방언의 구개음이 설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례: 덩거당에 던기불이 번떡번떡 → 정거장에 전기불이 번쩍번쩍

함북방언에서 명사의 끝모음 "ㅜ"가 'ㅣ'로 변하는 현상.

례: "동무"→"동미", 두부→디비, 상두→상디(뒤)

(2) 어조:

평북방언은 장단어조이지만 함경도방언은 고저어조이다.

(3) 단어:

평북: 달마구=단추, 내티다=버리다, 머사니=무엇, 티껍다=더럽다.

함북: 단치=단추, 데지다=버리다, 무스거=무엇

경북: 몬 한다=못 한다, 묵다=먹다, 내비뿌리다=버리다, 우째=어째

(4) 토:

평북: 주격토 "-가" → "-래". 례: 내가 한다→ 내래 한다.

함북: 의문의 종결토. 례: "-ㅂ니까?" → "-슴둥?"

경북: 의문의 종결토. 례: "-ㅂ니까? " → "-니꺼?"

이외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한어의 음차현상으로 생긴 지역적으로 상이한 사투리단어들도 있다.

연변: 무티(원목, 木头), 노배(무우, 萝卜), 광채(삽, 广锹)

길림: 포자(늪, 泡子), 팡자(집, 房子), 툰재(동네, 屯子)

문학작품의 열독대상은 특정지역의 부분적인 독자가 아니라 전 민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사투리는 문학작품에서 특별한 효용성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다른 지역 독자들의 몰이해나 오해를 일으키기 쉬워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다. 례를 들면 함북방언으로 "부끼한다" 혹은 "얼레부끼한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인데, 타고장 사람들은 그 말을 "얼굴이 부석부석 붓는다"로 오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문학작품에서의 사투리 사용은 선별적이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사투리는 주로 문학작품 등장인물의 대화에서만 사용하고 그 외 작가 자신이 직접 등장인물의 형상, 성격, 그리고 자연과 사회생활의 여러 모를 그려낸 글, 즉 지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대화에서는 왜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는가? 사투리의 문학적 효용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투리의 문학적 효용성은 주로 지방색채, 등장인물의 개성, 작품의 미적 쾌감 즉 재미 등을 증가시키는 데서 표현된다.

(1) 지방색채를 살린다

중국 동북에 산재하고 있는 조선족 방언의 지역성:

이주역사의 시간과 경로가 부동함으로 하여 중국 동북에 산재하고 있는 조선족의 방언도 농후한 지방색채를 띠고 있다. 두만강 유역과 목단강을 비롯한 흑룡강성 동부지역은 비교적 일찍 이주해온 함경도사람들이 많아서 함경도방언지역을 이루고 있지만 압록강 연안과 심양 , 무순 등지는 주로 조선반도에서 일찍 이주해온 평안도 사람들로 하여 평안도 방언이 위주이다. 그리고 매하구를 시작으로 하여 심길선(吉线 , 심양-길림)과 교하를 포함한 길림지역, 그리고 서란에서 오상을 거쳐 하르빈과 수하 북안에 이르는 철로연선은 1930년도 이후에 이 지역을 경과하는 철도들이 신축됨에 따라 조선반도 경상도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온 결과 경상도방언이 위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이한 현상은 심길선과 사집선(사평-집안)의 교착점인 매하구와 그 린근의 현, 이를테면 류하나 반석일대는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동네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동네가 각각 따로 있어서 이른바 '방언섬'을 이루고 있다.

필자는 부모가 평안도 사람인데 필자가 살던 동네는 경상도 방언이 위주였다. 그래서 필자는 평안도 사람을 만나면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람을 만나면 경상도 사투리도 썼다. 사투리로 대화하면 별로 친근함이 표현될 수 있어서 좋았다.

필자가 문학창작에서 사투리로 지방색채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노력한 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가시나들 마음이란 상 들고 문지방 넘으면서도 열두 가지 생각칸다 캤는데 이 가시나 속에 정말 설 지난 무꾸(무우)처럼 무슨 바람이 들었지 않나? 우리 움매 눈이 안 보인다카니 딴 생각 묵고 이 야단 아니라? 진장, 고 개발코가 꼴값 하는가 싶다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라. 소가죽도 열심히 짓이기면 노글노글해진다더라. 오늘 내 불러내서 눈 찔끈 감고 통사정 좀 해봐야겠다. 얼라(애) 얼리듯 살살 얼려봐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말 들으면 아예… 태기 치고 도장 콱 찍어놔뿌리자. 떡 본 김에 지사(제사) 지내라는 말도 있는데 밭 보고 종자 안 박을 수야 없지러."[14)]

(2) 등장인물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이를테면 장편소설「역관집 두 형제」에서 무지하고 포악한 양모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쓴 평안도 사투리는 이러하다.

"백땅(백정)놈의 새끼. 거디(거지) 발싸개 같은 놈이 기여들어 밥술이나 얻어채우면 호강인 줄 알아야디 어디다 대답딜(질)이야, 대답딜을? 기카갔으면(그러겠으면) 이 딥(집)에서 날래(어서) 게나가라! 하루도 보기 싫다.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친가이(미친개) 범 물어간 거터럼 시원하갔다."

그렇게 악다구니를 지르며 삿대질을 할 때마다 욱 하고 치미는 성깔대로라면 이 로친네를 단매에 쳐죽이고 싶었다.

허나 나이는 자기와 동갑이지만 양모의 등살에 어리숙해져서인지 대꾸 한마디 못하고 양모한테 쥐여사는 덜 밉게 생긴 처가

"우리 오마니 성미가 그런데 어카갔어요? 내래 여북하면 평생 내내 버버리로 살아가갔어요? 아바디를 생각해서도 참읍시다."

그러면서 명호에게 매여달리는 것이 애처롭기도 해서 차마 그 집을 당장 뛰쳐나오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닥잖은 일로 큰 싸움이 일었다.

아침에 국사발을 들고 들어오던 안해가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허리를 급히 꼬부리는 바람에 더운 국이 마침 올방자를 틀고 앉았던 양모의 치마자락에 쏟아지였다. 그러니 이 로친네가 불에 덴 것처럼 펄쩍 뛰여일어나더니 구역질하는 수양딸의 끄뎅이를 잡아채며 볼따귀를 죽어라고 비틀었다.

"이 백땅(백정)년이, 굶어죽어가는 걸 데려다 키웠더니 이 에미를 튀해 죽일 닥덩(작정)이냐?"

"오마니, 구역질이 나서…"

안해가 이러니 양모는 입을 사려물고 안해의 끄뎅이를 또 마구 잡아챘다.

"이 년이, 어디다 대답딜이야, 대답딜!"

---

14) 리원길 중편소설「직녀야, 니나 내려다고!」,『도라지』2000.3. 격월간『도라지』는 경상도 사투리가 농후한 길림지역에서 발행하는 문학지임.

안해는 손을 뒤로 들어 양모의 손목을 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악마 같은 로친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 똥물에 튀해 죽일 년. 가이(개)도 은공을 안다는데, 죽일 년, 가이보다도 못한 년. 다 죽어가는 거 데려다 살려줬더니…"[15]

(3) 등장인물의 대화를 재미있게 한다

"나 몰라? 나 명호, 김명호."

"김명호? "

"이 문디(문둥이)야. 나도 몰라? 고즈까이, 모찌모찌!"

그제야 경철이는 상대방을 알아보고 헤벌쭉 웃으며 명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꾹 쥐였다.

"이게 얼마 만이냐? 언제 이렇게 컸니?"

"무라카노? 임마, 나 이젠 어른이다. 아재(아저씨)보고 조카가 거 무슨 말버르장머리노?"

"하하하…"

"내 담장 안에서부터 닌 줄 알았다. 시초는 몰랐지만 후에 어디서 본 사람 같다해서 꼼꼼히 보고서야 알아챘는데 말은 몬 하고…"

"말하지 왜? 안다고."

"이 문디야. 말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는데?"

"하하하…"[16]

대체로 장편소설 같은 큰 편폭의 작품에서 주인공의 대화는 가급적으로 사투리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쓴다. 그건 전편 작품을 놓고 볼 때 주인공의 대화가 많은 원인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지문들에서 지방색채나 인물의 개성이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서술되고 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요컨대 사투리는 주로 지문 외의 등장인물의 대화에서, 그 효용성에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17]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박옥남 작가도 리원길 작가와 거의 똑같은 이유로 작품 속에서 사투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내왔다.

어떤 취지로 문학작품에 방언을 사용하게 되였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라면 리원길선생님과 똑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지방색채를 살리고 2) 인물의 개성을 살리고 3) 친근감과 재미를 더하려는 의도에서요. 거칠고 촌스러워 뚝배기 같은 사투리, 그러나 그 사투리 속에는 사골탕같이 끓이면 끓일수록 감칠맛이 더 우러나는 사투리 자체의 진맛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 짙은 국물을 우려내서 독자들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것이 제가 작품 속에 사투리를 쫑당쫑당 썰어 넣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성격이 우락부락한 캐릭터에는 평안도 방언을, 무뚝뚝하고 순박한 인물에는 경상도 방언을, 감추지 않고 무엇이나 표현하길 좋아하는 밝은 성격의 캐릭터에는 함경도방언을 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넣은 소설은 표준어로 구사한 소설보다 진실성이 있어서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작품에 주로 넣었는가 하면 『송화강』에 발표한 「올케」, 『도라지』에 발표한 「썬딕이」, 『흑룡강신문』에 발표한 「우리동네」인 것 같습니다.[18]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기였던지는 시간이 오래되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방언용 수필을 쓴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도라지』에 낸 것 같구요. 제목은 「나와 사투리」로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필을 선생님께서 평해 주셨던 것만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수준미달로 이 이상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글쓰기에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요.[19]

---

15) 리원길 장편소설, 『역관집 두 형제』, 연변인민출판사, 2022년, 171-173쪽.
16) 동상서, 157쪽.
17) 2024년 5월 25일, 리원길 작가가 필자에게 보내온 편지.
18) 박옥남 단편소설집, 『장손』, 연변인민출판사, 2008.
19) 2024년 5월 27일, 박옥남 작가가 필자에게 보내온 편지.

3) 최홍일, 최국철의 경우

함경도 사투리를 의식적으로 작품 속에 도입하여 다양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한 작가로 최국철과 최홍일을 들 수 있다. 최국철은 "전통문화의 근간으로 광범히 사용되었던 방언군（群）이 사라지고 사어（死语）로 되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진건의『륙진방언연구』, 황대화의《1960년대 륙진방언 연구(자료편)》를 읽고 우리 민족 이주시기에 사용했던 방언들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의 민족문화생활상과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진실하게 구현하기 위해「간도전설」,「광복의 후예들」,「락화류수」,「산이 푸르러 청산이라 하더라」등 장편소설의 인물대화에서 륙진방언을 많이 사용하였다."[20] 이외에도 최국철은 륙진방언에 속하는 낱말들을 재미있게 풀이한「온쩌낙 엮끼 우룸쏘리가 재앤태니우」,「하부꺼」,「쑤깨꾸데」와 같은 잡문을 적잖게 발표했다. 여기서는 최홍일은 장편소설「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통해 두만강 연안 이주민들의 다양한 성격과 삶의 애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보기로 하자.

"성님, 심기 편찮아두 참아사 쓰는게라우. 그러다 병이라두 나문 어쩌자구 그러우."
"차라리 병이라두 콱 났으문 좋겠슴메. 이거야 어디 속이 휘딱 번져져서 살겠소."
"사람 사는게 원가 그런 벱이지 어찌 맨날 좋은날만 있겠수."
"속이 바글바글한데 며느리란 년은 빈둥거리며 노라리만 피우지. 내사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그 며느리 어째서? 그만하문 며느릴 잘 삼았지. 그런 무던한 며느리 등불 켜들구 다녀두 어디메 가서 찾는답데."
"그런 소리 하지두 마오. 새끼도 못 낳는 년이 살림할줄 아는가? 시어미 시발할줄 아는가?"[21]

이는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 농사꾼의 아낙네들인 강동댁과 솔골댁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억센 함경도 방언이다. 작품은 작중 인물들이 표준어가 아닌 함경도 방언으로 거침없이 말하게 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지역적 삶의 구체성을 드러냈다.

"무슨 일임둥?"
"이년아!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버려라!"
"어째 그럼 둥?"
"내 무슨 죄르 졌다구 이램둥? 어두운 밤에 홍두깨라더이 생트집 잡지 맙소. 혼자 사는 년이라구 업쉬보다가는 생벼락 맞습꼬마."
"네년 때문에 동네에 귀신이 붙었다. 알기나 하구 악새질이냐?"
"우껩은 소리 하지두 맙소. 내때메 동네에 귀신이 붙었다? 쇠 웃다 꾸레미 터질 소리꼬마."
"야, 이 간나야! 네년이 이 동네에 있는 날이문 망제혼이 떠나 안간다. 알아들었느냐?"
"생사람 잡지 맙소!"[22]

며느리 고분이가 애기를 낳다 죽은 것이 아들 팔룡이와 좋아하던 봉녀 때문이라는 무당의 말을 들은 솔골댁이 동네 아낙네들을 이끌고 가서 봉녀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장면이다. 솔골댁과 봉녀가 주고받는 욕설과 항변은 시종일관 짙은 함경도 사투리로 되어 있다. 표준어로 나타낼 수 없는 욕설의 효과를 함경도 사투리를 통하여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20) 2024년 6월 10일, 최국철 작가가 필자에게 보내온 편지.
21) 최홍일,『눈물 젖은 두만강』(하), 민족출판사, 1999. 516쪽.
22) 동상서, 하, 662-663쪽.

5. 결론

사람이 살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문학과 예술이 있기 마련이다. 봉건학정과 일제의 침탈을 피해 그야말로 '백의폭포'처럼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인들의 쪽 지게 우에는 『임진록』,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고서들이 있었고 조선인 이민들은 마을을 이루고 학교를 꾸렸으며 조선에서 온 기성 문인들의 도움으로 '북향회'와 같은 동인회를 꾸리고 신문과 잡지를 펴냈다. 해방 전후 조선인 이민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성립하였으며 북만지역에 있는 문인들까지 연변에 모여들어 연변작가협회를 설립하였다. 물론 '반우파투쟁'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족문학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지만 개혁과 개방 시기에 와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족문학은 재일동포문학이나 재미동포문학과 달리 기본상 조선어에 의한 창작이요, 한국문학과 조선문학과 함께 조선어문학의 3대 산맥을 이루었다. 광복 전에는 안수길과 같은 작가들이 그의 단편소설집 『북원』과 장편소설 「북향보」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였고 해방 후에는 김학철, 리원길, 최홍일, 최국철, 박옥남 등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에서 사투리를 적재적소에 구사하여 지역적, 향토적 색채를 가미하고 인물성격을 창조하고 작품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김학철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학적 수법으로 작품의 형상성을 높였다면 리원길은 평안도 사투리, 박옥남은 경상도 사투리, 최홍일과 최국철은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제 조선족소설을 비롯한 전반 조선족문학에 녹아든 토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金春善, 金哲洙,《中国朝鲜族通史》(上, 下), 延边人民出版社, 2013.

孙春日,《中国朝鲜族移民史》, 中国:中华书局, 2009.

최윤갑,《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차이에 대한 연구》, 중국:연변인민출판사 , 1994.

전학석,《조선어방언사》, 중국:연변대학출판사, 1997.

조성일, 권철,《중국조선족문학사》, 중국:연변인민출판사, 1990.

김호웅,《재만조선인문학연구》, 한국:국학자료원, 1997.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2(문학사)》, 중국:민족출판사, 2006.

오상순 등,《중국조선족문학사》, 중국:민족출판사, 2007.

전성호 등,《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중국:민족출판사, 2007.

김호웅,《재중조선인 디아스포라문학연구》, 중국:연변대학출판사, 2012.

김호웅, 조성일, 김관웅,《중국조선족문학통사》(상, 중, 하), 중국:연변인민출판사, 2012.

김호웅,《조선족문학과 아이덴티티》, 중국:역락출판, 2022.

최병우,《조선족소설사》, 푸른사상출판, 중국:2022.

김광수,「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한국:연세대학교 언어정보학회,《언어 사실과 관점》제59집, 2023.5, 35-62쪽.

Korean-Chinese Literature and Indigenous Languages

Jin huxiong
(Professor of Yanbian University, China)

Abstract :

The Korean-Chinese are an immigrant group who settled in China across the Tumen and Yalu Rivers to avoid the brutal politics of the feudal era, natural disasters, and Japanese invasion, and the immigrant group have enjoyed Korean literature such as folk songs, folk tales, and ancient stories since the early migration of the mid-19th century.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creation and acceptance process in several stages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Chinese, and then examines the novels of the novelists who worked until today after liberation, focusing on how they each use dialect in their works. Kim Hak-cheol consciously uses the Seoul dialect without using the Hamgyeongdo dialect or the Yanbian dialect as a basic idea, from his first novel "Say! Hai-Ran River" to the "Passionate Era" which was a conscious work to overcome the confusion of the language at hand in the soft and rich Seoul dialect, considering the mixed dialect and rustic situation of literature. His literary strength was the use of various rhetoric and humor overflowing in the previous installment. Then, Li Wen-gil and Park Ok-nam, who have consistently created novels and translated Chinese classics while teaching literature and rhetoric at the university, used the Pyeongan dialect and Gyeongsang dialect in the work in the right place with a firm belief that it could increase the local color of the work, the character's personality, and the aesthetic pleasure of the work. If so, Choi Hong-il and Choi Kook-cheol are from Yanbian, and they mainly use the Yukjin dialect or Hamgyeongdo dialect in the right place while novelizing the history of the Yanbian region to make use of the historical and regionality of the work. Now, it is at the stage of full-scale research on the indigenous languages incorporated into Korean-Chinese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including Korean-Chinese novels.

Key Words :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Chinese, Korean-Chinese Literature, Indigenous Languages, Kim Hak-cheol, Lee Won-gil, Choi Hong-il.

◆ 토론 4



윤 여 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 『한국 근현대시와 문학교육』 등

“중국 조선족문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토론문

윤 여 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긴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포럼의 취지에 맞게 중국 조선족문학에 사용된 토착어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선족문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웅 선생님께서는 발제문에서 중국에서의 조선족 이민사와 1945년 이후 조선족 문학사를 개괄하여 조선족문학의 폭과 깊이를 말씀하셨고, 이어서 대표적인 작가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김학철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학적 수법으로 작품의 형상성을 높였다면 리원길은 평안도 사투리, 박옥남은 경상도 사투리, 최홍일과 최국철은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하면서 토착어를 구사한 문학 작품의 가치를 강조해주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공식적인 언어(랑그, langue)와 비공식적인 언어(파롤, parole)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학 작품에 사용된 언어들은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담지(擔持)하고 있으며, 파롤은 다성성(多聲性)을 실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양국에서 오랫동안 규범화(規範化)한 랑그로서의 한국의 표준어와 중국 조선어, 문학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생존한 파롤로서의 연변 사투리와 중국 동북 삼성(三省)에 있는 조선족들의 지방 사투리가 경쟁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언어 자료들이 소멸될 위기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중국의 여러 도시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 살게 되면서,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사회뿐만 아니라 언어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조선어와 조선족문학을 보존하려는 중국 연구자들(문학, 언어학)의 노력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의 문학과 언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랑그, 파롤이라는 관계 외에도, 중국의 공식적인 랑그라고 할 수 있는 푸통화(普通話)로 대표되는 한어(漢語)와 전혀 다른 언어 체계와 사용역을 가진 비공식적인 파롤로서의 중국 조선어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언어는 중국 정부의 언어 정책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조선어는 이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이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두 언어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끝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김택영, 신정(신규식), 신채호와 같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중국에 망명해서 활동한 문인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나요? 이들을 포함해서 이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중요한 작가들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문학 연구에서 어떤 작가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문학에서는 김택영, 신채호 등은 논의하고 있지만, 김병민 선생님이 소개한 신규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서(頭緖)없는 토론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제 5



하 상 일

동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현) 동의대학교 교수

전) 『작가와사회』 편집주간, 『비평과전망』,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

· 1997년 『오늘의문예비평』으로 비평 활동

· 고석규비평문학상, 애지문학상, 설송문학상, 부산작가상, 심훈학술상 등 수상

· 평론집 『타락한 중심을 향한 반역』, 『주변인의 삶과 시』, 『전망과 성찰』, 『서정의 미래와 비평의 윤리』,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 『리얼리즘'들'의 혼란을 넘어서』 등

· 학술서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 전략』,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한국 근대문학과 동아시아적 시각』 등

· 인문 여행서 『상하이 노스탤지어』, 『문학관으로 가는 길에서 시를 읽다』

◆ 발제 5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과 언어 의식

하 상 일

동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1. 재일동포 문학과 이중언어 현실

최근 들어 재일동포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과 일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대상과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는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문제가 남북으로 이원화된 재일동포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일동포 문학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남한, 북한, 일본이라는 세 국가의 틈새를 가로지르는 재일동포 문학의 특수성을 보편적으로 개념화하고 규정하는 일은 현재까지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국적, 이념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정체성 혼란으로 재일동포 사회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재일동포 문학의 대상과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해방 이후 재일동포 문학 논의의 주요 쟁점은 언어, 민족, 국가에 토대를 둔 이데올로기와 작품의 관련성이었다. 즉 재일동포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재일'이라는 현실적 위치에서 비롯된 독자성과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말과 일본어, 남과 북, 민단과 총련 등으로 이원화된 재일동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주목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재일동포 문학을 내부의 주체적 시선으로 이해하지 않고 남과 북에 의해 규정된 외부의 시선으로 획일화한 데서 비롯된 편향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재일동포 문학에 대한 이해는 특정 언어와 세대 그리고 이념의 문제로 획일화하기 어려운 내부의 복잡성을 지니는데, 가장 쟁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말과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현실에 있다.

사실 재일동포 문학 연구는 일문학에서 소수자 문학 연구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다가 국문학 연구로 그 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일문학에서는 재일동포가 일본어로 창작한 문학으로 그 대상과 범주를 제한했다면, 국문학에서는 일본어 작품뿐만 아니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문인들이 창작한 우리말 작품까지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일문학의 경우 재일동포 가운데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등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식민과 분단 문제에 천착하여 한반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일본어 문학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재일동포 문학의 주류적 경향에 기댄 것으로, 일본 내에서 창작되고 있는 재일동포 문학의 전체적 실상과는 거리

가 있는 편협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1)]

해방 이후 재일동포에게 언어의 문제는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 해방 이전에는 일본어 사용이 일제의 강압에 의한 타율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태도로 낙인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우리 민족에게 일본어 사용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우리 민족 구성원들 상당수가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했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당시 재일동포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는데, 해방된 조국이 아닌 일본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일본어의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당위적인 선택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재일동포로 살아가면서 터득한 생활 언어인 일본어를 송두리째 버리고 조국의 언어라는 민족적 당위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일동포 대부분은 일본어와 우리말의 이중언어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러한 언어의 혼란과 모순은 해방 이후 재일동포 문학의 형성 과정에도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일동포 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우리말로 글을 쓰는, 그래서 일문학의 평가로부터 사실상 소외된 〈총련〉계 작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일동포 문학 연구에서 일본어로 된 문학이 주류이고 우리말로 된 문학은 비주류라는 관점이나 일본어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높지만 우리말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재일동포 문학의 실상을 주체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말 쓰기만을 고집하는 〈총련〉의 입장 역시 민족과 국가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재일동포의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활동과 위상을 제약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재일의 주체적 시각을 정립하려는 재일동포 문학의 미래조차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한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일동포 문학은 특정한 언어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재일'의 실존성에 뿌리내린 새로운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 일본어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첨예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일본어와 우리말로 동시에 창작되고 있는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논의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모어(母語:생활어로 굳어진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민족어로 학습된 우리말) 사이의 모순을 뛰어넘는 '재일'의 독자성과 주체성으로 재일동포 문학의 대상과 범주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모어와 모국어 그리고 번역된 언어

재일동포 2세인 서경식은 자신에게 모어는 일본어이고 조선어는 모국어라고 했다. 이때 모어(mother tongue)와 모국어(national language)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모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 익혀 무자각인 채로 자신에게 체화된 언어로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모체가 되는 근원적인 언어이다. 재일동포 가운데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태어난 1세대들에게 모어는 조선어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학교 등을 통해 조선어를 학습한 2세대 이후에게 조선어는 모국어일 수는 있지만 모어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서경식은 조선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모국어로서의 조선어를 사용하는 자신에게 조선어는 비모어(non-mother tongue)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어로서의 일본어가 재일동포에게는 모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2)]

이처럼 재일동포 사회의 언어 양상은 세대에 따라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된 경우와 모어와 모국어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해방 이전 조선에서 태어나 식민지 시대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한 재일 1세대에 해당하고, 후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에도 줄곧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 2세대 이후의 경우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어가 아닌 일본

1) 손혜원은 재일조선인 문학사 서술과 결부 지어 이러한 현실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재일조선인 문학을 일본 문학의 특수한 장르나 아종으로 보고 일본어로 쓰인 작품군에 한정해서 논의했다는 점, 둘째, 일본어 작품 편중이 빚어낸 조선어 작품에 대한 무관심과 묵살, 셋째, 일본에서 간행된 재일조선인 문학 단행본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일본 매체에 게재되는 작품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작품에 접근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명출판, 2019, 16~18쪽 참조.

어 교육을 받아 사실상 조선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방 전후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로 세분화할 수 있다. 모어와 모국어는 제1언어(first Language)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습득하여 익힌 언어를 뜻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어와 모국어는 의미의 변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어와 모국어는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모국어라는 표현은 언어와 국가의 동일성을 강조하거나 언어의 사용이 국가 혹은 민족적 정체성과 결부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어와 모국어는 일치되는 경우보다는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일동포 문학에서 언어의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종주국 일본에 정착한 재일동포에게 모국어로서의 조선어 사용은 지배언어로서의 일본어에 대한 대항 언어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소수 언어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드러낸다. 지배언어에 대하여 소수 언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동화, 공존, 저항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공존의 양상을 소극적/적극적 차이로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지배언어에 동화하는 경우, 둘째, 지배언어를 거부하고 민족어를 통해 저항하는 경우, 셋째, 지배언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소극적인 경우, 넷째, 소수 언어와 지배언어를 공용어로 함께 쓰는 적극적인 경우가 있다.[3] 재일동포 문학에서 언어의 사용은 앞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차례로 동화, 저항, 공존의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특수한 상황으로 번역어로서의 재일동포 문학의 양상이 있는데, 해방 이전 일본어로 창작한 작품을 해방 이후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 반대로 해방 이전 조선어로 창작한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재출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는 공존의 언어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일동포 사회의 언어 문제가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재일동포 문학의 언어 양상에서 동화의 성격을 드러낸 경우는 아주 세심하게 그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표층적으로는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본에 종속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그 실상은 생활 언어인 일본어에 익숙하거나 혹은 일본어가 모어인 2세대 이후의 경우로 우리말 창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는 1955년 〈총련〉 결성 이후 북한의 창작 방침에 따라 조선어 사용이 강제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1959년 〈문예동〉의 창작 방침인 일본어 쓰기 금지와 우리말 쓰기의 공식화에 대한 반발로 〈총련〉을 탈퇴한 재일동포 문인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일본어 사용을 동화의 측면으로 규정하고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작가 의식의 토대와 작품의 주제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이들의 언어 의식은 '재일'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의 정치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문학적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층적인 차원에서 '공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 또한 일본어 사용의 불가피성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의식적으로 일본어를 통해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의 언어 의식이 내재된 재일동포 문학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재일동포 문학을 논의할 때 국문학, 일문학 양쪽 모두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거론하는 김석범, 김시종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대표적 양상이다.

재일동포 문학에서 '저항'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은 해방 전후 일본어 사용에서 조선어로 창작 언어를 적극적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물론 '저항'의 문제를 단순히 언어의 차원으로만 국한하여 우리말 사용 그 자체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김석범, 김시종의 경우처럼 일본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양상은 '저항'을 드러낸 경우가 있으므로, 언어라는 외적 근거만으로 저항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재일동포 문학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표층적 언어 차원으로만 환원하여 검토하게 되면 다소 형식적인 오류를 감수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대체로 이러한 입장으로 우리말 창작의 중요성을 절대화한 경우는 〈총련〉계 문인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민족적 주체를 지키려 〈총련〉이 결성된 후 비로소 우리 작가도 일본어문학이 아니라 모국어문학 창조에 나서야 한다는 자각을 가슴 깊이 가다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재일조선문학, 그 본질적 특징은 첫째로 일제 식민지 시기 빼앗긴 우리말을 도로 찾고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과 민족의 숨결로 살려는, 즉 재일동포들의 '자기회복'의 문학"[4]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의식을 가장 선두에서 실천한 문인으로 허남기

---

2) 서경식, 『모어와 모국어의 상극』, 『황해문화』 2007년 겨울호, 12쪽 참조.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미우라 노부타카,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언어 지배』,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21~26쪽 참조.

4) 김학렬, 「시지 『종소리』가 나오기까지 - 재일조선시문학이 지향하는 것」, 김응교 편, 『치마저고리』, 화남, 2008, 219~220쪽.

가 있는데, 해방 이전 일본어 창작으로 재일동포 문학의 첫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가 1959년 〈문예동〉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말 창작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재일동포 문학에 나타난 언어 의식은 크게 '공존'과 '저항'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모어와 모국어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에는 대체로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모어와 모국어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에는 대체로 재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말과 일본어의 공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식적 구분은 재일동포 문학의 복잡한 양상과 첨예한 차이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재일동포 문학의 언어 양상은 복잡하고 중층적이어서 그 실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다만 해방 이전 조선어를 사용했든 일본어를 사용했든 간에 현재 일본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공존을 지향한다면, 저항의 경우는 그 반대로 해방 이전 어떤 언어를 사용했든 간에 현재는 우리말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이러한 구분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남한어와 북한어로 구분된다는 데서 같은 우리말의 양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그 세부적 언어 양상은 더욱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계열화하고 의미화하는 언어학적 논의에 앞서 우선 그 양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각각의 문학적 입장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재일동포 문학의 언어적 양상 : 저항과 공존

3.1. 저항 : 모국어의 회복과 주체적 지향

해방 이후 재일동포 사회에서 조선어와 일본어는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재일조선인연맹(조련)〉 기관지 『조련문화』가 조선어로 발간되었다면 김달수가 주도해 창간한 『민주조선』은 일본어로 발간된 잡지였다. 당시 〈조련〉 문화부에서 조선어 강습과 교재 편찬을 담당했던 임광철은, "조선사람으로서의 원고 내용이라면 일본어로서 적합한 표현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문장에 있어서 구태여 조선어를 주장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조선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 재일동포 사회에서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언어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를 선택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5] 반면 『민주조선』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김달수는 일본인에게 조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본 내의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읽힐 수 있는 잡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어 글쓰기를 주장했다. 즉 제국주의 해체와 국민국가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과되는 민족적 동질성에 얽매이기보다는 타자의 언어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소통해야 하는 재일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어 글쓰기라는 당위적인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어 글쓰기가 이미 수적으로 앞섰던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49년 〈조선문예사〉에서 발간한 『재일조선문화연감』에 따르면 해방 후 3년간의 재일동포 문학은 '조선어 문학'과 '일본어 문학'으로 양분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어 창작을 조선 문학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조선 문학의 전통을 지키고 조선 민족 문학의 재건에 힘쓰는 정통 문학운동으로 조선어 문학의 의의와 방향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해방신문』을 제외한 재일동포 사회의 매체 대부분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방된 조선의 공론장에서 제기된 일본어의 추방과 조선어의 귀환이라는 언어 회복 문제가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국어의 사용을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6] 이처럼 해방 이후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국어의 사용은 탈식민적 시각에서 일본어에 대항하는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우리말 사용을 공식화한 것으로, 일본 사회로의 동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저항'의 요소를 본질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었다.

---

5) 임광철, 『예술과 인민 대중 - 문화부 활동 보고에 대하여』, 『조련문화』1, 1946. 4. 58쪽.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 소명출판, 2021, 65~72쪽 참조.

'저항'의 관점에서 재일동포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남북 분단에 따른 재일동포 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시기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어로 창작 활동을 했던 재일동포 문인들이 해방 이후 우리말 창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른 〈총련〉의 창작 강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총련〉은 강령 4항에서 "우리는 재일동포 자제들에게 모국어와 글로써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성인들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노예사상과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7]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문학 창작의 방향을 설정한 〈총련〉은 일본어 창작을 버리고 우리말 창작을 공식적인 방향으로 결정했고, 이를 수행하는 단체로 〈문예동〉을 결성했는데 초대위원장이 허남기[8]였다.

허남기는 김달수, 이은직, 강순과 함께 해방 전후 재일동포 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이다. 해방 이전 그가 발표한 일본어 시는 재일동포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거론될 만큼 일문학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대표작으로는 1946년 착수하여 1949년 봄에 마무리한 기행체 형식의 장시 「조선 겨울 이야기」가 있다. 이 작품은 『민주조선』에 일본어로 연재되었는데, 「경주」, 「부산」, 「대구」, 「부여」, 「광주」, 「목포항」, 「태백산맥」, 「서울」 등 남한 사회의 백과전서를 엮겠다는 야심 찬 기획을 담은 작품이다. 이 시를 쓸 당시만 해도 허남기를 비롯한 재일동포 문인들이 분단 이데올로기의 구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므로, 비록 일본어로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일동포의 주체적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었다. 즉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신식민주의적 상태에 놓여 있는 조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재일동포 문단은 〈조련〉 산하 〈재일본조선인문학회〉가 주도했는데,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봉건주의 잔재의 소탕, 국수주의의 배격, 조선문학과 국제문학과의 제휴, 문학의 대중화 등 다섯 가지 강령을 내세웠다.[9] 이는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을 '문학의 대중화'로 바꾸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통한 민족문학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허남기의 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친일 봉건 타파를 통한 진정한 민족해방을 실현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총련〉, 〈문예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북한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념적 목적문학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다만 일본어에서 우리말로 창작 언어를 변경한 그의 태도는 모국어의 회복을 통한 재일동포 문학의 주체적 지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해방 전후 발표한 그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족주의적 성격을 언어적 실천의 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교사는 아직 초라하고/ 교실은 단 하나뿐이고/ 책상은/ 너희들이 마음놓고 기대노라면/ 삑하고 곧이라도 찌그러질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중략)// 그리고 비 오는 날엔 비가/ 눈내리는 날엔 눈이/ 또 1948년 춘삼월엔/ 때아닌 모진 바람이/ 이 창을 들쳐/ 너희들의 책을 적시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공부까지 못하게 하려 들고/ 그리고 두루 살펴보면/ 백이 백가지 무엇 하나/ 눈물 자아내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 학교로구나// 허나/ 아이들아/ 너희들은/ 니혼노 각고요요리 이이레스 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 우리도 앞으로/ 일본학교보다 몇 배나 더 큰 집 지을 수 있잖느냐고/ 되려/ 이 눈물 많은 선생을 달래고/ 그리고/ 또 오늘도 가방메고/ 씩씩하게 이 학교를 찾아오는구나//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비록 교사는 빈약하고 작고/ 큼직한 미끄럼타기 하나 그네 하나/ 달지 못해서/ 너희들 놀곳도 없는/ 구차한 학교지마는/ 아이들아/ 이것이 단 하나/ 조국 떠난 수만리 이역에서/ 나서자란 너희들에게/ 다시 조국을 배우게 하는/ 단 하나의 우리 학교다/ 아아/ 우리 어린 동지들아
>
> –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10] 중에서

---

7)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호, 78쪽.

8) 부산 구포에서 태어나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 예술과에 입학해 조선연극단체 '형상좌(形象座)'에서 희곡을 쓰고 연극 공연도 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러나 조선어로 연극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극단도 해산되어, 다음 해 중앙대학 법학부로 학적을 옮겨 1942년 9월에 졸업하였다. 1945년에 〈재일조선인연맹〉 문화부에서 조선어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고, 가와구찌[川口] 조선소학교 교장(1946), 〈재일조선인연맹〉 중앙 문화부 부부장(1948), 『민주조선』 편집장(1949), 〈재일조선인문학회〉 위원장(1957), 〈문예동〉 위원장(1959)을 역임했다. 일본어 시집 『朝鮮冬物語』(朝日書房, 1949) 『日本時事詩集』(朝日書房, 1950), 『화승총의 노래』(朝日書房, 1949), 『허남기 시집』(東京書林, 1955), 『조선 해협』(國文社, 1959) 등을 출간했고,우리말 시집으로 『조국을 향하여』(조선작가동맹, 1962), 『돌에 깃든 이야기』(문예동, 1967), 『낙동강』(문예동 중앙, 1978), 『조국의 하늘 우러러』(평양문예출판사, 1980) 등을 펴냈으며, 유고 시선집으로 『조국에 바치어』(평양출판사, 1992)가 있다.

9) 서용철, 『조선민족문학의 전개』, 『조선문예』 창간호, 1947년 10월, 7~8쪽.

10) 허남기, 『조국에 바치여』, 평양출판사, 1992, 204~206쪽.

허남기가 해방 이후 재일동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 것은 바로 민족교육 운동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국어의 회복을 지향한 그의 시 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어강습회를 시작으로 조선학교를 세우는 등 재일동포 사회의 민족교육에 관한 노력이 1949년 10월 '조선학교폐쇄령'으로 탄압받는 현실에서 가와구치 조선소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이에 맞서는 시를 발표하여 민족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본의 차별에 저항하고자 했다. 인용시는 1948년 작품으로 일본의 차별적 태도에 전혀 굴하지 않고 "서투른 조선말로/ – 우리도 앞으로/ 일본학교보다 몇 배나 더 큰 집 지을 수 있잖느냐고" 말하는 재일동포 학생의 모습을 형상화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3세에게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일본 사회에서 주체적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총련〉의 노선에 입각한 〈문예동〉의 창작 방향은 식민지 시기에 빼앗긴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찾아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것, 식민지 노예 상태를 거절하고 일본의 동화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통일문학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11]에 있었다. 이후 〈총련〉은 『문학예술』, 『겨레문학』, 『종소리』 등 우리말 매체를 발간하여 이러한 〈문예동〉의 이념과 방향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는데, 이들 매체를 통해 발표된 재일동포 문학은 북한의 문예이론에 경도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정신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접어들어 발간한 시 전문지 『종소리』는 재일동포의 민족정신 고취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언어, 민속, 풍물, 노래, 놀이 등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는데, 고향 마을의 꽃들과 풀 그리고 토속적인 음식들, 지역의 특산물 등을 주요 제재로 민족공동체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상한 작품을 두드러지게 발표했다.[12] 『종소리』에 시를 발표한 시인 가운데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 대표적 문인으로 정화수[13], 정화흠, 김학렬 등이 있다.

> 쑥은 쑥국이요/ 냉이는 냉이찌개/ 안해가 량팔 걷고/ 솜씨를 부릴 때/ 나는 전화 걸며/ 이웃들을 부른다오// 해마다 봄이 오면/ 강가에 가서/ 안해와 더불어 캐오는/ 고향향기 맛보자고// 야들야들 쑥들이/ 키돋움하며 기다린다오/ 오복소복 냉이들이/ 무더기지어 기다린다오// 캐고 또 캐면/ 무거운 짐이지만/ 고향산천 다/ 걸머지고 온다오/ 저녁 무렵 한가득 둘러앉으면/ 맥주요 막걸리요/ 이야기도 푸짐해서/ 가슴속도 한가득// 언제나 묻네/ 고향에서 이런 맛볼 때는/ 그 언제인가
>
> – 정화수, 「쑥은 쑥국이요」[14] 전문

"해마다 봄이 오면/ 강가에 가서/ 안해와 더불어 캐오는" "쑥"과 "냉이"를 소재로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려보고자 하는 재일동포의 소망을 담은 작품이다. 이를 두고 소박한 바람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이 재일동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은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을 애절하게 담은 것이어서 일종의 의식(儀式)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향의 정겨운 음식을 제재로 재일동포의 일상생활 깊숙이 내면화된 민족 정서를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려는 재일동포의 내면을 실감 있게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쑥국"과 "냉이찌개"를 함께 먹으면서 "고향에서 이런 맛볼 때는/ 그 언제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재일동포의 모습에서, 이념과 분단의 경계와 모순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모색하려는 내적 저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11) 김학렬, 『재일조선문학이란?』, 『종소리』 23호, 2005년 여름, 58~62쪽 참조.

12) 이에 대해 북한의 비평가 류만은 "민속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에서 노래하는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류만,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종소리』 – 시잡지 『종소리』를 읽고」, 『종소리』 27호, 2006년 여름, 50쪽.

13) 정화수는 1935년 부산 기장 출생으로 조선대학교 어문학부 노문과를 졸업했고, 도쿄 조선학교 교원을 하다가 1961년부터 1983년까지 〈조선신보사〉 기자, 부국장을 지냈으며, 〈문예동〉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0년 결성된 〈종소리시인회〉의 대표를 맡아 시 전문지 『종소리』의 발행과 편집을 책임졌다. 시집으로 북한에서 출간된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문예출판사, 1980)가 있다. 생전에 『종소리』에 수록된 시를 모아서 고향에서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09년 12월 동경에서 타계했는데, 2010년 8월 부산의 '삼아'라는 출판사에서 두 번째 시집 『쑥은 쑥국이요』가 출간되었다.

14) 〈종소리〉 대표시선집 출간위원회, 『치마저고리』, 화남, 2008, 186~187쪽.

〈총련〉 소속이거나 탈퇴한 문인이 아님에도 모국어로 시를 쓰는 특이한 이력의 시인으로 김윤[15]이 있다. 재일동포 문학에서 김윤의 시는 상당히 예외적인 위치에 있는데,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말에 능통했고 대학 재학 시절 문학 동인 활동을 통해 우리말 창작에 능숙했다. 따라서 당시 김윤은 재일동포 대부분이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어 창작을 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고, 〈총련〉 소속이 아닌 〈민단〉 소속이었으므로 조직적 강령에 입각한 우리말 글쓰기라는 이념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결국 그의 우리말 문학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상력의 실현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 몇 번이나/ 불러보았는지/ 허나 무슨 고함을 친들/ 소용은 없었다.// 어미 잃은/ 송아지떼 무리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텅빈 벌판을/ 와글와글 법석이는/ 이상한 異域// 언제까지/ 그럴것이라는 것도/ 알 수는 있었으나// 여기는 고향이/ 멀리 보이는/ 곳// 거기가 그리워/ 용써보는 수도/ 이제는 지쳐// 반겨줄/ 고향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만 같고// 어머니의 목소리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가늘게나마/ 하늘에서/ 메아리친다.
>
> –「어머니의 목소리」[16] 전문

김윤의 시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아낸 서정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어미 잃은/ 송아지떼 무리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텅빈 벌판을/ 와글와글 법석이는/ 이상한 異域”으로 묘사된 재일동포의 현실이, “이제는 지쳐// 반겨줄/ 고향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만 같”은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선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남북 분단의 대리전처럼 〈민단〉과 〈총련〉으로 이원화된 재일동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공통의 기억에 의지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자 했다. 그의 시에서 ‘어머니’를 초점화한 내용이 두드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재일동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대상인 ‘어머니’로 표상된 고향의 모습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하고자 했던 것이다.[17]

3.2. 공존 : 일본어로 번역된 모국어와 일본어에 저항하는 일본어

재일동포 문학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작가가 드물 정도로 재일동포 문인 상당수가 해방 직후부터 우리말에 서툰 재일동포와 일본 지식인들에게 우리 문학을 알리는 방편으로 번역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창간된 『민주조선』에서 허남기와 이은직이 김태준, 김기림, 임화 등 조선문학가동맹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조기천의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전쟁문학과 빨치산 문학을 주로 번역했는데, 대체로 우리말을 읽지 못하는 재일동포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이러한 번역에 참가한 작가들은 대부분 〈총련〉 소속으로 안우식, 이은직, 김석범 등 당시 〈문예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처럼 조선어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한 재일동포 작가는 해방 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1세대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일본으로 건너

---

15) 김윤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성장하면서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전쟁 중에 부산에 모여 있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신작품』의 동인으로 활동했고,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明治)대학 농학부를 졸업했으며, 민단 중앙본부 선전국장 및 기관지 『한국신문』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대문학』의 일본지사장을 맡기도 했다. 시집으로는 『멍든 계절』(현대문학사, 1968)과 『바람과 구름과 태양』(현대문학사, 1971)이 있다.

16) 김윤, 『멍든 계절』, 현대문학사, 1968, 52~53쪽.

17) 이러한 의식은 그가 국내 문예지에 발표한 수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맑은 하늘이 유달스리 가까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故鄕이 가까이로 밀려오는 듯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유달스리 고향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은 다만 고향이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뜻에서의 감동에서도 그렇거니와 거리적인 면에서 느끼는 고향의 그리움을 나는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퍽으나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게 느껴질 때의 고향, 또는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느껴질 때의 고향, 이런 것을 나는 나대로의 異國 생활에서 분간해 낸 셈이 된 것 같다. 누구나가 다 가졌고貧富貴賤의 구별없이 만사람 어디에 있던들 지닐 수 있는 것은 고향이다. 나도 그렇거니와 日本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고향이라는 그립고도 아쉬운 짐을 지쳐 피로한 生活이라는 바랑에 담아 메고 나날을 치러내고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 소위 재일동포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슬프면 슬픈 대로, 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고향이라는 무거운 짐을 풀지 못하는 슬픔과 분함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一世들은 고향이란 자기의 뼈를 묻어야 할 뫼터라는 절실감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이다.” 김윤, 『한 노인의 죽음과 故鄕』, 『현대문학』, 1968년 9월, 274~275쪽.

온 2세대가 일부 포함되었는데, 번역을 통해 모국어와 일본어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데서 재일동포 문학의 특이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의 번역은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 고취를 위한 학습과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는데, 조선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존'의 언어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재일동포 문인 가운데 자신의 조선어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한 대표적 시인으로 강순[18]이 있다.

강순은 1930년대부터 조선어로 시를 쓰다가 1960년대 후반 〈총련〉을 이탈한 이후에는 일본어로 시를 쓰거나 자신의 조선어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출간한 시집이 『날나리』(思潮社, 1970)인데, 이전에 조선어로 썼던 56편을 '자역(自譯)'한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아직도 충분히는 자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내 작품의 일본어역을 읽고 싶다는 강한 요망에 밀려 나는 감히 수치를 누르고 이러한 시집을 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후기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조선어로도 시를 쓰고 있었지만 자신의 작품이 재일동포에게 읽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요 독자층에 대한 고민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재일동포 문학에서 모국어와 일본어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중언어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재일동포 문학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1)

날나리의 리듬은/ 한여름의 강변에서/ 그이가 심어 주신 나의 랑만!// 물에 낚시를 잠근 후/ 해수병앓이 할아버지는 그때/ 날나리를 물고 구슬펐다/ 기침 소리가 싫다는 녀편네의 괄시가/ 집나간 큰아들이/ 먹고 입는 것이 온통으로/ 그리고 날나리가// 절반이 콩인 주먹밥을 들고 나시던/ 철부지 손자 새끼는/ 흑흑 그의 가락이 넘을 지음하여/ 성을 쌓은 머흘 구름에/ 한가한 채색을 아로새기고…….// 그 때의 강변의 백양나무가/ 지금쯤 얼마나 죽고/ 또 얼마가 남아 섰을가!

–「날나리」[19] 전문

2)

날나리의 리듬은/ 백양나무 가로수 아름답던 강변에서/ 한여름 오후 할아버지가/ 그의 첫손자에게 심어준 뜨거운 집념// 섬에 열흘 만에 오는 장날에 할아버지는/ 시장 길가의 언제나 그 돌 우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다/ 할아버지가 심심해 토방에서/ 낚싯대를 꺼내시면 철부지 손자새끼는/ 어머니께서 주신 절반이 콩인 주먹밥을 들고 나섰다/ 그래서 그 뒤를 따랐다// 물에 잠근 낚시가 움직거리지 않으면/ 손자새끼는 돌멩이를 주어 그 언저리에 던졌다/ 그래도 해수병앓이 할아버지는/ 그리 성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품에서 들추어낸/ 날나리를 물고 구슬펐다// 날나리의 음색은/ 노상 슬픔에 겨웠다/ 매미소리 속 구슬픈 울림이 흐르던/ 손자새끼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머리를 얹어/ 새푸른 하늘가에 성을 쌓은 구름에/ 한가한 채색을 아로새기고 싶었지……// 그때 벌써/ 나라는 타국의 손에 앗겼었다/ 고구(故舊)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가슴속은 모진 바람이 불어제꼈다/ 밤새도록 기침에 시달려도/ 곤한 할머니의 잠은 쉬이 깨여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일어서/ 뒤따르는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설령(雪嶺) 너머 사라진 큰아들 남겨간 편지를 되풀이 읽으셨다/ 전설(傳說)에 차고 의병(義兵)으로 알린/ 내 고향 강변의 백양나무가/ 지금쯤 얼마나 죽고/ 또 얼마나 남아 섰을가

–「号笛」[20] 전문

---

18) 강순의 본명은 강면성(姜冕星)으로,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서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1937년 와세다대학 불문과에 입학했고, 해방 이후 교사생활을 하다가 〈조선신보사〉 기자로 활동했다. 1964년 〈조선신보사〉에서 『강순시집』을 내놓고서는 총련 내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좌경적인 비판사업에 반발하여 〈조선신보사〉를 퇴직하고, 이후 어떤 단체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재일조선인들의 실존을 구체화하는 창작 활동과 김지하, 양성우, 신경림, 김수영, 신동엽, 조태일, 이성부 등 남한의 진보적 시인들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 소개하는 데 남은 생을 다 바쳤다. 그가 낸 시집으로는 한글 시집으로 『조선부락』(1953), 『불씨』(등사판, 1956), 허남기, 남시우와 함께 펴낸 3인 공동시집 『조국에 드리는 노래』(북한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강순시집』(일본 : 강순시집발간회 편, 조선신보사, 1964), 『강바람』(일본 : 강순국문시집간행위원회, 梨花書房, 1984), 일본어 시집 『날나리(なるなり)』(일본 : 思潮社, 1970), 『斷章』(일본 : 書舍かいおん, 1986) 등이 있다.

19) 강순, 『강순 시집』, 조선신보사, 1964, 292~293쪽.

20) 강순, 『날나리』, 思潮社, 1970, 17~19쪽. 본고는 김학렬의 번역에 따름.

1)은 강순이 우리말로 발표한 원래 시이고 2)는 이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어 시집에 수록한 작품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1)에 비해 2)는 훨씬 구체적인 서사를 담아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주제와 정서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적 구조로의 개작과 일본어 번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말에 서툰 재일동포를 주요 독자층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민족정체성의 심화와 조국에 대한 근원적 향수가 재일동포 문학이 지향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방향임을 분명하게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용시는 해방 이전 조국의 어느 강변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살았던 한 어린 소년을 화자로 설정하여 기침병을 앓던 할아버지가 힘겹게 부르던 날라리 리듬을 떠올려 유년의 기억 속 고향 마을의 정경을 추억하는 시이다. 날라리는 태평소라 불리던 우리의 전통 민속 악기로 음색이 아주 거칠고 높아서 대취타나 농악 등에서 주로 연주되었는데, 특히 서민들이 즐겼던 남사당놀이의 주요 악기로 풍물굿에서 사용되었다. 화자는 크고 거친 날라리 리듬을 들으며 구슬픈 감정에 젖게 되는데, 이 리듬 안에는 "기침 소리가 싫다는 녀편네"와 "집나간 큰아들"과 "철부지 손자새끼"의 이야기가 서사화되어 있다. 이는 재일동포가 걸어온 삶의 애환을 날라리라는 악기의 구슬픈 음색에 담은 것으로, 재일동포의 삶에 내재된 우리 민족공동체의 보편적 이야기가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순은 『강바람』에 수록된 자신의 시를 번역하여 일본어 시집 『단장』으로 출간했는데,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서는 재일동포에게조차 닿을 수 없는 재일동포 모국어 문학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었다. 강순의 시는 조선의 정경과 말 그리고 리듬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지극히 '조선어적'인 성격이 뚜렷했다. 구어와 방언이 섞여 있는 듯한 그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은 시인 스스로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힘겨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인용시 1)에서 2)로의 변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에 담긴 조선의 정서를 2)와 같이 구체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도무지 그 세계에 다가가기 힘든 재일동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 아닐까 짐작된다. 1)의 원형을 크게 벗어나 2)와 같은 개작을 거쳐서라도 민족의 전통과 그 속에 담긴 우리 동포의 정서를 자세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의 시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역(自譯)'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강순은 "(조선어로) 쓰는 이가 드물고 씀에 있어서 그 달라붙는 기박(氣迫)이 희미하여 하나의 기세(氣勢)를 이룰 수 없었고, 짓는 이나 보는 이의 힘이 모자란다는 일어만능(日語萬能)의 환경설(環境說)에 휩쓸려 풍화(風化)가 더욱 급진될 것 같다."[21]라는 재일동포의 언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조선어로 시를 쓰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두 가지 언어의 공존을 실천하며 살았던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순과 같이 조선어와 일본어의 공존을 살아간 재일동포 소설가로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일동포 작품으로 알려진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22]이 있다. 그는 1968년 〈총련〉 탈퇴 이후 조선어로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 이전 그가 사용했던 언어인 일본어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동포로서 일본어로 조선이라는 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언어의 개별적 측면이 아닌 보편적 측면에 기대어 민족적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 "문학의 번역을 가능케 하는 언어의 기능"[23]에 주목했다. 즉 일본어냐 조선어냐와 같은 이항대립을 넘어서기 위해 일본어라는 개별적인 언어를 해체하고 분해하여 그 조각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는, 그래서 일본어가 지닌 개별성을 보편성의 차원으로 변형시키는 번역어로서의 일본어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재일동포의 조선어가 사실상 "일본어적인 조선어"라는 미숙함과 부정확함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어적인 일본어'[24]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어의 개별성을 넘어선 보편적인 언어 의식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김석범의 글쓰기는 민족과 모국어라는 가장 본질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재일동포 작가로서 일본어로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 즉 모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충돌하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해명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21) 강순, 「詩集을 엮어놓고」, 『강바람』, 梨花書房, 1984, 317쪽.

22) 김석범은 1925년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교토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박통(朴桶)이라는 이름으로 「1939년 무렵의 일지에서」를 시작으로 제주 4·3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했다.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었던 『만덕유령기담』을 비롯해 『까마귀의 죽음』(1957),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연재한 대하소설 『화산도』(1996)와, 평론집 『입 있는 자는 말하라』(1975), 『민족·언어·문학』(1976), 『「재일」의 사상』 등이 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재일동포 작가로, 2015년 제주4·3평화상, 2017년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수상했다.

23) 송혜원, 앞의 책, 413쪽.

24) 김석범, 「언어와 자유 - 일본어로 쓴다는 것」, 오은영 옮김, 『언어의 굴레』, 보고사, 2022, 66쪽.

조선어가 모국어라면 일본어는 당연히 외국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본어가 분명히 외국어이기는 하나 그 언어감각 때문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모순이 생겨난다. 적어도 외국어인 이상 자신 속에 모국어의 존재감각, 주체감각을 가지고 그 외국어를 외국어로서 객관시하는 장(場)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모국어인 조선어는 분명히 전체 조선 민족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그 민족 구성원인 재일조선인 대부분에게는 일본어가 가득 차 있어 그럴 만한 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래서는 감각적으로 일본어가 '외국어'일 수가 없다는 정말로 기묘한, 심정적으로 말하면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중략)

재일조선인 일본어 작가는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어로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일본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재일조선인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일 무의식적이라면 그 의식되지 않았던 모순은, 결국 스스로 의식화의 방향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가 일본어로 '창작'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작가의 경우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는 같은 말이 가지는 약속하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개성의 차이라든지 방법이나 수법의 차이 등의, 작가 개별성의 범주를 넘은 무언가의 차이라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말해 재일조선인 작가의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 것의 차이라고 해도 좋다. 또한 일본어로 쓴 이상 그 말이 가지는 메커니즘의 지배하에, 조선인으로서의 존재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인이라는 자기 확인에 의한 것만이 그 작품이 성립하는 근거가 아닌가라는 것이기도 하다.[25]

김석범은 〈총련〉 조직 내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말로 소설을 발표했었다.[26] 1960년 오사카 조선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그의 이력과도 겹치는 시기인데, 실제로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경험이 우리말 창작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때의 우리말 창작이 〈총련〉의 지도 노선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그가 발표한 작품은 귀국 문제의 형상화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재일의 현실에 대한 고발 등 당시 〈문예동〉의 창작 방침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김석범의 우리말 창작은 이념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에 근거한 점이 두드러져 그의 문학의 본령으로 삼기에는 다소 주저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처럼 모국어로서의 조선어와 외국어로서의 일본어가 당연시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재일동포에게 이러한 언어 감각은 이상적인 것으로 존재할 뿐 실제적 언어생활의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부터 그의 언어 의식은 표면화된다. 즉 "감각적으로 일본어가 '외국어'일 수가 없다는 정말로 기묘한, 심정적으로 말하면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일동포의 현실이므로, 일본어로 쓴다는 것은 "조선인이라는 자기 확인"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의식화의 방향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정립이 일본 작가와 다른 재일동포 작가의 위치이고, 일본어라는 개별성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재일동포의 일본어 창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국어에 대한 집요한 의식과 통찰 없이 재일동포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재일동포 작가는 비록 일본어로 글을 쓰더라도 가장 '조선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석범과 더불어 재일동포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는 김시종[27]이 있다. 김시종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 국가의 경계에 있는 재일동포의 위치를 직시함으로써 '재일'의 실존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즉 이데올로기에 깊이 연루된 재일동포 사회에서 언어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재일조선인이 지닌 '일본어'는 '재일조선인어'로서의 '일본어'"[28]가 되어야 한다

---

25) 김석범, 위의 글, 오은영 옮김, 위의 책, 67~68쪽.19) 강순, 『강순 시집』, 조선신보사, 1964, 292~293쪽.

26) 김석범의 한글 소설로는, 『꿩 사냥』(1961), 『혼백』(1962), 『어느 한 부두에서』(1964), 한글 『화산도』가 있다. 김동윤 엮음, 『혼백』, 보고사, 2021 참조.

27) 김시종은 1929년 부산에서 태어나 1935년 제주도로 이주하였고, 1942년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줄곧 제주도에서 성장했다. 제주 4.3 항쟁에 가담했다가 1948년 5월 '우편국 사건' 실패 후 검거를 피해 은신하며 지내다가 이듬해 일본으로 밀항하여 일본공산당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 조직 운동에 참여했다. 1950년 『신오사카신문』에 일본어 시 『꿈같은 일(夢みたいなこと)』을 발표했고, 1951년 『조선평론』 창간호에 『유민애가(流民哀歌)』를 발표했으며, 1953년 2월에는 조직의 지시에 의해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을 결성하고 시 전문 서클지 『진달래(チソダレ)』를 창간했다. 특히 『진달래』는 1955년 5월 총련 결성 이후 좌파 재일조선인 운동의 방침이 크게 전환되면서 북한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조직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되어 1958년 10월 20호로 종간되었다. 1955년 첫 시집 『지평선』, 1957년 두 번째 시집 『일본풍토기』를 발간했지만, 세 번째 시집으로 기획되었던 『일본풍토기Ⅱ』는 『진달래』 문제로 〈총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원고마저 분실하여 발간하지 못했다. 1970년 『니이가타』를 출간하면서 다시 시 창작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는데, 『삼천리』에 연재했던 『이카이노 시집』(1978)을 비롯하여 『광주시편』(1983), 『들판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등을 지속적으로 출간했다.

고 보았다. 재일동포의 이중언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일본어를 무기로 일본어에 저항하는, 일본어이지만 정통의 일본어가 아닌 '재일조선인어'로서의 일본어라는 저항적 언어를 구사하는 시적 전략을 정립했다.

김시종은 "일본이 패함으로써 조선인으로 되돌아가 소위 '해방된' 국민이 되긴 했으나, 종전이 될 때까지 나는 제 나라의 언어 '아' 자 하나 쓸 줄 모르는 황국 소년이었습니다."[29]라는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 사회가 처한 자기모순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데서부터 재일동포 문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보통학교 2학년까지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 정도 조선어를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에게 '국어'는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해방 이후 "그야말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심정으로 제 나라의 언어를 '가나다'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사고의 선택이나 가치 판단이 조선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에서 분광되어 나"[30]오는 자기모순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재일동포의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시종은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본어를 무너뜨리는, 일본어이면서도 일본어가 아닌 '재일조선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인으로 굳어지는 감성과 사유를 전복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했는데, "일본어로 일본어에 보복을 자행하는 독특한 형태"로서의 "이단의 일본어"[31]가 바로 그것이다.

> 나빠지게 몸에 감춘 야박한 일본의 아집을 쫓아내고, 더듬더듬한 일본어에 어디까지나 사무쳐서 숙달한 일본어에 잠기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껴안고 있는 나의 일본어에 대한 보복입니다. 나는 일본에 보복할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익숙한 자기에 대한 보복, 내 의식의 밑천을 차지하는 일본어에 대한 보복, 이런 보복이 결국에는 일본어의 내림을 다소나마 펼쳐서, 일본어에 없는 일본어의 기능을 갖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일본어에 대한 오랜 보복은 그때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32]

김시종에게 '재일조선인어'로서의 일본어는 "숙달한 일본어에 잠기지 않는", "일본어에 없는 일본어의 기능을 갖"춘, "일본어에 대한 보복"을 실천하는 저항적 언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본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인의 의식과 감성에 동화되지 않는, 일본어의 규범을 위반하거나 이화하는 언어이다. 즉 의도적으로 가장 일본어답지 않은 일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어에 대한 보복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4. 재일동포 문학과 언어의 중층성

현재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부르는 명칭으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자이니치 등 여러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일동포 사회는 남북 분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곳으로, 국적, 이념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세대의 변화에 따른 경험과 민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중층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물론 재일동포 사회에 확정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이질성과 다양성이 혼재되는 재일동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즉 특정 이념과 국가의 구속을 넘어서 재일동포 사회 그 자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일동포의 주체적 관점과 시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재일동포 문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이데올로기, 언어와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말과 일본어라는 언어의 귀속 여부로 재일동포 문학을 규정해온 그동안의 연구 관점이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념적 경직성으로 재일동포 문학에서 우리말을 지켜온 작품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도

---

28) 김시종, 윤여일 옮김,『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 295쪽.
29) 김시종, 『내 안의 일본과 일본어』, 『아시아』 2008년 봄호, 101쪽.
30) 김시종, 위의 글, 101~102쪽.
31) 김시종, 유숙자 옮김, 『경계의 시』, 소화, 2008, 8쪽.
32) 김시종, 『나의 문학, 나의 고향』, 『제주작가』 2006년 하반기호, 88쪽.

적절하지 못한 태도였다. 이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어와 모국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구분과 경계로 재일동포 문학을 규정하려 한다면 사실상 재일동포 문학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는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재일동포 문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물론 일본 내의 독자층의 협소함으로 모국어 창작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재일동포 문학이 모국어라는 주체적 언어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성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본어적인 조선어'와 '조선어적인 일본어'의 혼재를 '재일조선인어'의 특징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언어 의식에 내재된 저항과 공존의 전략을 재일동포 문학의 특수성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일동포 문학에서 모국어를 사용한 창작 활동은 해방 이후 점점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재일동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으로, 재일 1세대 이후 세대의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민족교육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서 모국어의 회복을 통해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종주국 일본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현실적 한계에 맞서 스스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일동포로서 일본어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쓰기와 창작 활동에 대해 서만큼은 의식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는 재일동포 문학 창작 대부분이 일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남한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재일동포 문학 작품 대부분이 일본어 작품을 번역한 것이라는 점은, 재일동포 문학과 모국어라는 당위적 주제와 실제 현실 사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일동포 문학의 언어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의 문제는 '저항'의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공존'의 측면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들의 모국어 의식과 일본어 사용의 간극과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재일동포 문학에서 모국어의 문제를 논의하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일동포 문학에서 모국어와 일본어의 공존은 재일동포 사회의 이중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생활 언어로서 일본어에 익숙한 재일동포 대부분이 모국어의 사용에 서툴거나 모국어 창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제의 조선어 교육 폐지 이후 제도교육을 통한 우리말 교육이 거의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일본에서 생활했던 재일동포에게 일본어 사용은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총련〉 결성 이후 우리말 창작을 강령으로 채택한 조직의 방침은 재일동포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방적 강요가 되었고, 그 결과 상당수의 재일동포 문인들이 〈총련〉을 이탈하여 일본어 창작으로 전환함으로써 모국어와 일본어의 대립을 넘어선 '공존'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재일 3세대 이후 더욱 전면화되어 지금 재일동포 사회에서 모국어 창작은 극히 소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이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굳이 '일본어'가 아닌 '재일조선인어'라고 명명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통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에 저항하는 일본어로서 재일동포 문학이 지향하는 '공존'의 언어 의식은 재일동포 문학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The dual-language reality and linguistic consciousness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Ha, Sang-il
(Dong-eui University)

The main debate in discussions about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since liberation has centered around the ideologies rooted in language, ethnicity, and nation, and their relevance to literary works. This perspective biases understanding of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through external perspectives defined by North and South, rather than viewing it from within as a subjective viewpoint.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contains internal complexities that defy uniformity based on specific languages, generations, and ideologies, with the most contentious issue being the dual-language reality of using both Korean and Japanese.

The linguistic patterns in Korean-Japanese diaspora society can be categorized into cases where the mother tongue (Korean) matches or mismatches with the native language. The former pertains to the first generation born in colonial Korea and later liberated in Japan, while the latter includes those born in Japan post-liberation who have always lived there, and those born in colonial Korea who received Japanese education and practically do not know Korean. Generally, the mother tongue and native language are often mixed without discrimination of meaning, yet in Korean-Japanese diaspora society, distinguishing between them is necessary. The term "mother tongue" often emphasizes the identity between language and country or the association of language use with national or ethnic identity, but in current Korean-Japanese diaspora society, rather than alignment, the predominant case is mixing, making language a highly debated issue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For Korean-Japanese diaspora, using Korean as a mother tongue suggests a linguistic opposition to Japanese as the dominant language within Japan. Strategies that a minority language can adopt toward a dominant language appear as assimilation, coexistence, and resistance. Coexistence can be further divided into passive and active differences, resulting in four main scenarios: first, abandoning one's language and assimilating into the dominant language; second, resisting the dominant language through the ethnic language; third, passively using both the

dominant and mother languages; fourth, actively using both minority and dominant languages as a lingua franca.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language usage is limited to these three scenarios of assimilation, resistance, and coexistence. Additionally, as a special situation, the issue of translated works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is related to the ideology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e creative activities of using the mother tongue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have been aimed at preserving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Japanese, who have been gradually assimilated into Japanese society since liberation. It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will to resist oneself against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living in the colonial power Japan. Even if they admit the inevitability of using Japanese as Korean-Japanese, they strategically choose to use their mother tongue consciously in writing and creative activities.

The coexistence of the mother tongue and Japanese in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faithfully reflects the bilingual reality of Korean-Japanese diaspora society. Most Korean-Japanese diaspora members are familiar with Japanese as a daily language, and the reason for their lack of proficiency or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their mother tongue itself can be found there. Choosing the coexistence method, which recognizes and accepts the appearance of Korean-Japanese diaspora society in a bilingual reality beyond the confrontation of the native and Japanese languages, reflects the reality that Korean-Japanese diaspora literature has been performed in a very small minority since the third generation. Therefore, it aims to achieve the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as a form of resistance to Japanese as a truly classical language.

◆ 토론 5



오 은 영

제주대학교 교수

현)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전) 아이치슈쿠토쿠대학 상근강사 등

·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 : 김석범 작품을 중심으로』(선인),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박문사, 공저), 『〈戦後文学〉の現在形』(平凡社, 공저), 『언어의 굴레(ことばの呪縛)』(보고사, 역저) 등

· 「총련 기관지에 나타나는 '치마 · 저고리'의 표상 —1950년대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 「1960년 전후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활동—총련 기관지(紙)를 중심으로—」, 「타자에 의해 쓰이는 전쟁 기억의 형상화—후카자와 우시오의 『비취색 바다를 향해 노래한다』를 중심으로—」 등

“재일동포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과 언어 의식”에 대한 토론문

오 은 영

제주대학교 교수

1. 재일조선인(문학)

・남북분단으로 인해 총련, 민단, 중립입장, 일본,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소련, 중국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상당히 어려운 연구 분야.

→ 국적, 이념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정체성 혼란으로 재일동포 사회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정의하기 어려운 분야.

⇒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모순점이 많다.

・재일조선인(문학) < 조선어 (＊총련 – 문예 방침 – 조선어 강요)
일본어

→ 외부의 시선, 관점은 흑백으로 나누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 발표자–재일동포 문학의 독자성(개별성)과 특수성에 주목 ☜ ‘공존’의 언어의식

● 총련계 조선어 작품

・일본학에서 소외/외면(인문학, 사회과학 등)

⇒ 조선어라서? / 총련계라서? / 총련계 작가의 조선어 작품 존재 여부를 몰라서?

・일본어보다는 조선어 작품의 질적 수준이 낮다

⇒ 총련 기관지(『해방신문』 등)의 연재소설

⇒조선어를 ‘강요’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모순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갈등, 총련과 민단(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갈등)

● 일본에서 조선어와 일본어로 발행되는 작품 모두를 ‘재일조선인문학’의 범주에 두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총련계 작가와 민단계 작가

● 총련계

・허남기의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조국에 바치여』, 평양출판사, 1992)
・정화수의 「쑥은 쑥국이요」(『종소리』, 문예동(?), 2006)
● 민단계
・김윤의 「어머니의 목소리」 (『멍든 계절』, 현대문학사, 1968)
⇒ 총련의 허남기, 정화수, 민단의 김윤을 비교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 상기의 시인을 비교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① 총련의 산하에 '문예동'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민단에는 없다.
② 세 작가 또는 시인의 작품 발행 시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③ 총련에도 '어머니'를 다루는 작품이 있다.
④ 김윤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국에서 발행된 작품?
・총련의 산하에 '문예동'이라는 단체가 있고 여기에 허남기, 정화수(?)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문예동'의 강령(방침)을 따라 작품을 창작한다.
・반면 민단 산하에는 '문예동' 같은 문화단체가 없다. 민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반공'이 우선시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3. 재일조선인문학과 언어의 중층성

・명칭-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등.
(민단-재일한교(在日韓僑), 재일한포(在日韓胞), 재일한민족(在日韓民族) 등)
・중층적인 양상-남북 분단, 국적, 이념/세대의 차이 등
・재일조선인(문학)의 이질성,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
・정체성(조선인, 한국인, 일본인)
・일본어, 조선어/한국어, 일본적인 조선어, 조선어적인 일본어
⇒ 제주어, 경상도 등 여러 방언과 일본어가 섞여 있다.
⇒ 재일조선인의 언어를 '크레올언어(creole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석범『언어의 굴레(ことばの呪縛)』

「말의 주박(ことばの呪縛, 언어의 굴레)」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어의 굴레를 느끼지 않는 작가는 없겠지만 재일조선인 작가는 그것을 이중으로 갖는다. 나는 우선 일본어와의 관계에서 굴레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모순되는 의식의 지속이, 또 자신을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굴레에 얽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한다는 작업의 지속이기도 하다. 결국 재일조선인 작가가 그 작가로서의 자유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어의 틀 안에서 자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말의 메커니즘 논리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인 작가의 경우와 다른 하나의 전제라 해야 할 것이다.(280쪽)



